I The 20th Anniversary I

CONSTRUCTION VISION FORUM

20 ANNIVERSARY Years

2003-2023

창립 20주년

건설산업비전포럼

CVF 건설산업비전포럼
CONSTRUCTION VISION FORUM

창립 20주년

건설산업비전포럼

CVF 건설산업비전포럼
CONSTRUCTION VISION FORUM

목차

008 발간사
009 축사
010 20주년 연표
014 건설산업비전포럼 역대 공동대표
016 비전
018 토론회 후기
270 선진화 활동
282 연혁
284 현재·역대 임원 명단

토론회 후기 세부목차

018 제1차 조찬토론회 건설산업비전포럼 구성 방안
019 제2차 조찬토론회 영국 건설산업의 혁신전략과 성공 사례
020 제3차 창립총회 한국 건설산업의 당면과제와 바람직한 건설정책 방향
021 제4차 조찬토론회 일본의 부동산 버블붕괴와 한국 부동산 시장 비교
022 제5차 조찬토론회 참여정부의 건설정책 방향
023 제6차 조찬토론회 한국의 문화와 건설산업
024 제7차 조찬토론회 한국 건설산업의 조달제도 현황과 정책방향
025 제8차 국내세미나 해외건설 활성화를 위한 大討論會
026 제9차 조찬토론회 건설인들이 보는 한국 건설산업에 대한 문화와 인식
027 제10차 조찬토론회/정기총회 법·제도를 통한 공공건설 사업관리 현황과 발전방향
028 제11차 조찬토론회 방송인이 본 건설산업
029 제12차 조찬토론회 2004년 건설교통 정책
030 제13차 주제토론회 주택/부동산 규제 이대로 좋은가
031 제14차 조찬토론회 한국 건설산업의 장기비전 2025
032 제15차 국제세미나 한국 건설산업 혁신의 조건
034 제16차 조찬토론회 일본의 나라 만들기 100년 구상과 시사점
035 제17차 주제토론회 부동산 거품과 한·일 경제상황 비교
036 제18차 조찬토론회 국가 재정운영과 건설교통분야 미래환경 변화
037 제19차 주제토론회 최저가 낙찰제의 허상과 실상
038 제20차 조찬토론회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평가
039 제21차 조찬토론회/정기총회 2005년 건설 부동산 경기전망
040 제22차 조찬토론회 건설산업 규제 합리화 방안
041 제23차 주제토론회 민간투자사업 (BTL)시행방안
042 제24차 조찬토론회 21세기 서울시 도시개발 정책
043 제25차 조찬토론회 인천경제자유구역의 비전과 개발전략
044 제26차 국내세미나 삼풍사고의 교훈과 건설안전의 과제
046 제27차 조찬토론회 건설분쟁의 현황과 방지방안
047 제28차 조찬토론회 우리건설산업의 현주소
048 제29차 국내세미나 8.31부동산 대책이 건설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049 제30차 조찬토론회 건설산업의 미래
050 제31차 조찬토론회 건설산업의 혁신전략
051 제32차 조찬토론회 대한주택공사의 U-City 개발동향과 공영개발 및 주거복지
052 제33차 조찬토론회/정기총회 2006년 경기전망과 건설산업의 미래 발전방안
053 제34차 조찬토론회 국토 정책 과제와 공공의 역할
054 제35차 조찬토론회 건설기술 · 건축문화 선진화 과제
055 제36차 조찬토론회 건설교통 정책방향
056 제37차 주제토론회 100년앞을 내다본 미래도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구상
057 제38차 국내세미나 건설산업의 혁신을 위한 정부의 역할과 과제
058 제39차 조찬토론회 댐 건설을 통해 본 우리나라 건설산업과 환경
059 제40차 조찬토론회 한국철도 시설공단 혁신 사례
060 제41차 주제토론회 분양가 공개 무엇이 문제인가
061 제42차 주제토론회 2007년 국내외 경제전망
062 제43차 조찬토론회/정기총회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
063 제44차 조찬토론회 국제화를 위한 도심 초고층빌딩 건립사업
064 제45차 조찬토론회 정부조달 정책방향과 정부공사제도 개선방안
065 제46차 조찬토론회 창의경영 이야기
066 제47차 조찬토론회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추진 입법안
067 제48차 국제세미나 일본의 버블 극복 사례를 통해 본 한국 건설산업의 위기 탈출 전략
069 제49차 조찬토론회 도전과 극복 - 딛고 일어선 것은 성공이 아니라 실패와 좌절이었다
070 제50차 조찬토론회 건설산업에 있어서의 법치주의
071 제51차 조찬토론회 동계올림픽 유치의 교훈과 재도전 방안
072 제52차 국내세미나 차기 정부가 지향 해야 할 국가 건설 정책
074 제53차 조찬토론회 대북사업의 현황과 전망
075 제54차 조찬토론회/정기총회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
076 제55차 조찬토론회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엽니다
077 제56차 국내세미나 한국경제 과거 10년 한국건설 미래 5년 구상
078 제57차 조찬토론회 Principles of DESIGN SEOUL
079 제58차 조찬토론회 행복한 도시 만들기
080 제59차 조찬토론회 Great Work Place (일하기 좋은 일터) 운동과 성과창출
081 제60차 조찬토론회 부산의 비전과 발전 전략
082 제61차 조찬토론회 건설산업 관계법령 개폐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방안
083 제62차 국제세미나 영국건설혁신 10년 성과와 한국건설산업 선진화 추진전략
085 제63차 조찬토론회 도시개발사업 추진전략 및 성공사례
086 제64차 조찬토론회 한국의 고속도로 -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087 제65차 조찬토론회 주택정책의 변화와 주공의 역할
088 제66차 조찬토론회/정기총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정책 방향

089	제67차 조찬토론회	건설산업 선진화위원회 추진 경과와 성과
090	제68차 조찬토론회	문명을 주도한 건설과 글로벌 환경속의 교육과 연구
091	제69차 국내세미나	경제위기 극복과 신성장 동력 창출
093	제70차 조찬토론회	새만금과 경제 자유구역
094	제71차 조찬토론회	생명과 문화가 흐르는 강
095	제72차 조찬토론회	녹색성장과 4대강 살리기 사업
096	제73차 조찬토론회	우리나라의 부패실태와 개선방안
097	제74차 조찬토론회	원전산업 현황과 향후전망
098	제75차 조찬토론회	감사결과로 본 건설산업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099	제76차 조찬토론회	세종시의 기본계획과 자족성 확보방안
100	제77차 국제세미나	한국 건설산업의 건전성 확보와 글로벌 시장 확대 전략
102	제78차 조찬토론회/정기총회	미래국토 발전전략
103	제79차 조찬토론회	2010년 국토해양 주요정책 추진방향
104	제80차 조찬토론회	우리나라 원자력산업의 현주소
105	제81차 국내세미나	환경변화에 따른 건설산업의 전환
106	제82차 조찬토론회	2010년 2분기 이후 국내외 경제 및 금융시장 전망
107	제83차 조찬토론회	해외건설 현황과 진출전략
108	제84차 조찬토론회	북한미래, 한반도미래 시나리오
109	제85차 조찬토론회	하반기 부동산시장 전망과 정책방향
110	제86차 조찬토론회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의 경제동향과 대응방안
111	제87차 조찬토론회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의 철도 투자전략
112	제88차 국제세미나	건설산업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제세미나
113	제89차 조찬토론회	서울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
114	제90차 조찬토론회/정기총회	2011년 국토해양 정책방향
115	제91차 조찬토론회	대한민국, 성숙한 세계국가를 향하여 - 대 개도국 원조를 중심으로
116	제92차 조찬토론회	뭔가 다른 인천공항 무엇이 다른가 - 존경받는 기업을 향한 노력
117	제93차 주제토론회	중동·북아프리카 사태가 해외건설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향
118	제94차 국내세미나	건설시장의 미래 전망과 신성장 기회 모색
120	제95차 조찬토론회	경제수도 인천 발전전략
121	제96차 조찬토론회	일본 대지진의 교훈과 미래 환경변화의 대응
122	제97차 조찬토론회	세계 최강 한국 조선산업의 성공과 과제
123	제98차 주제토론회	건설산업과 조선산업의 융복합
124	제99차 조찬토론회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와 인프라 투자계획
125	제100차 국제세미나	글로벌 건설시장 전망과 진출확대 전략
127	제101차 조찬토론회	글로벌 환경변화와 건설산업 리프레임
128	제102차 조찬토론회	2012년 건설시장 전망과 주요이슈
129	제103차 주제토론회	2012년 건설시장 전망과 재도약을 위한 대응방안 모색
130	제104차 조찬토론회/정기총회	2012년 국토해양 정책방향
131	제105차 조찬토론회	건설산업과 2012년 공정거래정책 방향
132	제106차 조찬토론회	철도산업 개혁과 건설업 발전방향
133	제107차 조찬토론회	청렴사회와 윤리경영
134	제108차 국내세미나	한국 건설산업의 도약과 혁신을 위한 과제
135	제109차 조찬토론회	관광산업은 희망 산업입니다
136	제110차 조찬토론회	건설금융 선진화 방안
137	제111차 조찬토론회	융합의 시대, 혁신적 도시 - 서울
138	제112차 국내세미나	국민복지 향상과 경제성장의 원동력 건설산업 재창조
139	제113차 조찬토론회	미·중 복합시대의 생존번영전략
140	제114차 조찬토론회	박근혜정부의 인수위 건설정책과제
141	제115차 조찬토론회/정기총회	미래를 준비하는 국토해양 정책
142	제116차 조찬토론회	2013년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143	제117차 조찬토론회	건설산업 길을 묻다 - 한국건설산업의 생존전략
144	제118차 조찬토론회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
145	제119차 주제토론회	해외건설 진출 현황 및 개선방향
146	제120차 국제세미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건설산업의 역할
148	제121차 조찬토론회	역주변 도시개발
149	제122차 조찬토론회	건설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선
150	제123차 국내세미나	한국건설산업의 생존전략 – 한국 건설산업의 길을 묻다
151	제124차 조찬토론회	통일에 대비한 국토분야의 과제
152	제125차 조찬토론회	2014년 글로벌 경제 전망과 건설산업에의 시사점
153	제126차 조찬토론회/정기총회	세계경제 위기와 대응 및 전망
154	제127차 조찬토론회	한반도 통일, 과연 가능한가?
155	제128차 조찬토론회	위기, 기회 통찰 New Wealth
156	제129차 조찬토론회	Blue Ocean으로 떠오르는 아프리카
157	제130차 조찬토론회	자원이 없는 나라의 국가 경영 '창조경제'
158	제131차 국제세미나	통일 한반도 국토개발 비전과 전략
160	제132차 주제토론회	해외 선도 건설사 사업모델 및 시사점
162	제133차 조찬토론회	건설시장의 동향 및 주요 정책 방향
163	제134차 국내세미나	공공안전을 위한 건설산업의 역할과 과제
164	제135차 조찬토론회	산·학·연 혁신과 강소기업 육성
165	제136차 조찬토론회	거주풍경 - 협력과 공존의 도시, 메타시티
166	제137차 조찬토론회/정기총회	에너지, 여건의 변화와 정책방향
167	제138차 조찬토론회	세계문화유산 제주도의 개발과 보존계획
168	제139차 주제토론회	저성장 극복을 위한 건설시장 활성화 방안
169	제140차 조찬토론회	토지·주택 패러다임 전환기, LH의 역할
170	제141차 국내세미나	안전한 선진사회 구현을 위한 국민대토론회
171	제142차 조찬토론회	한국철도의 미래를 여는 바람
172	제143차 주제토론회	한국의 해외건설 딜레마와 탈출구
174	제144차 국제세미나	미래의 국부창출, 스마트시티로 연다
176	제145차 조찬토론회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질서 확립을 위한 2015년도 정책 추진현황과 향후 과제
177	제146차 조찬토론회	한반도 통일과 건설산업
178	제147차 조찬토론회/정기총회	대규모 SOC사업의 투자 및 관리방향
179	제148차 조찬토론회	인도의 부상과 한국의 대처
180	제149차 주제토론회	한국 노후 인프라 시설의 실태와 당면과제
181	제150차 조찬토론회	국토교통 주요정책 추진방향
182	제151차 국내세미나	국내 개발사업의 패러다임을 바꾸자

184	제152차 조찬토론회	평창동계올림픽 추진현황
185	제153차 조찬토론회	국제인권보호체계와 기업의 인권경영
186	제154차 주제토론회	“건설, 새 판을 짜자”의 출간 기념 주제토론회
187	제155차 국제세미나	기후변화에 따른 건설산업의 도전과 기회
189	제156차 조찬토론회	Smart City/Infrastructure
190	제157차 조찬토론회	상상하지 말라. 그리고 관찰하라
191	제158차 조찬토론회/정기총회	국토교통부 건설 및 주택분야 주요정책 추진방향
192	제159차 주제토론회	새정부에 제안하는 건설정책 방향과 과제
193	제160차 조찬토론회	최근의 국내외 정세
194	제161차 조찬토론회	Recent development in North Korean infrastructure and consequences for Korean unification
195	제162차 국내세미나	글로벌 M&A를 통한 해외건설 경쟁력 강화전략
196	제163차 조찬토론회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데이터로 이루는 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197	제164차 조찬토론회	LH의 변화와 새로운 도전
198	제165차 조찬토론회	국토교통 주요정책 추진방향
199	제166차 국제세미나	스마트시티와 제4차 산업혁명
201	제167차 조찬토론회	4차 산업혁명과 KEPCO(한국전력공사)의 디지털화
202	제168차 조찬토론회	건설산업비전포럼 회원이 바라는 건설산업의 모습
203	제169차 조찬토론회/정기총회	4차 산업혁명과 건설산업의 대응방안
204	제170차 조찬토론회	블록체인과 거래혁명
205	제171차 주제토론회	발주자 책임강화 기반의 건설안전
207	제172차 조찬토론회	건설산업의 미래
208	제173차 국내세미나	건설 일자리 창출, 어떻게 할 것인가?
209	제174차 조찬토론회	4차 산업혁명 정책방향
210	제175차 조찬토론회	4차 산업혁명 시대의 Smart Logistics
211	제176차 주제토론회	4차 산업혁명의 시대의 국가 인프라 투자 전략 모색
213	제177차 조찬토론회	인구변화와 미래기획
214	제178차 국제세미나	A New Stage of Construction in Japan : i-Construction
215	제179차 조찬토론회	대한민국 건설산업의 모습
216	제180차 조찬토론회/정기총회	청렴한 사회, 어떻게 만들 것인가
217	제181차 조찬토론회	건설산업의 환경변화와 한국건설기술연구의 새로운 도전
218	제182차 주제토론회	엔지니어링산업의 미래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
219	제183차 조찬토론회	축적의 시간, 스케일업 혁명 : 한국 산업의 미래를 열어가는 키워드
220	제184차 국내세미나	글로벌 건설시장, 차별화별 사업모델로 승부하자
221	제185차 조찬토론회	사회주의 도시 평양, 변화하는 평양
222	제186차 조찬토론회	스마트시티의 이해, 배경 및 쟁점
223	제187차 국제세미나	The Direction of Digital Innovation for Future Construction
225	제188차 조찬토론회	북한 건설산업의 현실과 한반도의 정세
226	제189차 주제토론회	건설산업의 미래, 답을 찾다 기획 연구토론회
227	제190차 조찬토론회	2020 공간트렌드 변화와 건설산업의 지향점
228	제191차 조찬토론회/정기총회	두산의 변신
229	제192차 조찬토론회	컴팩트 스마트시티 서울
230	제193차 조찬토론회	프리콘: 시작부터 완벽에 다가서는 일
231	제194차 주제토론회	정부 주택정책의 대안을 제시한다
232	제195차 조찬토론회	한국 철도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233	제196차 조찬토론회	코로나19 동반시대 : 2021년 국내외 경제와 경영환경 전망
234	제197차 국내세미나	건설산업의 미래비전과 발전전략
236	제198차 조찬토론회/정기총회	건설산업비전포럼의 발전방안
237	제199차 조찬토론회	부처와 공자의 만남
238	제200차 주제토론회	정부 주택정책 이렇게 가야한다
239	제201차 주제토론회	The Direction of Digital Innovation for Future Construction
240	제202차 국내세미나	바이든 정부의 미국 건설정책과 우리의 진출방안
241	제203차 조찬토론회	스마트 그린시티, 서울시 강남북 고속도로 입체화 계획
242	제204차 주제토론회	영국건설시장, 한국 건설기업에게 매력적인가?
243	제205차 조찬토론회	프롭테크 미래와 직방의 비전
244	제206차 조찬토론회	ESG투자 확산과 기업의 대응 전략
245	제207차 국제세미나	발주자 혁신이 건설산업 혁신의 출발점이다
247	제208차 조찬토론회	주역 이야기
248	제209차 주제토론회	건설프로젝트에서 전문가를 어떻게 활용하는가?
249	제210차 조찬토론회/정기총회	국토교통 주요정책 추진방향
250	제211차 조찬토론회	기후변화가 만드는 변화
251	제212차 조찬토론회	해외 수주 지원 확대를 위한 KIND 혁신 전략
252	제213차 조찬토론회	부동산 정책의 평가와 과제
253	제214차 국내세미나	국내 건설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 방안
255	제215차 조찬토론회	건설사고 방지와 품질보증에 대한 소고
256	제216차 조찬토론회	건설관련 분쟁에 있어서 중재제도의 활용과 대한상사중재원의 역할
257	제217차 조찬토론회	국토교통 주요 정책 추진 방향
258	제218차 주제토론회	건설산업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어디까지 왔나?
260	제219차 국제세미나	영국의 원자력 발전 현황과 한·영 협력방안
262	제220차 주제토론회	중대 재해 처벌법 제대로 추진되고 있나?
263	제221차 조찬토론회	건설산업은 왜 시민의식을 가져야 하는가?
264	제222차 조찬토론회/정기총회	최근 경제 상황 및 정책 방향
265	제223차 조찬토론회	대한민국, 선진국의 조건
266	제224차 조찬토론회	변화의 물결, 도시와 주택의 미래
267	제225차 조찬토론회	건설산업 지속가능 생산성 향상과 세계 1위, 대한민국 조선산업 생산기술
268	제226차 조찬토론회	혁신이 현실이 되는 곳, NAVER 1784

발간사

건설산업의 발전과 미래 비전을 창출하기 위해 산·학·연 오피니언 리더를 중심으로 출범한 건설산업비전포럼이 창립 2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포럼과 함께한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포럼은 건설산업의 발전과 혁신을 추구하고 건설이 국가 경제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하였습니다. 매월 개최되는 토론회에 국가의 선도적인 리더와 최고경영자들을 초청하여 190회의 매우 뜻있는 모임을 가졌으며 국내·외 전문가를 초청한 국제세미나 15회, 국내세미나 21회를 개최하여 리더그룹의 중지를 모아 건설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하였습니다.

포럼은 산업과 기술의 병폐를 쇄신하고 혁신을 리드하기 위해 총 14권의 책자를 발간하였습니다. 미국, 영국, 일본 및 중국의 건설 혁신운동을 연구하고 대한민국의 건설제도 및 정책의 문제점을 정확히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포럼 회원 35명이 함께 집필한 "건설의 길을 묻다"와 23인의 전문가가 참여한 "건설 새판을 짜자"는 시장과 산업이 처한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고 미래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여 업계의 공감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포럼은 건설정책 수립을 통한 산업의 혁신에도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명박정부 출범 시에는 "국민소득 4만불 시대를 여는 새정부의 건설정책"이라는 목표로 "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한 747 전략"을 제안했습니다. 박근혜정부에서는 "국민복지 향상과 경제성장의 원동력, 건설 산업 재창조"라는 목표 하에 새정부가 추진해야 할 20대 정책과제를 제안하여 주요 과제들이 정부정책에 반영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2008년 국토해양부 장관 발의로 구성된「건설산업선진화위원회」에는 우리 포럼의 김종훈 공동대표가 위원장으로, 총 100여 명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9개월간의 산고 끝에 「건설산업 선진화 비전 2020」을 제시하였습니다. 2011년에는 국토해양부 장관과 함께 우리 포럼의 이성우 공동대표가 공동위원장을 맡은「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가 발족되었습니다. 정부의 주요 인사, 공공기관장 및 건설업계의 대표적 인사 등 21명이 참여한 위원회는 건설산업 이미지 제고, 발주자 및 원.하도급자간 공생 발전방안 마련하고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국가 건설정책 수립의 근간이 되었으며, 실제 법.제도개선에 상당수가 반영되는 탁월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건설산업비전포럼은 지난 20년간의 활동을 기반으로 새로운 20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산업의 발전을 넘어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혁신 전략을 제시하는 오피니언 리더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립니다. 건설 리더그룹의 피와 땀의 결실인 국토인프라가 국민생명과 재산보호,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및 정책혁신에 노력할 것이며 디지털 생태계로 전환하는 시대에 건설이 글로벌 대표산업이 되어 일자리와 부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리드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첫째, 국민이 외면하는 건설의 과거와 현재를 반성하고 미래 혁신과제를 발굴할 것이며 둘째, 새로운 생태계 창조를 위한 정책과 전략을 개발할 것입니다. 셋째, 산업을 넘어 국민들이 만족할 때까지 정책과 제도 및 산업 이미지를 개선하는데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세계는 강대국의 충돌과 지정학적 갈등으로 분쟁이 확대되고 있으며 천재지변은 물론 검은 코끼리(black elephant)로 비유되는 기후변화는 자연을 파괴하고 인간의 삶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건설산업은 이러한 문제해결에 선봉이 되어야 합니다. 미래건설은 4차 산업혁명으로 더욱 기술집약적이고 혁신적이며 글로벌하며 통합적인 형태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포럼은 국가 건설산업이 글로벌시장의 변화를 선도하며 세계 TOP 4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며, 국민이 공감하고 청년층이 찾아오는 산업이 될 수 있도록 건설의 가치를 재창조하는데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건설산업비전포럼이 창립 20주년을 맞아 지난 활동들을 정리한 자료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해 포럼을 창립하고, 이끌어주신 전임 대표님들과 함께해 주신 모든 회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포럼은 지난 20년의 활동을 토대로 더욱 발전하여 건설분야 오피니언 리더로서의 역할을 배가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건설산업이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글로벌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회원여러분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건설산업비전포럼 공동대표
강 호 인 · 김 선 규 · 이 현 수

축사

건설산업비전포럼 창립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03년, 건설산업의 산학연관 오피니언 리더들의 자발적인 모임으로 출범한 건설산업비전포럼은 지난 20년 동안 건설산업 혁신과 기술 발전을 선도하며 국민 삶과 경제발전에 이바지해왔습니다.

총 230회에 달하는 토론회와 국내외 세미나로 산업계에 기술, 정책, 경영환경의 변화상을 전파하였고, 건설산업 정책과 제도의 부족한 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개선책도 모색했습니다. 아울러 다수의 발간물을 통해 미국, 영국, 일본, 중국의 건설산업 현황과 발전전략을 분석해 국가 건설산업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왔습니다. 포럼의 한결같은 열정과 헌신적인 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설은 주택건설을 통해 국민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도로, 철도, 공항, 항만과 같은 사회기반시설의 대규모 공사로 일자리 창출과 경제발전을 선도하는 국가 기간산업입니다. 하지만 국내외 산업 여건의 변화와 기술의 첨단화, 융복합화가 가속화되면서 단순한 양적성장은 한계에 이르렀고 구조적 문제로 인한 건설산업 경쟁력도 저하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근래 발생하고 있는 산업 구성원 간의 갈등, 안전사고, 품질 저하, 전문인력 부족과 같은 문제들은 건설산업의 위기를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은 정부 단독으로만 해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산학연의 끊임없는 소통과 상호 이해를 기반한 공동의 노력이 우선 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건설산업비전포럼이 상호 이해관계를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조율하고 모든 주체들의 단합을 이끌 방안을 제안해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 건설산업이 세계시장으로 확대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해외 건설시장의 수요 증가와 고유가를 기반으로 한 사우디 네옴 프로젝트 같은 중동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전망되면서 해외시장은 새로운 기회의 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저도, 원팀코리아의 단장이 되어 아시아, 중동, 유럽을 쉴 새 없이 오가며 세계시장 진출 확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산업의 디지털화·자동화를 추구하는 스마트건설을 통해 현장작업·기능인력 중심의 건설산업을 미래형 기술주도 산업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관련 기업, 연구 기관과 함께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를 구성하여 민간에서 건설 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 건설산업비전포럼의 참여가 더해진다면 다가올 디지털 전환 시대의 건설산업은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시 한 번 창립 20주년을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국토부의 핵심 동반자로 나란히 걸어 나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원 희 룡

20 Years of CVF

2003.06.10. 건설산업비전포럼 창립총회

2003.07.10. 건설산업비전포럼 총서 1 발간
《미국 건설산업 왜 강한가?》

건설산업비전포럼 총서 2 발간
《영국 건설산업의 혁신전략과 성공사례》

2003.11.19. 〈국내세미나〉
해외건설 활성화를 위한 대토론회

2003.12.05. 건설산업비전포럼 총서 3 발간
《한국 건설산업 대해부》

2004.06.25. 〈국제세미나〉
한국 건설산업 혁신의 조건

2005.06.24. 〈국내세미나〉
삼풍사고의 교훈과 건설안전의 과제

2005.09.27. 〈국내세미나〉
8·31 부동산 대책이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2005.11. 건설산업비전포럼 총서 4 발간
《미국의 설계 경쟁력 어디에서 오나?》

2006.01. 건설산업비전포럼 총서 5 발간
《코리안 스탠드에서 글로벌 스탠다드로》

2006.04. 건설산업비전포럼 총서 6 발간
《삼풍사고 10년 교훈과 과제》

2006.06.22. 〈국내세미나〉
건설산업의 혁신을 위한
정부의 역할과 과제

2006.10. 건설산업비전포럼 총서 7 발간
《발주자가 변하지않고는 건설산업의 미래는 없다》

2007.06.08 〈국제세미나〉
일본의 버블 극복
사례를 통해 본
한국 건설산업의
위기 탈출 전략

2007.08. 건설산업비전포럼 총서 8 발간
《일류 발주자가 일등 건설산업 만든다》

2007.11. 건설산업비전포럼 총서 9 발간
《일본 건설산업의 생존전략》

2007.11.08. 〈국내세미나〉
차기정부가 지향해야할
국가 건설 정책

2007.12. 건설산업비전포럼
총서 10 발간
《중국 건설산업의
현황과 진출전략》

2008.03.25. 〈국내세미나〉
한국경제 과거 10년
한국건설 미래 5년 구상

2008.04. 건설산업선진화위원회 출범
(위원장:김종훈 한미글로벌 회장)
- 글로벌 스탠다드의 도입과 정착

2008.09.26. 건설산업선진화위원회
-"건설산업 선진화 비전 2020" 발표

2009.01. 〈국제세미나〉
영국 건설혁신 10년 성과와
한국건설산업의 선진화 추진전략

2009.04.22. 〈국내세미나〉
경제위기 극복과 신성장 동력 창출

2009.12.15. 국민권익위원회와 부패방지 및
투명성 제고 업무협약 체결

2009.12.16. 〈국내세미나〉
한국 건설산업의 건전성 확보와 글로벌시장 확대전략

2010.04.28. 〈국내세미나〉
환경변화에 따른 건설산업의 전환

2010.11.04. 〈국제세미나〉
건설산업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제세미나

2011.04.27. 〈국내세미나〉
건설시장 미래전망과 신성장 기회 모색

2011.10.18.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출범
공동위원장: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이성우 국민대학교 총장

2011.10.20. 〈국제세미나〉
글로벌 건설시장 전망과
진출확대 전략

2012.05.23. 〈국내세미나〉
한국 건설산업의 도약과
혁신을 위한 과제

2012.09. 《새정부에 바라는
건설정책과제》 발행
- 국민복지 향상과
경쟁성장의 원동력,
건설산업 재창조

2012.10.31. 〈국내세미나〉
새정부에 바라는
건설정책과제

2013.06.13. 〈국제세미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건설산업의 역할

2013.10.29. 〈국내세미나〉 한국건설산업의 생존전략

2013.10.29. 건설산업비전포럼 총서 11 발간
《35명의 전문가에게 건설의 길을 묻다》

2014.03.05. 건설산업비전포럼 총서 12 발간
《발주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턴키제도의 진실》

2014.06.12. 〈국제세미나〉 통일 한반도 국토개발 비전과 전략

2014.10.29. 〈국내세미나〉 성수대교 붕괴 20년 : 한국호는 안전한가?

2015.05.27. 〈국내세미나〉 안전한 선진사회 구현을 위한 국민대토론회

2015.10.29. 〈국제세미나〉 Smart City & Infrastructure

2016.05.25. 〈국내세미나〉 국내 개발사업의 패러다임을 바꾸자

2016.08.24. 건설산업비전포럼 총서 13 발간
《건설, 새 판을 짜자》

2016.10.27. 〈국제세미나〉
기후변화에 따른 건설산업의 도전과 기회

2017.04. 《새정부에 제안하는 건설정책
방향과 과제》 발행

2017.05.18. 〈국내세미나〉 글로벌
M&A 를 통한 해외건설
경쟁력 강화전략

2017.10.17. 〈국제세미나〉
스마트시티와 제4차 산업혁명

2018.05.29. 〈국내세미나〉
건설 일자리 창출, 어떻게 할 것인가?

2018.11.28. 〈국제세미나〉
A New Stage of Construction in Japan :
i-Construction

2019.05.29. 〈국내세미나〉 건설산업 미래 비전 심포지엄

2019.09.25. 〈국제세미나〉
The Direction of Digital Innovation for future Construction

2020.12.11. 〈국내세미나〉 글로벌 건설시장, 차별화된 사업모델로 승부하자

2021.05.26. 〈국내세미나〉 바이든 정부의 미국 건설정책과 우리의 진출방안

2021.07. 〈국제세미나〉
발주자 혁신이 건설산업 혁신의 출발점이다

2021.11.25. 《2030 건설산업비전》 발행

2022.05.25. 〈국내세미나〉
국내 건설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 방안

2022.07.20. 건설산업비전포럼 총서 14 발간
《인텔리전트 발주자, 건설산업을 바꾼다》

2022.11.23. 〈국제세미나〉
영국 원자력 발전현황과
한·영 협력방안

건설산업비전포럼 역대 공동대표

김건호 제2대 건설교통부 차관

임기: 2003.03-2009.01

- 대한건설진흥회 회장
- 제12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 한국공항공단 이사장

장승필 서울대학교 교수

임기: 2006.01-2010.01

- 대한토목학회 회장
- IABSE 한국지부 회장
- 서울시 도시시설안전관리공단 자문위원

이건영 건설부 차관

임기: 2003.03-2009.01

- 중부대학교 총장
- 국토개발연구원 원장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원장

이성우 국민대학교 총장

임기: 2009.01-2015.01

- 국민대학교 건설시스템공학부 교수
- 국민씨아이 대표이사
- 한국전산구조공학회 회장

김종훈 한미글로벌 회장

임기: 2006.01-2018.01

- 사회복지법인 따뜻한 동행 이사장
- 사단법인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회장
- 건설산업선진화위원회 위원장

정희용 청석엔지니어링 회장

임기: 2011.01-2012.01

- 한국건설감리협회 회장
- 서울지방법원 및 고등법원 조정위원
-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 부사장

이규방 국토연구원 원장

임기: 2006.01-2011.01

- 한국토지공사 고문
- 대통령비서실 경제비서관
- 국토개발연구원 수석연구원

김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임기: 2011.01-2017.01

- 법무법인 세창 대표변호사
-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 상임대표
-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정수현 현대건설 대표이사 사장

임기: 2012.01-2014.01

- 현대엠코 대표이사 사장
- 현대엠코 건축본부장
- 현대건설 건축사업본부 전무

한찬건 포스코건설 대표이사 사장

임기: 2018.01-2020.01

- 한미글로벌 경영총괄 부회장
- 제31대 대한체조협회 회장
- 대우인터내셔널 기계인프라본부장

김정호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임기: 2014.01-2016.01

- 한국주택학회 초대 회장
- 강원도립대학 총장
- 주거복지재단 이사장

박태원 두산건설 부회장

임기: 2020.01-2021.01

- ㈜한컴 부회장
- 중앙대학교 이사
- 두산건설 사장

권도엽 제2대 국토해양부 장관

임기: 2014.01-2018.01

- 국토해양부 제1차관
- 한국도로공사 사장
- 건설교통부 국토정책국장

강호인 제3대 국토교통부 장관

임기: 2021.01-현재

- 조달청 청장
- 기획재정부 차관보
-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국장

이상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원장

임기: 2017.01-2021.01

- 한미글로벌 사장
- KOTRA 해외수주협의회 회장
- GS건설 전략담당 겸 경영연구소장

김선규 호반그룹 회장

임기: 2021.01-현재

- 명지대학교 경영대학 석좌교수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 현대건설 영업본부장, 부사장

이현수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임기: 2016.01-현재

-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과 교수
- 대한건축학회 회장
- 한국건설관리학회 회장

건설산업비전포럼,
새로운 20년

20 ANNIVERSARY Years 2003-2023

건설산업비전포럼은?

다양한 분야의 산학연관에서 전문가들이 모여 국민의 삶과 국가경제 향상을 목적으로 창립된 민간주도 포럼입니다. 건설을 국민의 삶과 경제 발전을 견인하도록 비전과 혁신 전략을 제시하는 오피니언 리더그룹입니다.

한국건설의 가치

국토인프라가 국민 생명과 재산 보호,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역할

디지털 생태계로 전환 시
글로벌 대표산업이 되어 일자리와 부를 창조

비전 2050

국민이 공감하고 청년층이 찾아오는
대한민국 건설의 가치 재창조

행동 약속

국민이 외면하는 건설의 과거와 현재를
반성하고 미래 혁신 과제 발굴

새로운 생태계 창조를 위한 정책과 전략 개발

국민과 산업이 만족할 때까지
정책과 제도, 산업 이미지를 혁신

헌장

회원의 헌신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한 행동

소속 단체의 이익보다 국민 복리와
산업발전을 최우선으로 함

글로벌 시장에서 건설산업이
Top 4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

I The 20th Anniversary I
CONSTRUCTION VISION FORUM

건설산업비전포럼
토론회 후기

2003.04.16.(수)

1st

조찬토론회

건설산업비전포럼의 구성방안

제1차 정기모임에서는 건설산업비전포럼의 구성방안이 논의되었다. 우선, 김건호 前차관의 본 모임의 배경 및 취지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며, 모임의 구성 및 방향성에 대하여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본 모임에서는 건설산업에 애정을 가진 분들이 모인 만큼 모임의 취지를 살려, 매월 1회 정도의 모임을 갖기로 하고, 회원 수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모임의 명칭은 '건설산업비전포럼'으로 정하고, 포럼 구성의 준비를 담당하고 있는 김건호, 이건영, 이복남 회원이 모임의 회칙, 활동방향, 영입인사 명단 등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까지 제시키로 하였다. 건설산업비전포럼의 토대를 잡은 건설인 명단은 아래와 같다.

김건호 (前 건설교통부 차관)
선우중호 (명지대학교 총장)
이규방 (국토연구원 원장)
최병선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원장)
하진규 (대한토목학회 회장)
장승필 (서울대 교수)
양재찬 (중앙일보 부장)
박성표 (건설교통부 건설경제국장)
이복남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김예상 (성균관대학교 교수)
이건영 (前 건설부 차관)
김진균 (대한건축학회장, 서울대 교수)
이태식 (한국건설관리학회장, 한양대 교수)
이주형 (한양대학교 도시환경대학원장)
신임호 (매일경제신문 건설부동산부장)
황해성 (건교부 기술안전국장)
이상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김한수 (세종대학교 교수)
김종훈 (한미파슨스 대표)

2003.05.15.(목)

2nd

조찬토론회

영국 건설산업의 혁신전략과 성공사례

제2차 정기모임에서는 세종대학교 김한수 교수의 "영국 건설산업의 혁신전략과 성공사례"를 발표하였다.

영국은 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혁신운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미 긍정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공공 건설사업 조달시스템 개혁프로그램, Rethinking Construction 운동, 건설전략포럼(Strategic Forum for Construction), Foresight Program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건설재인식운동이라고 번역되는 Rethinking Construction은 1998년에 착수되어 정부, 발주자 및 건설산업계의 파트너십 구축과 Best Practice의 실천을 통해 영국 건설산업의 비효율성과 비생산성 요인을 제거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Rethinking Construction 운동은 1997년 발표된 Egan 보고서로 촉발되었으며, 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한 「5·4·7 전략」을 발표하였다. 「5·4·7 전략」에는 건설산업의 혁신적인 변화의 가능하게 하는 5대 개혁추진력과 4대 건설생산과정 개선부문 및 7대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7대 목표 중에는 매년 건설사업비와 공기를 10%이상 절감하고, 건설사의 매출 및 이윤을 10%이상 향상 시킨다는 혁신적인 목표가 선정되었다고 한다.

강연에 이어 참석자들은 포럼의 운영회칙을 협의하였으며, 매월 정기토론회를 개최하고 6월에는 회원을 추가로 초빙하여 창립총회를 개최키로 합의하였다.

2003.06.10.(화)

3rd

창립총회

한국 건설산업의 당면과제와 바람직한 건설정책 방향

제3차 정기모임은 건설산업비전포럼의 창립총회와 토론회의 목적으로 개최하였다. 창립총회에서는 명지대학교 선우중호 총장님을 고문으로 추대하고, 김건호, 이건영 前)건설교통부 차관 두 분을 공동대표로 추대하였으며, 이규방 국토연구원장, 김종훈 한미파슨스 대표, 김덕배 국회의원을 포함 총 59인이 발기인으로 참여하였다.

포럼은 한국건설산업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분석하고 개선을 통해 국가와 국민들에게 건설산업이 어떤 역할을 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건설산업을 한 단계 성숙시키기 위한 미래 비전 및 혁신전략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 그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건설산업의 혁신을 건설서비스의 수요자나 공급자 어느 한쪽을 희생시켜 얻어내기보다는 건설산업이 국민경제와 국가경제에 도움을 줌으로서 정당한 보상을 받도록 하는 상호승자(win-win)의 길로 유도한다는 창립취지를 발표하였다. 또한 총 14개조로 구성된 포럼의 정관을 채택하였으며, 포럼의 미래 발전을 위한 사명(Mission)과 헌장(Charter)도 함께 발표하였다.

참석자들은 한국 건설산업의 당면과제에 대한 토론해 이어 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국가 건설정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열띤 토론의 장을 가졌다.

2003.07.25.(화)

4th

조찬토론회

일본의 부동산 버블붕괴와 한국 부동산 시장 비교

이상영
부동산 114 대표

제4차 정기모임에는 버블 논란이 일고 있는 한국의 부동산시장을 점검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부동산 114 대표를 맡고 있는 이상영 박사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2002년 한국은 부동산 시장 호황으로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는 24~31%의 높은 상승률 기록하였으며, 광역시는 평균 10% 대의 높은 상승률로 99년 이후 최고 상승률 나타내고 있다. 또한 2002년 수도권 및 부산 재건축아파트의 매매가는 40~68% 급등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부동산에 대한 버블 논란이 일고 있다.

버블 붕괴로 인하여 고통을 겪고 있는 일본의 경우 83년부터 동경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버블이 일기 시작되어 부동산가격이 7년간 연 20% 이상 상승하였다. 하지만 1990년 3월 부동산관련융자의 총량규제가 되면서 시작되면서 1992년부터 2003년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다. 최근의 지가 수준을 보면 전국적으로 상업지의 경우 최고점 대비 41.7% 수준이며, 6대도시의 경우는 15.3%에 불과한 실정이다. 주택지의 경우에도 전국적으로는 72.7%, 6대도시는 38.8%, 동경은 29.9%로 급락하였다. 이러한 버블붕괴의 배경으로는 첫째, 실물경기의 후퇴, 둘째, 실물경기 후퇴와 버블경기 붕괴의 악순환, 셋째, 기업의 과도한 재테크에 기인한 경쟁력 저하와 재무구조 악화, 넷째, 금융기관의 도산과 구조조정의 지연, 다섯째, 초저금리 현상과 유동성함정에 따른 금리정책 효과 상실 등이 지적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주택매매가격에 대한 담보대출비율을 의미하는 Loan to Value(LTV)를 보면 40% 이하이며, 연간소득 대비 주택가격비율을 의미하는 Price Income Ratio(PIR)도 낮은 수준이라 버블 붕괴의 우려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3.08.28.(목)

5th

조찬토론회

참여정부의 건설정책 방향

최종찬
건설교통부 장관

5차 정기모임에는 건설교통부 최종찬 장관을 모시고 “참여정부의 건설정책 방향”이라는 주제의 강연과 토론이 있었다.

최장관은 현 건설시장의 문제점을 크게 3가지로 지적하였다. 첫째, 무자격업체의 난립으로 인한 공정한 경쟁질서의 정착 미흡이다. 특히, 진입규제 완화로 건설업체가 급증하여 시장의 불안정성 증대하고, 자본금 가장납입, 자격증 대여 등으로 형식상으로만 등록요건을 갖춘 무자격 부실업체가 난립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GDP의 15%를 차지하는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산업이 시공분야에 국한되어 부가가치 창출력이 낮고, 경쟁력 낙후되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해외시장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저하되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셋째, 국민 생활수준과 의식수준의 향상으로 환경과 조화되고,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는 건설활동을 요구하고 있는데 산업이 이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장관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시장기능에 의한 공정한 경쟁의 룰을 확립하고, 세계 일류수준의 국제경쟁력 확보에 노력할 것이며, 환경과 조화되고 안전이 우선시되는 건설시스템 구축할 것을 참여정부의 주요 정책과제로 삼아 해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2003.09.25.(목)

6th

조찬토론회

한국의 문화와 건설산업

제6차 정기모임에는 조선일보에서 “이규태 칼럼”을 연재하는 이규태 조선일보 논설고문을 초청하여 “한국의 문화와 건설산업”이라는 주제의 강연이 있었다. 포럼이 창립 이래 처음으로 비건설인을 모시고 건설에 대한 생각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이 고문은 한국의 거리, 사람, 먹거리 모두가 외래화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개탄하면서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문화를 보는 시각에는 2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우세한 문화가 열세문화를 지배한다는 문화수렴설이며, 둘째가 열세문화가 보유한 기후, 풍습, 자연조건의 힘으로 우세와 열세 문화가 상호 조화를 이루며 발전한다는 문화비수렴설이라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건축의 경우도 우리의 문화를 지켜가는 가운데 외래문화와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외래문화에 우리가 가진 문화의 특성을 얻는 “문화 Identity가 매우 중요하다”고 역설하였다.

이 고문은 건축양식을 “문화 Identity”의 예로 들었다. 그 첫째가 건축재료이다. 즉 서양의 건축자재는 “벽돌, 석재”인 반면 우리는 “흙”, 일본은 “나무”라는 것이다. 이는 기후조건에서 기인되었으며 서양의 경우 보온을 중요시하여 벽돌, 석재를 주로 사용하고, 우리의 경우는 차열성, 흡습성, 환기의 필요성으로 이러한 특성이 뛰어난 흙을 건축의 주재료로 사용하였으며, 앞으로도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둘째, 현대의 우리는 너무 “밝게” 산다고 전제하면서 “빛의 Identity”를 주장하였다. 서양의 집은 가능하면 빛을 많이 받아들이도록 건축된 반면 우리는 빛을 차단하게 건축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서양의 경우 창이 유리로 되어 빛을 받아들이는 구조로 되어 있지만 우리는 1차적으로 처마로 빛을 차단하고, 2차로 마루를 이용하여 빛의 강도를 반감시키며, 마지막으로 창호로 빛을 반감시키는 구조가 되어 있다는 것이다. 셋째는 통풍구조라고 한다. 서양의 건축구조는 차단을 통하여 통풍공간을 없애는 건축이며, 우리는 문과 창을 열면 통풍공간이 생기고, 그를 통하여 여름의 더위와 습한 기운을 이겨낸다는 것이다. 특히, 전통마루가 짝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기능의 부족이 아니라 최대 효율의 통풍구조의 만들기 위한 우리의 지혜라는 것이다.

이규태 고문은 건축구조를 예로 들었지만 건설을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서양의 문화에 우리의 것을 더하는 지혜를 발취하여 건설기술과 기법을 발전시켜 문화의 비수렴설을 구체화하는 것이 국가의 비전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강연을 마무리 하였다.

2003.10.30.(목)

7th

조찬토론회

한국 건설산업의 조달제도 현황과 정책방향

이철휘
재정경제부 국고국장

제7차 정기모임에는 재정경제부 이철휘 국고국장을 초청하여 “한국 건설산업의 조달제도 현황과 정책방향”이라는 주제의 강연과 토론이 있었다.

이 국장은 조달제도의 문제점을 크게 3가지로 지적하였다. 첫째, 최저가낙찰제도는 시장원리에 부합되는 제도이지만, 덤핑입찰이 지속되는 것이 큰 문제라는 것이다. 이로 인해 기술력과 전문성이 있는 업체가 수주토록 하여 건설업체의 경쟁력을 제고시킨다는 본 제도의 도입목적은 사라지고 가격경쟁만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적격심사낙찰제도의 왜곡이다. 계약이행능력 심사요소의 변별력 부족으로 입찰업체 상당수가 만점을 획득하여 운찰제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민간의 아이디어와 기술력 제고를 위해 도입한 설계·시공일괄입찰제도와 대안입찰제도 역시 로비에 의해 낙찰되고 있으며, 설계도서 작성비용도 과다하게 소요된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경제부는 건설산업의 구조조정 촉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행의 적격심사낙찰제를 최저가낙찰제로 전환하고, 확대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설계·시공일괄입찰제도와 대안입찰제도를 활성화 하되 설계 심의의 전문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포럼의 회원들은 최저가낙찰제의 확대에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설계·시공일괄입찰제도의 공정성 확보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2003.11.19.(수)

8th

국내세미나

해외건설 활성화를 위한 대토론회

주제발표
1. 이라크 재건에 한국 건설산업의 미래를 걸자! | 신웅식 신신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2. 이라크 시장의 진출전망과 과제 | 이규황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
3. 이라크 시장 전망과 대응전략 | 박일권 현대건설 상무
4. 중동 건설시장 기회인가 신기루인가? | 강연웅 해외건설협회 실장

제8차 정기모임은 이라크 전후 복구사업과 한국기업들의 전략을 중심으로 한 “해외 건설 활성화를 위한 대토론회”로 개최 되었다. 특별강연은 포럼의 이사인 신웅식 변호사의 “이라크 재건에 한국 건설산업의 미래를 걸자!”와 전국경제인연합회 이규황 전무의 “이라크 시장의 진출전망과 과제”라는 특별강연이 있었다. 이어 현대건설 박일권 상무의 “이라크 시장 전망과 대응전략”, 해외건설협회 강연웅 실장의 “중동 건설시장 기회인가 신기루인가?”라는 주제발표 후 해외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이 있었다.

본 대토론회는 이라크 파병과 미국의 전쟁 종식 선언에 따른 국내 건설기업의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으며, 특히 국내 재건축시장 호황에 익숙해진 대형건설업체들은 이라크를 비롯한 중동 지역 건설시장을 아직까지 선택시장으로 판단하고 있어 이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이라크와 중동시장을 새로운 시각에서 봐야 한다는 뜻에서 기획되었다.

건설산업비전포럼이 주최하고,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해외건설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하였으며,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가 후원한 대토론회에서는 과거 중동지역에서 다양한 실전경험을 갖춘 중견 그룹과 아직까지 해외시장 경험은 적지만 도전 정신이 충만한 40세 미만의 비교적 소장파 그룹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이 있었다. 또한 금융권, 학계, 경제계 인사들도 참여함으로써 향후 국내 건설시장의 침체를 해외시장 활성화를 통해 만회해야 함을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특히, 본 행사는 통상적으로 행해지는 건설단체 중심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국내경제 활성화에 건설산업이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하였다.

2003.12.19.(목)

9th

조찬토론회

건설인들이 보는 한국 건설산업에 대한 문화와 인식

제9차 정기모임은 서울대학교 허은녕 교수를 모시고, “건설인들이 보는 한국 건설산업에 대한 문화와 인식”을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하였다. 허교수는 500명의 건설인을 대상으로 한국 건설산업의 미래 발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를 발표하고, 상호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된 것이다.

건설산업이 국가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76% 이상이 “상당히 기여했다”고 응답했다고 한다. 즉 건설인들이 갖는 국가 발전에 대한 자부심은 매우 크다는 결론이다. 하지만 향후 기여도에 대해서는 57%만이 “상당히 기여할 것”이라고 대답하여 건설산업의 위상에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실감케 하였다. 건설산업에 대하여 국민들이 부정적 인식을 가지게 한 원인으로는 각종 공사비리와 부실공사로 인한 대규모 재해가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답변하였으며, 산업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도 비리척결이라고 응답하였다.

건설제도의 문제점도 조사되었다. 특히, 설계·시공일괄입찰제도와 사전자격심사의 문제점이 가장 크다고 지적되었으며, 국내 건설시장의 개발과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70%가 넘는 건설인들이 현행 가격입찰 제도, 감리 및 감독 제도, 경직된 예산배분 및 장기계약제도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건설업체의 기술수준과 경쟁력에 대해서는 대형 건설업체는 “보통” 이상이라고 평가한 반면 설계, 감리, 전문건설업체에 대해서는 “보통 이하”라고 답변하였다. 미국을 100으로 보았을 때 국내 업체들의 수준은 일반토목구조물을 85점이 나온 반면 대형 구조물, 플랜트, 엔지니어링 부문은 70점대에 머물렀으며, 리스크관리, 기획, 사업성 평가 및 건설사업관리 부문은 60점대로 낮게 조사되었다.

본 토론회는 건설인들의 인식과 산업의 문제점을 이해하는 바람직한 자리가 되었다.

2004.01.29.(목)

10th

조찬토론회·정기총회

법·제도를 통한 공공건설 사업관리 현황과 발전방향

이상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제10차 정기모임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이상호 연구위원을 모시고 “법·제도를 통한 공공건설 사업관리 현황과 발전방향 ”이라는 주제를 듣고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이위원은 건설산업의 근본적인 3대 문제가 부실공사, 부정부패 및 생산성 저하에 따른 경쟁력 상실이라고 전제하면서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공급자의 혁신도 필요하지만 수요자(발주자)인 정부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부실 및 부패방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부 역할에 대한 재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공공건설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법과 제도의 혁신적인 개선을 통하여 생산성을 제고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한국 건설산업은 해외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위축되고 있으며, 국내 건설시장에서는 공기 지연, 사업비 증가가 비일비재한 실정이다. 체감 건설기술 수준은 선진국의 70%수준에도 미달하고 있으며 설계, 엔지니어링, 사업관리 수준은 더욱 열악한 실정이라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Global Standard와 무관한 “신토불이(身土不二)”사고와 조달제도의 후진성으로 인한 물량배분, 파편화된 행정시스템과 일반행정가(generalist) 중심의 인사체계, 행정우위의 사고 및 민간부문의 전문성, 도덕성 기반의 취약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법·제도의 정비를 통해 고비용구조를 타파하고 건설 제도와 관행을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공공조달 및 입찰계약제도의 혁신을 통해 기술능력 위주의 업체 선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관리 또한 투입중심에서 산출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경직된 감사제도의 관행이 개선되어야 건설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금번 모임은 건설산업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산업의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해결책도 함께 생각해보는 좋은 시간이었다.

2004.02.25.(수)

11st

조찬토론회

방송인이 본 건설산업

박찬숙
방송인

제11차 정기모임은 박찬숙 방송인을 모셔 “방송인이 본 건설산업”이란 주제로 강연과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박찬숙씨는 과거에는 국가 발전에 대한 건설산업의 기여를 매우 높게 평가하는 분위기였으나 현재에는 오히려 나쁜 면이 부각되고 있다고 말했다. 방송인으로 건설에 대한 가장 큰 기억은 1970년 경부고속도로 개통 시에 6시간 생방송으로 진행한 경험을 예로 들었다. 또한 남산 어린이 회관 개관식에는 박정희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가 함께 참석하여 생방송을 한 추억을 이야기하며 과거에는 건설에 대한 많은 보도의 기회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기회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오히려, 성수대교 붕괴사고,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등으로 부실 건설이 사회문제가 되면서 건설의 어두운 면이 부각되어 보도 되었다고 술회하였다.

하지만 건설은 국가 최대의 산업이며, 고용효과가 매우 큰 산업이므로 건설인들의 노력을 국내 건설은 물론 해외 건설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는 부탁도 있었다. 질의에 나선 참석자들은 건설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보도를 부탁하였으며, 현재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분양가 공개 문제에도 보다 발전적인 시각을 가져 줄 것을 주문하였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경부고속도로는 1969년 9월 11일 착공하여 290일만인 1970년 7월에 완공한 최초의 고속도로로 준공 당시 길이는 428㎞였다. 경부고속도로는 대한민국 건설의 대역사이자 한국 국민들에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준 사업이기도 하다.

금번 모임은 방송인을 통해 건설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건설인의 노력이 전제된다면 새로운 도약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2004.03.31.(수)

12nd

조찬토론회

2004년 건설교통 정책

제12차 정기모임은 건설교통부 강동석 장관을 초청하여 ‘2004년 건설교통 정책’에 대한 강연과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르네상스 호텔에서 개최된 본 토론회에는 포럼의 회원은 물론 10여 개의 언론사, 건설교통부의 관련 인사들이 참석하였다. 강 장관은 선진국 수준의 국토경쟁력 확보와 중산 및 서민층의 삶의 질 제고에 노력하고, 무분별한 개발보다는 개발과 환경이 조화된 건설교통정책을 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하여 高速鐵道 개통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연결교통망을 구축하고, 주변의 조화로운 개발을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교통·물류도 혁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골고루 잘사는 國土空間을 조성하고, 庶民住居 향상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투기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제거하고 「10.29종합대책」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침체가 예상되는 建設景氣에 대하여 투기억제시책은 지속하되,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SOC 투자는 활성화하여 公共투자를 확대하고 공기업의 신규인력 채용하는 등 서민 주거안정과 물류난 해소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建設業界의 공정한 경쟁체계 구축 및 기술력 제고를 위해서는 페이퍼 컴퍼니 등 부실업체를 퇴출시키고, 일반·전문 건설업체간 겸업제한을 완화하며 의무하도급제도는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건설산업의 技術競爭力 제고를 위하여 건설사업관리(CM)를 활성화하고, R&D 투자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근래 가장 민감한 사안인 분양가 공개에 대해서는 공개에 따른 장기적인 영향을 심도 있게 검토 후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건설기술자의 처우 개선, 고속철 광명역사 문제 해결, 건설 R&D 예산 증액, 건설산업의 이미지 개선을 요구한 회원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확인 및 검토 절차를 거쳐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적극적인 답변을 주었다. 사패산 터널로 인한 공공공사의 중단에 대한 문제점을 예로 들며 공공건설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는 선우중호 명지대 총장의 건의에 대해서는 사패산 터널의 중단으로 인한 직접 손실이 5000억 원, 간접손실까지 포함하면 1조 원이 넘는다고 밝히면서 향후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계획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변하였다.

금번 정기모임은 건설교통부장관과 건설산업 오피니언 리더들이 국가 건설교통 정책을 확인하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2004.04.28.(수)

13rd

주제토론회

주택/부동산 규제 이대로 좋은가?

패널 고철 주택산업연구원 원장, 김종한 대우건설 부장, 박재룡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원, 김정호 KDI 국제대학원 교수, 이상호 랜드마크월드와이드 대표,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

제13차 정기모임은 주택, 부동산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고 강화되고 있는 규제에 대한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도시락으로 저녁을 대신하며 건설업계의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부동산 규제에 대하여 전문가들이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이었다.

트리뷰지에서 씨티파크의 청약열풍을 보고 "한국사람 미쳤다"는 기사를 게재하여 창피한 생각이 들었다고 발표를 시작한 KDI국제대학원의 김정호 교수는 KDI에서 수행한 부동산의 버블에 대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국내 부동산의 버블은 우려할 수준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버블은 인플레이션 야기→임금상승→부익부 빈익빈 현상 가중→국가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어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는 부동산의 가격급등을 반드시 막아야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를 위한 대책으로는 택지공급 확대, 개발사업의 투명성 확보, 제도변화 최소화 및 일반리스 활성화를 제안하였다.

삼성경제연구소 박재룡 수석연구원은 씨티파크의 분양 열기는 지극히 시장원리대로 움직였다고 보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겠다는 시각으로 접근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클 수 있다고 밝혔다. 분양열기의 주요 원인은 400조 원의 유동자금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자금이 움직이는 것은 규제할 것이 아니라 흡수할 수 있는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였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은 현재의 주택 및 부동산 시장은 공급과잉, 저금리, 정부의 과도한 규제로 대표될 수 있다고 전제하고 주택, 부동산 시장의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원칙과 시장대응 노력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유세 인상, 개발이익 환수, 실거래가 기준 과세 등이 원칙적인 대응이라고 말했다. 특히, 거래허가구역, 투기과열지역 지정 등으로 이미 시장은 하락하고 있으며, 하반기 이후 금리가 상승되면 부동산은 더욱 침체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부의 탄력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2004.05.25.(화)

14th

조찬토론회

한국 건설산업의 장기비전 2025

장승필
서울대학교 교수

제14차 정기모임은 포럼의 회원이신 서울대학교 장승필 교수의 연구결과인 "한국 건설비전 2025"에 대한 발표와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대한토목학회가 주관한 본 연구에는 학회에서 심옥진, 이영남, 서주원님이 참여하였으며,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이복남, 문정호, 최인석님이 함께한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였다.

장승필 교수는 국내 건설산업은 최근 급격한 국내외 환경변화 속에서 국내 시장 성장의 한계를 보이며 발전의 기로에 서 있다고 전제하며, 위기상황을 해쳐 나가기 위해서는 국내 건설산업의 효율성과 경쟁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획기적인 사고와 범정부 및 건설산업 전체의 차원에서의 미래지향적인 전략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강조하였다.

장교수는 한국 건설산업의 당면 과제로 비대칭적 수요와 공급, 해외시장에서의 경쟁력의 한계, 건설생산성 및 노동 생산성 저하, 건설기업의 취약한 경영전략이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조달청으로 집중되어 있는 획일적인 중앙집중식의 수요 구조, 과도한 업역구조, 설계 및 엔지니어링 산업의 취약성도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라고 말했다. 이 보다 더욱 큰 문제는 글로벌 스탠다드와 차이가 있는 건설 산업 제도와 정책, 정립되지 않은 발주기관의 기능과 역할 및 건설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전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증진을 위한 국가 건설산업의 혁신, 혁신을 통한 국제 경쟁력 향상, 혁신을 통한 차세대 성장엔진으로 재탄생 및 국가 및 국민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선도하는 산업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비전 2025에는 상세한 실천계획으로 10가지의 전략을 제시하였다. ①법, 제도, 기술기준 혁신, ②혁신을 위한 리더쉽 확보와 리드그룹 운영, ③세계 최고 수준의 인력 양성 프로그램 구축, ④건설산업 프로세스 혁신 및 정보시스템 확산, ⑤고성능, 다기능, 고품질 대체 자재 개발, ⑥생산시스템의 기계화, 자동화 확대, ⑦성과측정 기준과 방법 개발, ⑧기존 시설의 안전성, 성능, 수명 평가 기술개발, ⑨재해 예측시스템 개발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장승필 교수는 관산학연의 건설 주체들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글로벌 수준으로 제고해야 하며, 건설산업의 역할과 가치 및 순기능에 관한 건설인 모두의 올바른 이해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강연을 맺었다.

2004.06.25.(금)

15th

국제세미나

한국 건설산업 혁신의 조건

주제발표 **1. Constructing Excellence의 혁신전략과 성과** |
Dennis Lenard, Constructing Excellence CEO
2. Highways Agency의 혁신전략과 성과 |
Steve Rowsell, Highways Agency Procurement Director
3. 한국 건설산업 혁신의 조건 | 김한수 세종대학교 교수

주제토론 **좌장** | 최병선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원장
패널 | 장승필 서울대학교 교수, 최태희 한국도로공사 부사장, 한만희 건설교통부 국장,
김종훈 한미글로벌 사장

제15차 정기모임은 포럼 창립 1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국제세미나로 진행되었다. 발표자로는 영국 혁신운동 추진기관인 Constructing Excellence의 Dennis Lenard 대표와 한국도로공사와 유사한 영국 Highways Agency의 본부장인 Mr. Steve Rowsell을 초청하였다. 국내 발표자는 영국 건설산업의 혁신전략과 성공사례를 집필한 세종대학교 김한수 교수가 맡았다.

본 국제세미나는 한국 건설산업의 혁신을 위한 비전과 전략적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하여 기획되었으며, 건설산업비전포럼 주최하고, 대한건설협회와 주한영국대사관이 주관 하였으며, 건설교통부, 대한토목학회, 대한건축학회, 한국건설관리학회, 한국도로공사, 삼성건설이 후원한 행사였다.

영국의 건설혁신센터(Constructing Excellence)의 대표(Chief Executive)인 데니스 르나드(Dennis Lenard)는 호주 태생으로 호주와 영국 건설산업에서의 혁신 활동과 성과를 인정받아 2003년부터 건설혁신센터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영국의 건설혁신센터(Constructing Excellence)는 1998년 영국 건설산업에서 착수된 Rethinking Construction 운동의 추진을 위해 발족된 양대 혁신기관인 Rethinking Construction 운동본부와 혁신지식경영센터(Construction Best Practice Programme)가 합병되면서 2004년에 발족된 혁신 추진기관이다. 건설혁신센터는 공공 및 민간의 공동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04년도 예산은 약 180억원 규모이다. 현재 런던의 중앙센터와 영국 전역에 12개 지역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Best Practice Clubs와 Clusters와 같이 건설혁신을 프로젝트 단위에서 실천하는 하부 조직을 거느리고 있는 영국의 대표적인 혁신운동 추진기관이다.

르나드 대표는 1998년 이후 착수된 Rethinking Construction 운동은 정부, 공공 및 민간 발주자, 건설산업계를 대상으로 하는 광범위한 건설혁신운동이라고 소개하면서 영국 건설산업에서 혁신이 필요하게 된 배경과 문제점,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과 목표, 달성 성과 등을 발표하였다.

영국도로공사(Highways Agency)의 조달본부장(Procurement Director)인 스티브 로우셀(Steve Rowsell)은 29년간 영국도로공사에서 재직하고 있다. 토목기술자(Charted Civil Engineer)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로우셀은 영국도로공사 재직 기간동안 주요 고속도로 사업의 기획, 설계 및 시공관리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2001년 9월에 조달본부장에 임명되었고 영국도로공사의 이사직도 맡고 있다. 현재 주요 업무는 영국도로공사의 조달전략 결정 및 공급연쇄관리와 연간 약 4조원에 달하는 계약 업무의 총괄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2001년에 수립된 조달혁신전략을 총괄 추진하는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영국의 교통부(Department for Transport)의 산하기관(Agency)으로 약 10,000㎞에 달하는 고속도로(motorway) 및 1급 국도(trunk road)의 신설, 유지관리 및 운영을 담당하는 영국도로공사는 연간 평균 약 3조원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영국도로공사(Highways Agency)의 Steve Roswell 수석디렉터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영국 건설산업에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혁신운동은 공공부문의 조달 정책 및 제도와 조달행정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혁신의 과정을 통해 주목할 만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영국의 대표적인 공공 발주기관인 영국도로공사에서도 이러한 혁신운동에 부응하여 2001년에 조달혁신전략을 수립하기에 이르렀으며, 영국도로공사의 조달혁신전략의 주요 내용은 최저가 낙찰제도 폐기, 인센티브제도, 시공자 조기 참여제도, 장기적 비즈니스 관계에 기반을 둔 파트너링 활용, 건설사업 성과 측정 등이라고 밝혔다.

마지막 발표자인 세종대학교 김한수 교수는 영국 건설산업의 혁신운동과 성공사례가 한국 건설산업에 주는 교훈과 시사점을 제시하며 향후 한국 건설산업의 혁신을 위해 요구되는 전략과 방향성을 제안하였다.

2004.08.31.(화)

16th

조찬토론회

일본의 나라 만들기 100년 구상과 시사점

제16차 조찬토론회는 이복남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모시고 행정수도 이전 및 서울·수도권 소재 공공기관들의 지방이전 등 지역균형발전이 국가 정책 아젠다로 부상하여 활발한 논쟁이 활성화된 시기에 일본의 국토 100년 설계라는 주제로 강연이 있었다.

국토개발 중심에서 국토공간 재편이라는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한 시기에 한국보다 앞서 국토가 개발된 일본의 사례에서 주요한 시사점을 찾고자 했다. 일본의 30~40대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일본 국토 100년을 구상한 배경에는 자연재해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지리적 특성과 함께 경제침체가 10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시대에 국토 공간 재편이라는 구상을 통해 경제를 살려보자는 의도도 숨겨져 있었다.

2003년은 국내 경제 및 건설시장 상황도 일본과 같이 침체기에 있어 새로운 활력이 필요했었던 시기였다. 또한 개발중심에서 국토공간 활용방안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전문가 집단을 중심으로 제기되었던 시기여서 많은 관심을 끌 만한 주제였다.

일본의 '나라 만들기 100년 구상'의 주제에는 3가지 키워드가 담겨져 있었다. 우선 일본이 당면하고 있는 정치·경제·지리·사회적 과제와 일본이 지향해야 할 100년 후 구상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아시아글로벌 중심으로 재편, 그리고 일본이 지향하고 있는 구상안에 대한 실행전략 등 지금까지의 일본과는 다른 모습을 구상했다는 점에서 활발한 토론도 이어졌다.

2004.09.21.(화)

17th

주제토론회

부동산 거품과 한·일 경제상황 비교

주제발표
1. 한·일부동산 가격변동의 비교 | 서승환 연세대학교 교수
2. 부동산 거품과 한·일경제 상황비교 | 최공필 한국금융연구원 박사
3. 주택가격변동의 지역편차와 버블가능성 | 이창무 한양대학교 교수
4. 최근 주택시장 동향과 한·일 부동산 시장 비교 | 박재룡 삼성경제연구소 박사

2003년은 본격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활발해지기 시작한 시점으로 과열될 경우 일본처럼 버블이 폭발할 가능성에 대한 경고가 잇달아 제기되었던 시기였다. 국민들의 관심사도 부동산 가격 상승세 지속여부와 함께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는 가격에 대한 버블붕괴 우려가 공존하고 있는 시기였다. 일본 부동산 버블에 대한 전문가들의 활발한 의견 제시와 함께 토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조찬회를 대체하여 도시락 만찬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서승환 교수는 부동산 거품에 대한 정의와 일본부동산 버블경제 형성과정과 경제상황, 주택가격 변동 등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버블후유증은 상당기간 지속 될 것이라는 의견도 내 놓았다.

최공필 박사는 내수경제 침체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만 활성화되어 있는 현실에 대한 해석 결과를 제시했다. 부동산 버블붕괴 증세 진단과 부정적인 파급 영향을 제시 한 후 붕괴 가능성을 낮추는 대안을 제시했다.

한국의 부동산 가격 변동이 전국적인 현상인지를 따져 일본 부동산버블 붕괴 가능성을 예측한 내용으로 이창무교수의 발제가 있었다. 일본과 달리 지역편차가 크게 벌어져 있어 버블붕괴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제3주제에서 박재룡 박사는 국내주택시장 불안의 5대 요인과 함께 일본과의 부동산시장 비교를 통해 국내 시장 버블붕괴 가능성은 낮다는 결론을 제시했다.

2004.10.27.(수)

18th

조찬토론회

국가 재정운영과 건설교통분야 미래환경 변화

양지청
국토예산정책처 사업평가국장

침체된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재정의 역할에 대한 이슈가 활발한 시기였다. 건설경제와 국가기반시설(SOC)에 대한 관심과 남다른 지식을 가진 국회예산정책처의 책임자로부터 국회가 보는 국가재정여력과 SOC투자 환경에 대한 인식을 들어보는 기회였다.

양지청 국장은 발제 자료를 통해 급변하는 경제·사회여건의 변화, 국가의 비전으로 제시된 '혁신과 통합을 통한 「역동과 기회의 한국」 건설'에서 제시된 7대 전략과제(기술혁신·인재양성, 동북아 경제중심, 시장개혁, 국가균형발전, 노사관계 안정, 정치·행정·사회혁신, 민생안정·복지확충)을 실행하기 위한 정책 방향과 재정운용계획 등을 발표했다.

한국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건설경제 비중은 다른 국가와 달리 국가의 관심은 남다르지만 경기침체와 새로운 경제 활력이 전제되지 않을 경우 고령화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국민복지 비용 증가로 인해 SOC투자 예산이 감소 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 놓았다. 국가재정 여력을 보완할 교통안전분담금과 교통특별세 유지 방안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정부의 건설관련 예산 편성 방향 면에서 원가중심의 낙찰제보다 가치를 중시하는'value for money'와 종합평가체계 강화를 제시했다. 부족한 공공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정개혁 시스템 운영 방안도 제시했다. 특히 SOC투자도 한반도에서 동북아를 연계하는 글로벌 네트워크 체계 구축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2004.11.25.(목)

19th

주제토론회

최저가 낙찰제의 허상과 실상

주제발표 **1. 공공공사의 최저가낙찰제 현안과 예상문제점** | 윤석용 RTB Korea 회장
2. 흔들리는 한국건설 | 김헌동 경실련 국책사업 감시단 단장
3. 공공공사 낙찰율 저하 원인 진단과 처방 | 이복남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2003년은 국내 공공공사에 최저가낙찰제가 300억 원 이상으로 확대되는 시기여서 최저가낙찰제에 대한 쟁점이 활발한 시기였다. 최저가낙찰제가 글로벌스탠다드라고 주장하는 시민단체와 현장 일선에서 사업을 꾸려가고 있는 산업대표, 그리고 저가입찰자의 형태와 원인 등에 대한 연구기관 대표자 등이 각각의 입장에서 이슈를 제기하고 또 토론하는 자리로 조찬회의 시간적 제약을 넘기 위해 도시락 만찬 토론회로 대체했다.

제 1주제에서 산업을 대표하는 윤석용 회장은 최저가낙찰제 시행 현황과 파급 영향,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켰다. 발제자료에서 발주처와 건설회사 등 건설거래 당사자가 인식하고 있는 수준과 현안 조사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최저가낙찰제로 인한 업체 수익성 저하는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돌아 갈 것이라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제 2주제에서 시민단체를 대표한 김헌동 단장은 정부공사비 산정에 50%이상이 거품이라는 주장과 함께 투명하지 못한 입·낙찰제 문제점에 대한 해석을 내 놓았다. 한국의 건설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발주기관의 책임 강화, 비리 처벌 강화, 자유경쟁체제 강화 등을 주문했다.

제 3주제에는 연구기관을 대표한 이복남 연구위원은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 공공공사의 낙찰율 비교를 통해 국내 공공공사 현안을 부각시켰다. 미국 공공공사의 평균 낙찰률 93%, 일본의 98% 등은 발주자의 예정가격 산정의 정확성과 최저가낙찰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발주기관의 역량이 있기에 가능한 반면 국내의 경우 낙찰률 차액을 공사비 저감으로 보는 인식 차이에서 비롯되었음을 지적했다.

윤석용
RTB Korea 회장

김헌동
경실련 국책사업 감시단 단장

이복남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2004.12.28.(화)

20th

조찬토론회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평가

제20차 조찬토론회에서는 한현규 경기개발연구원 원장을 모시고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평가”를 주제로 진행했다.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찬반논란이 헌재에서 최종판결이 남으로서 국가차원의 논란을 잠재웠던 시기에 지역균형발전에서 역차별 위치에 놓인 수도권 당사자 시각에서 발제가 이뤄졌다. 한현규 경기개발원장은 부제로, ‘신행정수도 건설, 헌재판결 이후’로 내세워 행정 편의나 균형발전보다 좌파적 정치 성향이 기반이 됨으로 인해 예상되는 수도권 부동산 경제의 부정적인 면에 대해 이슈를 제기했다.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이전의 본질은 정치권의 시각과 달리 세계와, 개방화시대와는 동조 될 수 없음을 강조했다. 또한 지역간 격차는 존재하지만 인구이동과 경제 발전 단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통과 의례로 봐야 할 대상이지 이를 정치적 해석으로 인위적 분산은 수도권 경제에 대한 역차별 부작용이 나타나게 될 것임을 주장했다.

균형발전보다 균등발전이 답이라는 주장에는 지역 특성화 전략을 통해 인구와 경제주체를 유인하는 게 자유경제 체제라는 주장도 했다. 아울러 「선 이전, 후 대책수립」보다 「선 대책수립, 후 이전」이 정답이라는 주장도 내 놓았다. 지역 특성화를 통한 지역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즉, 물리적 이전 혹은 분산만으로는 기대하는 지역균형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또한 어떤 경우에도 국가발전은 정치적 이유를 앞세워서는 실패 할 가능성이 높음을 주장했다. 있는 걸 분산하기보다 없는 곳에 새로운 발전모델로 채워 넣은 게 정답이라는 해석이다.

2005.01.25.(화)

21st

조찬토론회·정기총회

2005년 건설 부동산 경기전망

제21차 정기모임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최병선 원장을 모시고 “2005년 건설부동산 경기전망”을 같이하였다. 2005년도는 내수부진과 수출증가율의 둔화 등으로 인하여 국내 경제는 4% 미만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건설투자는 2003년도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7.5%에 달하였지만, 주택·부동산 경기의 침체 등으로 인하여 2004년에 이어 2005년에도 수주 및 투자실적이 급감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특히, 내수부진을 만회할 뚜렷한 단기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건설경기가 급락할 경우 국내 경제의 침체상황이 장기화될 소지가 크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건설경기 연착륙 대책(2004.7.2)」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대부분 중장기 대책이어서 단기적인 성과는 기대가 곤란한 상황이기에 건설산업의 어려움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러한 건설경기의 침체를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의 「종합투자계획」에 따라 건설경기 급락을 방지하고 내수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GDP(2003년의 경우, 약 720조 원)의 1%정도인 7~8조 원 규모의 건설투자 확대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공공투자 증대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건설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민간건설부문의 활성화 대책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민간주택·부동산시장에 대한 규제의 정상화를 통해 건설시장의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였다.

본 모임에서는 2005년도 건설산업의 어두운 전망을 같이 했지만 국내 경기와 건설산업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논의한 자리가 되었다.

2005.02.22.(화)

22nd 조찬토론회

건설산업 규제 합리화 방안

제22차 정기모임은 국무총리실 규제개혁기획단 이성구국장을 모시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이국장은 건설산업의 규제를 푼다는 것을 간단한 작업으로 생각하고 착수했는데 수행 중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여 추진이 늦어지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대표적인 규제철폐 대상은 전기통신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등에 의한 업역구조와 자격제도 등을 들었으며, 특히, 건축설계의 경우 대표는 건축사이어야 하며, 건축사사무소라는 긴 명칭을 사용해야 하는 규제는 현대자동차는 '자동차 설계를 하면 안 된다'는 규제와 마찬가지라고 비유하며, 이러한 법 때문에 일반건설업체도 전문건설업체도 땅따먹기식의 경쟁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의무적 분리발주제도, 저가심의제를 통해 적정이윤을 보장하는 제도 역시 일반건설업체에 적정이윤을 보장해 주게 되어 있어 경제적 합리성에 위배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최저가낙찰제도는 저가 심의제도 때문에 평균적으로 6.6위를 한 업체에 낙찰되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히며, 현재의 제도는 상대방의 입찰가격 및 공정별 가격을 예상해야 하는 복잡한 게임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의 턴키제도는 미인 컨테스트를 보는 기분이며, 경제성 평가의 중요성이 무시되고, 발전용량, 홍수조절용량 등과 비용의 Trade-off가 부재하며, 가격은 담합하고, 성능만 가지고 경쟁하는 제도로 입찰참가 비용도 높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보증, 감리제도, 주택에 대한 각종 규제도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건설사업 참여자간의 대립이 심해 개선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전문가 그룹인 포럼의 협조를 부탁하였으며 심도 있는 토론이 뒤를 이었다.

2005.03.29.(화)

23rd 주제토론회

민간투자사업(BTL) 시행방안

주제발표	안도걸 기획예산처 민간투자제도과장
주제토론	**패널** | 박동규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이과섭 한국개발연구원 KDI전문위원, 안영환 법무법인 세창 변호사, 이상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제23차 정기모임은 만찬토론회로 개최하였다. 기획예산처의 안도걸 민간투자제도과장께서 주제발표를 하였으며, 포럼의 회원이자 전문가인 박동규교수, 안영환변호사, 이상호 박사와 이과섭 KDI전문위원이 패널로 참여하였다.

안도걸 과장은 "민간이 건설한 시설을 정부가 리스해서 사용하고 리스료를 지급해 투자비를 보전해 주는 민자사업"이라고 BTL사업을 정의하면서 기획예산처는 BTL을 통해 국민 생활에 긴요한 교육, 복지, 문화시설을 조기에 확충하고, 시설투자비의 분산 지급으로 국가의 재정 부담을 경감할 수 있으며, 민간의 창의, 경영기법 활용할 수 있는 바람직한 제도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중장기 관점에서는 일관성 있는 투자가 가능하고, 투자규모와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기업에게는 안정성과 수익성이 보장되는 장기 투자처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피력하였다.

기획예산처는 금년부터 사업편익이 크고 시설의 조기 확충이 시급하나, 재정 여건상 투자가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과 금년 중 착공하여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통해 사업편익의 증진과 비용절감을 기대할 수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선정하여 2007년까지 23조 원 규모의 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패널로 참여한 전문가들은 BTL사업의 장단점은 물론 사업수행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및 해결책 등을 제시하였으며, 문제점이 사전에 해결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전문가의 협조 하에 조치한다면 건설산업의 새로운 분야로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2005.04.27.(수)

24th

조찬토론회

21세기 서울시 도시개발 정책

건설산업비전포럼 제24차 정기토론회에는 서울시 양윤재 부시장을 초청 “21세기 서울시 도시개발정책”이라는 주제의 강연 및 토론시간을 가졌다.

양윤재 부시장은 “21세기 서울시 도시 개발정책”이라는 거창한 주제보다는 서울시의 건설행정에 대한 궁금증을 풀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재하면서 도시개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였다.

현재 건설업계의 가장 큰 이슈는 아파트 가격, 그것도 재건축 아파트 가격인 것 같으며, 20세기 후반, 21세기 초 한국인의 꿈은 강남에 아파트를 보유하는 것이 되어버렸다고 전제하면서 서울시의 경우 주택보급율은 100%가 넘었으나 50%는 전세를 살고 있는 실정으로 주택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며, 지금은 정부, 국민 모두가 주택시장에 뛰어든 것 같은 느낌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사람마다 생각과 해결책이 달라 해법을 찾기 어려운 주제라고 말했다.

80년대 이후부터 全 세계의 도시들은 많은 변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이는 사람들의 패러다임, 행동양식 및 규범의 변화에서 기인된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이 필요에 의해서 만든 도시에 불편을 느껴 새롭게 바꾸게 되었으며, 이것을 발전이라고 말한다.

신도시 건설이 화두가 되고 있으나 이는 80년대 이후 실패한 정책이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새롭게 추진된 것이 “뉴 타운” 건설이며, 이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은 자연상태의 지역을 개발하는 것보다는 못쓰게 된 곳, 버려진 땅은 개발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서울의 뉴타운 개발의 경우 공공투자가 전무한 과거와는 달리 타운별로 500억 원씩 공공투자를 하여 기반시설을 제공하고, 지속 가능하고, 문화적인 도시개발을 위해 힘쓰고 있다며 뉴타운은 서울이란 도시를 경쟁력 있게, 강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2005.05.31.(화)

25th

조찬토론회

인천경제자유구역의 비전과 개발전략

제25차 정기모임은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과 제조업에서 첨단지식산업으로 성장 패러다임의 전환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의 비전과 개발전략을 같이하는 시간을 가졌다. 발표를 해주신 이환균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청장은 1997년 건설교통부장관을 역임하셨으나 국가의 발전을 위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을 자임하며 역동적인 업무를 추진하고 계신 분이다.

이청장은 전세계의 글로벌화, 무한경쟁 시대가 도래 하는 가운데 한국은 중국의 제조업과 일본의 첨단기술 사이의 넛 크래커에 갇혀 있다며 이를 탈출하기 위한 방안이 경제자유구역의 제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부가 2002년 11월 경제자유구역법을 제정하여 세제 및 규제완화를 통해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고, 외국어 서비스, 의료, 학교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있으며 기반시설에 대한 국고를 지원하고 있어 경제자유구역의 미래는 밝다고 말했다.

특히, 2003년 8월에 지정된 인천경제자유구역은 6,336만평의 부지에 비즈니스, IT, R&D 시설과 물류, 관광레저, 화훼, 금융단지를 조성하여 50만명의 도시를 건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14조 원의 재원을 2020년까지 투자하겠다는 비전과 개발계획을 설명하였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은 2008년 1단계 완성으로 소득 2만 불 시대를 조기 선도하고,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의 거점을 확보하는 한편 동북아의 대표적인 국제자유도시로 부상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이환균 청장은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은 성장 한계에 직면한 우리 경제의 돌파구이자 우리 민족의 생존 프로젝트임을 재상 강조하였다.

2005.06.24.(금)

26th

국내세미나

삼풍사고의 교훈과 건설안전의 과제

주제발표 **1.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의 교훈과 한국 사회에 끼친 영향분석** | 홍성태 상지대학교 교수
2.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의 원인에 대한 재조명 | 안홍섭 군산대학교 교수
3. 삼풍 붕괴사고로 인한 제도적 장치의 개선성과와 향후 개선방안 | 박홍신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주제토론 **좌장** | 이태식 한양대학교 산업경영대학원장
패널 | 이성구 국무총리실 국장, 이재열 서울대학교 교수, 윤명오 시립대학교 교수,
이필원 티씨엠씨건축사사무소 부회장, 안순철 대림산업주식회사 전무

제26차 모임은 “삼풍사고의 교훈과 건설안전의 과제”라는 주제의 국내세미나로 개최하였다. 포럼 창립 2주년에 맞추어,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10주기를 추념하기 위하여 ‘삼풍사고의 교훈과 건설안전의 과제’ 라는 주제로 개최된 세미나에는 포럼 회원, 건설회사, 협·단체 등에서 200여 명의 참석하였다. 세미나 전 사고에 대한 방송기록이 방영되면서 숙연해진 분위기에서 포럼 회원인 성균관대 김예상 교수의 사회로 3시간 30분에 걸친 세미나가 진행되었다.

포럼의 김건호 공동대표는 개회사를 통하여 본 세미나가 우리의 상처를 깊게 하는 자리가 아니라 스스로의 자성을 통해서 건설안전을 확보하고,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며,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모두 노력하자고 당부하면서 포럼은 한국 건설산업이 미래에 건전하고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변신하기 위해서라면 국내 건설산업의 전통적 관행이나 제도를 비판하고, 미래 혁신을 통해 국가와 국민경제에 도움을 주고, 국민들의 건설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는데 헌신할 것이라고 소신을 밝혔다.

세미나를 주관한 한미파슨스의 김종훈 사장은 삼풍 사고 이후 10년이 지난 지금, 「삼풍의 악몽은 과연 치유되었는가?」, 「우리 주변에서 제 2의 삼풍 사고의 개연성은 완전히 제거되었는가?」라고 심각하게 반문해 보아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설계·엔지니어링 분야의 육성과 안전문화, 안전의식의 제고 및 건설인들의 프로페셔날리즘의 고양을 제안하였다.

첫 번째 주제 발표를 한 상지대 홍성태 교수는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는 한국 사회의 구조에서

홍성태
상지대학교 교수

안홍섭
군산대학교 교수

박홍신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비롯된 ‘구조적 사고’라고 전제하면서 사고의 방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패와 부실의 먹이사슬을 혁파해야 하며, ‘24시간 투명행정의 구현과 포청천식 엄벌주의의 확립’하고, 안전불감증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두 번째 발제자인 군산대 안홍섭 교수는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는 총체적인 부실이 불러온 사고로 그 원인 또한 복합적이나 기존의 사고원인 분석은 붕괴의 직접원인을 규명하는데 그쳤다고 밝혔다. 사고의 근본원인은 발주자인 건축주의 무지와 과욕에서 비롯되었으며, 설계, 감리, 시공, 유지관리, 공무원 감독 등이 부실도 중요한 원인이라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제도적 장치의 개선성과와 방안을 제시한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은 삼풍사고를 계기로 국가재난 및 시설물 안전관리체계의 확립과 건설공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본체계의 확립 및 건축구조 설계기준 통합 등의 거시적인 성과가 있었으나 아직은 미진한 실정이며, 건축생산절차의 투명성 확보, 건축 관련 기술기준의 표준화 및 통합화, 건축 관계기술자의 전문교육의 확대, 사회적 환경의 조성 등과 같은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패널토론은 좌장인 한양대 이태식 교수의 건설인들의 고뇌를 나타내는 시를 읊으면서 시작되었다. 패널토론에 나선 서울대 이재열 교수는 삼풍사고의 원인은 높은 위험추구 경향, 사회적 조정과 협력의 실패, 긴급구조체제의 미비 및 관료의 부패와 법집행의 공정성 결여 등이 원인이었다고 전재하면서 앞으로는 삼풍사고와 같은 단순 증폭형 재난에서 대구지하철사고와 같은 복합 돌발형 재난이나 복합 증폭형 재난이 생길 가능성이 더 많아지는 사회변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대림산업의 안순철 전무는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문제로 현장의 구조설계 및 인허가 제도의 문제점을 언급하였으며, 서울시립대 윤명오 교수는 사고의 원인을 감추기에 급급한 위선적인 안전주의를 떨치는 방향으로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다. 티씨엠씨의 이필원 부회장은 주제발표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개진한 후 근본적인 건설안전의 확보를 위해서는 안전관리계획서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통합과 책임감리자의 현장안전관리업무에 대한 역할의 명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으며, 국무총리실 이성구 국장은 합리적인 규제시스템을 확립하고 준수비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며 단순히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주장하였다.

2005.07.19.(화)

27th

조찬토론회

건설분쟁의 현황과 방지방안

7월 19일 개최된 포럼 제27차 정기토론회에는 서울고등법원 윤재윤 판사를 모시고 '건설분쟁의 현황과 방지방안'이라는 주제의 강연 및 토론이 있었다. 모임에는 포럼 회원 외에 회원사 직원과 대한상사중재원에서도 참여하였으며 이복남 간사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법관이 외부강연을 한 예는 매우 드물다는 말로 시작한 윤판사는 건설소송을 7년간 담당하였으며, 민사소송 중에도 건설소송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이를 포함하면 17-18년간 건설관련 소송을 담당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2003년에는 '건설분쟁관계법(박영사)'라는 책을 발간하기도 하였다. 자신의 별명을 '노가다 부장'이라고 밝힌 윤판사는 건설소송은 매우 골치가 아파 판사들이 가장 기피하는 분야라고 말했다. 이로 인하여 건설소송은 '민사소송의 매립장'이라 불리고 있으며, 다른 분야에 비하여 매우 낙후되었고, 재판의 신뢰성도 떨어지는 분야라고 밝혔다.

그러나 건설소송이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높아 총 20개의 재판부 중 6개의 '건설전문재판부'가 운영 중에 있다고 말했다. 윤판사는 건설클레임에 대해서는 건설회사의 최고경영자, 현장의 엔지니어, 송무팀 모두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부동산 매매계약, 투자계약 등은 단발성 계약이나 건설도급계약의 경우는 '계약체결'이 완료가 아니라 '계약의 시작'을 의미한다고 것이 특징이라고 강조하였다. 건설소송은 대부분 장기화되며, 갈등이 또 다른 갈등의 원인이 되어 결국에는 모두 후회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강조하면서, 건설소송은 다른 소송과 근본적으로 다르며, 판사에 있어서는 매우 창조적인 분야라고 말했다. 그 이유는 일반사건의 경우 10명의 판사가 내린 판결 중 9건이 유사하나 건설소송의 경우는 소송대리인, 소송당사자, 담당 판사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특징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클레임에 대한 건설산업의 대처방안으로 현장에서 '시공기록부'를 작성할 것을 제안하였다. 특히, 일방당사자가 작성하는 것은 효력이 없으며, 기록 후 쌍방이 확인을 거치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토론에는 성균관대 박선규 교수, 삼성건설 이규재 부사장, 한미파슨스 이병수 부사장, 대한상사중재원, 건설사 등에서 현실에서 겪는 애로에 대한 질의 및 응답이 이어졌다. 건설 소송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다룬 조찬토론회였으나 이론적인 배경에 실무경험을 적용한 해설로 매우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었다.

2005.08.30.(화)

28th

조찬토론회

우리 건설산업의 현주소

제28차 정기모임은 국토연구원의 김재영 선임연구위원을 모시고 "우리 건설산업의 현주소"라는 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의 자리를 가졌다. 김재영 박사는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건설산업의 이미지에 대한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였다.

김재영 박사는 우리 국민들은 건설기업이 국민들에게 도움을 주기보다는 기업 이익만을 지나치게 추구하고 그 과정에 부패나 부조리가 만연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강연을 시작하였다.

국민들의 건설산업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인 시각이 강하나 부정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다면서 응답자수는 많지 않으나, 매우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매우 긍정적이라는 응답보다 약간 높다는 점은 주목해야 할 점이라고 말했다. 특히, 건설산업의 부정、부패는 이미지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응답자의 80%에 달하는 국민이 건설산업이 부패하다고 응답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건설기업의 신뢰성 회복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부실공사와 대형 사고도 국민들의 이미지에 매우 부정적으로 비쳐지고 있었다. 하지만 국민들은 건설산업이 고용이나 연관산업에 파급효과가 크고, 국민생활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으며, 건설이 국가경제에 기여한 면도 인정하고 있었다.

건설산업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는 부정, 부패의 척결하고 부실공사와 대형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공유한 모임이었다.

2005.09.27.(화)

29th

국내세미나

8.31 부동산 대책이 건설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주제발표 이상영 부동산 114 대표

주제토론 **좌장** | 김정호 KDI 국제대학원 교수
패널 | 박선호 건설교통부 주택정책팀 팀장, 이정근 현대건설 건축사업본부 상무, 박재룡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이상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허재완 중앙대학교 교수

제29차 정기모임은 “8.31 부동산대책이 건설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을 주제로 한 국내세미나를 개최되었다. 부동산 114의 이상영 대표의 주제발표가 있었으며, KDI 국제대학원 김정호 교수를 좌장으로 정부, 연구소, 부동산컨설팅, 건설분야 최고의 전문가가 패널로 참여하였다.

국내 주택가격은 지속적인 상승을 기록하고 있다. 2005년 1~8월까지 아파트 가격은 수도권 중심으로 전국 9.7%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강남 및 분당에서 시작된 아파트 가격급등세는 수도권 남부로 확산되어 과천, 분당, 용인, 평촌 등 수도권 남부 도시 및 신도시로 이어지고 있다. 평형별로는 중대형 평형의 가격 강세가 뚜렷하며 더욱이 전세가격도 상승세로 반전하거나 강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어 문제를 더하고 있다.

하지만 8.31 대책 전후 가격안정세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하락폭이 더 클 것으로 전망하였다. 특히, 8.31 대책 이후 서울, 신도시 지역 아파트 매매가는 하향 안정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재건축의 경우 급락하는 추세에 있다. 2003년 10.29 대책 이후의 상황과 비교하면 하락 속도가 느린 것 같지만, 이미 7월부터 가격 폭등세가 사라졌고, 향후 하락폭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결과적으로 하락폭이 커지면서 주택경기의 침체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였다.

패널로 참석한 전문가들은 8.31 부동산대책이 주택가격, 전세금, 분양가격, 분양시장, 건설경기 및 건설업체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건설적인 대응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결론적으로 8.31 부동산대책은 주택시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의 필요성을 같이한 세미나였다.

2005.10.25.(화)

30th

조찬토론회

건설산업의 미래

제30차 정기모임에는 현대건설의 이지송 사장을 모시고 “건설산업의 미래”라는 주제의 강연을 들었다. 이지송 사장은 한국 건설산업은 과거 경제 성장과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 해왔으며, 그 결과 지난해 OECD 28개국 중 GDP 규모 11위에 오르는 오늘날의 한국을 건설할 수 있었다며 강연을 시작하였다.

하지만 건설산업은 아직도 유럽, 미국, 일본 등의 세계 유수 건설사들과는 큰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GDP 대비 15%의 비중과 전 산업고용의 7%를 담당하는 국가 주력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구조상 내수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국내 관행이나 제도, 경기변동, 부동산 시황에 따라 성패가 결정되는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부실공사, 부정청탁, 부패사슬 등 부정적인 이미지로 국민들에게 비쳐지고 있으며, 능력이 부족한 업체의 시장진입, 기술보다는 과도한 가격경쟁으로 체질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각 국가의 정치, 경제, 문화가 하나로 통합되는 세계화(Globalization)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건설산업도 변화하는 세계에 적응하기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Global Standard)를 적용하고 관련 정책과 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화 하고,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접목, 타 산업과의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하여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고 말했다.

이지송 사장은 해외시장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한국 건설산업은 지난 70년대 이후 중동 지역에서 높은 인지도와 뛰어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지난 9월 말까지 총 79억 2,000만 달러의 해외 수주고를 올렸다고 말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지난 97년 140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 8년 만에 100억달러 돌파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되며, 지난 70, 80년대 중동 특수 이후 ‘제2의 중동 특수’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건설산업이 미래발전을 위해서는 기술집약형 초대형 플랜트 공사를 선도적으로 수행할 능력을 배양하고, 지식집약적 산업으로 변화 및 해외건설을 담당할 전문 인력의 육성이 시급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건설업체들은 신기술 개발, 타 산업과의 전략적 제휴, 건설 연관사업의 업역 확대, 그리고 지속적인 신규시장 창출 등을 통하여 좁은 국내시장에서 벗어나 글로벌 경쟁에서 승리자가 되어야 생존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2005.11.29.(화)

31st

조찬토론회

건설산업의 혁신전략

이규방
국토연구원 원장

제31차 정기모임은 포럼의 창립 회원이신 국토연구원의 이규방 원장을 모시고 “건설산업의 혁신전략”이란 주제의 강연과 토론이 있었다.

이원장은 혁신의 개념은 처음에는 주로 기술혁신분야(R&D)에서 사용되었으나, 최근에는 경영과 기업혁신, 정부혁신, 지역혁신, 교육혁신 등 타 분야까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며 강연을 시작하였다. 건설산업에서도 서비스에 대한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존속적 혁신, 가격파괴를 위한 비용의 절감 또는 소규모의 단순화된 건설서비스를 제공하는 파괴적 혁신, 새로운 건설수요를 창출함으로써 기존의 비소비에 대응하는 다른 유형의 파괴적 혁신 등 세 가지 유형의 혁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건설산업의 혁신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건설규제 전반에 대한 개혁을 통해 건설산업의 시장기능 활성화 및 경쟁기반 조성이 필수적이며, 수요자 중심의 건설산업 체계로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규제의 철폐가 우선되어야 한다며 우선, 업역구조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건설업·건축설계업의 겸업과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 의무제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도급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저가 하도급 심사제도를 합리화하고, 하도급 관리체계의 투명화 및 하수급인 보호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적격심사제도, 최저가 낙찰제도, 설계·시공일괄(턴키)입찰제도 등 입찰제도의 전반적인 혁신이 있어야하며, 보증기관의 계약이행 검증 강화 및 연대보증제 폐지, 보증·보험 취급기관의 확대 등의 조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혁신의 기반 위에 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건설기술개발(R&D)의 확대, 건설 엔지니어링산업의 육성, 중소건설업체 육성·지원 및 신건설수요 창출이 필요하며, 해외건설 활성화와 건설문화의 선진화도 산업이 반드시 가져가야할 화두라고 밝혔다.

2005.12.27.(화)

32nd

조찬토론회

대한주택공사의 U-City 개발동향과 공영개발 및 주거복지

한행수
대한주택공사 사장

제32차 정기모임은 건설산업의 대표적인 공기업인 대한주택공사의 한행수 사장을 모시고 공사가 추진 중인 “U-City 개발동향과 공영개발 및 주거복지”란 주제의 강연을 들었다.

공사는 20세기는 인류 과학기술의 꽃인 정보통신기술 중 유비쿼터스 기술과 도시 개발을 통합한 u-City를 통하여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공사가 개발하는 u-City는 주민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공공 및 사회 각 부문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기업이익을 창출하는 도시라고 설명하였다. 대표적인 도시로 정보화 전략 계획(Information Strategy Plan)을 수립하여 정보화의 방향과 방법론 등을 제시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 모델을 마련한 “파주 운정”이 좋은 사례라고 발표하였다.

현재까지는 공사가 택지를 조성하고, 건설 및 개발업체에 분양하여 투입된 조성비용과 이익을 환수하는 방식에서 전용면적 25.7평 초과아파트에 대해 공사가 직접 개발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방식을 판교신도시에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사장은 정부의 주거복지 동향과 지원 실태, 주거복지 정책 전개 방향 등을 설명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주공의 추진방향과 실현 수단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대한주택공사의 현황과 향후 정책방안을 읽을 수 있는 모임이었다.

2006.01.24(화)

33rd

조찬토론회·정기총회

2006년 경기전망과 건설산업의 미래 발전방안

정구현
삼성경제연구소 소장

제33차 정기모임에서는 정구현 삼성경제연구소 소장을 초청하여 “2006년 경기전망과 건설산업의 미래 발전방안”이라는 주제의 강연과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정구현 원장은 2001-2005년까지의 경제상황을 진단하면서 강연을 시작하였다. 과거 5년간의 경제상황의 특징은 경기사이클의 단기화로 연도별 성장률의 변화가 컸으며, 3년 연속 두 자릿수 성장이라는 탁월한 수출 신장이 특징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가계부채 조정으로 인한 국민소비가 침체되었으며, 물가 안정과 원화가치가 상승하였다고 분석하였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006년 경제성장률을 2005년도 보다 1% 높은 4.8%로 전망하면서 민간소비와 고정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하지만 우리 경제의 문제점으로 전체 기업 수는 증가하나, 대기업의 수는 정체되고 있으며, 창업의 증가로 업체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성장하기는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매출 100억 원 이하 소기업의 성장이 정체되고 있으며, 수익성도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외환위기 이후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종업원 1인당 매출액, 1인당 부가가치에 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향후 5년간의 주요 트렌드로는 내수 시장의 중요성이 증가할 것이며, 소득상승과 소비수준의 향상으로 고객의 눈높이가 변하면서 탁월한 디자인과 고급화, 차별화가 요구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또한 Digital convergence가 Industry convergence로 이행되며, 이종 산업 간의 주도권 경쟁과 전략적 제휴가 동시에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산업의 경우에도 : U-City, Digital Home, Intelligent Building, ITS도로 등 IT와의 결합이 가속화 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경제의 변화와 기술의 융복합에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2006.02.28.(화)

34th

조찬토론회

국토 정책 과제와 공공의 역할

김재현
한국토지공사 사장

제34차 정기모임은 32차에 대한주택공사의 한행수 사장에 이어 한국토지공사 김재현 사장을 초청하여 “국토 정책 과제와 공공의 역할”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들었다.

김사장은 인구증가의 둔화와 고령사회가 도래하였으며, 지방화 시대가 정착단계로 지역발전의 기회가 확대될 것을 전망하면서 국토의 개발도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사의 주요 정책과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 및 기업도시 개발을 통해 국가의 균형발전을 모색하고 혁신주도형 발전체계를 구축하여 동북아경제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또한 쾌적한 환경조성을 통하여 “살고 싶은 도시·지역·농촌 건설”에 역점을 둘 것이며, 통일한반도시대를 향한 통합국토 실현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시책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시행자로서의 역할을 철저히 수행하고, 혁신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모델 제시, 입지 선정 및 부지 매입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제자유구역, 국제자유도시 등 국제협력거점의 개발에도 적극 참여하여 인천, 부산, 광양의 경제자유구역 등에 국제 수준의 경영환경과 생활여건을 조성하여 국내외 투자를 유치하고 동북아 경제중심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남북한의 상호 이익을 도모하고, 한반도 평화분위기 조성을 위한 개성공단조성사업도 상세히 설명하였다. 북한의 개성시 봉동리 일원에 개성공단을 조성하기 위해 총사업비 약 2조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이중 1단계로 2007년까지 2,200억 원을 투입하여 공장용지, 공공 및 지원시설용지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부동산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투기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고, 공공부문 주택공급의 확대할 것이며 수도권에 안정적인 택지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하였다.

회원들은 국토 정책의 변화뿐만 아니라 개성공단의 조성과 부동산시장의 안정대책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 사장의 정책 발표는 건설기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06.03.28.(화)

35th

조찬토론회

건설기술·건축문화 선진화 과제

3월 28일 개최된 제35차 조찬토론회에는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 김진애 위원장을 초청하였다.

강연에 나선 김위원장은 세계적으로 예술성이 높은 도시에 대한 설명과 미국과 영국의 건설산업 혁신운동에 대하여 설명한 뒤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의 향후 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김위원장은 우리나라의 건설의 문제점이 "1)도시가 조화롭지 못하다. 2)걸작이 없다. 3)한국적이지 못하다."는 3가지로 압축될 수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단기간 최대 3년 내에 완료하기 위하여 "1) 제도적 분야의 정비, 2) 신규 프로젝트의 창출, 3) 새로운 조직, 새로운 기구의 설립"해 나아겠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2007년 설계, 시공 시장이 완전 개방되면 한국 건설산업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고 이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선진국의 경우 한국과 중국을 새로운 개척지인 "실버라도(Silverado)"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발표에 이은 토론시간에 금호건설의 박긍래 상무는 위원회의 계획이 전반적으로 건축에 치우쳐 있음을 지적하였으며, 김종훈 공동대표는 대통령 산하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가 30년 전에만 생겼어도 도시, 건축, 토목 분야가 달라졌을 것이라며 위원회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위원회가 건설산업의 모든 문제를 처리하려고 하기보다는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처리하여야할 문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Scope Management를 해야 하며, 대국민 홍보에도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다.

김위원장은 건설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안에 대하여 집중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있으며, 특히 대국민 홍보를 위하여 "이달의 건축·환경문화" "올해 건축의 도시" 등의 행사를 통해서 홍보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06.04.26.(수)

36th

조찬토론회

건설교통 정책방향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

제36차 정기모임은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을 초청하여 '건설교통 정책방향'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들었다. 준비해 온 자료 보다는 평소에 생각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추장관은 취임 당시를 회상하여 '지난 해 4월 6일 취임 시에는 얽히고설킨 문제가 너무도 많았다. 사할린 유전문제, 행담도 사건, 행복도시 헌재, 공공기관 이전, 오송역 이전 문제, 천성산 터널 등 실로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성공적으로 해결하였다'고 밝혔다.

'정책은 100% 완벽할 수 없다'고 전제한 추장관은 국가 정책으로 인하여 피해보는 사람들의 비판이 전체의 의견인 양 오도되는 현실에 유감을 표시하였으며, 대표적인 사례로 발코니 확장 문제를 언급하며 언론에서는 소방을 위한 공간, 대피공간으로 보도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단언하면서 판교의 경우 발코니를 설계 시부터 없앰으로서 중형은 대형, 소형은 중형이 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8.31일 대책의 경우도 국민의 99.9%가 손해를 보고 있으나 언론은 강남의 일부만 손해를 보는 것처럼 오도하고 있다고 유감을 표명하였으며, 3.30대책은 재건축 금지로 주택시장을 위축시키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초과소득, 불로소득의 회수가 그 목표라고 밝히면서 소득이 있으면 세금으로 추징하겠다고 말했다.

'건설교통 정책을 잘못 쓰면 국가가 허물어진다'고 강조한 추장관은 분당, 일산 등 대도시를 건설할 시기에는 많은 비판이 있었지만 현재에서 보면 너무도 잘한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향후 강남의 수요는 억제하면서 신도시, 행복도시 등 대규모 도시 건설을 통해 균형발전을 이루어나가겠다고 다짐하였다.

이규방 공동대표는 향후 공공투자계획과 중소건설업체의 해외 진출에 대한 지원방안을 물었으며, 추장관은 건설투자는 답보 또는 축소되지만 부족한 부분은 BTL, 민자사업으로 확충해 나가겠으며, 해외건설협회에 지원센타를 설립하여 건설회사들이 80년대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길원 회장은 판교의 경우 대부분이 15-20층으로 되어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면 용적률은 강화하더라도 20-25층 이상의 초고층 건축을 허용하게 정책을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추장관은 강남을 제외한 지역은 초고층화해서 Open Space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였다.

2006.05.23.(화)

37th

주제토론회

100년 앞을 내다 본 미래도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 구상

주제발표	민범식 국토연구원 박사
주제토론	**좌장**	이상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
	패널	온영태 경희대학교 교수, 최막중 서울대학교 교수, 장일준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박사

제37차 정기모임은 "100년 앞을 내다 본 미래도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 구상"을 주제로 주제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본 토론회는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동북아경제의 중심으로 거듭나기 위한 전략을 분석하고, 도시의 상호 유기적 연계를 통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미래도시 건설의 방향을 함께 생각해 보았다.

발표자인 국토연구원 민범식 박사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정책 목표, 기본계획, 사업추진방안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들은 후 패널들의 의견 개진이 있었다. 민박사는 행정중심복합도시는 미래 경제성장에 부응하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회적 기회균등, 도시정보 네트워크의 구축, 주5일 근무제 정착에 따른 다양한 세대의 만족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깨끗한 물과 맑은 공기, 수려한 경관의 보전, 각종 재해와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을 구축하여 세계적인 도시 경쟁력을 구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패널들은 100년을 내다 본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현재는 물론 미래 발전계획을 충분히 반영한 계획의 추진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또한 “품격있는”, “건축문화가 살아있는” 도시의 건설을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경직된 입찰제도를 적용해서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도시의 수준에 걸맞은 글로벌 스탠다드의 제도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본 주제토론회는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한 이해의 시간이 되었으며, 패널로 모신 전문가들의 견해는 물론 포럼 회원들의 의견도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2006.06.22.(목)

38th

국내세미나

건설산업의 혁신을 위한 정부의 역할과 과제

주제발표	**1. 한국 건설관련 법의 문제점과 혁신방안**	홍준형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2. 한국 정부의 건설행정조직의 재구축 전략	김정호 KDI 국제대학원 교수
	3. 선진국 공공발주자의 혁신사례와 우리의 과제	김한수 세종대학교 교수
	4. 한국 정부의 조달시스템 혁신과제와 전략	이상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주제토론	**좌장**	이규방 한국토지공사 고문
	패널	류영창 건설교통부 기술안전기획관, 권해수 한성대학교 행정학교수, 장승필 서울대학교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 교수, 김종훈 한미파슨스 사장, 윤영구 대림산업주식회사 전무

제38차 정기모임은 한국의 건설관련 법, 건설행정조직, 정부조달 시스템의 선진화를 위한 혁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선진국의 벤치마킹을 통해 심도 있는 연구를 수행한 바 있으며 세미나에서는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자리로 기획되었다.

본 세미나는 한승헌 연세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약 200여 명의 건설인이 참여하였고 포럼의 공동대표인 장승필 교수의 개회사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이호응 위원장의 축사, 공동대표인 김종훈 대표의 인사말로 세미나가 시작되었다.

세미나는 총 4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첫번째 주제발표는 홍준형 교수(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가 한국 건설관련 법의 문제점과 혁신방안을 제시하였고 곧이어, 두번째는 한국 정부의 건설행정조직의 재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개편 방향을 제시한 김정호 교수(KDI 국제대학원)의 발표가 있었다. 세번째 선진국 공공발주자의 혁신사례와 우리의 과제를 주제로 김한수 교수(세종대학교 건축공학과)의 발표가 있었으며, 마지막에는 이상호 연구위원(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한국 정부의 조달시스템 혁신과제와 전략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패널토론 및 질의응답시간에는 다양한 의견과 질문 및 토론으로 국가발전을 위한 건설산업의 혁신방안을 모색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되었다.

2006.08.30.(수)

39th

조찬토론회

댐 건설을 통해 본 우리나라 건설산업과 환경

제39차 정기모임은 환경운동연합 김혜정 사무총장을 초청하여 강연과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김 총장은 환경운동에 종사한 지 18년이 지났다고 경력을 소개하며, 건설공사와 대립관계가 많아 포럼의 초청에 응할지 여부를 고민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오랫동안 반핵운동에 참여하면서 원자력분야의 연구소, 발전소 등의 인사들과 연계를 갖게 되었으며 상호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며, 대부분 비판적 의견을 내기 때문에 말하는 본인 또한 좋지만은 않다고 말했다.

건설은 한때 국가의 효자산업이었으나 현재는 사회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되며, 본인의 생각으로는 GDP대비 17%를 차지하는 건설산업의 비중이 너무 높으며, 아직도 한국은 건설집단이 힘을 가진 토건국가라고 주장하였다. 이는 금번 수해의 원인을 진단하면서 7년간 논란이 되었던 한탄강 댐 건설이 다시 추진된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실제로 지금까지 추진된 건설사업 중 동강댐을 제외한 모든 사업이 건설인의 뜻대로 이루어졌다는 주장도 하였다.

참여정부의 개발정책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정부도 건설정책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없으며, 오히려 보다 구조화되고 있어 "신개발주의"정부라고 지칭한다고 말했다. 그 대표적인 예를 기업도시에서 찾을 수 있으며, "기업도시특별법"을 만들어 사기업이 국토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규제도 피해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렇게 개발된 토지는 540홀의 골프장, 카지노 등 사행산업의 장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개발은 반드시 문제를 가져오며, 그 대표적인 예가 일본 미야자키 현의 경우로 "레저법" 제정을 통하여 180조를 투자하여 골프장, 레저시설을 건설하였으나 줄줄이 도산하였다고 말했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는 국가가 주도적으로 개발을 하였으나 현재는 시 또는 지방정부가 개발을 담당하고 있어 난개발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무리한 개발은 결국 땅값을 올리는 결과를 가져오며, 이것은 결코 21세기의 경쟁력이 될 수 없다고 전제하면서 건설 부양을 통한 경기부양보다는 세계적 지도자들이 주력하는 빈곤, 역병, 자연재해에 공동 대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 총장의 발표는 건설산업에는 쓴 소리였으나 무분별한 개발과 자연파괴는 건설인도 원하는 바가 아니며 상호 협조하여 함께할 수 있는 노력의 필요성을 공감한 모임이었다.

2006.09.27.(수)

40th

조찬토론회

한국철도시설공단 혁신사례

정종환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제40차 정기모임에서는 한국철도시설공단 정종환 이사장을 모셔서 "한국철도시설공단 혁신사례"라는 주제로 강연 및 토론시간을 가졌다. 혁신이란 "새로운 가죽을 만들어가는 과정과 결과"라고 화두를 연 정종환 이사장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의 혁신사례에 대한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정이사장은 일류만이 살아남는 글로벌 무한경쟁시대에는 경쟁력을 보유한 기업만이 생존할 수 있으며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가 혁신이라고 강조하였다. 공단은 사람(people)의 혁신, 일하는 방식(process)의 혁신, 상품(product)의 혁신, 조직문화(culture)의 혁신을 4대 전략으로 정하고 철저하게 밀고 나갔다고 한다.

혁신의 성공요인에 대해서는 우선 혁신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위기의식 공유 및 일류에 대한 비전의 공감부터 착수하여 CEO가 선도하는 Top-Down의 혁신 프로세스를 진행하였다. 또한 혁신이 1개부서가 아닌 전사의 최우선 업무로 추진하였으며, 확실한 성과관리를 위해 추진결과를 점검하고, 격려하고, 필요한 조치를 적기에 취해나갔다. 이러한 혁신운동 결과 공단은 2005년도 정부산하기관평가 2년 연속 1위, 대한민국 품질경영 대상(2005), 대한민국 품질경영 종합대상(2006)을 수상하였다.

2006.10.25.(수)

41st 주제토론회
분양가 공개 무엇이 문제인가?

주제발표 **1. 아파트 분양가격 결정구조와 분양가 상승원인 진단** | 김우영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2. 정부의 분양원가 공개정책 방향 진단과 향후 과제 |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주제토론 **좌장** | 이상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패널 | 연강흠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조동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장성수 주택산업연구원 박사

제41차 정기모임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분양가 공개의 문제점에 대하여 주제토론회로 진행하였다. "분양가 공개 무엇인 문제인가?" 라는 주제의 금번 토론회에서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김현아 연구위원, 김우영 연구위원의 주제발표와 산학연의 전문가의 토론이 있었다.

최근 논쟁이 되고 있는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문제는 그 사안의 심각성에 비하여 논의가 전개되는 과정이 매우 소모적인 경향이 있다고 진단하였다. 분양원가공개에 대한 찬반론자들의 주장은 각자의 관점만을 고수한 채 평행선만을 달리고 있어, 기세싸움의 모습으로 전개되어 어떠한 합의점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으며, 이런 현상은 각 주체들의 입장 차이에 따른 것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상호 주장의 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음으로써 논의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김우영 박사 등이 공동으로 주택가격 결정구조와 가격 상승 원인을 설명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 모델에서 주택으로 대변되는 아파트의 가격구성은 크게 개발시행자가 담당하는 "개발비"와 건설회사가 담당하는 "생산원가", 그리고 분양가격과 실거래가의 차이에 의하여 발생하는 "실거래 차익"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김현아 박사는 계속되는 분양가 공개의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방안으로 건설업계는 주택건설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경주하고, 정부는 주택건설을 위한 자금조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재원조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토론회가 끝난 후 포럼은 민영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반(反) 시장적 정책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보다 근본적인 주택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2006.11.29.(수)

42nd 조찬토론회
2007년 국내·외 경제전망

이윤호
LG경제연구원 원장

제42차 정기모임은 LG경제연구원 이윤호 원장을 모셔서 "2007년 국내외 경제전망" 이라는 주제로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장승필 대표는 2006년 하반기 들어 건설투자는 감소하고 폐업 업체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건설물량은 정체된 가운데 富益富 貧益貧의 양극화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포럼에서는 새해가 오기 전에 2007년 경기를 보다 확실히 이해하고, 이에 대해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윤호 원장을 초대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소장은 2007년 성장률은 4.0%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상반기에 저점을 통과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특히, 2008년부터는 세계경기와 국내 건설경기의 회복에 힘입어 중기적으로 성장세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는 세계경기 둔화, 원화강세 등으로 수출이 감소하고, 부동산 경기 부진, 가계부채의 원리금 상환부담, 이로 인한 구매력 저하로 내수도 동반 하락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성장 속에서도 원화강세로 국민소득은 2만 달러 시대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나 세계경기가 둔화하고 국내 수출이 한 자리 수로 내려앉으면서 그 의미는 퇴색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특히, 건설경기는 2008년부터나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행정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건설사업이 대부분 계획단계에 있어 금년도 건설경기 회복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소장은 국내외 경기의 침체로 건설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2만불 시대의 도래로 인한 국민 요구사항의 변화와 국내외의 트렌드를 올바로 인식하고 미래 유망사업을 발굴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 강의를 끝맺었다.

2007.01.24.(수)

43rd

조찬토론회·정기총회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

권홍사
대한건설협회 회장

제43차 조찬토론회는 정기총회에 앞서 권홍사 대한건설협회장을 모시고 진행되었다.

권홍사 회장은 우리 건설산업은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해 왔다. 건설인 개개인도 기업가정신을 바탕으로 오늘날 세계 굴지의 건설회사를 일구어 왔다고 했다.

권홍사 회장 역시 맨주먹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여 오늘의 반도건설을 만들었으며 지금 건설산업이 당면한 현실은 힘들지만, 우리 역사나 우리 건설인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를 거치지 않은 적이 없다. 이런 어려움도 마음먹기에 따라 얼마든지 헤쳐 나갈 수 있다고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 말하는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는 지금 우리 건설인들이 되새겨 보아야 할 진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리 건설산업은 수주 물량은 줄어드는데 건설업체 수는 과다하다. 당연히 수주경쟁은 치열할 수 밖에 없다. 게다가 정부의 건설정책은 규제일변도다. 정부가 건설업계를 바라보는 시각도 문제라고 본다. 건설업계를 마치 큰 폭리라도 취하고 있는 집단으로 보고 있는 듯하다. 그러다 보니 실적공사비제도 등을 통해 원가에도 못미치는 금액에 공사를 발주하기도 한다. 최저가 낙찰제가 만고불변의 진리인 양 확대하겠다고 한다. 시장경제를 외치면서도 분양가 상한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니 건설업계가 어려운 것이라고 말했다.

권홍사 회장은 마지막으로, 우리 건설인들은 기업가정신을 바탕으로 당면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해야 한다. 정부가 건설산업을 보는 시각도 바꾸어야 한다. 건설산업비전포럼과 같은 건설업계 오피니언 리더들은 적극적으로 국민을 이해시키고 건설산업의 발전을 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7.02.28.(수)

44th

조찬토론회

국제화를 위한 도심 초고층빌딩 건립사업

정동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을 모시고, 제44차 조찬토론회를 진행했다.

서울의 심장인 도심은 장기간 강북개발 억제와 강남 및 신도시 집중개발 정책에 따라 도심 상주인구 및 유동인구가 감소하여 도심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이로 인해 도심 투자 기피현상이 발생하여 상권이 상실되는 등 도심이 점차 쇠퇴되어 가고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청계천변 남북방향 4대축을 역사, 문화, 비즈니스 등이 어우러진 복합문화공간으로 재창조를 목적으로 하는 도심재창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나 가장 큰 장애는 도심의 획일적 높이 규제이다. 도심지 수직공간의 활용제한으로 비효율적이고 기형적인 토지이용을 초래하고 천편일률적인 판상형 건축물의 조성으로 도시경관을 저해하고 있다.

서울시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의 높이제한을 해제하여 초고층빌딩을 건립하고자 한다. 초고층빌딩건립은 서울의 상징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공간활용이 가능하다. 또한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넓은 녹지축을 조성하고 리듬감 있는 랜드마크를 조성할 계획이다. 검토되고 있는 건축규모는 지하 8층에 지상 220층으로 건물높이는 약 940m이다.

세운 재정비촉진지구 내 초고층빌딩 건립에 따른 파급효과는 첫째, 건설수요발생으로 연관 산업을 활성화 시키고 둘째, 지역고용을 확대할 수 있어 재정수입 증대로 지역 경제에 도움을 주며 셋째, 다양한 사회문화적 효과창출로 도시이미지 제고 및 마케팅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서울을 국제적 관광도시로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2007.03.28.(수)

45th

조찬토론회

정부조달 정책방향과 정부공사제도 개선방안

김용민
조달청 청장

정부공사 발주에 있어서 조달청의 역할은 제도, 절차, 관행의 개선을 통해 건설산업의 발전을 선도, 정보공개와 통일된 기준, 절차로 발주의 투명 및 공정성 확보, 그리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에 기여하는 것이다.

2007년 조달청의 추진계획은 공공부문 물적자원의 효과적인 취득 지원 및 그 관리를 통한 예산활용 및 고객만족을 극대화 하는 것을 목적으로 세계 최고의 공공부문 물적자원 조달, 관리 전문기관으로 성장한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1) 선진 건설서비스 제공으로 공공공사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2) 전자조달의 지속적 고도화를 통하여 공공조달의 투명성·효율성을 선도하며, 3) 다양하고 전문화된 구매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만족을 극대화 한다. 또한 4) 원자재 비축사업의 효율성 강화를 통해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지원하고, 5) 국유부동산 및 정부물품의 관리체계를 개선하여 국유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6) 조달관련 사업을 통하여 정부정책을 효과적으로 지원한다.

정부공사제도의 개선방안(안)은 국가자산으로서 높은 가치를 지닌 "고품격 공공시설물"획득이라는 목표아래 4가지 주요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가치지향 입찰방식의 확충은 선진국의 가치지향(Best Value) 입찰방식을 국내에 적용하기 위해 제안서 평가를 포함한 "기술제안형 입찰방식"을 신규 도입 하는 것이다. 둘째, 기술평가 심사의 강화는 기존 PQ심사, 적격심사, 저가심사, 설계심사의 평가기준에서 기술평가를 강화하는 것이다. 셋째, 비가격 요소 등을 고려한 혁신적 발주방식의 도입, 검토는 품질평가 중심의 혁신적 발주방식을 장기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검토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건설생산체계 합리화를 위한 제도 개선은 입·낙찰제도 외의 보증·감리제도 등을 국제화하고 대, 중, 소 건설업체간 상생협력 강화를 위해 하도급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다.

2007.04.18.(수)

46th

조찬토론회

창의경영 이야기

이승한
삼성테스코 사장

창의란 칼로 상처를 낼 때 느끼는 고통을 거쳐, 마음 속 깊은 곳에 있는 진리와 새로운 생각을 밖으로 끄집어내는 과정을 의미한다. 창의의 원칙에는 현상에 대한 관심, 높은 비전과 목표, 상자 밖 생각, 바꿔보는 습관, 질문, 그리고 성공에 대한 신념이 있다. 창의의 사례로 예술적으로는 20세기 최초의 미술혁명인 야수파 사조, 철학과 사유의 블루오션인 시르크뒤 솔레이유가 있고 건축 및 도시 분야에는 스페인의 구겐하임 "빌바오 미술관", 두바이의 "터닝피라미드", 프라하의 "춤추는 빌딩" 등이 있다.

홈플러스의 경우는 창의경영을 위한 예술경영론을 표방하고 있다. 경영에 있어 모두가 혼심의 힘을 다해 끊임없이 노력한다면 경영을 예술의 경지까지 승화시킬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기업 미션은 "고객에게 항상 더 높은 가치 제공"인데 여기서 말하는 가치중심의 경영은 고객가치, 직원가치, 협력업체가치, 주주가치, 사회가치, 국가가치를 의미한다.

홈플러스의 경영전략은 블루오션 전략이다. 1999년 시점에서 할인점은 국내외 많은 기업이 참여하고 있어 레드오션시장이다. 레드오션에서의 경쟁을 극복하기 위해 홈플러스는 문화센터, 푸드코트, 스포츠시설, 생활편의시설을 포함하여 가치의 다양화를 통한 시장의 블루오션화를 진행하였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치 중심의 시장이 레드오션화 되면서 소매금융, 리테일서비스, 인터넷 쇼핑과 같은 신유통서비스사업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했다. 이후 다시 레드오션화되는 과정에서 신수종사업을 발굴하여 블루오션을 확대하는 전략으로 시장의 가치를 형성하고 있다.

2007.05.30.(수)

47th 조찬토론회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추진 입법안

김석준
한나라당 국회의원

한나라당의 김석준 의원이 말하는 부동산 및 건설산업 관련 주요 정책방향은 1) 부동산 정책 전반(공급확대, 주택복지 확대, 조세정책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 수립으로 구체적으로는 소득계층별(저소득층, 중산층 등), 지역별(수도권, 지방)로 구분한 정책수립, 2) 수요와 공급이 균형된 정책으로 단기적으로 합리적인 세금정책을 통한 투기수요 억제, 장기적으로 제대로 된 신도시 건설을 통한 주택 공급으로 부동산 시장 연착륙 유도, 3) 세제 : 보유세(종합부동산세, 재산세)는 강화하고 거래세(취득세·등록세)는 인하, 거래세 성격이 강한 양도소득세는 점진적 인하, 4) 서민층을 위한 소형 주택은 환매조건부 분양방식, 대지임대부 분양방식 적극 고려한다는 것이다.

그 내용을 항목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1) 반값 아파트, 2)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통합문제, 3) 도시환경 정비 4) 수요공급의 시장기능 활성화를 통한 집값 안정, 5)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렌탈타운' 조성, 6) 후분양제 조기 정착, 7) 임대주택 건설 지속추진, 8) 재건축 규제 합리화, 9) 해양 지향의 U자형 국토개발, 10) 수도권 성장관리체계 구축, 11) 통일시대에 대비한 북방개발, 12) U-City 건설 및 수출상품화

부동산 등 건설산업 관련 주요 법안 처리현황을 살펴보면 10년 이상 장기비축용 임대아파트 50만호 건설 관련한 임대주택법은 국회에서 계류 중이고 부도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국회를 통과하였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나와 있는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겸업제한 관련한 내용은 역시 국회를 통과했고, 안전점검 결과에 대한 통계관리 체계 확립 등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5월 법안발의가 되었다.

2007.06.08.(금)

48th 국제세미나

일본의 버블 극복 사례를 통해 본 한국 건설산업의 위기 탈출 전략

주제발표
1. **버블 경제 위기 탈출을 위한 일본의 건설산업 정책 사례** | 古阪秀三 FURUSAKA SHUZO 교토대학 교수
2. **한국 건설산업의 위기 탈출을 위한 선진화 방안** | 이건영 건설산업비전포럼 공동대표
3. **생존을 위한 일본 건설기업의 경영 혁신 사례** | 山崎雄介 YAMAZAKI YUSUKE 시미즈건설 기술연구소 부회장
4. **불황기 일본의 부동산 시장 개발 성공 사례** | 伊藤一孝 ITO KAZUTAKA 미쯔비시 지쇼(주) 실장
5. **내수시장 불황 타개를 위한 신 시장 창출 방안** | 박재룡 삼성경제연구소 박사

주제토론
좌장 | 이필원 한미파슨스 부사장
패널 | 서종대 건설교통부 주거복지본부 본부장, 구자현 조달청 시설사업본부장 본부장, 김경환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채덕석 K-REITS 사장, 이상호 GS건설 대외정책전략지원실 위원

후로사카 슈조
교토대학 교수

야마자키 유스케
시미즈건설 기술연구소 부회장

이토 카즈타카
미쯔비시 지쇼(주) 실장

박재룡
삼성경제연구소 박사

일본은 대한민국에 인접 국가이기도 하지만 경제발전 과정에서 많은 부분이 유사하게 전개되어왔다. 일본은 버블경제 시대를 맞아 많은 어려움에 직면했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 기업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번 세미나는 일본과 유사한 상황에서의 한국 건설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을 찾기 위해 일본의 전문가와 국내 전문가가 "일본의 버블 극복 사례를 통해 본 한국 건설산업의 위기 탈출 전략"이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다.

교토대학의 후로사카 교수는 "일본의 건설산업에 있어서의 버블 극복 및 미래발전의 전략 - 일본정부의 시책을 중심으로"이라는 주제로 일본 국토교통성의 심의회, 위원회 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건설산업정책의 흐름과 방향성에 대해 발표하였다.

비전포럼의 이건영 공동대표는 "한국 건설산업의 위기탈출을 위한 선진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건설산업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주장하고 특히 공공발주자의 혁신, 기술개발의 필요성, 건설

규제의 완화, 그리고 새로운 건설문화의 창달을 강조하였다.

시미즈건설의 야마자키 부회장은 “일본 건설기업에서의 버블 극복 전략 - 새로운 기업가치의 창조”라는 주제로 생존을 위한 개혁추진을 목표로 하는 버블 붕괴 후의 경영전략, 버블 극복 후의 사업구조 전환과 6가지의 경영전략을 제시하였고 건설기업이 고객 가치 창조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시미즈의 기업정신에 대해 발표하였다.

미쯔비시 지쇼의 이토 실장은 “불황기에서의 개발사업전략”이라는 주제로 버블 붕괴가 Developer에게 끼친 영향과 불황기를 벗어나면서 이에 대응하는 Developer의 구체적인 노력을 사례를 통해서 설명하였다. 또한 버블이후 발생한 새로운 부동산사업의 형태와 향후 전망에 대해 말하였다.

삼성경제연구소의 박재룡 수석연구원은 “한국 건설시장의 구조변화 전망과 시장선진화 전략 - 건설업의 종말과 부활”이라는 주제를 통해 글로벌스탠다드와 차이가 있는 건설산업에 낙후성을 지적하고 IT산업의 발전과 산업 영역 간 융복합의 과정을 설명하였다. 이런 변화 동인을 통해 시장의 융복합 현상의 가속화, 건설시장의 첨단화, 자본화, 그리고 건설산업의 선진화의 의미를 제시하였다.

49th

조찬토론회

도전과 극복

- 딛고 일어선 것은 성공이 아니라 실패와 좌절이었다.

엄홍길
산악인

히말라야 등반을 통해 얻은 것은 삶에 대한 애착과 살아가는 이유를 깨달은 것이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수많은 산행에서 도전과 실패를 반복하고 목숨이 위태로운 적도 많았지만 이런 생활 속에서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다는 것은 말로 표현하기 쉽지 않다. 자신과의 싸움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이겨 나가야하기 때문입니다.

엄홍길 대장은 어렸을 때부터 등반에 대한 환경이 조성되어서 등반에 대한 거부감은 없었고 산을 오르면서 더 높은 곳에 대한 열망이 커지고 이를 통해 성장하는 것에 희열을 느꼈다. 국내외 고지를 찾아다니고 정상을 정복하면서 함께 성장해 나갔다. 이런 활동은 개인이 달성하기 쉽지 않은 과정이다. 그래서 팀을 구성하고 하나의 팀으로서 등반활동을 계속 진행하였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조직의 필요성, 개인적인 생각보다는 팀을 우선으로 하는 모습이 중요하고 단순히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실제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전략적인 이해를 몸으로 깨우치게 되었다.

또한 전략도 조직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에 있다는 것을 체득한다. 산에서의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다. 그러나 조그만 성공은 인간이 거만해지는 계기를 만들고 큰 사고와 실패를 맞이해야 그제서야 인간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산의 무서움, 위대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그는 실패 후 성공은 정상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고 삶에 대한 태도가 달라졌다. 본 세미나의 발표자인 엄홍길 대장은 비록 전문적인 강사는 아니지만 몸으로 체험한 현장에서의 생활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이 삶과 자연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준 좋은 시간이 되었다.

2007.08.29.(수)

50th

조찬토론회

건설산업에 있어서의 법치주의

신웅식
신신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건설계약이란 발주처와 시공자간에 건설공사를 하기 위하여 합의 작성한 계약문서(Contract Documents)로서, 계약문서에서 정한 대로 시공자는 특정된 공사(Work)를 특정된 가격(Price)으로 특정된 기간(Period)에 특정품질(Quality)의 공사를 완공하여 인도하고, 발주자는 이에 대한 대가로서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건설계약은 건설공사 그 자체이며, 건설공사의 각종 불확실성 및 위험성을 발주처와 시공자간에 상호분담, 또는 상대방에게 이전·분산하고 배분·관리하는 것으로서, 따라서 계약문서의 조건을 어떻게 합의하고 규정하고 이행·관리하느냐가 건설공사의 승패를 좌우한다. 표준건설계약서는 일종의 check-list에 불과하다. 공사의 특성이나 조건 등을 보아가며 표준계약서를 수정·삭제 또는 첨가가 필수(기성복도 살 때 재단이 필요), Reference Material에 불과하다. 그러나 표준계약서는 우리나라 건설업계에서는 현실적으로 수정·변경이 불가능하다.

계약 해석 일반원칙 중 상충 또는 모순되는 경우, 같은 문서 안에서의 상충·모순은 특별·세부 규정 우선 적용하고 인쇄된 문구보다 손으로 쓴 문구 우선 적용하며, 최근 문서 우선 적용한다. 상호 다른 문서끼리의 상충·모순되는 경우는 문서 상호간의 적용 및 해석순서가 규정되어 있고 상호보완·보충의 입장에서 해석 요구가 필요하다. 흠결·착오가 있는 경우는 합리적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해석을 하고 계약문서를 준비하였거나 작성한 측에 불리하게 해석된다. 함축된 계약조건(Implied Terms of Contract)이 있는 경우는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계약조건이 해석에 의하여 함축되어있는 경우가 많고 논리상 함축, 법률상 함축, 상 관례상 함축, 기술기준상 함축한 경우는 발주자는 하자 없는 시공에 적절한 도면, 시방서 제공의무가 있다.

입찰/낙찰과 Rule of Law는 책임(responsible)있는 입찰자란 경제적인 능력, 공사실적과 경험, 법률상 면허·자격소지, 공사 수행에 필요한 인적·물적 시설과 장비 소유한 경우를 의미한다.

2007.09.21.(금)

51st

조찬토론회

동계올림픽 유치의 교훈과 재도전 방안

김진선
강원도 도지사

제51차 정기모임은 지난번 동계올림픽 유치에 아쉬운 실패의 고배를 마신 후 다시 재도전을 선언하고 준비에 나선 김진선 강원도지사를 모셔서 “동계올림픽 유치의 교훈과 재도전 방안”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들었다.

동계올림픽 유치는 낙후된 강원도의 발전과 세계화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1995년도부터 구상하였다. 2003년도에 도전했으나 언론, 도민들로 동계올림픽 유치에는 의아해하는 분위기에서 외롭게 활동하였다. 하지만 벤쿠버라는 강력한 후보와의 경쟁에서 1차 투표 결과 51대 40으로 앞서 3표만 얻으면 이길 수 있었는데 3표가 모자라 2차 투표로 가게 되었다. 2차 투표에서는 정치적 문제가 가미되어 실패한 아쉬움이 있었다.

금번에는 의외의 변수가 있었다. 이제는 세계의 강국이 된 러시아가 소치올림픽 유치를 들고 나왔는데 시스템, 정치 환경에서 과거의 러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사실상 동계올림픽 유치는 러시아의 KGB, 마피아, 국영업체가 합심하여 추진하는 특별 프로젝트였다고 할 수 있다. 실패의 근본적인 원인은 외교력의 부재라기보다는 러시아의 영향력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국가 정상 간의 합의로 소치를 지원하기 때문에 돌이키기 어려웠다. 일례로 유럽 국가에 2번씩이나 방문하며 지원을 요청했고 약속을 받아냈으나 정상외교로 인해 수상이 올림픽위원에게 직접 지시하여 4표차로 실패하고 말았으며, 분하고 좌절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동계올림픽 유치는 국가의 위상 강화는 물론 강원도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유치가 성사되어야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꼭 유치해야 한다면 또 한 번 도전하여 성사시키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지원을 요청하였다.

2007.11.08.(목)

52nd

국내세미나

차기 정부기 지향해야 할 국가 건설 정책

주제발표
1. 건설시장의 사회 경제적 환경과 산업구조의 변화 전망 | 김태황 명지대학교 교수
2. 법·제도의 개선과 정부 역할의 조정 | 이상호 GS건설 대외정책전략지원실 위원
3. 해외 건설 세계 5강 만들기 전략 | 이복남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실장
4. 주택 시장의 정상화와 국민 주거 안정 | 김호철 단국대학교 교수

주제토론
좌장 | 조동근 명지대학교 사회과학대학장
패널 | 신웅식 신신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박사, 이상일 서울신문 출판국장 겸 논설위원, 장성수 주택산업연구원 박사, 한용석 포스코건설 그룹장

제52차 정기모임은 논현동에 위치한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대선을 한 달 여 앞둔 중요한 시점에 건설산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자 정책 제안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시의적절한 주제 선정으로 200여 명의 건설인이 참여하였으며, 포럼의 공동대표인 장승필 교수의 인사말로 세미나가 시작되었다.

본 세미나는 총 4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첫 번째 주제발표는 김태황 명지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가 「건설 시장의 사회 경제적 환경과 산업 구조의 변화 전망」을 발표하였고 곧이어, 두 번째 발표는 「법·제도의 개선과 정부 역할의 조정」을 제시한 이상호 GS건설 위원의 발표가 있었다. 세 번째 주제발표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이복남 실장이 「해외 건설 세계 5강 만들기 전략」을 발표하였다. 마지막 주제발표는 「주택 시장의 정상화와 국민 주거 안정」을 주제로 김호철 단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의 발표가 있었다.

김태황
명지대학교 교수

이상호
GS건설 대외정책전략지원실 위원

이복남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실장

김호철
단국대학교 교수

선진국들은 건설산업을 21세기 핵심산업으로 지정하여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특히, 영국, 미국의 범국가적인 혁신운동의 성공은 국민, 정부 및 업계 모두가 相生할 수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국가경제의 발전은 물론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금번 세미나는 절망적인 현재를 탄식하기보다 희망적인 비전을 품기 위한 토론의 장을 갖고자 준비하였으며, 대선을 한달 앞둔 중요한 시점에 건설산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가 되었다.

휴식시간 이후에 진행된 패널토론시간에는 조동근 명지대학교 사회과학대학장이 좌장을 맡고 신웅식 신신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박사, 이상일 서울신문 출판국장 겸 논설위원, 장성수 주택산업연구원 박사, 한용석 포스코건설 그룹장이 패널로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과 질문 및 토론으로 세미나를 빛내주었다.

2007.12.12.(수)

53rd 조찬토론회

대북사업의 현황과 전망

윤만준
현대아산 사장

제53차 정기모임에는 현대아산의 윤만준 사장님을 모셔서 “대북사업의 현황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윤사장은 지난 9년 동안 겪은 일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겠다며 발표를 시작하였다. 연말이 되면 기업들은 차년도 계획을 세우는데 전념하지만 현대아산의 경우 단기, 중장기를 예측하기 어려운 불확실성 속에서 지난 9년을 보냈다고 말했다. 대북사업은 남북관계, 국제정세, 군사문제 등으로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기 때문에 예측이 어렵다는 것이 가장 어려운 점이라고 말했다. 실례로 작년 10월의 핵문제는 초미의 이슈였으며 사업에 어려움이 예상됐으나 금년 2.13합의로 개선되었다. 또한 10월 4일의 정상회담, 11월 총리회담, 6자회담도 잘되어 기대가 높았으나 12월에는 핵 불능화 조치에 대한 북미간의 불화로 다시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일상이 되었으며, 어려움을 극복하며 사업을 해야 하는 것이 매우 긴장되는 업무의 연속이라고 말했다.

이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의 건설로 남북관계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되며, 공기와 같은 것이 되었다고 생각한다며 민족이니, 통일이니 거창한 구호보다는 공장건설, 관광 등 실질적인 것을 거론하고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아직은 확신할 수 없지만 국제사회에서도 차근차근 북한의 해금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고, 중국은 북한의 지하자원을 선점하고 지원하고 있으며, 일본도 지원을 염두에 두고 있어 우리도 북한의 변화에 알맞은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토론시간에는 현대아산이 관광, 개성공단사업에 주력하고 있지만 본격적인 북한의 인프라시설에 대한 전망은 어떠한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으며 개성공단의 근로자 선발 및 개성공단의 리스크 문제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있었다.

2008.01.30.(수)

54th 조찬토론회·정기총회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한국은 인구 구조상 10년내 선진국에 진입하지 못하면 영원히 불가능하다. 새정부는 붕괴된 중산층을 복원하고, 기업뿐 아니라 노동·환경·교육·의료 등 전 분야를 선진화할 것이다. 또한 신성장동력의 확충없이 선진국으로 갈 수 없으며, 기업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규제개혁·감세·준조세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정부도 선진국과 서비스 경쟁이 가능하도록 변해야 한다. 그 일환이 새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조직개편이다. 새정부 조직개편은 기존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되 재정부담은 최소화하고, 시장친화적 복지시스템 구축이 가능한 정부로 만드는 것이다.

대운하가 민자사업으로 추진이 안될 경우 정부가 재정을 투입할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 하지만 이같은 일은 절대 없을 것이고, 그럴 돈도 없다. 대운하 사업은 각계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추진하게 될 것이다. 과학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는 없고, 사업에 대한 평가는 국민들이 하게 될 것이다.

그동안 토지생산성이 국가경쟁력 확보에 중요하다는 인식은 부족했다. 그린벨트·농지·산지·군사시설 등은 꼭 필요한 용도에 맞게 풀어주고, 서민 택지공급이나 장기 임대산업단지·실버타운 촉진 등 국민이 동의하는 분야에서 친환경적으로 개발하겠다. 건설 관련 규제중 행정조치를 취할 것도 있지만, 상당부분은 입법조치 해야 할 것도 있다. 건설업계 스스로도 입장을 정리해서 제안할 필요가 있다.

2008.02.28.(목)

55th

조찬토론회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엽니다

김문수
경기도 도지사

경기도는 질주하는 중국과 각종 규제에 발목을 잡혀 있다. 경기도의 규제는 '서울의 모든 규제+군사시설 규제+물 규제+그린벨트 규제'를 합한 것이다. 그 결과 국내기업의 공장설립이 급감하고, 공장의 해외 엑소더스를 초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자리 급감을 야기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출범은 경기도가 새로운 발전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명박 정부의 정책방향은 비즈니스 프랜들리, 광역적 경쟁력 제고, 칸막이 없이 유연하게 일하는 실용정부 등이기 때문이다.

경기도가 당면한 규제개혁을 위해서는 5대 과제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기업투자는 시장원리대로, 토지는 지역 여건을 감안한 계획적 개발을, 대학은 자율성 보장을, 한강수계의 친환경 개발, 국가안보 위한 반세기 눈물에 대한 국가적 지원 등이 그것이다.

경기도의 3대 신 발전전략은 황해권 세계 경제자유기지 개발, 한강·임진강 에코벨트 조성, 한반도 평화·통일벨트 육성이다. 아울러 정부의 베드타운식 주택공급정책 극복, 대규모 자족형 신도시 개발, 산업단지·교육시설 및 문화·관광 융합, 저밀도 자연친화형 웰빙도시 등을 포괄하는 광교·동탄2 신도시와 같은 명품 주거문화도 창조할 것이다. 경기도 뉴타운은 주민과 함께 사업추진 속도 UP, 신도시와 함께 교통소통 스피드 UP, 친환경·문화 활력으로 주거가치 UP, 명품 디자인으로 도시품격 UP 등 4UP 전략을 추진할 것이다.

2008.03.25.(화)

56th

국내세미나

한국경제 과거 10년 한국건설 미래 5년 구상

주제발표
1. 한국경제 과거 10년 평가와 향후 5년 과제 |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 연구부장
2. 한국경제의 고도성장은 어디까지 가능한가 | 전영재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
3. 한국경제, 국가경쟁력, 건설산업 | 박용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4. 건설경제 5년 구상 | 이상호 GS건설경제연구소 소장

주제토론
좌장 | 이규방 건설산업비전포럼 공동대표
패널 | 김성일 국토연구원 연구위원,박재현 경향신문 기자, 박찬식 중앙대학교 교수, 윤영구 대림산업 전무, 최용기 건설교통시민연대 대표

건설산업비전포럼은 이명박 정부 출범을 맞아 한국경제의 과거 10년을 회고하고 미래 5년을 전망하면서, 건설경제의 미래 5년을 구상하는 국내세미나를 개최했다. 건설업계 입장에서는 건설경제 5년 구상이 중요하다.

기본적으로 건설경제 5년 구상은 정부주도 보다 민간주도로 수립되어야 한다. 민간주도로 객관적·중립적이면서 전문가적 입장에서 구상되어야 국가경제의 발전과 건설산업 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새정부의 건설정책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건설산업이 갖고 있는 미래성장산업으로서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건설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은 미흡하다. 반면에 미국·영국·호주·싱가폴 등 선진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국가 차원에서 건설산업 혁신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같은 최근의 전세계적인 건설산업 혁신 붐을 감안한다면, 새정부에서도 건설산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재평가하고 선진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가 747전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에 걸맞은 인프라시설과 주거문화를 건설하고, 건설산업의 시스템도 Up Grade시킬 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 건설산업은 국가 전략산업으로 선정되어야 하며, 특히 갈수록 그 중요성이 높아지는 에너지·환경분야가 미래 핵심사업 영역에 포함되어야 한다. 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한 7대 정책과제로 법·제도 및 시스템의 글로벌화, 설계·엔지니어링 기술력 강화, 해외건설 5대 강국 진입, 건설기업정책 선진화, 에너지·환경산업 육성, 국민소득 4만불시대의 주택정책방향 정립, 깨끗한 건설문화 만들기가 필요하다. 이같은 정책과제를 실천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정부 및 공기업 조직과 기능 혁신, 정부조달제도 혁신, 공정한 시장경쟁 촉진, 법질서 확립 등이 필요하다.

2008.04.29.(화)

57th

조찬토론회

Principles of DESIGN SEOUL

최창식
서울특별시 부시장

디자인서울의 비전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soft"다. 서울을 21세기 첨단도시로 만드는 성장키워드이자, 세계인을 불러 모으는 매력키워드이다.

디자인펀드멘탈은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 서울상징, 서울색, 서울서체 등 4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은 공공공간, 공공건축물, 공공시설물, 공공시각매체, 옥외광고물을 포함한다.

서울르네상스는 산, 물, 길의 르네상스를 추구한다. 남산르네상스, 한강르네상스, 거리르네상스가 바로 그것이다.

디자인서울의 비전은 22가지로 요약할 수 있고, 이들 22가지 비전을 한마디로 요약한 키워드가 바로 “soft"다.

디자인서울의 비전

01 Genius Loci	서울, 장소의 혼(魂)을 디자인한다	12 Contents	콘텐츠 중심의 소프트시티를 만든다
02 Pro-Environmental	서울을 친환경적인 도시로 만든다	13 Context	역사와 문화에 닿아있는 서울을 디자인한다
03 Safety	안전한 도시 서울을 만든다	14 Attraction	매력있는 도시 서울을 만든다
04 Hierarchy	도시의 위계와 질서를 바로 세운다	15 Interactivity	도시의 상호작용성을 높인다
05 Human	인간중심의 도시, 시민중심의 서울을 만든다	16 Simplicity	도시공간을 간결하고 미끈하게 디자인한다
06 Affordance	시민의 행태를 지원한다	17 Transparency	시각적으로 투명한 도시공간을 확대한다
07 Accessability	접근성이 높은 도시 서울을 만든다	18 Legibility	잘 읽히는 도시 서울을 만든다
08 Barrier Free	서울을 장애 없는 도시로 디자인한다	19 Health	시민이 건강한 도시를 만든다
09 Grammar	서울의 공간문법에 맞는 디자인을 한다	20 Amenity	편리하고 편안한 서울을 만든다
10 Identity	서울의 자아동일성을 구현한다	21 Network	서울시민을 실재공간과 가상공간에서 연결한다
11 Branding	서울의 고유인상을 개발하여 각인시킨다	22 Fun	서울을 즐겁고 재미있는 도시로 만든다

2008.05.28.(수)

58th

조찬토론회

행복한 도시 만들기

제58차 조찬토론회는 남인희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장을 모시고, “행복한 도시 만들기”를 주제로 진행되었다.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의 비전은 “초일류 세계적 모범도시”이다. 행복도시의 철학은 창조·환경·문화·미래로 요약할 수 있다.

행복도시의 우수성은 대단히 많다. 행복도시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우수성을 상세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 행복도시는 미래 맞춤형 도시이며, 세계 최초로 계획된 환상(ring)형 도시다. 지속가능한 친환경 생태도시이며, 자족성을 갖춘 도시다. 교통체증이 없는 도시이며, 커뮤니티 도시이자 품격 높은 문화도시이고, 첨단 디자인도시다.

이같은 행복도시 건설을 위해 여성·노인·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을 고려한 도시설계를 했고, 선진국 수준의 우수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것이다. 유비쿼터스 사회를 선도하는 U-City이며, 시민친화적·파격적인 형태의 정부청사를 건설할 것이다. 장묘문화를 선도하는 묘지공원도 들어설 것이고, 완벽한 자전거 교통체계도 마련할 것이다. 국내 최대규모의 공동구도 설치할 것이며, 첨단 사업관리시스템(PMIS)도 도입할 것이다.

행복도시의 이름은 세종시로 정할 예정이다. 조선시대 역대 임금 중 가장 훌륭한 임금으로 손꼽히는 분이 세종과 정조대왕인데, 두 분 중에서 세종대왕이 좀더 행복도시의 비전이나 철학에 가깝다고 본다.

당면한 현안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법의 제정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이다. 행복도시 건설청은 세계적인 모범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각오 아래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자세로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2008.06.25.(수)

59th

조찬토론회

Great Work Place(일하기 좋은 일터) 운동과 성과창출

김종훈
한미파슨스 사장

김종훈 사장이 한미파슨스를 창립할 때부터 CEO로서 갖고 있던 철학은 구성원이 주인인 회사를 만들어 보겠다는 것이었다. “어떻게 하면 직원들이 출근하고 싶어 안달하는 회사를 만들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고민하다 도입한 제도가 Great Work Place(GWP) 제도였다.

"훌륭한 일터(GWP)"란 조직내 신뢰가 높고, 업무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며, 즐겁고 보람있게 일하는 회사를 의미한다. GWP의 기대효과는 구성원의 내·외적 만족도 향상, 경영성과 증진, 지속가능경영 실현 등 여러 가지를 꼽을 수 있다.

한미파슨스의 GWP 비전은 우리 모두 하나되어 꿈을 실현하는 즐거운 일터를 만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열정과 자부심을 바탕으로 서로 배려하며 즐겁게 일하는 구성원이 주인인 일터를 달성하고자 한다.

한미파슨스는 2005년 건설업계 Best GWP 달성, 2007년 국내기업 Best GWP 달성, 2010년 World Best GWP 달성이라는 목표아래 구체적인 세부 실천항목을 도출하여 연도별 추진전략을 짜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행해 왔다.

이같은 한미파슨스의 GWP 추진성과를 인정받아 2003년 이후 5년 연속 대한민국 훌륭한 일터상을 수상했고, 2006년에는 대상을, 2007년에는 최우수상을 받았다. 이같은 성과에도 만족하지 않고, 한미파슨스는 GWP가 조직문화로 정착되고 실행될 수 있도록 GWP 비전을 더욱 명확히 하고 실천해 나갈 것이다.

2008.07.31.(목)

60th

조찬토론회

부산의 비전과 발전 전략

허남식
부산광역시 시장

제60차 정기모임은 허남식 부산시장을 모시고 “부산의 비전과 발전 전략”이라는 제목의 강연을 같이하였다. 약 40분 동안 진행된 발표에서 허시장은 “부산경제 중흥을 위한 10대 비전” 을 발표하였으며, 세계화, 선진화 기업환경 하에서 선택받는 국가와 도시 환경을 만드는데 전력을 다하겠다며 강연을 시작하였다.

허시장은 부산신항 건설을 통한 첨단산업 물류도시 건설과 부산항 재개발을 통해 허브항만 역할을 확보하고 부산 벡스코를 중심으로 관광 및 컨벤션 중심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산을 산은 많으나 공원이 없는 도시라는 특성이 있다며 서면의 미군부대 부지에 시민공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고하며 테마파크, 골프장, 워터 파크 등을 조성하여 부산을 세계적인 관광단지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말했다. 특히, 개발에는 민간의 창의를 바탕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건설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였다.

토론시간에는 호텔과 컨벤션 건설의 타당성 문제와 부산 시내의 교통문제의 해결방안 등 많은 질문이 있었다. 한국 제2의 도시 부산이 세계화, 선진화의 추진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원한다.

2008.08.27.(수)

61st

조찬토론회

건설산업 관계법령 개폐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방안

이석연
법제처 처장

제61차 정기모임은 제29대 법제처 처장을 맞고 계시는 이석연 처장을 모시고 “건설산업 관계법령 개폐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방안 ”에 대한 강연과 토론이 있었다. 전북대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박사 학위를 받은 이처장은 경실련, 뉴라이트전국연합의 상임대표를 지내기도 하였다.

현행 법령이 시행된 지 60년이 되어 훈령, 예규까지 포함하면 15,000여 개 법령이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침투되어 규제하고 있다며 강연을 시작하였다. 법령의 문제는 문제가 제기되어도 고치지 않고 있는 것이며, 더욱 큰 문제는 하위 법령인 훈령, 예규가 국민생활을 옥죄고 있으며, 담당 공무원에 권한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장은 ①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②기업 또는 영업활동에 지장을 주는 법령, ③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법령을 우선 개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가가 시혜적으로 국민에게 주는 시대는 지났으며, 국가는 어려운 계층, 자립능력이 없는 계층은 북돋아 주어야하지만 법을 지키는 국민에게는 법대로 이행하면 문제가 없도록 법을 개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법제처는 기본적으로 헌법상 시장경제, 적법 절차, 법치주의, 기본권 존중이라는 기준에 근거하여 시장 경제 질서에 맞지 않는 규범은 폐지하고, Negative 규정방식으로 개선하여 많은 국민들에게 혜택이 가도록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여 어떠한 저항이 있더라도 추진해 나아갈 것을 약속하였다.

이석연 처장은 법제처의 이러한 노력이 전파될 수 있도록 포럼 전문가들의 지원을 요청하며 강연을 끝맺었다. 건설을 규제하는 법령에 대한 인식을 같이한 바람직한 모임이었다.

2008.09.26.(수)

62nd

국제세미나

영국건설혁신 10년 성과와 한국건설산업 선진화 추진전략

주제발표
1. **영국건설산업혁신 10년 성과와 교훈 및 향후도전** | Don Ward, Constructing Excellence CEO
2. **공공건설사업 창조적 예산절감 및 투자효과 달성을 위한 영국정부의 전략과 성과** | John Ioannou, OGC
3. **한국건설산업의 선진화 전략** | 이상호 GS건설 경제연구소 소장

주제토론
좌장 | 장승필 건설산업비전포럼 공동대표
패널 | 박상규 국토해양부 건설정책관, 김흥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원장, 정호준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천길주 현대건설 상무

건설산업비전포럼은 성공적인 건설산업 혁신사례로 손꼽히는 영국을 벤치마킹하고자 Construction Excellence의 CEO인 Don Ward와 정부상무청(OGC)의 건설조달국장인 John Ioannou를 초빙하여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국 건설산업의 선진화 전략은 건설산업선진화 위원회 마스터플랜분과를 맡고 있는 이상호 GS건설 경제연구소장이 발표했다.

Don Ward는 「영국 건설산업 14년간의 변화」라는 주제발표를 했다. 그에 따르면, 영국 건설산업은 분쟁, 소송, 낮은 이윤, 안전 미흡, 저생산성, 경쟁력 저하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하지만 Latham 보고서(1994) 이후 건설산업 혁신을 주창하는 문제제기가 잇달아 있었고, 정부도 경쟁력·지속가능성·소비자 보호·정부지출의 가치 창출 등을 달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추진했다. 그 결과 지난 14년간 영국의 건설산업은 협력 증진, 안전도 제고, 설계품질 향상, 이윤 증대, 공기의 예측가능성 확보, KPI채택과 성과평가, 민간투자 활성화 등 괄목할 만한 성공을 거두었다.

이처럼 영국 건설산업의 혁신운동이 성공하게 된 핵심요인은 건설사업 참여자의 조기 참여, 가치중심 입낙찰제도, 공통 절차와 도구, 성과측정, 장기적 관계 형성, 비용에 대한 사고의 전환 등을 꼽을 수 있다. 향후에도 영국 건설산업은 통합과 협력, 리더십과 사람, 가치, 지속가능성의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Don Ward
Constructing Excellence CEO

John Ioannou
OGC

이상호
GS건설 경제연구소 소장

John Ioannou는 「영국 건설조달정책의 혁신」이란 주제발표를 했다. 그는 먼저 VFM(Value for Money)에 대한 설명부터 시작했다. VFM이란 "생애주기 비용과 사용자 요구조건을 충족시키는 품질의 최적 조합을 의미한다. 이것은 초기비용의 최저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전제했다.

영국에서는 건설조달혁신과 관련한 민간부문의 보고서 외에 감사원도 2001년과 2005년 두 차례에 걸쳐 보고서를 발간했다. 사실 영국의 건설조달 문제는 협력 취약, 단기적 관계, 공급사슬 관리 부재, 최저가 제도, 보건·안전 취약, 학습 부족, 고객 경시, 적대적 접근, 통합 부족 등 무수히 많았다. 하지만 혁신의 결과, 지금은 공기·예산·품질 및 소비자 만족도 등 여러 측면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고, 가치 향상도 이루어졌다. 이같은 성취는 정부와 건설업계 및 발주자의 정확한 문제 인식, 혁신 의지, 일관된 혁신프로그램, 리더와 혁신조직의 존재 등 핵심성공요인에 힘입은 것이다.

이상호 GS건설 경제연구소장은 「한국 건설산업의 선진화 전략」이란 주제발표를 했다. 2008년 5월에 한국 건설산업 혁신을 위한 민관합동기구로 건설산업선진화위원회가 발족했다. 한국 건설산업의 선진화가 필요한 이유는 건설산업과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취약, 건설기술과 인력의 글로벌 경쟁력 취약, 건설사업의 성과 부실, 건설산업 구조와 생산체계의 후진성, 법·제도의 후진성과 규제 과다, 부정·부패 상존 등 대단히 많다.

건설산업 선진화 비전은 세계 최고 수준의 건설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세계 일류 산업기반 구축에 두었다. 이를 위해 글로벌 스탠다드 정착과 건설사업비 30% 절감이란 목표를 설정했다. 5대 전략으로 법령 통폐합을 통한 획기적 규제완화, 건설산업 구조개편, 설계·엔지니어링 역량 강화, 공공발주 및 사업관리시스템 효율화, 투명성 제고 및 부패척결을 제시했다.

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해서는 시각과 방법론의 혁신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사업성과 향상, 산업구조 혁신 및 법·제도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

63rd

조찬토론회

도시개발사업 전략 및 성공사례

남충희
SK건설 고문

전 세계적으로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2000년 현재 세계 도시 수는 565개지만 2050년에는 1,000개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들어서는 공공주도 개발사업의 한계로 민간 글로벌 플레이어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추진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민간의 창의력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인프라를 구축하고, 발전된 금융기법을 동원하여 대규모화와 통합화를 달성하고 있다.

미래도시의 트렌드를 보면, 도시 어메너티 욕구변화 등 도시패러다임의 변화와 기술의 융복합화 및 통합화가 예상된다. 에너지 고갈로 친환경 초저에너지 도시개발을 요구하고 있다. 초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와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도 도시개발사업에 반영해야 한다. 세계화로 인해 글로벌 메가시티 개발에 대한 수요도 늘고 있다.

도시개발사업회사의 기능으로서는 유비쿼터스 IT 도입 등 미래도시R&D, 경제·교통·환경·주택·복지 등 도시문제 해결책 R&D, 경제·사회·문화적 요소들을 융합하는 패키지 기획, 금융 R&D 등이 필요하다. 지자체의 파트너로서 새로운 사업기회도 창출해야 한다.

도시개발사업은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도시시설 및 콘텐츠를 부여해야 한다. 센텀시티 개발사업의 경험을 볼 때, 도시개발사업의 성공요소는 철학과 역사의식, 기획구상에 대한 투자 확대, 기획과 마케팅의 병행, 기획력에 바탕을 둔 마케팅, 지역사회와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등을 꼽을 수 있고, 인재싸움·창의력 싸움·시간싸움이 불가피하다.

2008.11.26.(수)

64th

조찬토론회

한국의 고속도로 -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류철호
한국도로공사 사장

1970년 7월, 착공 2년 6개월 만에 경부고속도로가 준공되면서 우리나라 도로의 도약기가 시작되었다. 1980년대는 급속한 경제성장에 반해 교통시설투자가 둔화되면서 도로도 일시적으로 조정기에 접어들었다. 1990년대는 7×9 격자형 간선도로망 수립(1992) 및 철도·공항 등 전반적인 교통투자 확대에 힘입은 도로 중흥기였다. 2000년대는 인프라 투자비중 축소와 민간투자 비중 급증 등에 따른 교통시설 투자전환기였다. 현재는 국토균형발전과 고속도로간 연계성 보완, 대도시권 지·정체 해소를 위해 확장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의 경영방침은 세계 일류 도로 기업이며, 이를 위해 섬김경영·숫자경영·윤리경영을 추진하고 있다.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광역경제권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고, 1조원 투자시 토목부문에서 17,000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기 때문에 자체투자도 확대하고 있다. 최저가 낙찰제 개선 등 건설현장 활성화 대책도 추진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미래도로기술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안전하고 쾌적한 사용자 중심의 고속주행이 가능한 지능형 고속도로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 또한 해외 고기능 도로시장 진입을 위해 해외사업의 발굴·건설·운영을 위한 컨설팅 및 투자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목표는 지능형 도로·안전한 도로·신속한 도로이며, 이를 위해 차세대 도로기술, 첨단 IT기술, 지능형 자동차기술 등을 개발하고 있다.

2008.12.23.(화)

65th

조찬토론회

주택정책의 변화와 주공의 역할

최재덕
대한주택공사 사장

주공은 주거문제 해결이라는 정부의 역할을 대행하여, 매년 13만호 수준의 주택을 건설함으로써 소득 하위 40% 국민의 주거부담 경감과 건설경기의 버팀목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동안 국내 경제상황과 주택시장 동향에 따라 주택시장 안정과 주택경기 활성화 시책을 번갈아 시행해 왔지만, 지금은 이 두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해야 할 상황이다.

주공의 성과로 서민주거안정을 첫 손가락에 꼽을 수 있다. 주공은 설립 이래 200만 호의 중소형주택을 저렴하게 건설·공급해 왔다.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장기임대주택과 도심 극빈층을 위한 맞춤형 주거복지사업도 전개해 왔다. 주공은 신개념의 도시정비사업도 추진했다. 저소득층 주거지역의 환경을 개선하고 재정착율을 제고하기 위해 순환정비방식을 채택하기도 했다. 주공은 똑똑하고 깨끗하고 기름 덜 먹는 주택건설을 추진하고 있기도 하다.

주공의 역점 추진사항은 서민주거부담 경감이다. 약 40만호 관리주택에 대해 임대료를 2년간 동결하고, 약 14만 호 영구임대주택의 관리비도 40% 인하하기로 했다. 내수 활성화를 위한 투자도 확대할 계획이다. 2008년에는 당초 계획보다 1조 원 확대하고, 2009년에도 전년대비 1조 원 더 늘릴 것이다. 공기업 선진화를 위해 주·토공을 통합하여 택지·건축 주체 일원화, 택지개발이익의 주거복지 투자, 중복기능·중복지사 정리, 개발기능 통합과 과잉개발 방지 등을 달성할 것이다.

2009.01.21.(수)

66th

조찬토론회·정기총회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한 정부 정책방향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국내 경기는 금융위기에서 시작된 세계경제 위기의 여파로 성장 및 고용 둔화 등 점차 위축되어 가고 있다. 건설부문의 경우는 미분양 누적 등이 주택투자 부진으로 연결되어 침체가 점차 심화되고 있고 건설수주 감소로 2009년도에도 건설경기 부진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국토부에서는 "경제위기 조기극복", "물과 함께하는 국토재창조", "녹색성장과 신성장 동력 확충"이라는 3대 핵심과제를 선정하였다.

경제위기 조기극복은 SOC투자확대와 조기집행, 주택시장 정상화,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가 있다. 물과 함께하는 국토 재창조의 내용에는 4대강 살리기, 경인운하 조기 추진, 부산·경남권 물문제 해소, 수자원의 안정적 확보가 있다. 녹색성장과 신성장동력 확충은 녹색성장 기반 강화, 신성장동력 확충이 있다.

본 세미나에서 정종환 장관은 4가지 당부사항을 제시하였다. 첫째, 위기를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활용하여 건설산업을 선진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그것의 추진과정에서 건설인의 대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하고 둘째, 23.4조 원인 SOC예산확대에 맞추어 민간의 효율적인 공공사업 추진에 참여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셋째, 일자리 지키기 및 창출에 대한 민간의 동참을 요청하였다. 일자리 나누기와 임금 및 하도급 대금 적기 지급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해외건설에 있어 과다한 경쟁을 자제하는 지혜를 바란다는 내용이었다.

2009.02.25.(수)

67th

조찬토론회

건설산업 선진화위원회 추진 경과와 성과

건설산업선진화위원회
The Ministrial Commission on Construction Industry

제67차 조찬토론회는 이상호 GS건설경제연구소 소장께서 건설산업선진화위원회 추진 경과와 성과에 대해 발표하였다. 2008년 4월 민간전문가 중심의 "건설산업선진화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2차례 공청회와 학회 및 협·단체 의견은 물론, 외국인 전문가 자문단의 의견까지도 폭넓게 수렴하여 "건설산업 선진화 비전 2020"을 작성하여 건의하였다. 건설선진화 비전은 "국민에게 신뢰받고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글로벌 가치창조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3대 목표-5대전략-20대 과제추진을 그 내용으로 한다.

건설산업의 반성에서 시작한 5대전략은 공공 발주시스템 혁신, 설계·엔지니어링 글로벌 경쟁력 강화, 중소기업 지원 및 협력관계 혁신, 투명성 제고 및 부패척결, 그리고 세계 인류산업 도약 기반 조성이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 1단계로 선진화비전, 목표, 제도개선(안)을 목표로 "건설산업 선진화 건의안"을 마련하였고 2단계 법·제도 개선 착수 및 혁신운동 기반을 구축에서는 특별법 제정을 통한 시범사업 추진, "건설산업통합법" 제정 등 제도개선, 제2차 건설산업 선진화방안 수립을 추진하며 3단계에서는 혁신운동 확산 및 지속 추진을 통해 제3차 선진화 방안 추진 등으로 건설산업 선진화를 달성하고자 하였다.

건설선진화 목표를 달성할 경우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1)경제성장률 1%이상 향상, 2)지식·정보산업화로 좋은 일자리 창출, 3)5년내 국가예산 18조원 절감, 4)시설물의 가치향상과 생산성·안정성 확보, 5)세계 5대 건설강국 도약, 6)건설문화 선진화와 국민 신뢰 회복 등이 있다.

2009.03.25.(수)

68th

조찬토론회

문명을 주도한 건설과 글로벌 환경속의 교육과 연구

이성우
국민대학교 총장

건설은 문명을 주도하였다. 로마의 도로와 수로 건설은 로마제국의 천년 지배의 원천이었다. B.C. 146년 최대 규모 수로 아쿠아 마르키아는 도시발전에 주된 역할을 했고 수에즈, 파나마, 수나라의 운하 건설은 수상 물류 운송의 혁신을 가지고 왔다. 또한 서부개척과 철도부설은 지금의 강대한 미국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했다.

현재는 새로운 환경변화 중 하나인 기후 변화 문제와 건설분야의 대응이 하나의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한 다양한 건설정책의 도입은 의무적 공급화대 및 수요창출과 신재생 자원개발 및 활용극대화의 측면에서 수요를 창출할 것이다. 의무적 공급확대 및 수요창출은 에너지사업자 신재생에너지 의무 할당제 도입, 공공건물의 신재생에너지 사용 의무 강화, 그리고 그린홈(Green Home) 200만 호 보급을 내용으로 하고 신재생 자원개발 및 활용극대화는 행상 풍력자원 개발 및 보급, 해양에너지 보급 확대, 그리고 국내외 원료자원 개발 지원 등이 있다.

글로벌 환경 속의 건설분야 교육과 연구에는 공대 졸업생의 과잉 배출 문제, 건설분야 글로벌화 교육필요,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대비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교육이 필요하다. 건설분야 연구 관련 이슈로는 국제 선도 기술, 융합 기술 연구 개발, 국내 관심 분야 외 타국의 관심 연구 분야로의 확대, 정부의 저탄소 녹색 성장 정책에 따른 연구, 외국인 우수 인력(대학원생) 국내 유치로 대학 연구력 강화, 연구비의 개인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타 분야의 국가 시책에 대한 정보 공유 등이 있다. 이러한 연구는 많은 나라의 연구동향을 파악하고 그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2009.04.22.(수)

69th

국내세미나

경제위기 극복과 신성장 동력 창출

주제발표	**1. 글로벌 경제위기와 한국경제의 구조변화** | 이규복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2. 위기극복을 위한 한국 건설산업의 신성장 동력** | 조대연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기획실장
주제토론	**좌장** | 이현수 서울대학교 교수, 한국건설관리학회장 **패널** | 박상우 국토해양부 건설정책관, 김기환 한국토지공사 해외사업처 처장, 이재규 KOPEC 원자력해외사업개발실장, 편무욱 건국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이상호 GS건설경제연구소 소장, 금영수 포스코건설 에너지사업본부 상무, 김상민 매일경제신문사 차장

한국금융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의 이규복 연구위원은 미국발 금융위기의 근본원인을 과잉 유동성 공급과 장기간의 저금리기조의 지속에 있으며, 직접적으로 모기지 회사의 과당경쟁에 따른 방만한 대출, 금융회사의 과도한 레버리지, 금융 감독 및 규제의 미흡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촉발되었다고 분석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는 우리 경제에도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에 의한 금융 및 외환시장 불안, 수출 감소, 내수침체 등으로 영향이 확산되고 있어 경기가 급속히 둔화되고 있다.

글로벌 패러다임의 변화가 주는 시사점은 첫째, 금융과 실물, 내수와 수출의 균형있는 성장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금융시장의 급격한 팽창으로 인한 부작용을 경험하였으므로 향후 경제는 금융과 실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추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내 경제의 회복을 위해서는 내수와 함께 수출회복이 중요하다. 둘째, 세계 경제 회복시 보다 빠른 수출회복을 위해서는 품질향상, 수요자의 니즈에 맞는 제품 제공 등이 요구된다. 전반적인 글로벌 수요 감소에서도 지속적인 수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품질향상을 통한 경쟁력 확보가 중요하고 제한된 수요 속에서 수요자의 니즈에 맞는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향후 정부주도의 산업정책이 각 국가의 투자, 생산 등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녹색 성장산업 등 정부 주도 사업은 향후 지속적인 수요를 유발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하였다.

이규복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조대연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기획실장

이현수
서울대학교 교수,
한국건설관리학회장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현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조대연 기획실장(현 건설사업본부장)은 건설산업의 경제위기에 따른 전망에서 2009년 SOC투자확대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경기침체로 민간부문의 투자가 회복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고 발표했다. 4대강 사업 등 녹색뉴딜사업이 전개되고 있으나, 고용창출 및 경제성장에는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오일달러를 중심으로 한 해외건설시장은 당분간 위축될 수 있으나, 2~3년이후 다시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또한 향후 에너지자원위기와 기후변화는 도전이자 새로운 기회로 작용할 것을 예측했다.

건설산업의 신성장동력 창출하기 위해서는 산업이 보다 개방적이어야 하며, 지식기반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에 근거한 성장전략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추진전략으로 1)R&D 투자의 강화를 통한 정부의 정책 리더십확보, 2)산학연간의 교류확대 및 해외기술자의 유치, 3)히든챔피온 발굴 및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육성을 통한 글로벌 리딩기업 육성, 4)사업의 성공모델 발굴과 기술검증 및 실용화 집중, 그리고 5) 신수종 사업의 발굴과 유기적인 생산체계 정리을 위한 전략이 필요함을 피력하였다.

70th

조찬토론회

새만금과 경제 자유구역

이춘희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청장

새만금 사업은 전라북도 군산시, 김제시, 북안군 일원에 위치한 401㎢ 규모의 방조제, 발수제, 배수갑문 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18조 9천억 원이고 사업기간은 1991년부터 2020년까지 이다. 본 사업은 1981년 4월 만경·동진강 유역 농업종합개발계획 기본조사를 시작으로 2009년 12월 새만금방조제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새만금의 경쟁력은 개발이 용이한 국가 소유의 광활한 토지, 저렴하고 장기적인 토지임대 및 분양 가능, 세계 경제 중심으로 급부상한 중국과 최단거리, 인접 군장국가산단과 생산기능 연계 개발 가능, 새만금 방조제와 연계 개발 가능, 새만금방조제와 연계한 해양관광벨트조성, 그리고 경제자유구역특별법 및 새만금특별법에 의한 신속한 행정절차 및 기업활동 지원이 있다.

새만금군산경제자우구역청(SGFEZ)은 새만금 산업단지, 군산배후 주거단지, 고군산 국제해양관광단지, 그리고 새만금 관광단지에 "동아시아의 미래형 신산업과 관광레저산업의 허브"라는 비전으로 미래형 신산업의 핵심 생산기지, 동아시아 관광레저산업의 허브 역할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개발지역에는 미래형 친환경자동차 및 기계부품소재 산업, 조선기자재 산업, 바이오산업, 그리고 친환경 첨단 소재산업을 유치하고 다양한 관광시설을 도입하여 산업 및 관광지구로 개발할 계획이다.

투자유치에 따른 인센티브는 정주여건 조성, 경영환경 개선, 조세 감면, 보조금 지원 등이 있음을 제시했고, 마지막으로 해외경제특구개발 사례를 중국의 상하이 푸동지구과 텐진 빈하이 신구 그리고 UAE의 두바이 사례를 통해 설명하였다.

2009.06.24.(수)

71st

조찬토론회

생명과 문화가 흐르는 강

심명필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장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는 “생명이 깨어나는 강,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아래 기후변화 대비, 자연과 인간의 공생, 국토재창조, 지역균형발전 및 녹색성장을 목표로 한 범 정부차원의 국토재창조 종합프로젝트이다. 2008년 12월 지역발전위원회에서 한국형 녹색뉴딜사업으로 추진이 결정된 이래 2009년 6월 사업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본 사업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별로 보면 물 부족을 대비한 풍부한 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보를 설치하여 랜드마크로 활용하고 수해예방을 위한 유기적 홍수대책을 마련방안으로 퇴적토 준설로 홍수위를 낮추고 다양한 치수시설을 설치하는 것이다. 수질개선 및 생태복원을 위해서는 오염도가 높은 유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방류 기준을 선진화하는 방법과 생태하천 복원 및 수변생태벨트를 조성하는 방법이 있다. 주민과 함께하는 복합공간 창조에는 여가공간 조성, 수변접근성 개선, 다양한 수변공간 및 둔치 활용이 있다. 강 중심의 지역발전으로는 지천살리기 등이 있다.

본 프로젝트로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는 대한민국을 “물관리 선진국”으로 도약시키는 기회가 될 것이다. “물관리 선진국”이란 물부족, 홍수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수질개선 및 하천복원을 통해 건전한 수생태계를 조성하며, 국민 여가문화 수준을 높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국가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녹색 뉴딜 사업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 결국 물관리 글로벌리더로서 국가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향후에는 본사업과 연계사업을 단계적으로 발주하여 추진하고 준설, 보, 하천정비는 2011년까지 완료하고 지류, 댐, 저수지 등은 2012년까지 완료하고자 한다. 그 외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은 지역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자문을 통해 2010년까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한다.

2009.07.27.(수)

72nd

조찬토론회

녹색성장과 4대강 살리기 사업

이만의
환경부 장관

녹색성장은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지속가능한 성장이며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로 신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국가발전 패러다임이다. 국제사회에서는 녹색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치열한 녹색경쟁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환경·자원의 위기를 인식해서 이에 대응하고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에서는 “2020년까지 세계 7대, 2050년까지 세계 5대 녹색강국 진입”을 비전으로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자립, 신성장동력 창출, 삶의 질 개선과 국가위상 강화라는 3대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10대 정책과제로 1)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 2) 탈석유·에너지 자립강화, 3) 기후변화 적응 역량 강화, 4) 녹색기술개발 및 성장 동력화, 5) 기존산업의 녹색화 및 녹색산업 육성, 6) 산업구조의 고도화, 7) 녹색경제 기반 조성, 8) 녹색 국토·교통의 조성, 9) 생활의 녹색혁명, 10) 세계적인 녹색성장 모범국가 구현이 있다.

4대강 사업을 친환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추진해야 할 과제는 1) 철저하고 신속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충실히 이행하고 환경 평가단을 구성·운영 및 간소화된 환경평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다. 2) 하천공사에 따른 환경영향 관리를 위해 수질오염사고 예방·방제를 위한 전문기구 신설 및 매뉴얼을 마련하여 신속한 대응을 하고 취수장과 수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 및 적정관리하고자 한다. 3) 4대강 수질개선을 위해 당초 4대강의 “좋은 물” 개선목표를 2015년에서 2012년으로 앞당겨 조기 달성하고 오염도가 높아지고 있는 COD·TP, 비점오염 집중관리를 한다. 만약 경기침체가 계속되면 성장 위축과 함께 소득감소, 실업률 증가 등 사회적 악재를 만나게 될 것을 예고하기도 했다. 4)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 물 확보를 위해 산업폐수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먹는 물을 확보하고 간접 취수 확대, 오염사고 예방, 폐수 위해성 관리 강화 등을 추진한다.

2009.08.26.(수)

73rd

조찬토론회

우리나라의 부패실태와 개선방안

이영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청렴은 21세기 국가발전의 성장 동력이자 국가경쟁력을 견인하는 기본적 요소이고 핵심가치이다. 국가 청렴도와 국민소득의 상관관계를 보더라도 1인당 소득수준이 미화 25,000불인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네덜란드 등 국가들은 청렴지수도 높게 나타난다. 또한 청렴은 사회통합과 안정성 확보에 기여하고 기업의 경우는 윤리경영을 통한 생존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 투명성 기구의 CPI지수를 보면 2003년 50위에서 2008년 세계 40위로 상승했다. OECD 30개국 중에서는 22위이고 경제력 수준(GDP 세계 15위, 2008년 기준)에 비해서는 현격하게 낮은 수준이다. 분야별로 보면 건축/건설은 교육, 경찰, 세무, 법무보다 매우 낮은 10점 만점에 2.09점으로 나타났다.

우리 사회의 부패발생 원인을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인식도 조사결과를 인용하면 관대한 처벌, 관용적인 사회문화, 정치과정 부패구조, 윤리의식 부족, 그리고 불합리한 제도를 들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패행위에 대한 적발/처벌을 강화하고 부패유발 법/제도 및 행정규제를 개선하며 사회지도층, 고위공직자의 부패감시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공직자의 부패범죄에 대한 사전예방활동과 투명한 기업활동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

부패는 용수철 원리와 비슷하다. 부패방지를 위한 노력이 느슨해지면 부패는 과거로 회귀하려는 속성이 있으므로 회귀하려는 탄성을 완전히 잃을 때까지 지속적인 추진이 중요하다. 정부는 최근의 부패특성에 맞게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건설업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비중이 막대함을 감안하여 건설업계에서도 국가청렴도 향상을 위해 부패방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2009.09.23.(수)

74th

조찬토론회

원전산업 현황과 향후전망

김종신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세계에너지 수요는 2030년에 55%이상 증가하고 원자력발전도 2배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내 에너지 환경의 경우는 세계 11위의 에너지 소비국이고 석유 소비량으로는 세계 7위이다. 2008년 에너지 수입액은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목인 반도체, 자동차, 조선 보다 많다. 에너지 소비는 갈수록 늘어나지만 화석연료고갈에 따른 한계와 온실가스 증가에 따른 환경위기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에너지의 사용이 대안으로 나타나고 있다.

원자력의 경우를 보면 태양광, 풍력 등과 비교할 때 판매단가가 월등히 낮다. 또한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다른 대체에너지에 비해 검증되었다. 설비 이용효율이 높고 생산지 설치 부지도 작아 효과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은 원전도입을 서두르고 이용확대를 위한 방안들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1959년 7월 TRIGA MARK2를 연구용으로 도입하여 처음 상업용으로 "고리 원자력 1호기"를 도입했다. 2008년 현재, 국가 전력의 약 36%를 공급하고 세계 6위의 원전설비용량을 보유한 원전 강국이다.

원자력은 녹색성장이라는 최근의 화두에 따라 국제사회는 환경위기와 자원위기를 동시에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녹색기술, 녹색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자하고 국내의 경우는 기존산업 중심의 성장한계를 벗어나 녹색성장을 위한 준비를 시작하고 있다. 이러한 녹색성장의 3대요소로는 CO2배출에 따른 환경부하 감소, 에너지자원 사용 최소화, 신성장동력 개발이 있다.

2030 국가 에너지 기본계획은 녹색성장, 원자력이 희망이라는 구호 아래 2008년에 26%인 원자력 설비비중을 2030년에는 41%로 확대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역시 11%로 확대하고자 한다.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신규 원전부지와 원전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사용후 연료의 최종관리방안과 핵심원천기술자립이 필요하다.

2009.10.28.(수)

75th

조찬토론회

감사결과로 본 건설산업 문제점 및 개선방안

성낙준
감사원 건설·환경 감사국장

건설·교통분야는 GDP대비 25%이고 고용인원이 333만 명이며, 초고층 빌딩, 초장대 교량, 최고효율 발전소와 같이 기술적으로 우수성을 자랑하고 있다. 하지만 건설에 대한 이미지는 담합, 비자금, 부실공사, 자격증 대여, 업계의 정경유착 등 매우 부정적이다.

건설산업에서의 감사활동의 목표는 예산낭비요인의 사전제거, 입찰 및 계약의 공정 룰 확립, 타당성조사, 환경영향평가 등 제반 절차 준수, 부실계획, 부실설계, 부실공사, 부실감리 차단, 하도급자 보호 및 건설산업 발전 유도이다. 최근 5년간 70개의 감사를 실사하였다. 감사결과에 따라 계약질서 위배사항 지적, 부실공사 적발, 부실평가 및 부실심의의 경우는 위원회 풀(pool)에서 제외,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요구 등의 성과를 나타냈고 운영상의 문제, 행정편의주의, 잦은 룰의 변경, 전문가의 사명의식 부족, 단기 실적 중심의 풍토와 같은 건설산업의 잘못된 관행을 고치도록 노력했다.

선진 건설 한국이 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질서 확립, 기술개발로 선진건설 한국 위상 제고, 선진화된 건설행정체계 확립, 중소업체, 전문업체에 대한 배려와 상생의 산업구조 개편 등이 필요하다. 결국 수요자 중심으로 건설생산방향의 이동이 요구되는데 생산자가 팔 물건을 만들지 않고 소비자가 살 물건을 만드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경쟁 상대자도 똑같은 생각과 가치를 공유하여 각 분야에서 건설관련 제반활동이 선순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2009.11.25.(수)

76th

조찬토론회

세종시의 기본계획과 자족성 확보방안

제76차 조찬토론회는 전)행정중심복합도시 총괄기획가인 안건혁 서울대학교 교수를 모시고 “세종시의 기본계획과 자족성 확보방안”을 주제로 강연을 들었다. 세종시 계획은 과거 국가주도형 불균형 발전모델을 채택하여 압축성장을 추구하고 수도권 집중에 따른 사회·경제·환경적 비용의 급증과 지역간 격차 심화에 따른 국가경쟁력 저하, 수도권 집중의 결과로 교통혼잡, 환경오염, 주택보급율 저하 등으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이런 계획은 21세기 국가 발전전략의 개편과도 맥을 같이 하여 혁신주도형 발전 패러다임에 기초하여 국토개발보전관리의 틀을 개편하고 신행정수도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방 분권 등을 통합적으로 추진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상호보완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세종시 건설의 정책목표는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모범도시의 조성하는 것이다. 국가균형발전의 선도사업이 되고 다극혁신구조로 국토를 개조하고 이를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것이다. 또한 도시수준 향상의 계기로 삼아 기술적, 문화적 비전을 제시하고 도시건설의 새로운 모델로 삼는 것이다.

도시 디자인 방향은 통합과 특화이미지를 살려 환상형 대중교통축을 중심으로 통합이미지를 형성하고 권역별 특성 및 이미지 특화를 통해 생활권별 지구단위계획 수립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도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세계경제위기, 미분양 아파트 증가와 지방도시 주택수요 감소, 토지 미분양과 주택건설 지연과 같은 경제적 여건과 국가행정기능의 분산 지양과 정치 쟁점화, 2007년 대선 시 MB의 과학기술벨트 건설 공약과 같은 정치적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자족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2009.12.16.(수)

77th

국제세미나

한국 건설산업의 건전성 확보와 글로벌 시장 확대 전략

주제발표
1. 건설산업 선진화 비전 2020의 진행현황과 개선방안 | 이상호 GS건설경제연구소 소장
2. 외국인 건설전문가가 본 한국 건설산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David Moore GALE 부사장
3. 글로벌 시장 전망과 발주패턴의 변화 추세 | 이복남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주제토론
좌장 | 이현수 서울대학교 교수, 건설관리학회장
패널 | 유병권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 국장, 박상우 건설정책국 국토해양부 국장, 이기상 경제통상학과 세종대학교 교수, 김종현 해외건설협회 본부장, 천길주 현대건설 상무

제77차 국제세미나는 "한국건설산업의 건전성 확보와 글로벌 시장 확대 전략"이라는 주제로 진행하였다. 국내 건설산업이 성장하기 위한 요인 중에는 건설산업의 건전성과 글로벌시장 경쟁력 확보이다. 이런 요인에 대해 외국인의 시각을 통해 객관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Gale사의 부사장인 David Moore를 초청해서 한국건설산업과 글로벌건설산업을 비교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건설산업 선진화 연구결과인 건설산업선진화 2020의 진행사항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고 글로벌 시장에 대해 전망해 보는 시간도 함께 했다.

이상호
GS건설경제연구소 소장

David Moore
GALE 부사장

이복남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이상호 GS건설 건설경제연구소장은 "선진화비전 2020"에 대한 개관 및 진행현황을 발표하고 기존의 정부(안)과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을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건설업역·업종제도, 일괄·대안입찰 및 설계용역자 선정제도, 발주제도, 건설보증제도, 공공사업 효율화, 처벌제도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고 "1차 선진화"의 한계를 통한 "2차 선진화" 추진방안을 강구하였다.

David Moore Gale사 부사장은 "The Korean Construction Industry in a Global Market"을 주제로 설계, 납품도서와 승인, 입찰과 조달, 품질, 계약과 클레임, 투명성에 대해 국내 관점과 글로벌 과점을 이슈별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그는 본 세미나를 통해 계약과 컨설팅 관점에서 한국의 건설산업은 세계 건설시장에서 밝은 미래를 가지고 있지만 한국 회사들은 우수한 기록시스템, 성실하고 노련한 기술자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회사들의 가능성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항목은 역점을 두어 다룰 필요가 있다고 충고했다.

이복남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글로벌 시장 전망과 발주패턴의 변화 추세"를 주제로 발표하였다. 발표는 글로벌 건설시장의 환경변화에 따른 전망을 제시하고 국내 건설산업의 글로벌 위치와 경쟁 강화 방향을 소득수준과 생산성, 소득수준과 인건비, 선진기업과 시장분담 현황, 선진기업들의 사업 실행전략, 국내기업들의 사업수주 및 실행 구조, 국내 건설공사 원가 수준의 국제 비교를 통해 제시하였다. 또한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건설의 리더십과 역량을 높이기 위한 해결방향을 건설 생애주기에 따라 제시했다.

2010.01.27.(수)

78th

조찬토론회·정기총회

미래국토 발전전략

박양호
국토연구원 원장

1960년대부터 국토개발에 대한 청사진이 마무리되고 개발에서 활용으로 전환되는 시기에 국토 활용을 통한 국가경제 발전전략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박양호 원장은 세계 속의 한국경제 위상을 점검하고 변화하는 세계 경제 흐름을 진단했다. 한반도의 지리적 및 지형적 위치와 특성, 그리고 과거 50년간 국토개발을 통한 한국경제의 성장 과정을 그려냈다. 한반도와 한국경제의 차세대 성장은 한반도만이 아닌 동아시아지역이란 거대한 틀 안에서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의 미래 경제 성장을 이어가기 위한 국토전략 차원에서 6대 전략과제(SOC와 주택투자활성화, 광역경제권개발·도시발전, 4대강정비사업, 지역재생프로젝트, 녹색성장형 IBEC 산업밸리, FTA시대의 '연성국토')를 제시했다. 특히 광역경제개발권을 동쪽으로는 일본, 서쪽으로는 중국의 황해권과 서부대개발 시대를 아우르는 새로운 성장 전략으로 제시했다. 광역권개발의 사례로 프랑스와 미국의 국토이용 계획 성공을 들었다. 프랑스는 대도시 중심으로 방사형형태의 위성도시 연계망을 구축한 대표적 사례이며 미국의 경우는 거대지역화 개발 사례를 대표하는 도시발전 전략을 수립했다는 분석이다. 미국 도시개발 전문가 시각에서 보면 한국의 한반도 개발은 하나의 대도시권으로 보는 게 새로운 추세와 부합한다는 주장하는 것을 예로 들었다. 이런 구상에서 정부가 내 놓은 것이 초광역권개발 구상이라는 배경도 설명에 포함시켰다.

2010.02.24.(수)

79th

조찬토론회

2010년 국토해양 주요정책 추진방향

권도엽
국토해양부 차관

정부의 2010년 국토해양정책에 대한 방향과 포럼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국가의 국토해양정책을 총괄하는 최고책임자인 국토부 차관이 중반기에 들어선 MB정부의 정책성과와 반성, 그리고 2010년 주요정책 추진방향과 현안과제, 건설교통분야 오피니언리더들에게 주문하는 사항 등의 내용을 담았다.

성과 면에서는 불합리한 규제 철폐, 산업의 경쟁력 강화, 보금자리 주택공급을 통한 주거복지강화와 주택시장 안정화 기반 마련, 4대강 살리기와 경인 아라뱃길 등 국책사업의 적극적인 추진 등이 성과로 꼽았다. 반성으로는 민간주택 공급 부진으로 주택수급 불안감 해소와 건설투자 감소로 일자리 감소, 녹색성장이 슬로건에 비해 낮은 성과 등을 꼽았다.

2010년 국정의 핵심 목표로 '견실한 경제회복, 따뜻하고 경쟁력 있는 일류국가실현'을 상정했다. 5대 중점과제로 일자리 창출, 4대강 기반 새로운 국토창조, 주택시장 안정화·주거복지강화, 저탄소녹색성장의 조기 가시화, G20 개최 계기 국격 향상을 꼽았다.

국정의 현안과제로 지역균형발전, 행정부처 분산으로 인한 효율성 저하, 행정수도 역할에서 행정중심도시로의 성격이 변한 후 충청권의 미래 발전상 등이 꼽혔다. 주문 사항으로 기업들의 일자리 창출, 녹색건설에 대한 기업들의 R&D투자 확대, 이미지 혁신을 위한 자발적인 노력 등이 제시되었다. 포럼 회원들의 국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도 함께 제시되는 자리였다.

2010.03.24.(수)

80th 조찬토론회

우리나라 원자력산업의 현주소

박군철
한국원자력학회 회장

2009년 12월 전국민들에게 전달된 아부다비발 UAE원전 수주라는 기뿐 소식은 한국원자력산업의 재탄생 각인시킬 만큼 국민적 관심을 끌었던 사업이었다. 건설산업비전포럼은 세계원자력에너지 산업의 현재와 미래, 그 속에서 한국원전산업의 위상과 미래 발전상을 들어보고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서울대학교 원자력공학과 교수이자 한국원전산업을 대표하는 한국원자력학회의 회장인 박군철 회장의 발제를 듣고 토론하는 자리였다.

박군철 회장은 한국원자력산업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국내 최고의 전문가로서 분석 및 예측 결과를 발표했다. 정통적인 원자로에서 새로운 원자로를 개발하는 세계적인 추세, 그리고 한국원전산업을 국가 대표 주력 상품화하는 전략과 이를 실행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 등을 폭 넓게 발제했다.

고리원자력발전소 1호기 상업운전에서 출발하여 과거 30년동안 국내 원자력산업이 발전해온 과정과 국가정책의 역할, 세계원자력에너지 수요 전망, 에너지의 97%를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의 현실은 원전의 비중을 현재보다 높이지 않을 수 없는 현실, 한국원전이 지역사회와 국가에너지 자립에 기여하는 긍정적 파급 영향 등을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담았다. 한국원전산업이 추구하고 있는 미래 원자로기술개발 방향성과 주력 수출 상품화시키는 전략, 한국원전산업이 가진 장점 등을 집중적으로 설명했다.

설명에 이어 해결해야 할 과제와 산업계의 오피니언리더들의 주문사항도 활발하게 제기 및 토의 되는 자리였다.

2010.04.28.(수)

81st 국내세미나

환경변화에 따른 건설산업의 전환

주제발표	**1.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 1년의 평가 및 향후과제** | 이복남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2. 외국인 건설전문가가 본 한국 건설산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이상호 GS건설 경제연구소 소장
주제토론	**좌장** | 이성우 국민대학교 총장
	패널 | 고현무 서울대학교 교수, 문병권 도화종합기술공사 부회장, 박성동 기획재정부 과장, 이규재 삼성물산 부사장, 이문기 국토해양부 과장, 황봉현 매일경제신문 부장

이복남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한국건설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MB정부가 출범시킨 선진화 백서 발표 이후 1주년을 기념하여 국내세미나 아젠다로 상정했다. 국토교통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건설산업비전포럼 회원들이 주축된 조직에서 1년간의 연구와 토론과정을 통해 국가경쟁력강화위원위원회에 상정되어 국정아젠다로 채택되었다. 국가건설산업의 선진화 아젠다 이슈화 이후 1년에 대한 성과평가와 함께 향후 진로에 대해 포럼 회원들의 입장을 정리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상호
GS건설 경제연구소 소장

제1주제에서 선진화방안 추진의 배경과 목적, 그리고 개략적인 내용 정리와 함께 포럼에서 정부에 권고한 내용, 국토부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상정한 내용 비교 등을 담았다. 1년 동안의 성과를 돌아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와 과제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갖추기 위해 관제탑역할을 주문하는 등 적극적인 실천을 주문했다. 과제의 속성 상 발주자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과 선진화 성공을 위해 산업체들의 적극적인 동참도 주문했다.

제2주제에서는 건설포럼이 정부에 건의한 내용과 정부가 채택한 선진화방안을 비교하여 정부와 산업체의 체감도 비교를 하는 내용을 담았다. 1년 동안 제도개선에 대한 성과가 있었던 부문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내용을 담았다. 제도개선 성과로는 업종별 영업범위 제한, 수급인 자격 제한을 발주자에게 재량권을 주도록하는 것과 업역제한 예외 인정에 따른 하도급 규정 정비, 시공책임형CM방식 도입 등이다. 기술력 위주의 발주방식 활성화 방안 검토도 주요한 성과로 꼽았다.

2010.05.27.(목)

82nd

조찬토론회

2010년 2분기 이후 국내외 경제 및 금융시장 전망

김영익
하나금융연구소 소장

2008년 미국 발 금융위기가 회복되기도 전에 남유럽발(PIIGS) 재정위기 및 국가신용등급 하락 조짐이 가시화됨에 따라 선진국 중심의 재정 및 금융, 신용등급 위기가 국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던 시기였다. 포럼은 금융전문가인 하나금융연구소 소장 김영익 박사를 초빙하여 국내 경제변화 상황과 금융시장에 대한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김영익 소장은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 경제의 불황에도 불구하고 중국 등 아시아권의 신흥국 경제는 미국발 금융쇼크로부터 점점 회복되어 경제 활력을 되찾을 것으로 전망했다. 즉, 향후 세계 경제는 선진국보다 신흥국 중심으로 성장과 발전이 견인 될 것임을 예고했다.

한국의 경제도 비록 2010년 하반기 경기는 둔화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4% 대 성장 국면이 전개되리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 놓았다. 환률 안정세에 힘입어 경상수지의 흑자도 지속되리라는 전망이었다.

저금리가 지속되어 채권 수익률은 하락하고 주가도 당장의 상승세보다 2011년 이후에 상승세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주택의 자산가치로서의 전망은 다소 어두운 전망을 내 놓았다. 즉, 구매력을 가진 35~55세 인구비중의 감소로 공급량에 비해 수요층이 줄어들기 때문으로 해석했다. 특히 버블세븐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부동산값이 고평가되었기 때문에 자산으로서의 주택투자는 매력이 적다는 결론을 내렸다.

2010.06.23.(수)

83rd

조찬토론회

해외건설 현황과 진출전략

이재균
해외건설협회 회장

1965년 한국건설의 해외 첫 진출 후 연간 최대 수주액 달성이 가시화되는 시기에 해외건설을 총괄지원하고 있는 해외건설협회의 이재균 회장을 초빙하여 현황과 전망, 그리고 전략 등에 대해 주제발표와 함께 회원들과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특히 2009년 12월에 체결한 UAE원전사업은 단일 건수로 최대였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2010년도 수주액이 사상 최고를 기록 할 것이라는 예측이 대세인 시점이라 건설산업의 최대 이슈이기도 했다.

이재균 회장은 발제자료를 통해 세계건설시장의 규모를 6.5조 달러로 추정했으며 향후 시장은 원전과 고속철도, 도시개발 등이 급팽창 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시장 증가와 별개로 해외시장은 발주기관들의 요구가 다양해지고 단순 도급공사보다 사업금융을 동반하는 투자개발사업이 확대 될 것이며 중국 등 신흥국기업들의 진입 증가로 가격경쟁이 극심해 지리라는 예측도 했다. 시장 증가세는 선진국보다 베트남, 인도, 북아프리카·중동지역 등 신흥국 시장세가 지배 할 것이라 전망했다.

성장하는 해외시장에 비해 국내업체들의 당면과제로 해외건설 정보네트워크 부족, 글로벌 인재 태부족, 원천기술과 금융경쟁력 부족 등을 최대 걸림돌로 지적했다. 무리한 수주경쟁으로 부가가치 하락 문제도 지적했다. 한국의 해외건설이 연간 수주액 1천억 달러를 수주하기 위해서는 'One Korea' 전략으로 '함께, 또 따로'라는 개발은 공유하되 활용은 개별 기업 몫으로 분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2010.07.21.(수)

84th

조찬토론회

북한 미래, 한반도 미래 시나리오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학교 교수

제84회 조찬회는 북한문제 전문가인 러시아출신의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학교 교수를 초빙하여 북한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주제발제와 토론을 개최했다. 안드레이 교수는 북한에서의 생활 경험과 학자로서의 한반도의 지정학적 관점에서 나름대로의 변화 시나리오를 가상했다. 북한 문제는 건설산업의 관심인 북한개발 문제를 떠나 한반도의 정치·사회·경제 등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최대 변수 중 하나다. 최근에도 북한 미사일 발사와 핵 문제로 국제적인 이슈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 포럼 회원들의 관심도 상당했다.

안드레이 교수가 상정한 북한 변수를 3가지로 요약했다. 비록 김정일 시대에서 김정은 세대로 넘어 왔지만 여전히 유효한 시나리오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북한의 자체 내 개혁으로 혼란과 무정부시대가 도래하여 한국에 의해 흡수 통일되는 시나리오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북한 내 급진 세력에 의해 폭동과 혁명에 의해 한국에 의해 흡수되거나 친 중국 위성정권이 들어서면서 체제가 안정화되는 시나리오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북한이 극심한 경제난으로 민심이반을 틈타 친 중국세력이 쿠데타를 일으켜 친 중국 정권이 중국에 의해 들어서는 시나리오다.

세 가지 시나리오 중 북한에 처한 경제상황과 정치적 영향력을 볼 때 한국으로의 흡수통일보다는 친 중국정권에 의한 체제 안정이 북한 권력자들이 바라는 것일 거라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 한국의 기대는 북한이 자체 내 경제발전을 통해 남북한 간 경제격차를 현재의 1:20에서 크게 줄인 후 점진적 통일이겠지만 안드레이교수의 판단으로는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었다. 또한 중국식의 개혁도 남·북한 경제력 차이로 희망사항에 불과하다는 결론이었다.

2010.08.25.(수)

85th

조찬토론회

하반기 부동산시장 전망과 정책방향

진현환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장

제85회 조찬토론회는 당초 계획은 한만희 전 국토해양부 차관(당시 주택토지실장)이 주제 강연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예정에 없었던 인사이동으로 인해 진현환 과장이 대신 발제하게 되었다. 주제도 당초 '하반기 부동산시장의 전망과 정책방향'에서 '주택시장의 현황과 대응방향'으로 축소되었다. 당시 민간주택시장에서 관심을 가졌던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이슈가 회원들의 관심사항이기도 하여 발제 후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기도 했다.

발제에서 진현환 과장은 우리나라의 주거현실, 주택시장 동향과 전망, 국토부의 2010년 주택정책 추진 방향과 주요 정책과제 등을 밝혔다. '09년 기준 가구수와 주택수 비교에서는 '03년을 기준으로 주택수가 가구수를 넘어 111.0%를 넘어 섰지만 인구 천명당 주택수는 350.2로 일본의 451.0이나 미국의 427.3보다는 여전히 낮음을 지적하여 적정한 재고(stock)량 유지를 위해서는 추가공급이 필요함을 밝혔다. 주택의 양적 문제와 함께 질적인 문제로 30년 이상이 경과한 주택수가 전체 주택수의 12.9%로 멸실 가능성이 높고 또 국민1인당 주거면적도 한국(27.8㎡)을 기준으로 할 경우 미국의 약 39%, 일본의 78%로 개선의 여지가 높음을 지적했다.

국내 주택의 양적·질적 부족에도 불구하고 미분양주택 증가는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준공 후 미분양주택이 악성으로 분류되는데 이 숫자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어 주택공급업체들의 경영 부담을 야기시키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인구구조의 변화로 1인 가구 증가, 핵가족화로 주거면적 감소 등 새로운 변화추세를 제기했다. 서민들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보금자리주택과 도심지 내 소형주택공급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한 정부의 노력도 소개했다.

2010.09.17.(금)

86th

조찬토론회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의 경제동향과 대응방안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회복되기도 전에 남유럽 및 유럽전체 재정위기로 넘어갈 조짐이 보이는 시점에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한 관심이 커져가고 있었던 시기였다. 비전포럼에서는 오피니어리더그룹으로서 글로벌 경제위기의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 것인지, 우리경제 상황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짚어 볼 기회를 갖고자 국내 최고 싱크탱크로 불리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현 경제부총리인 현오석 부총리를 초대하여 토론회를 개최했다.

현오석 원장은 글로벌 경제위기의 원인과 이로 인한 파급영향으로 경제침체의 장기화, 신용경색으로 인한 경기침체, 그리고 이어지는 금융권 부실심화 등 악순환을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주택·부동산 가격 급락은 버블붕괴까지는 아니더라도 금융부실에 직격탄을 줄 수 있음을 경고했다. 지금의 경제위기는 과거에 답습했던 순환 사이클의 문제가 아닌 역사적인 권력이동(historic power shift) 관점으로 봐야 한다는 새로운 인식을 제기했다. 미국 발 금융위기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 전체로 파급될 가능성이 큼도 경고했다. 국내경제 상황도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유동성이 악화되는 상황을 전망했다. 만약 경기침체가 계속되면 성장 위축과 함께 소득감소, 실업률 증가 등 사회적 악재를 만나게 될 것을 예고하기도 했다.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들이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통해 경기침체에 대응하고 있는 예를 들어 한국경제도 세제감면 등 간접 대응에서 금리인하 및 양적완화 등을 통해 유동성 공급을 늘리는 적극적인 대응정책이 필요한 시기라는 내용도 강조했다. 재정지출 확대, 대출금의 만기연장 등 경기급락을 완화시키기 위한 금융시장 안정화 대책안도 제시했다. 선진국경제에 비해 국내 경제상황은 유리하다고 하지만 절대 안심해도 좋은 상태가 아님을 강조했다.

2010.10.29.(금)

87th

조찬토론회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의 철도 투자전략

조현용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철도사업에 대한 관심은 경부고속철도의 서울·부산간 완전 개통일 다음이라 어느 때 보다 관심이 많았다. 특히 MB정부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녹색성장 정책 중 육상교통에서 전통적인 도로로부터 철도로 투자방향이 변화되면서 철도 사업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시기였다. 이 시기에 국내 철도건설사업을 총괄지휘하고 있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최고책임자로부터 정부의 철도사업 투자정책 내용과 방향을 파악 할 수 있었던 주요한 기회였다.

조현용 이사장은 발제를 통해 철도교통이 온실가스를 줄 일 수 있는 녹색성장의 대표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MB정부가 국내외적으로 천명한 '저탄소·녹색성장'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지구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해 저탄소교통 혁신의 카드로 철도교통 확대를 제시했다. 녹색성장 개념과 경제성장과의 관계설정, 지구온난화와 미래 경제성장의 걸림돌 등과의 관계 전망을 통해서도 미래 교통으로서 철도투자 확대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부의 육상교통체계의 핵심인 전국의 철도망을 'ㅁ'자형으로 구축하여 전국을 철도망을 통해 1시간30분대로 연결하겠다는 정책은 국민생활은 물론 국가경제의 기본 틀마저 변화시킬 수 있음을 예고했다. 도로 중심의 전통적인 육상교통 불균형 투자는 이산화탄소 배출 의무량 감축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했다. 육상 물류·교통 흐름이 자동차 중심으로 가서는 안 데는 이유도 조목조목 지적했다. 발표에 이어 회원들의 많은 질의, 제언, 확인성 멘트도 따랐다.

2010.11.04.(목)

88th 국제세미나

건설산업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제세미나

주제발표
1. The Construction Sector Transparency(CoST) Initiative | George Ofori 싱가폴국립대 교수
2. 우리나라 건설투명성 실태와 제고 방안 | 김명수 카톨릭대학교 교수
3. Anti-Corruption Initiatives at Bechtel | Nancy McCready Higgins 벡텔 부사장
4. 대한민국 건설산업의 투명성 실현을 위한 법적·제도적 접근 | 김현 서울지방변호회 회장

주제토론
좌장 | 이기상 세종대학교 교수
패널 | 곽형석 국민권익위원회 과장, 박문서 서울대학교 교수, 이문기 국토해양부 과장, 정희용 청석엔지니어링 회장, 황봉현 매일경제 부국장

George Ofori
싱가폴국립대 교수

김명수
카톨릭대학교 교수

Nancy McCready Higgins
벡텔 부사장

김현
서울지방변호회 회장

건설산업비전포럼이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국건설산업의 투명성 제고 활동의 일환으로 싱가폴 정부의 투명성 정책, 선진기업인 미국 벡텔사의 반부패 내부지침, 국내건설산업의 투명성 실태, 그리고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적 접근 방안 등 폭넓은 주제가 제88회 국제세미나를 통해 다뤄졌다. 4개의 주제 발표에 이어 산·학·연·관·법 등을 대표하는 지명 토론자들의 토론도 이어졌다. 투명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 160명 이상의 많은 청중의 자발적인 참여도 있었다.

싱가폴 정부가 건설산업의 투명성과 부패방지를 위해 채택하고 있는 'CoST'에 대한 실체와 배경, 그리고 영국 등 국제간의 공조 활동 등을 소개했다. 'CoST'의 핵심은 건설공사의 부패방지를 위해 핵심을 발주와 입·낙찰, 계약 등 발주사이클에 두고 있다. 글로벌 기업인 벡텔사는 기업 내 부패 활동을 위해 윤리준수 수석 담당관(부사장급)을 둘 만큼 조직과 절차를 중시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낸시 부사장은 비전포럼의 반부패 활동이 공익성을 띈다는 점에서 강의료를 비전포럼에 반납하는 모범을 보였다.

우리나라 건설투명성에 대한 실태를 알리고 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국내발표와 함께 투명성 제고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법과 제도적 장치를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는 법조계 대표자의 발표도 있었다.

2010.12.02.(수)

89th 조찬토론회

서울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

오세훈
서울특별시 시장

건설포럼은 수도서울의 미래 발전모습에 대한 토론회를 오세훈 서울시장을 통해 직접 들어보고 건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오세훈 시장이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디자인 서울'에 대한 개념과 배경, 디자인 이후 서울의 변화된 모습을 제시했다. 작게는 길거리와 간판과 보도불럭, 환경미화원의 복장 등에서부터 동대문운동장과 서울신청사 등 대규모 상품까지 다양하게 변하는 모습을 공개했다. 변화와 혁신의 핵심은 서울의 국제지명도를 높여 서울을 찾아오는 관광객이 늘어남으로 인해 서울의 경제 활력을 높이겠다는 데 있음을 강조했다. 디자인을 통해 서울의 경제 활력 재창조 개념을 '디자이노믹스(Design+Economics)' 신조어로 표현했다.

서울시민의 내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그물망 복지'라는 주제로 5개 대상(어르신, 저소득층, 장애인, 여성, 어린이)과 5개분야(문화, 교육, 건강, 주거, 양육)을 선정했다. 600년이 넘은 전통적인 고도 서울의 매력을 21세기 문화도시의 핵심 포인트로 활용하여 지구인들이 '찾고 싶고, 보고 싶고, 머물고 싶은' 도시로 만들겠다는 시정 책임자로서의 소신도 밝혔다. 서울의 문화도시화 상징어로 '컬처노믹스(Culture+Economics)'를 제시했다.

2011.01.19.(수)

90th

조찬토론회·정기총회

2011년 국토해양 정책방향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제90차 정기모임인 2011년 첫 조찬토론회는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을 초청하여 지난 3년간의 성과와 금년도 주요 정책방향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들었다.

정종환 장관은 3년간의 성과는 SOC 예산 확대와 규제완화로 경제위기 극복을 견인한 것과 4대강사업, 경인아라뱃길을 본격 추진하고 녹색성장의 기반 구축을 들었다. 또한 보금자리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여 수도권 집값 안정에 기여하였으며,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과 주택시장 정상화를 지원을 강화하였다고 밝혔다. 지난 3년간 사상 최대인 1,683억 불 해외건설 수주를 달성하였으며, 솔직원의 확고한 청렴의지와 실천으로 청렴도 대폭 향상하여 국토해양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밝혔다.

2011년 주요 정책방향으로는 4대강 및 아라뱃길 사업의 완공을 통해 활기찬 국토를 창조하고, 국토해양 SOC 예산 23조 원의 61%(14조 원)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여 경제성장을 견인할 것이며,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일자리 창출과 국민편익 위주로 전환할 것을 약속하였다.

수도권 18만 호, 지방 3만 호의 보금자리주택의 차질 없는 공급을 통해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것이며, 분양가상한제 폐지, 대규모 단지 분할분양 허용 등 자율성을 확대하고, 심의절차를 통합하여 주택건설 인허가 기간 혁신적으로 단축하여 민간 주택건설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철도중심의 교통기반 구축하여 정부의 정책 목표인 녹색성장을 가시화하고, 글로벌인프라 펀드 투자 강화, 진출지역 및 공종 다변화로 수주를 확대하여 해외건설 5대강국에 진입하겠다고 밝혔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새해 첫 조찬강연회에 정 장관께서 참석하신 것만 보더라도 건설산업 비전포럼에 대한 애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11.02.23.(수)

91st

조찬토론회

대한민국, 성숙한 세계국가를 향하여 - 대 개도국 원조를 중심으로

박대원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제91차 정기모임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박대원 이사장을 모시고 “대한민국, 성숙한 세계국가를 향하여”라는 주제의 강연을 듣고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KOICA는 1991년 설립된 외교부 산하의 정부출연기관으로 개발도상국가에 병원, 학교, 직업훈련원, 농어촌 식수 개발, 농어촌 관개, 농업 생산 지원시설을 건립하고, 연수생 초청, 전문가 파견, 자원봉사자 파견 및 긴급 재난 구호 사업을 펼치고 있다.

박대원 이사장은 OECD와 DAC 가입의 진정한 의미는 공식적으로 선진국이 되는 것을 의미하며, 가난에서 성공으로, 지구촌의 희망이 되는 국가가 되었으며,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최빈국에서 원조공여국이 된 최초의 사례라며 강연을 시작하였다.

수혜국으로서의 한국은 제1기 미군정 시기(1945-1948)부터 1990년 USAID의 무상 원조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지속되어 총 128억불의 원조를 받았다. 주요 수원사업은 한국과학기술원(KIST), 금오공고, 국립의료원, 포항제철 설립과 경부 고속도로의 건설이었다고 한다.

공여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은 총 42억 불을 원조하였다. 1963년 USAID자금으로 개도국의 연수생을 초청, 훈련시킨 것을 시작으로 전문가 및 의료단의 개도국 파견, 프로젝트형 기술사업, 태권도 사업 파견 등을 추진하였으며, 1977부터는 무상협력 프로그램 시작하여 1991년에는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원조사업의 수행을 위해 KOICA를 설립하였다고 한다.

현재 한국은 교육, 보건·의료, 행정제도, 정보통신, 농어촌개발, 산업에너지, 환경·여성, 녹색성장 등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으며, 빈곤퇴치와 경제 및 사회의 발전을 원조 전략의 핵심으로 삼고 추진 중에 있다고 한다. 또한 “감사하는 대한민국”을 기치로 우리의 이웃인 아시아, 자원 보유국, 특수 관계국 대상으로 원조하고 있다. 주요 성공사례로는 라오스 국정 교과서 편찬사업, 쿠스코 도자기 학교, 페루 의료사업, 캄보디아 농촌 소득 배가 사업, 베트남 의료 및 학교 사업, 미얀마 농촌 사업, 라오스 직업훈련원 사업 등이 있다고 강조하였다.

박이사장은 건설인들이 국가의 발전을 위해 노력함은 물론 최빈국, 개발도상국가들에 대한 원조를 통해 진정한 선진국, 선진산업으로 발돋움할 것으로 주문하며 강연을 끝맺었다.

2011.03.23.(수)

92nd

조찬토론회

뭔가 다른 인천공항...무엇이 다른가?
- 존경받는 기업을 향한 노력 -

이채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제92차 강연주제는 최근 여러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세계 최고 공항이라고 인정받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수장인 이채욱 사장을 모셔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한 성공스토리 및 존경 받는 기업을 향한 노력에 대한 주제로 강연이 있었다.

이채욱 사장은 존경하는 글로벌 기업의 조건을 크게 5가지로 구분하여, 이에 대한 인천국제공항 경영에 적용 사례에 대한 소개를 통해 우리나라의 신생 국제공항이 전 세계 최고 수준의 허브 공항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성공방정식을 제시하였다.

<존경받는 글로벌 기업의 조건>

- 덕(Virtue)을 갖춰야한다.
- 성장(Growth)을 주도해야 한다.
- 성과(Performance)를 창출해야 한다.
- 최고의 인재(People)가 모여 들게 해야 한다.
-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을 다할 줄 알아야 한다.

우리나라의 수많은 공기업 중에서 대표적으로 전세계 글로벌 기업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인천국제공항의 끝없는 변화와 혁신에 대한 노력에 대한 강연 주제는 공기업의 태생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 성장을 이루고 있기에 많은 관심을 끌 만한 주제였다.

발제자의 경영철학과 성공방정식, 이에 대한 세부실행 사항 등 지금까지의 공기업과는 다른 모습을 구상하고 추진했다는 점에서 건설산업 및 기업에 대한 적용과 연계한 활발한 토론도 이어졌다.

2011.04.06.(수)

93rd

주제토론회

중동·북아프리카 사태가 해외건설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주제발표	**중동·북아프리카 사태가 해외건설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향** | 강신영 해외건설협회 지역2실장
주제토론	**좌장** | 이상호 GS건설 경제연구소 소장 **패널** | 권혁진 국토해양부 해외건설과장, 한진우 현대건설 상무, 김훈 대우건설 상무, 장대성 한미글로벌 상무

발제자인 강신영 해외건설협회 지역2실장은 먼저 우리나라 건설기업의 해외건설시장 진출현황과 가장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는 해외건설 시장인 중동·북아프리카 지역 진출현황 및 향후 전망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였으며, 최근 발생한 MENA 지역의 민주화사태 동향에 대해 각 국가별 사건원인과 사건경위에 대해 소개하였다.

또한, 발제자는 이와 같은 현황 분석을 통해 향후 우리나라 건설기업이 단기적으로는 MENA 지역의 수주활동이 위축될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중장기적으로는 해당 국가의 경기부양 및 복구, 사태영향 최소화를 위해 인프라 및 설비투자를 확대할 것으로 판단하여 우리업체에게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어 이루어진 토론에서는 단기적으로 취할 수 있는 기업별 대처방안 및 중단 공사현장에 대한 재개 대비 전략이 논의되었으며, 중장기적으로 시장 다각화 및 중동 수주 노력 다각화 등의 전략이 논의되었다.

이와 더불어 정부 측 토론자로 참석한 국토해양부 해외건설과장은 해외건설협회를 통한 중동 사태 비상지원반 운영 방향 및 정부의 향후 지원 전략에 대해 소개하였으며, 우리나라 건설기업의 가장 큰 시장인 중동 북아프리카의 시장불안상황 및 해결방안에 대해 참석자들 사이의 열띤 토론 및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다.

94th

국내세미나

건설시장의 미래 전망과 신성장 기회 모색

주제발표	**1. 국가 재정건전성과 민간투자시장의 미래전망** | 김강수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민간투자지원실장 **2. 철도투자 확대 이후 도로시장 전망** | 정일호 국토연구원 도로정책연구센터장 **3. 사회경제적 변화와 주택·부동산 시장의 미래전망** | 이상영 미래에셋 부동산연구소 소장
주제토론	**좌장** | 이복남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패널** | 강완구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정책과장, 김형렬 국토해양부 도로정책관, 박긍래 롯데건설 전무, 옥동석 인천대학교 교수, 이상일 아시아경제 논설위원, 이원재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관, 이해경 다산컨설턴트 회장

2011년 건설산업비전포럼의 국내세미나 주제는 최근 경기악화 및 정부 재정지출 억제 등의 이중고에 따른 어려운 국내 건설시장을 조망해 보는데 초점을 두고자, 「건설시장의 미래 전망과 신성장 기회 모색」이라는 주제로 민간투자시장, 인프라시장, 주택·부동산시장에 대한 현황 및 전망에 대한 세미나가 이루어졌다.

김강수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민간투자지원실장

정일호
국토연구원
도로정책연구센터장

이상영
미래에셋
부동산연구소 소장

첫 번째 발제자인 김강수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민간투자지원실장은 「국가 재정건전성과 민간투자시장의 미래전망」이라는 주제로 국가 재정건전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이에 따라 향후 SOC투자 축소가 예상됨에 따라 시장기능 의존 필요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의 확대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였다.

특히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 전통적 사회기반시설의 경우에는 스톡 및 투자규모의 적정성 문제로 인해 급격한 시장 확대의 한계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복지, 국방 및 환경 분야와 같은 신규 영역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의 출현 및 활성화가 예상되기에 이에 대한 다각적인 시장 진출 고려를 제시하였으며, 해외 시장 또한 ODA+PPP 방식을 중심으로 한 민간투자 시장의 개척을 주문하였다.

두 번째로는 「철도투자 확대 이후 도로시장 전망」의 주제로 정일호 국토연구원 도로정책연구센터장이 발제하였다.

지난 20년간의 중점투자를 통해 국내 교통SOC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도로건설 시장이 향후 CO2 배출이 적은 철도교통 시장으로의 전환이 예고됨에 따라 신규사업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현 시점에 있어 가장 뜨거운 이슈였던 본 주제는 교통SOC투자기조 및 향후 전망에 대해 정책적 측면과 시장적 측면 모두에 있어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도로부문의 대응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세미나 참가자의 열띤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다.

마지막 발제자인 이상영 미래에셋 부동산연구소 소장은 「사회경제적 변화와 주택·부동산 시장의 미래전망」의 주제로 대내외 경제·환경적 변화에 따른 주택부동산 시장의 기회와 위협에 대해 진단하고 이를 기반으로 향후 주택 부동산 시장의 모습을 예측하였다. 특히 발제자는 선진국의 다양한 시장변화사항을 근거로 향후 부동산산업이 건설업에 예속된 부문별 산업이 아닌 별도의 산업으로 확장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이에 따라 향후 부동산 산업은 자산관리 및 투자금융 중심의 산업으로 재편되어 건설산업과 공존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국내 건설시장이 처한 어려운 현실을 진단하고, 미래의 성장 기회를 모색하고자 개최한 이번 세미나에는 무려 300명이 넘는 건설업계 인사들이 참석하였으며, 민간투자, 도로 및 주택·부동산시장의 최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주제발표자와 패널간의 토론 열기도 매우 뜨거웠다. 특히 국토해양부 도로정책관과 주택정책관 및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정책과장 등이 참석하여 정부의 정책방향을 상세하게 설명하였으며, 건설산업비전포럼의 회원들로 구성된 민간전문가들도 활발하게 민간의 시각과 의견을 전달한 의미 있는 세미나였다.

2011.05.25.(수)

95th

조찬토론회

「경제수도 인천」 발전전략

송영길
인천광역시 시장

제95차 조찬토론회 강연주제는 '경제수도' 캐치프레즈를 통해 역점적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인천광역시의 발전전략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송영길 인천광역시 시장이 직접 발제자로서 건설산업비전포럼 회원에게 인천광역시의 현황과 5대 시정목표 및 경제수도의 3대 핵심사업에 대해 소개한 시장은 특히 역점적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사업에 대한 상세한 브리핑과 더불어 인천시의 건설발주계획과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에 대한 소개를 통해 인천광역시 시정에 따른 건설산업과의 연계사항을 중점적으로 소개하였다.

평일 조찬토론회임에도 불구하고 80여 명에 달하는 건설산업비전포럼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진 본 95차 토론회는 강연 이후 인천시에 대한 각종 제안과 더불어 건설업계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사안에 대해 적극적인 질의응답이 이어지는 등 성황리에 마쳤다.

2011.06.22.(수)

96th

조찬토론회

일본 대지진의 교훈과 미래 환경변화의 대응

이성우
국민대학교 총장

제96차 조찬토론회는 최근 발생한 일본 대지진 및 이로 인한 후쿠시마 원전의 피해와 관련한 첫 번째 주제와 과학기술의 발전 및 융복합 산업의 확대에 따른 신 산업의 등장 등 빠르게 변화하는 각종 미래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전략의 두 번째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건설산업비전포럼의 공동대표인 이성우 총장이 발제한 금번 96차 조찬토론회는 일본의 대지진 발생 원인과 현황에 대한 소개를 통해 향후 재해는 자연재해와 인공재해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형태임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따른 원자력 발전소 건립 및 운영에 대한 각종 기술적 교훈과 재해 발생에 따른 사회적 교훈, 경제적 교훈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 주제인 미래 환경 변화의 대응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의 경제적 성장에 대해 되짚어 보고, 최근 처한 각종 사회적 문제점들의 분석을 통해 향후 미래 변화 방향을 도출하여 미래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비해야 하는 주요 전략을 제시하였다.

이후 이루어진 토론에서는 발제와 궤를 같이하여 주제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 첫 번째로, 일본 대지진 및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따른 우리나라 재난대비 방향 및 건설산업의 역할 등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으며, 두 번째로 향후 산업 및 국제정세의 변화에 대비한 건설산업의 역할에 대해 활발한 토론이 전개되었다.

2011.07.13.(수)

97th

조찬토론회

세계 최강 한국 조선산업의 성공과 과제

최길선
前 현대중공업 사장

제97차 조찬토론회는 세계 최고의 산업경쟁력을 갖춘 「한국 조선산업의 성공과 과제를 주제」로 최길선 前 현대중공업 사장을 모셔 우리나라 조선산업의 발전과정과 산업특성, 성공요인에 대해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발제자는 먼저 조선산업 불모지였던 우리나라 조선산업의 성장과정에 대해 다양한 시청각자료를 통해 소개하였으며, 현재 전 세계 1위로서의 위상 확립까지의 상세한 발전과정을 분석 제시하였다.

또한, 사례에 기반을 둔 8가지 성공요인 도출을 통해 우리나라 조선산업의 성장원동력에 대해 제시하였으며, 향후 조선산업이 지속적 발전을 창출하기 위한 과제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론 조선산업의 특성이 시공기간이 길고, 자본 투자가 큰 대형 수주산업이며, 경기 변화가 극심한 산업, 국가 기간산업이며 이는 건설산업과 일맥상통하는 점에 착안하여 건설산업의 지속발전을 위해 고려해야 하는 8가지 고려요소를 제시하여 많은 참석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내었다.

2011.08.31.(수)

98th

주제토론회

건설산업과 조선산업의 융복합

최길선
前 현대중공업 사장

금번 제98차 만찬토론회는 지난 97차 토론주제인 「세계 최강 한국 조선산업의 성공과 과제」를 통해 제시한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게 된 우리나라 조선산업의 성공전략에 대한 건설산업의 Benchmarking 필요성 증대에 따라 97차 발제자인 최길선 前 현대중공업 사장을 다시 모시고 좌담회 성격의 만찬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먼저 건설산업과 조선산업의 각각의 특성에 대한 논의로 시작된 금번 좌담회는 전방위 연쇄효과가 큰 동반산업의 특성에 기인한 국가 기간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경기 변화가 극심한 산업이자, 개인 기량의 중요성이 큰 복합적 특성에 대한 유사성 도출을 통해 지속적 발전을 위한 방안과 건설산업이 조선산업의 발전과정에서 배워야 할 주요 과제에 대해 모색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되었다.

2011.09.28.(수)

99th

조찬토론회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와 인프라 투자계획

김진선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특임대사

제99차 조찬토론회는 지난 7월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가 평창으로 확정되어 전 국민의 관심사가 집중되어 있는 시기이기에 김진선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특임대사를 모시고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SOC 구축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김진선 특임대사는 건설산업의 오피니언 리더가 모인 건설산업비전포럼의 특성을 감안하여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에 따른 수송수요 증가에 의한 3중 입체교통망 등 SOC 확충계획과 평창은 설상경기 중심, 강릉은 빙상경기 중심으로 경기장 건설 집중배치 계획 등을 상세하고 심도 있게 제시하였다.

이후 이루어진 참석자들은 질의응답 및 토론을 통해 건설관점에서의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다양한 의견 개진의 시간을 갖는 등 뜻 깊은 자리가 되었다.

2011.10.20.(목)

100th

국제세미나

글로벌 건설시장 전망과 진출확대 전략

기조발표	**건설산업비전포럼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핵심역할** | 이복남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주제발표	**1. Global Construction 2020** | Graham Robinson, Oxford Economics **2. 해외건설 3대 강국 진입을 위한 국가 전략 제안** | 이상호 GS건설 경제연구소 소장
주제토론	**좌장** | 김정호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건설산업비전포럼의 100회 토론회를 맞이하여 개최한 금번 국제세미나는 「글로벌 건설시장 전망과 진출확대 전략」을 주제로 2020년까지의 글로벌 건설시장을 전망해 보고, 우리 건설업체들이 해외건설 진출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국가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건설산업비전포럼 공동대표인 한미글로벌 김종훈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과 이재균 해외건설협회 회장의 축사로 시작한 100회 특집 국제세미나는 주제발표에 앞서 건설산업비전포럼의 기획위원인 이복남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건설산업비전포럼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핵심역할」에 대한 주제로 기조발표를 실시하였다.

이복남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Graham Robinson
Oxford Economics

이상호
GS건설 경제연구소 소장

이복남 연구위원은 건설산업비전포럼이 창립한 2003년 이래로 지난 8년간의 활동에 대한 소개 및 평가를 통해 5가지 자기반성 사항을 도출·제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건설산업비전포럼의 미래 10년을 향한 포럼의 핵심 역할 5가지 선정 사항을 공표하였다.

미래 10년을 향한 포럼의 핵심 역할

- 국민을 대상으로 한 건강한 이미지화 노력 강화
-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내 건설시스템 혁신 노력 강화
- 시장과 민간의 목소리 전달 역할 강화
- 밝고 깨끗한 건설문화 창조를 주도

- 선진기업과 국가들의 모범사례 확산 노력 지속

첫 번째, 주제발표로는 전세계 건설시장 예측 및 건설산업 시장평가 전문기관인 영국의 Oxford Economics의 Graham Robinson이 「Global Construction 2020: A Global forecast for the construction industry over the next decade to 2020」의 주제로 발표하였다.

전 세계 경제시황에 대한 분석으로 시작한 첫 번째 주제발표는 지역별 경제활동 및 도시화 정도, 인구증가 등에 대한 다각적 시계열 자료를 근간으로 2020년까지의 각 국가별 건설시장의 전망에 대해 상세히 분석·제시하였다.

두 번째 주제발표는 「해외건설 3대 강국 진입을 위한 국가 전략 제안」의 주제로 GS건설경제연구소의 이상호 소장이 발제하였다. 다양한 지표 및 해외시장의 기회와 평가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통해 2020년 해외건설 3대 강국의 조건을 제시한 발제자는 이를 통해 우리나라 건설산업이 해외건설 3대 강국 진입을 위한 10대 전략을 도출하여 각 전략별 상세 방안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발제자는 해외건설시장 진출확대는 생존과 성장을 위한 필수과제이며 이를 위해 중장기 비전과 전략이 중요하며, 금번 발제를 통해 제시한 10대 전략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실행을 주문하였으며, 참석자들의 많은 공감을 이끌어내었다.

김정호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이루어진 이후 토론에서는 100회 토론회의 취지에 걸맞은 토론활성화를 위해 지정토론자 없이 참석자와 발표자간의 토론을 유도하는 새로운 형식으로 진행하였으며, 당초 예정되었던 국제세미나 종료시간을 넘기면서까지 세미나 참석자와 발표자간에 진지한 토론이 장기간 계속되었다.

또한, 이날 토론회는 조선일보, 한국경제신문과 한국경제TV, 파이낸셜뉴스, 건설경제신문 등에서 활발한 취재 및 보도가 이루어졌다. 금번 국제세미나 개최를 통해 2020년 글로벌 건설시장 전망과 진출확대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건설산업비전포럼이 우리 건설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선도하는 단체임을 널리 알리는데 크게 기여한 행사였다.

2011.11.24.(목)

101st 조찬토론회

글로벌 환경변화와 건설산업 리프레임

정수현
현대건설 대표이사 사장

101차 조찬토론회는 국내 건설시장의 성숙기 진입에 따른 시장 축소 국면 전환에 의한 해외건설시장 진출 확대의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패러다임에 발맞추어 우리나라의 대표적 건설사인 정수현 현대건설 사장을 모시고 「글로벌 환경변화와 건설산업 리프레임」의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정수현 사장은 발제를 통해 먼저 다양한 대내외 환경 변화를 짚었으며, 이에 따른 건설산업 위기의식 심화현상 극복을 위해 건설업의 Reframe 필요성 확대에 대해 역설하였다. 구체적으로 정수현 사장은 발제를 통해 총 9가지의 건설산업 Reframe 방향을 정립하였으며, 이를 통한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선진화 및 지속적 성장 방향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Reframe 방향

① 건설업 역무확장 : 고부가가치사업 진출을 통한 사업구조 고도화 노력
② Value Chain확대 : 글로벌 기업들은 M&A 등을 통해 Value Chain 확장 중
③ Business 영역 확장 : 자원개발,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기술 등 다양한 사업분야로 확대
④ Specialty 강화 : 발주처의 니즈 충족 / 마케팅, 금융, 법률, 운영 등 사업역량 강화
⑤ Total Service Provider : 글로벌 선진社는 주력 산업과 관련한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
⑥ Integrator 역할 강화 : 건설과 모든 기술산업을 연결하는 산업화 추세
⑦ 컨버전스 수행능력 : 산업의 컨버전스化 로 인해 헤게모니 쟁탈 치열
⑧ 지속가능경영 : 친환경, 지속가능 개발 등이 향후 건설산업의 중요한 화두로 부각
⑨ 유망사업 기술확보 : 환경 및 에너지 확보 중요성 증대로 관련 산업이 지속 성장할 전망

대한민국의 선도적인 건설사 CEO의 강연은 변화하는 건설시장을 직시하고 성장과 발전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의 단초를 제공하였다.

2011.12.14.(수)

102nd

조찬토론회

2012년 건설시장 전망과 주요 이슈

김흥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원장

이태식
대한토목학회 회장

제102차 정기모임에서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김흥수원장과 대한토목학회 이태식회장을 모시고 2012년도 건설시장을 전망하고 건설산업의 주요 이슈에 대한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김흥수 원장은 2012년 건설업계의 일감 부족난이 올해보다 심화될 전망이라고 전제하면서 건설산업정보센터에 이어 건설산업연구원도 내년 건설수주를 마이너스로 전망하였다.

주택경기 전망도 암담하다고 말했다. 건산연은 내년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률을 올해(추정치 0.8%)와 비슷한 1% 내외로 보고 있으며, 이는 물가상승률의 4분의1 수준이라고 전망하였다. 이로 인해 주택소비자로선 적정수익률을 기대할 수 없기에 내년 역시 주택구입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전세가 상승률도 올해 추정치(12.5%)의 절반 미만인 5.0%로 관측되기 때문에 서민, 정부로선 한숨 돌릴 전망이지만 건설사로선 전세가 상승발 매매수요 증가는 기대를 접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식 회장은 “건설산업은 국가의 기간산업으로 자리를 잡았지만 아직 세계가 인정하는 세계일류가 되지는 못했다"면서 건설과 정보기술(IT)의 융합, 친환경 녹색 신기술과 신소재 개발 등 건설분야의 미래 지향적인 신성장 동력을 개발하여 국가 기간산업으로서의 역할을 찾아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건설포럼 회원들은 토론을 통해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건설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한 정부와 학회, 업체들의 역할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금번 토론회는 2012년 건설산업의 전망과 문제점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같이 고민하는 시간이었다.

2012.01.12.(수)

103rd

주제토론회

2012년 건설시장 전망과 재도약을 위한 대응방안 모색

제103차 정기모임은 포럼의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GS건설경제연구소 이상호 소장을 모시고 “2012년 건설시장 전망과 재도약을 위한 대응방안 모색”이라는 강연을 들었다. 이번 모임은 2011년 12월 정기토론회(12.14)에서 사안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시간관계상 회원간의 토론이 부족했다는 회원들의 의견이 있어 건설시장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마련되었다.

이상호 소장은 2012년 건설시장도 침체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총선, 대선을 계기로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정책건의가 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세계경제 성장률 둔화 및 리스크 증대, 유로존의 위기 심화, 중국의 경제성장률 둔화와 부동산시장 위축이 건설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이란 제재와 유가 불안, 아랍국가의 정치상황, 김정은 체제의 불안정한 대북현황 및 세계 56개국의 선거도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국내의 경우도 경제성장률 둔화와 정치적 격변이 문제가 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저축은행 사태와 가계부채 등 금융불안, 총선과 대선도 건설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였다. 해외건설시장도 어려움이 예상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해외건설시장 규모는 사실상 정체되고 있으며, 해외시장이 신흥국, 플랜트에 집중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으며, 특히 국내 건설업체간 가격경쟁의 심화와 해외건설 전문인력의 부족은 수익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대형 건설업체는 해외사업 확대, 남미, 아프리카 등으로의 시장다변화, 사업다각화, 원가혁신 및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증대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소형건설사와 용역업체도 시장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고 시장다변화 및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여 생존력을 높여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2012.01.27.(금)

104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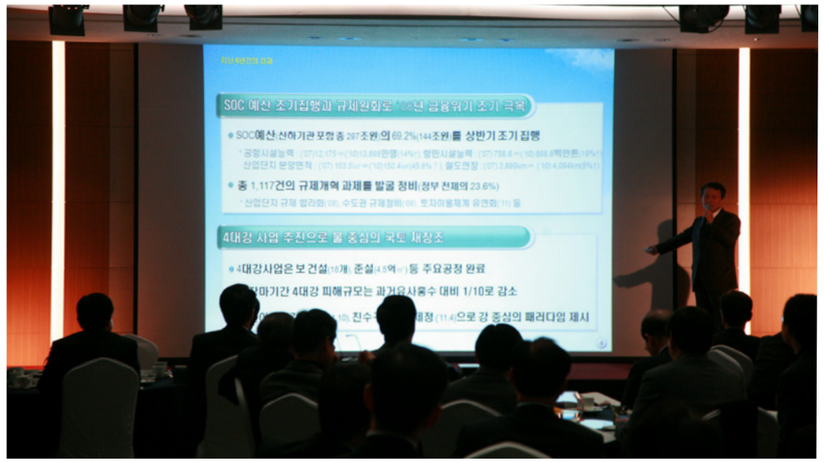
조찬토론회·정기총회

2012년 국토해양 정책방향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2012년을 새롭게 맞이하여, 그 어느 때보다 정부 정책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시기였다. 건설 분야에서도 국토해양부의 2012년 정책목표 및 정책방향과 2012년에 국토해양부가 어떤 분야에 집중할 지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이 시기에 비전포럼은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을 통해 직접 2012년 정책방향과 핵심과제는 무엇인지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지난 4년간의 정책 성과와 2012년 정책목표, 건설이 나아가야할 정책방향에 대하여 세부적인 실천계획을 제시하였다.

2012년은 '희망찬 국토해양, 모두가 행복한 선진국가 실현' 이라는 정책목표를 바탕으로 3가지 핵심과제로 주거·교통 등 서민생활 안정, 규제완화 등 경제활력 제고, 고품격 국토해양 창조를 꼽았다. 3가지의 핵심에 따른 10개의 세부 실천계획을 제시하였다. 주거·교통 등 서민생활 안정 핵심과제에서는 서민주거 지원, 교통서비스, 국토해양산업의 공생발전의 촉진을 실천계획으로 설정하였으며, 규제완화 등 경제활력 제고 핵심과제에서 SOC예산 조기집행, 지역거점 육성, 신성장동력 발굴을 실천계획으로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고품격 국토해양창조 핵심과제는 4대강 중심 국토재창조, 여수엑스포, 경관 창출, 안심국토 조성 측면의 실천계획을 설정하였다. 또한 권도엽 장관은 4대강 살리기 사업효과를 다양한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2012.02.22.(수)

105th

조찬토론회

건설산업과 2012년 공정거래정책 방향

김동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건설산업에서 공정거래제도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를 가지고 있다. 최근 건설산업분야에서 투명성과 상생이 강조되면서 공정 관련 정책은 건설에서도 많은 관심사로 대두되어왔다. 이러한 시기에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책방향이 건설산업분야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역시 중요한 관심사이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중소기업, 대기업, 소비자가 모두 공감하는 따뜻한 시장경제 만들기' 라는 2012년 공정거래정책 방향에 대해 제시하였다.

김동수 위원장은 2012년 공정위의 거시적 정책방향과 따듯한 시장경제 만들기 위한 정책과제를 설명하였다.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공생발전을 위한 기업생태계와 반칙 없는 시장, 소비자와 수요자를 보호하는 정책, 믿을 수 있는 유통환경 조성이라는 4개 측면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였다. 또한 공정위가 중점 추진하고자 하는 거래정책 방향과 2012년 중점을 두는 건설산업분야 거래제도 이슈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

공정위의 건설산업분야의 2012년 중점 추진 시책은 공정거래제도 관련 주요 이슈 3가지 관점으로 제시되었다. 하도급거래 서면계약문화 정착 유도와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유도, 주택부동산 분양 과대 포장실태 조사를 통한 소비자 보호, 입찰·담합과 일감몰아주기의 불공정 행위 근절이 주요 이슈였다. 각종 실태조사를 통해서 실태파악 후 이를 위한 조처 시행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 졌다. 건설산업분야에서 투명성과 불공정 행위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만큼 강연에 대한 많은 질의가 이루어 졌다.

2012.03.21.(화)

106th

조찬토론회

철도산업 개혁과 건설업 발전방향

김광재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저탄소녹색성장정책에 힘입어 환경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수송수단으로서 철도역할 증대 등의 여건변화로 철도산업의 활성화와 수출확대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번에 개최된 조찬토론회에서는 그동안 추진되어왔던 철도산업의 개혁 추진실태와 문제점,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철도산업의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김광재 이사장은 철도산업 개혁과 건설산업 발전방향이라 주제로 철도 산업의 현재, 철도산업의 발전방향 그리고 건설업 실태와 발전방향에 대한 분석 및 예측 결과를 발표했다. 그는 현재 철도산업은 철도산업 투자비 회수가 미진하고 공사화 이후 8년간 정부지원 확대에도 10조원의 부채가 누적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철도가 국가 미래 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철도정책 변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으며 이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 등을 폭 넓게 발제했다.

향후 철도산업의 발전방향으로 이용수요에 적합한 시설 건설, 운영체제 효율화와 제2사업자 유도, 투자비 회수, 기술력 향상, 수송분담률 제고 등을 지향해야 하며, 특히 건설산업비전포럼에서 철도기술력 향상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광재 이사장은 건설산업에 대한 쓴소리도 아끼지 않았다. 건설업계가 구태의연한 관행에서 탈피하여 변화에 적응하고 변화를 선도하는 산업 패러다임을 확립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해서는 철도시설공단과 같은 발주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하였다.

2012.04.18.(수)

107th

조찬토론회

청렴사회와 윤리경영

김영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김영란 위원장은 제107차 조찬토론회에 참석해 “청렴사회와 윤리경영”을 주제로 강연했다. 이날 조찬토론회에는 60여명의 비전포럼 회원들이 참석하였으며 김영란 위원장과 짧지만 열띤 토론을 벌였다.

김영란 위원장은 청렴사회의 정의, 필요성, 권익위 반부패 청렴정책, 윤리경영 정착을 위한 우리의 역할에 대해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선진일류국가는 높은 청렴성과 윤리성의 기반 위에서 실현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다양한 부패방지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제력 규모에 비춰 부끄러울 만큼 청렴도 수준이 낮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국제투명성기구(TI)가 지난해 실시한 부패인식지수(CPI)조사에서 10점 만점에 5.4점으로 178개국 가운데 43위에 머물렀다. 이는 ‘사회의 전반적 투명성‘ 기준인 7점대와 거리가 멀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공정사회 실현 및 청렴사회를 만들기 위해 윤리경영을 실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윤리경영이란 회사경영 및 기업 활동에 있어 ‘기업윤리’를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며 투명하고 공정하며 합리적인 업무 수행을 추구하는 경영정신이라고 설명하며 국민권익위원회는 기업들의 ‘윤리경영’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윤리경영 지원을 위해 윤리경영 확산을 위한 제도의 지속적 보완, 국제협력 강화, 청렴도 평가를 민간까지 확대·보급, 공정경쟁을 위한 토대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윤리경영을 정착하기 위해서는 각 기업의 CEO의 관심 및 기업 특성에 맞는 윤리경영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2012.05.23.(수)

108th

국내세미나

한국 건설사업의 도약과 혁신을 위한 과제

주제발표 **1. 한국건설산업의 자기반성과 가치 회복을 위한 건설문화와 투명성 혁신** | 이복남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2. 차기정부의 건설정책 10대 과제 | 한승헌 연세대학교 교수, 김상범 동국대학교 교수

주제토론 **좌장** | 김정호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패널 | 김종현 해외건설협회 본부장, 김한수 세종대학교 교수, 박찬식 중앙대학교 교수, 이상영 명지대학교 교수, 이상호 GS건설 경제연구소 소장

이복남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승헌
연세대학교 교수

건설산업은 국가경제 성장을 견인해 왔을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과 국민복지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국가 기간산업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오랫동안 국가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 온 건설산업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침체 국면이 장기화되고 있어 전문가들과 업계가 한자리에 모여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제1주제에서 이복남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건설산업의 반성과 가치회복을 위한 건설문화 및 투명성 혁신에 대한 주제로 발표했다. 한국 건설산업의 도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건설산업의 이미지와 건설문화 및 투명성 혁신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건설문화의 투명성 혁신을 위한 실천적 대안으로 '법과 제도는 가볍게 처벌을 무겁게 하자'는 원칙하에 부패문제 해결을 위한 처벌강화와 더불어 한국건설투명지수를 개발해 건설산업의 참여주체를 평가하자는 제안을 했다.

제2주제에서 연세대학교 한승헌 교수, 동국대학교 김상범 교수가 차기정부 건설정책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건설과 복지는 대립적인 개념이 아니고 건설산업이야말로 국민복지에 기여할 수 있는 산업이라는 인식의 확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3대 비전과 10대 과제를 중심으로 한 차기정부의 건설정책과제는 향후 대선과정에서 각 당 공약사업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특히 이들은 차기정부가 건설산업의 투명성 혁신은 물론 참여 주체간 공생·상생을 위한 공정한 제도적 틀을 만들어야 한다는 제안도 하였다.

2012.06.27.(수)

109th

조찬토론회

관광산업은 희망산업입니다

이참
한국관광공사 사장

관광산업은 외화가득률 측면, 부가가치 유발 측면 등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이자, 첨단 교역산업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관광산업 27순위의 국가지만, 1970년대 이후로 시장이 꾸준히 증가하여 현재 한 해 외래 관광객 980만 명 정도를 유치하고 있다고 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2가지 과제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첫 번째는 관광문화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주 내외의 장기 휴가문화 확산이 필요하고 휴가를 생산성 증대를 위한 재충전이라는 사회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이다. 세계 제일의 관광경쟁력을 가진 국가는 스위스이다. 스위스는 '세계 부자들의 놀이터'라는 인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대한민국도 스위스와 같이 아름다운 산과 바다가 있다. 관광 인프라만 좀 더 구축되고 관광산업에 대한 투자가 일어나게 된다면 '아시아 부자들의 놀이터'로 만들 수 있는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관광매력과 상징(ICON)이 필요하다. 연사는 한국의 관광매력으로 '에너지'를 꼽는다. 이 에너지에는 氣(기), 興(흥), 情(정)이라는 3가지 요소가 있다. 이들을 한국의 관광매력으로 살리기 위해서는 아름다운 기운의 자연경관뿐 아니라 K-pop, 난타와 같은 신명나는 요소와 따뜻함과 배려가 있는 문화를 어필하여야 한다고 했다.

따라서 한국관광공사에서는 관광네트워크를 구성하고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광 서포터즈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관광부문 벤처창업 투자를 증대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노력을 통해, 대한민국을 관광하기 좋은 나라,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 가겠다고 하였다.

2012.07.18.(수)

110th 조찬토론회
건설금융 선진화 방안

어윤대
KB 금융그룹 회장

제110차 조찬토론회는 어윤대 KB금융그룹 회장을 모시고 진행되었다.

'국내·외 경제여건 변화'에 대해서 국내 경제 상황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양호한 상황이지만, 저성장과 높은 변동성으로 대변되는 새로운 패러다임(New Normal) 변화에 직면해 있다. 건설업계 역시 꾸준히 국내외 경제 및 금융시장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잠재적 위험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건설산업과 건설금융의 주요 이슈'에서는 건설산업과 건설금융의 주요 이슈는 건설업의 성장 한계와 수요의 변화 등 새로운 시장 환경의 변화이다. 따라서 건설업계 내부의 문제 뿐 아니라 국내 인구 및 가구 구조의 변화, 가계부채의 가중, 국제회계기준의 도입 등 다양한 시장 환경 요인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한다. 또한 이를 통해 향후 건설업의 발전 방향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건설금융의 현황과 문제점'에서는 금융시스템과 금융산업은 타 산업의 경제활동 및 국민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대규모의 자금을 필요로 하는 건설업의 경우 금융의 중요성은 더욱 크다. 2000년대 들어 PF을 통한 사업구조를 통해 대규모 주택공급을 하였지만, 한편으로 불안정적인 구조로 인해 건설경기 침체시 큰 위기를 경험한 바 있다. 향후 이와 같은 경험을 선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밑거름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건설금융 선진화 방안'에서는 건설산업과 금융업은 사업구조의 특성상 매우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따라서 건설금융 선진화는 건설업과 금융업 모두 매우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개발사업에 있어서 기존의 사업방식이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어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과거와 같이 양적 위주의 개발보다는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바탕으로 한 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며, 금융권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선진적인 사업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2012.09.04.(화)

111st 조찬토론회
융합의 시대, 혁신의 도시, 서울

박원순
서울특별시 시장

박원순 서울특별시 시장을 모시고 제111차 조찬토론회가 개최되었다.

'도시 인프라에 대한 박원순의 인식'에서는 전임 시장의 정책을 거시적으로 계승하면서도 자신의 역점인 '시민과 함께'라는 점을 살릴 수 있는 기존 도시계획의 계승을 강조하였다. 다양한 인프라 요소들 중 우선순위 투자를 할 것이라 말하면서, 인프라에 대한 과소투자는 시민의 복지 측면, 경제적 측면에서 절대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라 말했다.

'현재 서울의 건설산업 상황'에서는 21세기를 맞이하면서 고도성장은 멈추었고, 성장의 견인차였던 부동산/건설 시장에서 구조변화가 되었고 지속적으로 미미한 성장이 예상된다. 이에 반해, 국외 신흥시장은 급부상하고 있다. 따라서 글로벌 시장으로의 도전과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정책적으로도 지원과 협력을 최선을 다해 제공하겠다고 했다.

'서울 도시 인프라 계획'에서는 저성장 시대, 메가트렌드에 직면한 상황에서 4가지 정책적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고 했다. '양적 성장 중시의 정책에서 지속가능한(혹은 질적) 발전으로', '단순개발 지향의 사업추진에서 관리 및 상생 발전 지향으로', '대규모 개발 위주에서 공동체 지향의 소단위 개발 위주로', '글로벌화에 대응해 다문화사회 정착과 해외진출 활성화'에 대해 언급하였다.

'4가지가 있는 서울'에서는 '전통적 물적 인프라', '사회 인프라', '지속가능형 그린 인프라', '첨단기술기반 스마트형 인프라'. 이 4가지 인프라를 통해 '스마트 성장', '뉴어바니즘', '컴팩트 시티'를 지향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 도시 인프라 정책 방향'에서는 '미래지향적, 선진도시형 인프라 정책으로의 대전환', '글로벌 인프라 시장을 향한 해외진출 활성화', '도시 인프라 분야의 정책혁신 촉진', '대형공사 계약제 합리적 개선과 중소건설사 보호'에 대한 4가지 도시 인프라 정책적 계획 방향을 말했다.

2012.10.24.(수)

112nd

국내세미나

새 정부에 바라는 건설정책과제

주제발표

1. 국민복지 향상과 경제성장의 원동력, 건설산업 재창조 | 이상호 GS건설경제연구소장
2. 새 시대, 새 인프라 | 조대연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건설사업본부장
3. 건설업계가 바라는 새 정부의 건설정책과제 | 천길주 현대건설 전무
4. 건설산업의 투명성 제고방안 | 성낙준 한국철도시설공단 감사
5. 국가 경쟁력과 도시의 중요성 | 김정호 KDI 국제대학원 교수

국가경제의 중심축인 건설산업의 회생을 통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건강한 산업으로 재창조하기 위한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제1주제에서 이상호 소장은 국민복지, 일자리 창출, 도시경쟁력 확보, 기후변화 및 남북통일 대비 등 새 정부의 시대적 과제 실천을 위해서는 건설산업의 적극적 활용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제2주제에서 조대연 본부장은 새로운 시대를 대비하여 건설산업의 발전과 인프라의 기능 및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통합적이고, 전략적이며, 시스템적인 접근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제3주제에서 천길주 전무는 차기 정부가 시대적 흐름에 보다 신속하고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건설산업이 기술 경쟁력이 있는 최첨단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제4주제에서 성낙준 감사는 건설 환경의 개선, 건설생산 방법의 개선, 건설부패 행위에 대한 처벌 개선 등을 통해 건설산업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제5주제에서 김정호 교수는 도시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서울과 수도권을 육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수도권에 대한 인식의 전환, 고부가가치 기업유치,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하드웨어와 조직차원에서의 개선을 제시했다.

2012.11.29.(수)

113rd

조찬토론회

미·중 복합시대의 생존번영 전략

하영선
서울대학교 교수

오늘날 국제기구, 유럽연합과 같은 지역공동체, 국제비정부기구나 다국적기업과 같은 초국가적 행위자, 지방정부나 시민조직 등이 국제무대에 실질적 행위자로 등장함으로써 복합성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또한 과거의 안보나 경제 중심의 단순무대에서 벗어나 안보·번영·환경·문화의 중앙무대, 정보지식의 기반무대, 통치의 상층무대로 이루어진 3중 복합무대로 바뀌고 있다. 포럼은 서울대학교 교수이자 동아시아연구원 이사장인 하영선 교수를 초빙하여 미중복합시대의 생존번영전략에 대한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하영선 교수는 복합의 시대에서는 단순히 갈등과 협력 중의 택일이 아니라, 갈등과 협력, 위기와 발전, 협력과 번영 그리고 공생이 서로 얽히고 설키어 공존하는 복잡한 양상을 보여주며, 더 이상 '적과 동지' 식의 냉전적 사고로는 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보장할 수 없을 것이라 전망했다.

또한 이런 복합의 시대에 동맹전략의 해법은 다양한 행위자와 중층적 이슈들을 망라하는 그물망식 접근에서 찾을 수 있다고 했다. 국가 일변도, 혹은 군사 중심의 접근 방식으로는 복합시대의 요구에 부응할 수 없으며, 여전히 냉전적 분단의 상황에 있는 우리의 현실을 고려할 때 새로운 복합 그물망 동맹전략에 대한 이해와 개발이 절실함을 강조했다.

20세기가 한미동맹 중심이었다면 21세기는 미국 중국 모두와 동맹을 강화하는 연미연중(聯美聯中)으로 가야하며 미국이 여전히 큰 목소리를 내면서도 중국을 배제하지 않고 적절한 위치를 설정해주는 것이 21세기 동아시아 건축의 최대 숙제라는 결론을 내렸다.

2012.12.27.(목)

114th

조찬토론회

박근혜정부의 인수위 건설정책과제

이복남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지난 19일에 있었던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면서 건설산업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전망된다. 포럼은 을 한해 대한토목학회, 건설산업비전포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제시했던 차기 정부 건설정책 제안사항 및 제기된 과제에 대해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한토목학회는 지난 9월 「국민경제 성장과 건설혁신을 위한 차기 정부 건설정책 제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국민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건설산업의 혁신"이라는 슬로건 하에 3대 비전(안전하고 행복한 국민생활 기반 조성, 글로벌 건설환경 조성,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 구축) 및 10가지 정책과제를 도출했다.

건설산업비전포럼은 지난 10월 차기 정부 정책 건의안을 발표했으며, 「새 정부에 바라는 건설정책 과제(건설산업 재창조) 보고서」를 발간했다. 포럼이 제안하고 있는 건설산업 재창조를 위한 정책과제는 복지향상, 지속성장, 투명성, 공공부문 혁신, 실천방안 총 5가지 카테고리로 분류되며 총 20개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지난 6월 "주택·건설이 살아야 국민경제가 산다."는 주제로 차기정부의 건설 및 주택 정책 과제 세미나를 개최하였고, 지난 9월에는 차기 정부의 건설 및 주택 정책 과제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차기 정부의 건설 정책 과제는 총 4개 부문(정책, 생산, 발주, 시장) 총 33개의 과제이며, 차기 정부의 주택 정책 과제는 4개 부문(정책, 신규주택, 재고주택, 수요맞춤형) 총 10개의 과제이다.

2013.01.23.(수)

115th

조찬토론회·정기총회

미래를 준비하는 국토해양정책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제115차 조찬토론회는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을 모시고, "미래를 준비하는 국토해양정책"을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하였다.

이명박 정부 5년간 건설산업의 성과는 컸다. 서민주거 안정과 부동산시장 정상화, 4대강 사업, 세종시·혁신도시·지역SOC 확충 및 산업단지 지정·개발 등을 통한 지역거점 성장, 해외건설 누적 수주 5천억불 달성, 여수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 빠르고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 국토해양의 안전 제고, 기타 항공산업의 경쟁력 강화, 규제개혁, 3차원 디지털 구축기반 등도 마련했다.

이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건설산업은 아직도 많은 현안과제를 갖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건설산업의 저성장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새로운 수요발굴과 해외시장의 개척이 필요하다. 건설시스템의 비효율성으로 인하여 생산성과 경쟁력이 낮기 때문에 글로벌 스탠다드 도입을 통해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고급기술인력과 숙련기능인력이 부족한 탓에 산업기반도 취약한데, 인력양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부정·비리 등으로 건설산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만연한 것도 문제인데, 건설문화 개선과 건설업계의 자정노력이 필요하다.

향후 건설정책은 건설경기 연착륙, 해외건설 경쟁력 강화, 건설제도 선진화 및 기술경쟁력 강화, 건설산업 공생 발전, 건설문화 개선 및 이미지 제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밖에 최근 이슈가 된 4대강 감사결과, 택시산업 및 철도 경쟁체제 도입과 관련된 국토해양부의 해명과 입장도 명백하게 제시했다.

2013.02.28.(목)

116th

조찬토론회

2013년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 원장

이번 정기모임은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 원장을 모시고 조찬토론회를 진행하였다.

2013년 세계경제는 3.6% 성장이 전망되며, 선진국보다는 개도국 중심의 회복세를 보일 것이다. 미국 경제는 최근 들어 여러 방면에서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는 반면, 중국 경제의 성장률은 추세적으로 하락할 것이다. 유로경제는 긴축재정으로 경기침체가 심화될 전망이고, 일본경제는 아베노믹스에도 불구하고 회복세가 여전히 불투명하다. 국제원자재 가격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유가도 하향 안정화될 것이다.

2013년 국내경제는 3.1% 성장할 전망이지만, 경기둔화와 회복국면의 경계선에 위치하고 있다. 민간소비는 소폭 개선되겠지만, 설비투자는 감소할 것이다. 건설투자는 마이너스로 전환될 것이며, 수출은 감소하고, 원화가치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변동성이 증가할 것이다. 주요국 정책금리는 현재의 저금리 상태가 지속될 것이고, 고용구조는 악화될 전망이다.

2013년의 경영환경은 위협요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개도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경기부양책, 풍부한 유동성과 저금리 기조의 지속 및 신시장·신사업의 부상 등에 따른 기회요인도 있다. 아울러 2013년의 환경적 특성은 저성장 기조 지속, 절대 불확실성 상시화, 사업위험 증가, 경제민주화 요구 증대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신성장동력 확보, 민첩 경영 강화, 상시 위험관리 및 수익 우선 경영, 지배구조 및 경영시스템 선진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13.03.27.(수)

117th

조찬토론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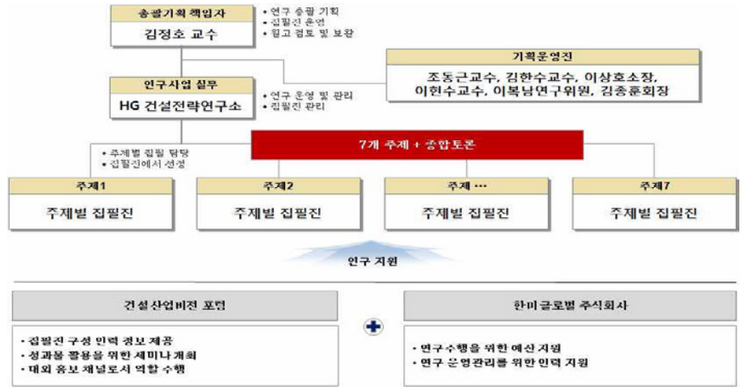
건설산업, 길을 묻다.
-한국 건설산업의 회생전략-

김정호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건설산업비전포럼은 2013년 상반기에 한미글로벌과 공동으로 위기에 처한 한국 건설산업의 회생전략을 연구하고자 한다.

연구의 주요 내용은 건설산업의 경제적· 산업적·사회적·문화적 중요성 재인식, 건설업계가 느끼고 경험하는 위기의식의 원인과 근인, 건설산업 내·외적 환경변화 전망, 미래 건설수요가 발생 전망, 단기 위기대응 전략과 중장기 수요변화 대응 방안 제시 및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한 '로드맵' 제시 등이다. 연구방법 및 연구조직의 구성은 그림과 같다.

연구방법 및 연구조직의 구성



한국 건설산업의 회생방안 연구는 '집단지성'을 활용,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전문가들로부터 해결방안에 대한 중지를 모아 연구목적에 맞게 일관성 있고 체계적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7개의 대주제별로 대표 집필진을 선정하고, 45개의 소주제에 적합한 전문가를 찾아 원고를 청탁하되, 원고 작성 전에 워크샵을 통해 원고내용을 집필자와 공유하고, 초고가 끝나면 다시 초고내용을 대주제와 연구취지에 맞도록 수정·편집한 후 책자로 출판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한 토론방을 건설산업비전포럼 홈페이지에 개설하고, 포럼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2013.04.24.(수)

118th

조찬토론회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 원장

제118차 정기모임은 박근혜정부의 정치이념이라 할 수 있는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국가미래연구원의 김광두 원장을 모셨다.

김원장은 한국 경제 운영의 3대 기본전략을 ①일자리 창출형 성장전략과 경제구조 추구, ②지속 가능한 상생경쟁체제 구축, ③경제 위기관리 역량강화라고 전제하면서 과거 60년대의 경공업, 70년대의 중공업, 80년대의 ICT산업을 너머 이제는 창조성이 근간이 되는 융합·지식창조산업 시대에 들어섰다고 강조하였다.

"창조경제"란 새로운 아이디어의 창출(창조력),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존 아이디어의 기술과의 융·복합(응용력), 새로운 아이디어나 융복합 기술의 사업화(실천력)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중소·창업이 활성화되고, 중소·간의 상생구조가 정착되어 일자리 창출형 성장이 선순환되는 경제라고 정의하면서 세계경제의 국가간 분업 구조의 동태적 변화 속에서, 한국의 입지를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한국의 "미래 먹거리"를 마련하기 위한 필수적인 선택이라고 강조하였다. 김원장은 창조력, 응용력, 실천력이 적용된 세계적인 사례를 제시하면서 창조경제가 어떻게 일자리를 창출하고, 성장으로 이어지는지를 설명하였다.

김원장은 창조경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거시경제의 안정성이 확보되고, 창조적 인력의 양성과 공공정보의 공유체제가 확립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적 재산권이 확실히 보호되고 융합과 통섭의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가 신속히 사업화될 수 있도록 창업 금융을 활성화하고, 창의력을 저해하는 규제를 철폐해야하며 대·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구조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박근혜정부에서 강조하는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정부정책을 방향성을 읽을 수 있는 자리였다.

2013.05.22.(수)

119th

주제토론회

해외건설 진출 현황 및 개선방향

정수현
현대건설 대표이사사

창립 10주년 기념식으로 개최된 제119차 주제토론회에는 현대건설의 정수현사장님을 모시고 대한민국 건설산업의 나아갈 방향인 "해외건설 진출 현황 및 개선방향"이란 주제의 강연을 듣고 열띤 토론이 있었다.

대한민국은 2000년 이후 지속적인 GDP성장률의 둔화, 건설투자 비중의 감소로 인한 시장 위축 및 경쟁 격화로 어려움을 겪는 반면 해외시장은 연평균 9%의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특히 중남미 시장은 15%까지 고속성장을 하고 있어 건설산업의 해외진출 확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하였다.

2012년까지 해외건설 누적수주액이 5천억 불을 돌파하고, ENR기준 시장점유율은 4.7%로 세계 7위를 기록하는 높은 성과를 달성했지만 중동 및 아시아, 플랜트 공종 위주의 편중된 수주, 시공 중심의 低 수익성 사업 모델 및 원가율 상승으로 시장변화에 따른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관련 자료를 들어 설명하였다.

정사장은 신흥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범정부차원의 Control Tower 구축, 해외 고급인력의 확보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DB화, 높은 성장세가 예상되는 아프리카, 중남미 등으로 해외시장 다변화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또한 고부가가치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HOCHTIEF, VINCI, BOUYGUES 사례를 상세히 설명하면서 대한민국 건설의 해외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Value Chain의 확대를 통한 사업영역의 확대와 신성장 동력의 발굴이 필수적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강연 후에는 공통의 관심사인 해외사업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사항에 대한 열띤 토론이 있었다.

2013.06.13.(목)

120th

국제세미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건설산업의 역할

주제발표 **1. Toward Regeneration and Development of Japanese Construction Industry: Thinking Strategy as the Industry** |
Furusaka Shuzo / Kyoto University, Japan, Professor

2. Infrastructure Stimulus in The US and Europe: Experience and Lessons Learned |
Marina Petroleka / Business Monitor International UK, Head of Energy & Infrastructure

주제토론 **좌장** | 김정호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건설산업비전포럼과 해외건설협회, 한국건설경영협회는 2013년 6월 13일에 포스코센터 아트홀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건설산업의 역할'을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미국, 영국, 일본 등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통해 경제위기 극복에 건설산업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대정부제안을 목적으로 개최됐으며, 건설업계, 학계 인사 등 130여명이 참석했다.

일본 교토대 후루사카 슈조 교수는 '건설산업의 재생과 발전을 향해서 산업으로서의 전략을 생각한다'는 주제로 일본의 사례를 발표했다. 그는 "일본의 경우 국가 인프라 업그레이드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건설산업의 역할은 필수적이며 신정부에서는 건설투자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BMI(Busuness Monitor International)의 마리나 페트로레카 본부장은 미국과 유럽의 사례를 통해 '정부의 인프라 투자정책과 교훈'에 관해 설명했다. 페트로레카 본부장은 "최근 인프라확대를 위해 미국과 영국 등 유럽국가에서는 민간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후루사카 슈조
일본 교토대 교수

마리나 페트로레카
BMI 본부장

김정호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사례발표 이후 슈조 교수, 페트로레카 본부장 등 발표자들은 약 1시간동안 질의응답을 받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사회는 장현승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좌장은 김정호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맡았다.

2013.08.28.(수)

121st

조찬토론회

역주변 도시개발

이지해
니켄세케이 한국지사장

제121차 조찬토론회는 니켄세케이의 이지해 한국지사장의 “역주변 도시개발”을 주제로 진행했다.

이지해 한국지사장은 발표에 앞서 역주변 개발을 세 가지 타입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실제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일본 역주변의 도시개발 현황을 설명했다.

일본 역주변 도시개발은 교통기능, 상징 및 관문기능, 도시 및 다운타운의 역할이라는 기본계획이론을 바탕으로 역과 주변건물의 동선이 끊기지 않고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이런 역주변 도시개발을 위해서는 파트너링과 지역매니지먼트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사업에 참여하는 각 주체의 역할과 사업추진에 따른 대처방안에 대해서도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설명하였다.

이지해 한국지사장은 국내사업에 대한 조언으로 역주변 도시개발은 분양중심이 아닌 운영중심의 개발이 필요하고 특히 금융이 함께 고려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2013.09.25.(수)

122nd

조찬토론회

건설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선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변호사

제122차 조찬토론회에서는 포럼의 공동대표이신 법무법인 세장의 김현 대표변호사의 “건설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법, 제도 개선”에 대한 강연을 들었다. 김변호사는 ‘건설판례 이해하기(2012)’를 저술하실 만큼 건설산업에 전문가이다.

강연에서 건설산업의 문제점을 누구보다도 상세히 지적하였으며, 특히 건설인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규제위주의 법률체계, 분리발주방식, 건설업 신고제도, 하도금 금지조항 및 최저가낙찰제의 문제점을 법리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개선점을 제시하였다.

건설산업이 개선해야할 법과 제도 중 비효율과 비용 상승을 초래하는 ‘공사의 분할계약 금지’ 조항을 개정하여 소정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분할발주를 허용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규정도 폐지하고 하도급 계약 적정성 심사 제도를 도입하여 건설기업의 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낙찰금액이 적정공사금액에도 못 미치는 최저가낙찰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가격에 맞춘 낮은 품질의 공사가 아니라, 품질에 맞춘 적정가격에 의한 입·낙찰제도로 바꾸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법조계에서 보는 건설산업의 문제점과 건설인이 피부로 느끼는 문제점이 동일하다는 것을 알려준 매우 의미 있는 강연이었다.

2013.10.29.(화)

123rd

국내세미나

한국건설산업의 생존전략 - 한국 건설산업의 길을 묻다

주제발표 **1. 한국건설산업의 길을 묻다** | 김정호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좌장)
2. 타산업의 성공방정식이 건설산업에 주는 시사점 | 이복남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주제토론 **패널** | 안시권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 천길주 삼표건설 사장, 박상규 대한건설협회 상근부회장, 박찬식 중앙대학교 교수, 박영신 한국경제신문 부장

김정호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이복남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10월 29일 '한국 건설산업의 생존전략'을 주제로 국내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 주제발표에서 김정호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국내 건설산업이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술에 대한 경쟁력 확보, 건설 금융 선진화, 글로벌 인재 양성, 건설기업의 신뢰 회복, 건설업체의 전문화와 역할분담 등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위기의 건설산업을 회생시키기 위해 기업과 정부 차원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복남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 건설산업이 글로벌 챔피언 산업이 되기 위해서는 IT·조선·자동차 등 성공산업의 장점을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위기는 또 다른 기회를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미래 지향적 투자와 함께 성공산업과의 융합·혁신적 마인드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패널로 참여한 박찬식 중앙대학교 교수는 "지속가능하고 건전한 건설산업의 생태계를 창출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공급구조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산업구조의 틀이 전환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오전 7시에 개최한 이번 국내세미나는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토론패널로 참여한 안시권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 천길주 삼표 사장, 박상규 대한건설협회 상근부회장, 박찬식 중앙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박영신 한국경제신문 부장을 비롯하여 학계·업계·협단체 대표적 오피니언 리더 80여 명이 참석하였다.

2013.11.27.(수)

124th

조찬토론회

통일에 대비한 국토분야의 과제

이상준
국토연구원 센터장

'통일에 대비한 국토분야의 과제'를 주제로 제124차 조찬토론회를 개최했다. 주제발표는 국토연구원의 한반도·동북아연구센터장으로 재직 중인 이상준 센터장이 맡았다.

이상준 센터장은 한반도가 처한 정치·경제·사회적 상황이 통일 여건에 미치는 영향과 예측을 토대로 현시점에서 한국 정부가 준비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를 집중적으로 설명했다. 지리적 위치로 인해 한반도 문제가 당사자 간의 문제보다 큰 주변국에 의해 훨씬 큰 영향을 받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특징이라 했다.

발제자가 독일이 통일된 지 2년 후부터 베를린에서 공부를 한 경험으로 통독의 경험을 설명하는 좋은 기회이기도 했다. 통일 비용이 1,560억 조에 이를 만큼 막대했다는 점, 그리고 정치·경제·사회가 안정화되는 데 최소 10년 이상이 소요되었다는 점은 통일한반도에도 상당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통일 이후 국토분야의 핵심 정책 과제로 정치·경제·사회분야와 국토분야로 나눠 설명했다. 통일 국토의 비전으로, '열린 한반도, 통합된 한반도'를 달성하기 위한 목표와 과제로 설명했다. 가까운 나라, 가까운 이웃, 헌법 제3조에 의해 한반도로 분류되는 북한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통일시기와 구도는 누구도 확정하지 못하지만 현시점에서 한국 정부가 준비해야 할 과제도 제시했다.

회원들의 의견 주문 겸 건의 사항, 개인적인 경험 등을 토론하는 자리를 가진 후 이성우 공동대표의 폐회사로 마무리되었다.

2013.12.18.(수)

125th

조찬토론회

2014년 글로벌 경제 전망과 건설산업에의 시사점

송기홍
딜로이트 컨설팅 코리아 대표

제125차 조찬토론회는 글로벌 컨설팅 업체인 딜로이트의 송기홍 한국대표의 강연으로 진행되었다.

딜로이트가 전망하는 한국경제 거시 전망과 송대표 개인이 가진 건설산업에 대한 견해를 밝히는 자리가 되었다. 비록 건설산업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적다고는 하지만 한국경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거시적으로 진단하고 전망하는 자료는 건설포럼 회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송기홍 대표는 한국경제는 1970~1980년대 고성장 시대를 마감하고 1990년대는 평균 6.7%, 그리고 2000년대 이후는 년 평균 4.2%이하로 떨어지는 저성장 시대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고, 돌발 변수가 오지 않는 한(예: 남북한 통일 등) 저성장시대에 대비하는 경영전략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거시경제 관점은 비록 저성장시대지만 한국건설산업 측면을 보면 과거 30년간 12년을 주기로 등락을 거듭한 사이클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2014년은 전반적으로 성장하리라는 전망을 내 놓았다.

송 대표는 또한 한국경제가 일본모델을 그대로 답습할 것인지에 대한 견해도 밝히며 과거 패턴만 보면 답습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반대로 한국의 역동성과 공격적인 성향은 답습 분위기에서 벗어날 것이라는 기대를 내놓기도 했다. 현재와 미래의 큰 걸림돌 중 하나인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점을 강조하며, 인구감소를 대체 할 대형 소재로 남북한 통일과 미국식 이민제도 도입 검토로 해결될 가능성도 언급했다.

발제에 이어 인구감소문제, 우리 국민의 고유한 위기돌파력, 일본과 다른 한국의 특성 등 포럼 회원들의 견해도 밝히며 타 산업에서 한국건설을 보는 시각에 대해 포럼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은 시간의 제약을 받을 만큼 관심을 끈 주제였다.

세계경제 위기와 대응 및 전망

윤창현
한국금융연구원 원장

제126차 조찬토론회는 한국금융연구원 윤창현 원장의 “세계경제 위기와 대응 및 전망”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국내·외 금융전문가로 지명도가 높은 윤창현 원장은 현재도 진행 중인 경제위기의 근본 원인으로 세계기축통화인 미국달러 지위와 미국경제의 부채를 지목했다. 달러 발행권을 가진 미국의 국내·외 부채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지만, 누구도 해결하지 않는 점이 강조되었다. 아베노믹스로 대변되는 일본경제는 재정지출액과 세입액이 2.3배나 차이가 날 정도로 국가부채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본의 국가재정은 시한폭탄을 안은 ‘벌어진 악어 입’으로 표현했을 정도로 국제경제 위기로 발전될 가능성도 있음을 예상했다.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2014년도는 세계 경제, 미국과 유럽의 경제, 중국과 일본경제의 성장세 지속이 한국경제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한국경제의 성장세가 2015년까지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불확실하다는 예측과 내수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주택·부동산 시장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현재와 미래는 주택·부동산도 투기 대상이 아닌 내구성을 지닌 상품이라는 인식에서 투기에서 투자 대상으로 전환되어야 내수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2013.02.26.(수)

127th

조찬토론회

한반도 통일, 과연 가능한가?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제127차 조찬토론회는 대한민국 제17대 국회의원 및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을 역임하고 현재,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인 한반도선진화재단 박세일 이사장을 모시고 한반도 통일에 대한 발표를 들었다.

박세일 이사장은 그동안 우리나라는 정부도 국민도 통일을 잊고 살아왔다고 지적하며 이제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의 통일의지와 열정이며 통일 의지가 없이는 통일을 이룰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올바른 대북정책과 대동포정책을 가지고 통일외교를 수립하여 국가의 전략을 확실히 세우고 나아간다면 통일의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큰 갈림길에 놓여있는 한민족은 우리 스스로 우리의 운명을 결정해야하며, 한반도 통일은 축복임을 강조하며 발표를 마쳤다.

2014.03.26.(수)

128th

조찬토론회

위기, 기회 통찰 New Wealth

최윤식
아시아미래인재연구소 소장

제128차 토론회는 “2030 대담한 미래”의 저자인 아시아미래인재연구소 최윤식 소장(한국뉴욕주립대 미래연구원장)을 모시고 ‘위기, 기회 통찰 New Wealth’라는 주제로 한국판 잃어버린 10년과 향후 10년의 예측에 대한 발표를 들었다.

최윤식 소장은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으며, 대한민국은 또 다른 외환위기를 거쳐서 일본과 흡사한 한국판 잃어버린 10년을 겪을 것이라고 예측하며 이 과정에서 한국의 대표기업도 향후 5년 안에 몰락이 시작될 수 있다고 하였다. 중국은 미국을 따라잡기 힘들 것이며 일본도 IMF 구제 금융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이러한 미래 변화 속에서 새로운 기회의 가능성을 붙잡기 위해서는 패러다임 변화와 미래의 소비자에 대한 예측이 필요하며, 세상 변화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통찰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북한과의 관계, 개발에 대한 회원의 질문에 지금부터라도 인도주의적 지원이 아닌, 통일 이후의 한반도 자원 및 개발 확보를 위해서는 지금부터 통일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했다.

끝으로 가장 빨리 경계를 깨고 변화를 시도하는 기업만이 위기를 극복하고 기회를 얻을 것이라고 하며 발표를 마쳤다.

2014.04.30.(수)

129th 조찬토론회

Blue Ocean으로 떠오르는 아프리카

이희범
LG상사 부회장

전 산업자원부 장관을 역임하시고 현재 한국경영자총협회 명예회장인 이희범 LG상사 부회장을 모시고 “Blue Ocean으로 떠오르는 아프리카”라는 주제로 제129차 조찬토론회를 진행하였다.

이희범 부회장은 과거 희망 없는 대륙으로 불렸던 아프리카는 이제 인구가 10억 명이 넘는 Blue Ocean이 되면서 떠오르는 대륙으로 부상하고 있고, 도시화와 경제개발로 폭발적인 인프라 수요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동통신 수요도 큰 폭으로 성장 중이라고 하였다. 또한, 풍부한 노동력에 기반한 최적의 생산기지이며, 에너지 자원의 보고이기도 하다고 말씀하였다.

현재 중국, 미국, EU, 일본 등 각국은 아프리카에 대한 지원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바, 우리나라도 정부의 포괄적인 지원 확대 속에 기업들이 활발한 현지투자를 통한 교류 확대에 더욱 힘써야 하며, 그 이유는 미래학자의 말처럼, 경제의 무게 중심이 아프리카로 이동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며 발표를 마쳤다.

2014.05.28.(수)

130th 조찬토론회

자원이 없는 나라의 국가 경영 ‘창조경제’

윤종록
미래창조과학부 차관

제130차 조찬토론회에서는 KT 부사장 및 미국 벨연구소 특임연구원을 역임하고 현재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이신 윤종록 차관을 모시고 자원이 없는 나라의 국가 경영 ‘창조경제’ 강연을 들었다.

윤종록 차관의 저서 “후츠파로 일어서라”의 내용이자 이번 강연에서 발표한 유대인의 창조정신에 대해 상상력과 과학기술이 곧 경제라고 말씀하였다. 인구가 750만 명밖에 안되는 이스라엘은 유대인의 창조정신 후츠파를 통해 수많은 지식경제의 혁신 사례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하였다.

한반도는 천연자원은 없으나, 디지털 토양의 곡창지대이므로 사이버 영토에서 지식자원으로 승부하여야 하며, 현재의 경제위기 상황은 모든 경제주체가 협력하여 창업과 일자리가 끊이지 않는 새로운 경제 전략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하였다.

131st

국제세미나

통일 한반도 국토개발 비전과 전략

기조발표	**두만강 하구 다국적 도시 개발 구상** | 김석철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
주제발표	**1. 통일시대를 향한 북한 국토개발의 과제** | 이상준 국토연구원 한반도·동북아연구센터장 **2. 북한의 교통 인프라 관련 도전 과제들 - 라선 및 기타 지역** | Stanislas Roussin/ HAROPA Korea, Representative Bernhard Seliger / Hanns Seidel Foundation Seoul Office, Resident Representative **3. 동북아 경제협력시각에서 본 Korean Peninsula 물류네트워크 구축** | Dongming Zhang / Liaoning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주제토론	**좌장** | Andrei Lankov / Kookmin University, Professor **패널** | 송기홍 딜로이트 컨설팅 대표, 정창무 서울대학교 교수

김석철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

이상준
국토연구원
한반도·동북아연구센터장

Stanislas Roussin
HAROPA Korea,
Representative

Dongming Zhang
Liaoning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건설산업비전포럼이 딜로이트 컨설팅과 공동으로 6월 12일, "통일 한반도 국토개발 비전과 전략"을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였다. 통일 한반도 국토개발 정책수립에 도움이 되고 올바른 북한 개발에 대한 인식의 공감대를 확대하기 위하고자 개최되었으며 이번 세미나에는 한국, 독일, 프랑스, 중국 등 해외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통일 한반도 국토개발의 비전에 대한 제안과 토의가 진행되었다. 세미나에는 건설업계, 학계, 관련 인사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약 270여 명이 참석하였다.

사회는 건설포럼의 강인석 이사(한국건설관리학회 회장)께서 맡았으며, 권도엽 공동대표(전 국토해양부 장관)의 개회사에 이어 김남식 통일부 차관의 축사로 세미나가 시작되었다.

기조연설자 김석철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의 "두만강 하구 다국적 도시 개발 구상"를 시작으로 이상준 국토연구원 한반도·동북아연구센터장의 "통일시대를 향한 북한 국토개발의 과제", 스타니슬라스 루셍 HAROPA 한국 대표와 베른하르트 젤리거 한스자이델 재단 한국사무소장의 "북한의 교통 인프라 관련 도전 과제들 - 라선 및 기타지역", 마지막으로 요녕대학교 장동밍 교수의 "동북아 경제협력시각에서 본 Korean Peninsula 물류네트워크 구축"의 발표를 듣고, 서울대학교 정창무 교수와 딜로이트 컨설팅 송기홍 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토론시간을 가졌다.

통일은 남한이 단독으로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북한과 주변국들의 상황과 노력을 통하여 함께 준비해야 하며, 통일 후 북한의 경제수준과 재산권 문제, 인구이동 문제, 한국인의 북한에 대한 인식변화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또한 독일의 통일과정을 교훈 삼아 철저한 계획가 대비가 필요할 것이라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마지막으로 좌장을 맡은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학교 교수는 한국의 젊은이들이 북한에 대한 관심과 통일에 대한 열망을 가져야 하며 현재와 같은 방관된 자세는 두 개의 민족이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하였다.

2014.07.16.(수)

132nd

주제토론회

해외 선도 건설사 사업모델 및 시사점

주제발표 **해외 선도 건설사 사업모델 및 시사점** | 고중선 딜로이트 컨설팅 상무

주제토론 **좌장** | 김한수 세종대학교 교수

고중선
딜로이트 컨설팅 상무

제132차 정기모임은 주제토론회로 진행되었다. 세종대학교 김한수 교수의 사회로 주제발표에 이어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으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의 발표를 맡으신 딜로이트 컨설팅의 고중선 상무는 건설 및 플랜트, 화학 및 소재, 정보통신 및 미디어 등 다양한 산업 영역에서 기업의 성장 전략, 마케팅·운영 전략 등 컨설팅 프로젝트 경험이 있으며,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UPENN의 Wharton School에서 MBA를 취득 후 현재까지 다양한 그룹의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다.

고중선 상무는 해외 선진 건설사 중 주로 유럽 건설사의 사례를 중심으로 주제발표를 하였다.

1) 4개의 사업모델(Infrastructure Construction / Plant EPC / Globalized Genecon / Extended Value Chain Genecon)로 기업군을 나누어 성장성, 안전성, 수익성 측면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사업모델 별 포트폴리오 다각화의 특징을 분석
2) 유럽 선진 건설사의 전략방향을 국제화 및 다각화로 규정하고 개별 기업의 사례(HOCHTIEF, VINCI 등)를 중심으로 핵심성공요인과 시사점 발굴
3) 국내 건설산업의 과거 경기 변동 이력과 현재의 외부 환경 요인 분석을 통해 현재 및 근 미래의 국내 건설 기업이 직면한 위기 요소를 정의하고, 앞 장에서 살펴본 유럽 선진 건설 기업의 성장 전략을 통해 국내 건설 기업이 갖추어야 할 역량과 전략 방향을 제시

이어진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은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다양한 질문과 의견이 제시되었다. 첫 번째 화두를 던진 이복남 서울대학교 건설환경종합연구소 교수의 유럽계 건설사와 미국계 건설사의 차이에 대한 질문에, 미국기업에 비해 유럽기업은 다양한 상품군에 대한 다각화 전략을 중심으로 활발한 기업 활동을 펼치는 점이 매력적이라고 하였다.

건설산업비전포럼의 김종훈 공동대표(한미글로벌 회장)는 한국건설기업의 사람을 쓰는 시스템이 해외 1세대 때와 달라졌으며, 최근의 건설사는 대부분 전문 경영인을 쓰고 있고 전문 경영인의 개인적 자질의 문제도 있을 수 있으나, 예하 임원 성과평가 시스템 특성상 리스크를 감수하고 단기성과 창출에 올인 하는 풍토가 요즈음의 해외공사 수익성 악화의 한 축이라 생각한다고 하며, 유럽의 경우는 전문경영인의 근속 연수가 길고 장기적 안목의 사업 영위가 가능한 풍토에서 주제발표에서 언급한 국제화, 다각화 전략이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의견제시를 하였다.

또, Glocalization의 좋은 사례 소개 요청에 Hochtief의 경우 호주나 캐나다 시장 진출 시 상기 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시장 안착에 성공한 사례를 이야기하였다.

2014.09.26.(금)

133rd

조찬토론회

건설시장의 동향 및 주요 정책 방향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제133차 조찬토론회는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의 “건설시장의 동향 및 주요 정책 방향”로 진행되었다.

건설산업은 경제발전을 견인하고 석유파동 경제위기 극복을 선도하는 등 국가발전의 핵심토대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며, 건설산업의 생산유발효과는 다른 산업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국내 건설투자는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국내 건설수주도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러한 저성장 시대에 대비하고 건설산업의 내실화, 동반성장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의 지속발전 기반 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하였다.

한편, 해외건설시장에서는 플랜트 위주의 수주 구조를 보여주며, 금년 700억 달러 수주를 예상하고 있고 이를 토대로, 2017년 세계 5대 해외건설강국에 진입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서는 맞춤형 금융지원 강화, 해외건설산업 수익성 제고 지원, 중소기업 진출 확대, 진출시장 공종 다변화, 효율적인 지원체계 구축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며 강연을 마쳤다.

2014.10.29.(수)

134th

국내세미나

성수대교 붕괴 20년 : 한국호는 안전한가?
- 공공안전을 위한 건설산업의 역할과 과제

주제발표	**1. 재난안전관리를 통한 새로운 건설산업의 패러다임 구축** | 송창영 한국재난안전기술원 이사장 **2. 한국사회의 재난과 위험 거버넌스** | 이재열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주제토론	**좌장** | 강인석 한국건설관리학회 회장 **패널** | 김재권 한국방재안전학회 회장, 박홍신 시설안전미더 대표, 이영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정경훈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

송창영
한국재난안전기술원 이사장

이재열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10월 29일(수), 포스코센터 아트홀에서 “성수대교 붕괴 20년 : 한국호는 안전한가?” 2014 국내세미나를 개최했다. 공공안전을 위한 건설산업의 역할이 무엇이고, 풀어야할 과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된 국내세미나에는 100여 명의 건설업계, 학계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하였다. 사회는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지석호 교수가 맡았으며, 김현 공동대표(법무법인 세창 대표변호사)의 개회사에 이어 노진철 국가위기관리학회 회장의 축사로 시작했다.

첫번째 주제발표자인 한국재난안전기술원 송창영 이사장은 ‘재난안전관리를 통한 새로운 건설산업의 패러다임 구축’을 주제로 발표하였으며, “재해, 재난은 모두가 대비하고 관리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로 국민의 행복을 위해 재난안전이 필요하다”며 기업재해 경감활동, 빌딩 리스크관리, 재난안전 건축물 인증 등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두번째 주제발표자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이재열 교수는 “과거 90년대 재난은 개발 우선주의에 따른 높은 위험추구성향과 속도집착, 높은 미래가치 할인율 때문에 발생했다”면서 “지금은 위험요소를 위험으로 인지하지 않는 잘못된 가정에 따라 행동하거나 사전에 사고를 이해하지 못하는 조직문화, 최악의 결과를 상정하고 행동하기를 주저하는 경향이 계속 되는 위기숙성과정이 진행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강인석 한국건설관리학회 회장을 좌장으로 김재권 한국방재안전학회 회장, 박홍신 시설안전미더 대표, 이영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정경훈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이 참석한 토론에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안전시스템의 재구축, 시스템의 올바른 활용, 국민의 의식변화 등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2014.11.26.(수)

135th 조찬토론회
산·학·연 혁신과 강소기업 육성

강길부
국회의원

제135차 조찬토론회에서는 제 17,18,19대 국회의원이며 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현재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및 국회 정보위 위원을 맡고 계시는 강길부 국회의원을 모시고 “산·학·연 혁신과 강소기업 육성”을 주제로 강연을 들었다.

대한민국 경제는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선진국 진입을 달성해야하며, 이를 위해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여 경제도약의 해법을 제시해야 하고, 또한 국가적으로 시급한 과제로서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산업은 해외시장 수주확대를 위하여, 민관협력의 패키지형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고부가가치분야의 기술 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야 한다고 하며, 건설산업도 지속 발전을 위하여 건설 강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하며 강연을 마쳤다.

강연 후에도 많은 회원들이 현 정부와 국회에 바라는 정책 및 지원책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2014.12.18.(목)

136th 조찬토론회
거주풍경 - 협력과 공존의 도시, 메타시티

승효상
이로재 대표

제136차 조찬토론회에서는 승효상 이로재 대표를 모시고 “거주풍경 - 협력과 공존의 도시, 메타시티” 강연을 들었다. 승효상 대표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비엔나 공과대학에서 수학하였다. 현재 서울시 총괄건축가로 지명되어 활동하고 있다.

승효상 대표는 1986년 독일 하르부르그의 작은 광장에 파시즘에 대한 저항을 기념하기 위해 작가 요헨게르츠에 의해 세워진 “사라지는 기념탑”을 소개하였다. 사방 1m의 정사각형에 높이 12m의 단순한 형태로 설계되었지만, 1년마다 2m씩 땅속으로 침하하여 종국에는 소멸되도록 계획한 기념탑을 통하여 하르부르그 시민들은 이 탑이 꺼져 들어가는 동안 그 탑의 표면에 파시즘으로부터 받은 박해와 고통을 낙서로 기록하곤 하였고 모든 슬픈 기억들이 그 투박한 탑위에 새겨지면서, 6년만인 1992년 이 탑은 완전히 땅속으로 들어가 소멸하고 그 땅위에는 그탑이 있었다는 기억만 남았다고 하였다. 그리고 하르부르그 시민들은 사라지는 기념탑을 통하여 화해하고 용서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승효상 대표는 모든 땅에는 과거의 기억이 손금과 지문처럼 남아있고 모든 땅은 고유한 무늬를 가지고 있는데, 더러는 자연의 세월이 만든 무늬이며 더러는 그 위에 우리의 삶이 연속적으로 새긴 무늬라고 하며, 땅은 장대하고 존엄한 역사이며 그래서 귀하고도 귀하다고 하였다. 이는 地文(Landscript) 이라고 할 수 있고 건축은 온갖 예의를 갖추어 그 경이로운 언어를 들추어내고 깊이 사유하여 새로운 시어를 그 위에 겸손히 지어 덧대는 일이라고 하였다.

2015.01.21.(수)

137th

조찬토론회·정기총회

에너지, 여건의 변화와 정책방향

손양훈
전)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

제137차 조찬토론회는 지난해 말까지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을 역임하였고,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위원회 위원, 녹색성장위원회 에너지분과 위원을 맡아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참여하고 계시는 손양훈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를 모셔 “에너지, 여건의 변화와 정책방향”을 주제로 진행하였다.

손양훈 교수는 석유를 중심으로 최근 수년 동안의 국제 에너지 시장의 변화, 셰일가스 혁명에 따른 에너지 가격의 변화와 그 변화가 중동국가와 러시아 등 산유국에 미치는 영향, 에너지시장 패권의 변화와 그에 따른 국제정세의 전개, 향후 유가 변화에 대한 전망 등에 관하여 다양한 최신자료를 바탕으로 흥미진진한 설명과 분석을 제공하였다.

특히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97%를 해외에서 수입하면서도 에너지산업의 경제적 효율성이 낮고 중국 등 인접국가와 에너지 수요경합을 하는 상황에 놓여 에너지 안보에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미국과 중국 등 강대국의 사례를 들어 에너지를 기본적인 국가 생존전략을 구성하는 어젠더로 다루는 정책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강연 후 질의응답 시간에는 우리나라 에너지 공기업의 지배구조 개편, 에너지와 건설을 연계한 개발, 북한의 에너지 상황 등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다.

2015.02.25.(수)

138th

조찬토론회

세계문화유산 제주도의 개발과 보존계획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138차 조찬토론회에서는 제16, 17, 18대 국회의원과 한나라당 최고위원 등을 역임한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모셔 “세계문화유산 제주도의 개발과 보존계획”이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들었다.

원희룡 지사는 외국인(중국) 투자 상황 및 인구 증가와 관련된 제주도의 현재 상황을 서두로 하여 제주도의 개발과 환경보존이라는 관점에서 미래 비전에 대해 설명하였다. 특히 친환경적 매력과 강점을 지닌 지역이라는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활발한 관광, 경제, 물류, 금융 활동 등의 복합적인 기능을 지닌 국제적인 허브로 제주도가 성장할 수 있도록 균형(balance)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방향이자 향후 풀어나가야 할 과제로 제시하였다.

강연 후 질의응답 시간에는 건강도시, 친환경에너지 활용, 고품격 관광 등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으며 2015년에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주요 국제행사에 대한 소개와 홍보도 함께 있었다.

2015.03.25.(수)

139th

주제토론회

저성장 극복을 위한 건설시장 활성화 방안

주제발표	**후행산업, 천수답 산업으로서의 건설 산업**	조동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주제토론	**좌장**	김정호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패널	송석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이상영 명지대학교 교수, 이상호 한미글로벌 사장, 이인근 토지주택연구원장, 천길주 삼표 사장

조동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정호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제139차 정기모임은 새롭게 시도한 주제토론회로 진행되었다. 주제토론회는 관련기관에 건설산업비전포럼의 의견제시 및 전달을 목적으로, 조찬 정기모임 중 일부를 주제발표에 이어 지정토론자의 깊이 있는 의견을 제시하는 토론회 형식으로 진행했다.

주제토론회에서 조동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저성장 극복을 위한 건설시장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후행산업, 천수답 산업으로서의 건설 산업 - 경기회복의 지렛대로 혁신돼야”를 발표하였다. 조동근 교수는 근년의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저하 현상을 너무 빨리 성장판이 닫힌 것으로 정의하고 그 원인이 건설투자의 부진에 있는 것으로 진단하였다. 그리고 고령화 시대를 앞두고 아직은 성장 폐달을 더 밟아야 하며 건설산업이 성장을 촉진하는 대안이 될 수 있으며, 미국 경제부활의 배경에 주택시장 정상화가 있다는 실증적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한국의 경우에도 건설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통해 경제회복이 가능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주택과 관련된 가계대출 증가를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부채구조의 조정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조동근 교수는 건설업계 혁신을 위하여 스스로 Trend-setter가 될 것을 강조하고 도시재생, 임대시장 선진화, 고부가가치 해외건설시장 진출 등 건설산업의 신수요창출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건설산업을 제도산업으로 규정하면서 시장분할적 법령체계 정비, 징벌적 과잉제재 개선, 종합심사낙찰제로의 변환 등 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주제발표 후 이어진 지정토론 시간에는 김정호 공동대표(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송석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이상영 명지대학교 교수, 이상호 한미글로벌 사장, 이인근 토지주택연구원장, 천길주 삼표 사장 등 전문가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하였다.

2015.04.29.(수)

140th

조찬토론회

토지·주택 패러다임 전환기, LH의 역할

이재영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제140차 조찬토론회에서는 이재영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을 모시고 “토지·주택 패러다임 전환기, LH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들었다. 이재영 사장은 건설교통부와 국토교통부에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추진 기획단장·국토균형발전 본부장·주택토지실장’ 등 요직을 역임한 후에 대한건설정책연구원장과 경기도시개발공사 사장을 지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에 취임한 이후 획기적인 부채감축으로 공기업 경영혁신을 선도하고 있다.

이재영 사장은 LH의 사업구조가 일시에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나 이익회수는 장기에 걸치는 점, 공공임대주택공급은 기본적으로 손실을 안을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 공기업으로서 수익을 내지 못하더라도 정부의 국책사업에 협력해야 한다는 점 등 과다한 부채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였다. 그리고 부채가 증가하는 방식의 사업구조에도 불구하고, LH가 재고자산의 판매극대화·원가절감·사업방식 다각화·경영혁신 등 막대한 부채를 성공적으로 감축할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하였다.

이재영 사장은 특히 면밀한 계획과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통해 경영효율성을 더욱 높이겠다는 계획과 함께, 앞으로도 LH가 임대주택사업 등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며 건설업체 및 민간자본과의 협력을 통해 상호발전적인 관계를 구축해 나가고자 하는 희망을 강조하였다.

강연 후 질의응답 시간에는 LH의 사업구조와 생산효율성에 대한 코멘트, 해외진출 및 대북협력에 있어서 건설업체와의 연계방안 등에 관한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다.

2015.05.27.(수)

141st

국내세미나

안전한 선진사회 구현을 위한 국민대토론회

주제발표	**1. 건설 안전을 위한 건설 주체별 역할과 책임** | 안홍섭 산업안전보건교육원 원장 **2. 안전사회 구축을 위한 정책 제언** | 박홍신 시설안전미더 대표 **3. 선진 안전사례 : 일본기업의 안전노력과 정부정책** | 요시다 도시아끼 미쯔비시지쇼설계 부장
토크쇼	**기조발언** | 권도엽 건설산업비전포럼 공동대표 **사회** | 김형민 한국수력원자력 고문

안홍섭
산업안전보건교육원 원장

사단법인 건설산업비전포럼은 5월 27일(수)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안전한 선진사회 구현을 위한 국민대토론회” 2015 국내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삼풍백화점이 붕괴된지 20년이 지난 현재에도 여전히 우리 사회가 안고있는 위험을 일반 국민에게 알리고, 안전한 선진사회로 더 나아가기 위해 마련된 이번 국내세미나에는 건설업계, 학계 관련 전문가 및 일반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김종훈 공동대표(한미글로벌 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최정호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의 축사로 세미나를 시작하였다. 사회는 광운대학교 유정호 교수(기획위원회 위원)께서 맡았다.

첫번째 주제발표자이신 안홍섭 산업안전보건교육원장(군산대학교 교수)은 ‘건설안전을 위한 건설 주체별 역할과 책임’이라는 주제발표에서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이 대형중대사고에만 집중됐고, 사고원인 분석이 눈에 보이는 기술에만 치중했다고 발표했다.

두번째 발표자 박홍신 시설안전미더 대표는 “건축물의 안전사고 예방 및 대비를 위해 제도의 실효성과 안전관리의 효율성 강화에 대한 개선과 정비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다중이용건축물 범위 확대, 완공된 구조물도 평가하는 가칭 ‘건축구조안전성능평가’ 제도 도입, 시설물 안전사고 손해배상책임보험(가칭) 의무가입 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다.

마지막 발표자인 요시다 도시아끼 미쯔비시지쇼설계 부장은 ‘건설안전과 국민안심을 고려한 도시재생’을 주제로 도쿄역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다이마루유 지구의 성공적인 도시정비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의 선도회사인 미쯔비시지쇼 그룹의 사회적 책임 관점에서 안전과 안심을 확보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소개했다.

이어서 김형민 한국수력원자력 고문(전 SBS 앵커)이 진행하는 국민 참여 토크쇼가 진행되었다. 토크쇼에 앞서 권도엽 공동대표(전 국토해양부 장관)께서 토크쇼 기획의도 등에 대한 기조발언을 했다. 발표자 및 참가자들의 자유로운 발포로 2시간 동안 열띤 토론이 진행된 가운데 2015 국내세미나가 성공리에 막을 내렸다.

2015.08.26.(수)

142nd

조찬토론회

한국철도의 미래를 여는 바람

강영일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제142차 조찬토론회에서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공단’) 강영일 이사장을 모시고 “한국철도의 미래를 여는 바람”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들었다. 강영일 이사장은 행정고시 제23회로 공직에 입문한 이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건설교통부 도로국장, 국토교통부 교통정책실장 등 요직을 역임하고 (재) 한국부동산연구원 원장으로 재직한 바 있다.

강영일 이사장은 공단의 주요 업무와 역할을 화두로 한국 철도의 성장과 성장통에 대해서 언급한 후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거듭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단의 신뢰회복을 위한 4개 분야, 33개 과제로 구성된 종합개선대책을 마련하였으며 청렴 원년을 선포하고 탕평인사를 단행하는 혁신적인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강영일 이사장은 철도가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철도 건설산업 불공정 관행 및 규제를 개선하여 건설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히면서 상생과 동반성장을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예로는, 은행과 연계하여 “체불e제로 시스템”으로 명명된 대금 체불방지시스템의 가동을 통해 원도급자, 하도급자, 자재 및 장비업자 들이 적시에 기성금을 직접 수령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강연의 말미에서는 철도의 新바람이라는 주제로 유라시아이니셔티브와 해외철도로의 진출에 대한 비전도 제시하였다. 강연 후 질의응답 시간에는 철도사업을 위한 민자활용과 미래 철도사업의 방향에 대한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143rd

주제토론회

한국의 해외건설 딜레마와 탈출구

주제발표 **한국의 해외건설 딜레마와 탈출구** | 이복남 서울대학교 건설환경종합연구소 교수

주제토론 **좌장** | 권도엽 건설산업비전포럼 공동대표
패널 | 박기풍 해외건설협회 회장, 장종희 매일경제 부장, 차문호 현대건설 해외글로벌본부 상무, 한승헌 연세대학교 교수

이복남
서울대학교
건설환경종합연구소 교수

제143차 정기모임은 주제토론회로 진행하였다.

이번 주제토론회의 주제는 「한국의 해외건설 딜레마와 탈출구」로 이복남 서울대학교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였다. 이복남 교수는 생산방식, 고용, 교통 및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 등 글로벌 경제의 전반적 환경변화에 따라 일어나는 산업생태계의 패러다임 전환이 한국의 해외건설에 시장 확대라는 긍정적 영향과 핵심역량 부족이라는 부정적 영향을 동시에 주고 있다고 분석하고, 한국건설은 해외건설을 국제건설로 인식하여 내수시장과 동등한 시각으로 보아야 하며 현재 부족한 것으로 평가받는 소프트웨어와 기획관리 역량을 강화하여 해외시장 비중을 높여가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한국건설 현재의 발전단계와 역량을 고려할 때 단순도급 사업을 넘어 투자개발사업과 시공자금융으로 사업모델 포트폴리오를 확대해야 할 시점이나 글로벌포지션 변화에 필요한 기획, 프로세스, 기술디자인 등 소프트 역량이 부족한 딜레마 상황에 놓여있다고 진단하고 오너십·조직·인력·전략·시스템 측면의 원인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한국 해외건설의 딜레마를 돌파하는 방안으로 민간투자사업, 코리아

권도엽
건설산업비전포럼 공동대표

패키지 상품개발, 글로벌 건설지식허브센터 구축 및 글로벌 인재양성센터 운영, 대국민 홍보프로그램 운영, 건설기업의 해외 현지화 촉진 등을 제시하였다.

지정토론은 권도엽 공동대표의 사회로 박기풍 해외건설협회장, 장종희 매일경제 부장, 차문호 현대건설 상무, 한승헌 연세대학교 교수가 주제발표에 대한 의견과 해외건설 위기탈출에 관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방청석에서도 해외건설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주제발표와 지정토론자의 토론내용에 대하여 논평하고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였다. 첫 번째 주제토론회에 이어서, 이번 주제토론회에서도 같은 문제에 대하여 서로 다른 진단과 전략을 활발하게 제시하는 수준 높은 토론이 전개되어, 우리 포럼이 금년에 새롭게 도입한 주제토론회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2015.10.29.(수)

144th

국내세미나

Smart City & Infrastructure - 미래의 국부창출, 스마트시티로 연다

기조연설	**1. Intelligent Infrastructure makes cities smart – A view into leading edge smart projects** | Roland Busch / Siemens AG 부회장 **2. Jeju Island, Towards Smart Tourism and Zero-Energy** |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
주제발표	**1. Smart City: R&D Activities and Challenges in Korea** | 박종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융합기술연구소 소장 **2. Competitive Advantages of ICT at Turner Construction** | Jon David / Turner construction VDC Regional Manager **3. Smart Jeju Island's concept and Strategy** | 박상혁 한미글로벌 건설전략연구소 소장
주제토론	**좌장** | 이강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패널** | Christoph Aebischer / 한국지멘스 부사장

건설산업비전포럼은 제주특별자치도, 포스코ICT와 공동으로 10월 29일(목), 포스코센터 아트홀에서 2015 국제세미나 “Smart City & Infrastructure - 미래의 국부창출, 스마트시티로 연다”를 개최하였다.

스마트시티 도입을 통해 국가의 미래 국부창출을 열어가는 기회 마련을 목적으로 추진된 이번 세미나는 선진국의 스마트시티 사례 및 미래비전을 통해 국내 스마트시티의 구현 방향을 생각해보고 향후 해외국가 수출을 기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ICT, 건설, 학계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약 200여 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Roland Busch
Siemens AG 부회장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

김종훈 건설포럼 공동대표(한미글로벌 회장)는 개회사에서 이번 국제세미나는 선진국의 스마트시티 사례 및 미래 비전을 통해 국내 스마트시티의 구현 방향을 다시 생각해보고 향후 국내 스마트시티 시범 사업성과를 패키지화해 국내뿐 아니라 중국과 같은 해외에 수출을 기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어 김경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의 축사(동영상)로 세미나를 시작하였다.

첫번째 기조연설자이신 롤랜드 부시(Roland Busch) 지멘스AG 부회장은 지멘스 경영이사회 멤버로 “Intelligent Infrastructure makes cities smart - a view into leading edge smart projects”를 주제로 발표하였다. 두번째 기조연설자이자 공동주최 기관인 제주특별자치도의 원희룡 도지사께서는 “Jeju Island, Towards Smart Tourism and Zero-Energy”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박종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융합기술연구소 소장

Jon David
Turner construction VDC
Regional Manager

박상혁
한미글로벌
건설전략연구소 소장

이어진 주제발표에서 박종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융합기술연구소 소장은 “Smart City : R&D Activities and Challenges in Korea”를 주제로 우리나라 스마트시티 기술개발 현황을 발표하였고, 존 데이비드(Jon David) 터너사 뉴욕 VDC(Virtual Design and Construction)책임자는 미국 건설기업의 스마트시티 사업 방향과 ICT 도입을 통한 경쟁력 향상에 대하여 “Competitive Advantages of ICT at Turner Construction”를 발표하였습니다. 마지막 주제발표자인 박상혁 한미글로벌 건설전략연구소장은 “Smart Jeju Island’s Concept and Strategy”를 주제로 제주도를 스마트시티로 발전시키기 위한 구상과 추진전략을 발표하였다.

마지막 순서인 토론에서는 이강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의 진행으로, “Smart City, How Sould We Do?”를 주제로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에는 주제발표자 3명과 더불어 크리스토프 에이비셔(Christoph Aebischer) 한국지멘스 부사장이 함께 하였다.

2015.11.25.(수)

145th

조찬토론회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질서 확립을 위한 2015년도 정책 추진현황과 향후 과제

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제145차 조찬토론회에서는 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위원장을 모시고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질서 확립을 위한 2015년도 정책 추진현황과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강연을 들었다. 정재찬 위원장은 행정고시 21회로 공직에 입문한 이후 하도급국장, 경쟁국장, 카르텔정책국장 등 주요 보직에 재직한 바 있다.

정재찬 위원장은 국내외 경제상황과 공정위의 역할이라는 화두를 통해 독과점 시장구조와 불공정거래 관행 시정으로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질서 확립에 공정위가 주력하고 있음을 피력하였다. 2015년 중점 추진과제에 대해서는 경쟁 촉진을 통한 창의·혁신 역량 강화, 대중소기업간 불공정 관행 개선, 소비자가 행복한 시장환경 조성, 글로벌 시장에 대한 법집행 강화라는 4대 중점 과제를 중심으로 현재까지의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건설 분야 중점 추진 시책에 대해서는 건설사의 공공분야 입찰담합 근절, 원활한 하도급대금 지급관행 정착, 분양시장의 부당 표시·광고 행위 시정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이를 통해 공정위는 건설산업을 비롯한 우리 경제 전반의 체질을 강화하고, 경제주체들이 최대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질서 확립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는 공정위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업 등 경제주체들의 적극적 참여와 성원을 요청하였다.

강연 후 이어진 참석자들의 질의응답 시간에서 담합이 불법행위라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담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담합의 현상만이 아닌 담합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도 함께 해결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었다. 또한 원하도급간의 공정거래뿐만 아니라 공공발주자와 종합건설사간 공정거래의 문제도 공정위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해달라는 의견도 개진되었다.

2015.12.23.(수)

146th

조찬토론회

한반도 통일과 건설산업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제146차 조찬토론회에서는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을 모시고 “한반도 통일과 건설산업”을 주제로 강연을 들었다. 천영우 이사장은 1977년 제11회 외무고시 합격 후, 외무부에서 외교정책실장,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주 영국대사를 역임하고, 외교통상부 제2차관을 거쳐 이명박 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 외교안보수석을 지냈다.

천영우 이사장은 통일을 한반도와 한민족의 미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변수는 통일인데, 통일은 우리 민족의 문제이기도 하면서 동북아 지역의 국제정치 문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일의 본질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진단하고 통일에 대한 대비를 충실히 해야 한다고 하였다.

북한 정권의 불안정성에 관하여는 외부적으로 보이는 현상과 전문가들의 진단이 정확한 것은 아니라는 견해를 피력하면서, 북한의 안정성 또는 불안정성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선택적 정보만 신뢰하는 것이 오히려 위험하다고 강조하면서, 북한주민들의 밑바닥 민심이 흔들리기 전까지는 정변에 의한 김정은 정권의 붕괴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또한 평화적 통일이 가장 이상적인 통일 방안이나 김정은 정권이 유지될 정도의 정치경제적 상황에서는 권력을 내어놓기 어려울 것이고 오히려 정권이 붕괴될 정도의 혼란상황에서 평화적 통일의 기회가 올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건설산업과 관련해서는 북한 군인의 상당수가 건설부문에 투입되고 있으므로 통일 후 북한 개발사업에 북한군을 활용한다면 건설인력 조달을 원활히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북한군인들이 반체제 활동을 하는 것을 방지하여 체제안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아이디어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통일비용에 대해서는 금전적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가장 싼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통일비용에 대한 인식 전환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2016.01.27.(수)

147th

조찬토론회·정기총회

대규모 SOC사업의 투자 및 관리방향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

제147차 조찬토론회는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을 모시고, "대규모 SOC사업의 투자 및 관리방향"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송언석 차관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후, 동 행정대학원에서 석사를 마치고 미국 뉴욕주립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하였다.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심의관, 예산실장 등을 역임하였던 경력을 바탕으로 한 송언석 차관의 강연은 국내 SOC 관련한 중장기 계획과 정부 재정투자 방향을 명쾌하게 전달하는 자리였다. 송 차관은 향후 건설투자의 증가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부족한 재정투자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으로 민간투자 활성화와 공기업의 투자확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강연 후 질의응답 시간에는 SOC의 노후화 및 성능미달이라는 관점에서 SOC 스톡의 질(質)에 대한 고려 등 다양한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다. 또한, 강연자인 송언석 차관이 청중에게 요청한 기술제안형 발주의 잇따른 유찰 원인에 대한 회원들의 답변이 있었다.

2016.02.24.(수)

148th

조찬토론회

인도의 부상과 한국의 대처

이준규
前주인도 대사

제148차 조찬토론회에서는 이준규 前 駐인도 대사를 모시고 "인도의 부상과 한국의 대처"를 주제로 강연을 들었다. 이준규 前대사는 1978년 제12회 외무고시 합격 후, 외교부에서 아·태국 심의관, 재외동포영사국장, 駐중대사관 총영사, 駐뉴질랜드 대사, 외교안보연구원장을 역임하고, 2012년 9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駐인도 대사로 재임한 후 퇴임하였다. 현재는 인도상공회의소 명예고문을 맡고 있다. 특히 駐중대사관 총영사 재직 당시, 탈북자와 국군포로 등 복잡한 외교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여 홍조근정훈장을 수여받았다.

이준규 前대사는 중국의 지속적인 성장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12억의 인구를 가지고 7%대의 성장세를 보이는 인도에 주목할 것을 강조하면서 駐인도 대사 재임 당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인도의 성장 가능성을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에서 제시하고 한국 정부와 기업이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요청하였다.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먼저 모디 총리가 정치적 안정을 바탕으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여 국가발전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다는 점, 인도 정부의 효율적인 관료체제, 우수한 인적자원, 호의적인 대외관계, 저유가 등 유리한 세계경제환경을 들었다.

그리고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다양한 인종·언어·지방색으로 인한 일체화의 어려움, 발전에 대한 동기 부족, 복잡한 국내정치상황, 힌두교와 이슬람교 간의 종교 갈등, 열악한 인프라, 인도의 성장가능성에 대한 외부의 부정적 인식 등을 제시하였다.

이준규 前대사는 인도가 우리나라 또는 중국과 같이 짧은 시간에 압축적 성장을 하기는 어렵겠지만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였고, 또 실제로 인도가 향후 수년간 7% 이상의 성장세를 보인다면 서남아의 지역의 강국에서 글로벌 파워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한국 기업이 준비를 잘 갖추어 도전적 투자에 나선다면 성공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하였다.

2016.03.30.(수)

149th

주제토론회

한국 노후 인프라 시설의 실태와 당면과제

주제발표 **한국 노후 인프라 시설의 실태와 당면과제** | 이영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본부장

주제토론 **좌장** | 이복남 서울대학교 건설환경종합연구소 교수
패널 | 김재운 삼일회계법인 상무, 김철영 명지대학교 교수, 안찬주 SOC포럼 회장, 이강문 이제이텍 전무

이영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본부장

제149차 주제토론회는 “한국 노후 인프라 시설의 실태와 당면과제”를 주제로 이영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본부장이 주제발표를 하였다. 이영환 본부장은 인프라 시설물이 고령화함에 따라 잠재적 안전사고가 심각하게 내재되어 있다는 점, 노후화된 소형 사회·생활기반 시설이 방치되고 있다는 점, SOC 시설물의 복원 능력이 기상이변에 대응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 그리고 재난기준 강화 실적이 미흡하다는 점 등을 들어 인프라 시설의 안전성 및 기능성 제고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그리고 영국과 호주의 경우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 조직을 구성하여 이러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는 2003년부터 사회자본정비중점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관련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소개하였다. 아울러 2014년에 우리 정부가 발표한 국가안전대진단과 안전산업발전방안 내용과 함께 안전예산 편성 현황도 소개하였다.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인프라 시설 노후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해 기술적·제도적 측면, 정책적 측면 그리고 민자유치를 통한 관련 사업 활성화 측면에서 여러 개선점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개선 분야의 구체적 실행 방안으로서, 시설물 진단 및 유지보수 기술 등 관련 엔지니어링·시공 기술의 개선, 생애주기 관점에서의 설계 및 건설프로세스 개선,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종합계획 수립, 인프라시설물 평가보고서의 주기적 발간, 인프라시설물 장수명화 기본계획 수립, 노후 인프라 시설 정비 관련 사업에 대한 인식 전환 및 민자사업 활성화 대책 마련 등을 향후 과제로 제시하였다.

지정토론에는 이복남 서울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김재운 삼일회계법인 상무, 김철영 명지대학교 교수, 안찬주 SOC포럼 회장(대림산업 부장), 이강문 이제이텍 전무가 참여하였다. 토론자들은 주제발표에 대한 의견과 함께 각자의 전문 분야와 관련한 깊이 있는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고, 방청석에서도 여러명의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토론에 참여하여 각자의 의견을 개진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이라는 문제를 다루는 자리임과 동시에 건설산업의 미래 시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고, 나아가 세계 건설시장에서 인프라 시설물의 진단 및 보수라는 분야로 어떻게 진출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 보는 뜻 깊은 자리였다.

2016.04.27.(수)

150th

조찬토론회

국토교통 주요정책 추진방향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강호인 장관을 모시고 “국토교통 주요정책 추진방향”이라는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이어지는 150번째 토론회를 개최했다. 강호인 장관은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한 후,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하였다. 행정고시 24회 출신으로 기획재정부의 전신인 경제기획원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하였다. 기획재정부 정책기획관, 공공정책국장 등을 두루 걸쳐, 2010년 기획재정부 차관보, 2012년에는 조달청장을 역임하였다. 강 장관은 한국 경제가 어려웠던 IMF 외환위기 전후 시기에 유럽부흥개발은행에 3년간 근무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경력을 바탕으로 강호인 장관은 2015년 11월부터 국토교통부를 맡고 있다.

강호인 장관은 향후 국토교통부 정책 방향에 대하여 강연하였다. 첫째, 신규 대형 건설사업을 새로이 시작하지 않고, 국민 호응이 좋은 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하겠다. 둘째, 주택이 급등락하지 않는다면 정부는 주택시장에 개입하지 않는 대신에 주거 복지 차원에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셋째, 저성장 시대에서 SOC부문의 재정 투자 축소가 불가피하지만, 노후 인프라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생애주기 관점에서의 재정 투자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필요시, 이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넷째, 자율주행자동차 등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동향을 분석하고 이를 건설산업에 구현하는 데에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다섯째, 국내 건설기업이 해외 건설시장의 선도적인 건설기업(Top Tier)으로 육성하는 제도방안을 마련한다. 여섯째, 업역 갈등으로 인한 건설산업의 비효율성을 제거하는 건설산업 혁신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어서 진행된 질의응답 시간에는 사업 경험지식을 국가차원에서 공유, 건설 안전에 대한 발주자의 책임 강화, 발주자 평가 시스템의 도입 등에 대한 포럼 회원의 질의와 이에 대한 강 장관의 답변이 진행되었다.

2016.05.25.(수)

151st

국내세미나

국내 개발사업의 패러다임을 바꾸자

기조연설	**저성장시대를 맞이한 부동산금융의 도전과 전망** | 김관영 한국리츠협회 회장
주제발표	**1. 변혁기, 공간개발산업의 민간기업 대응전략** | 김승배 피데스개발 대표이사 **2. 개발사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공공-민간 금융사업 협력사례와 과제** | 허정문 한국토지주택공사 금융사업기획처장 **3. 일본의 도시개발사례로 본 다양성** | 이지해 믹스유즈디벨롭먼트그룹 대표
주제토론	**좌장** | 조주현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패널** | 강민석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 팀장, 김상석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장, 최민성 델코리얼티그룹 대표이사

건설산업비전포럼은 한국리츠협회와 공동으로 5월 25일(수), 포스코센터 아트홀에서 2016 국내 세미나 “국내 개발사업의 패러다임을 바꾸자”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단기 투자보다는 지속적인 금융지원 중심의 개선 필요성과 개발보다는 유지관리에서 가치를 창출하는 국내 개발사업의 패러다임 변화를 인식하고 민간, 공공, 해외사례를 통해 대응방안을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이현수 건설포럼 공동대표(서울대학교 교수)는 개회사에서 재무적 투자자가 사업을 주관하여 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함과 동시에 운영 중심의 지속적인 투자를 가능하게 하여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마련을 이야기 하였고 박상우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대독 이인근 LH 토지주택연구원 원장)의 축사에서 공공임대리츠, 주택개발리츠 등 금융사업모델을 개발하여 민간과의 협력을 위한 LH의 노력을 다짐했다.

이번 세미나의 기조연설은 공동주최기관인 김관영 한국리츠협회 회장(제이알투자운용 대표)께서 “저성장시대를 맞이한 부동산금융의 도전과 전망”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이어진 주제발표에서 김승배 피데스개발 대표(한국부동산개발협회 수석부회장)께서 “변혁기, 공간개발산업의 민간기업 대응전략”을 주제로 발표하였고, 두 번째로 “공공-민간 개발협력 사례와 발전방향”을 주제로 허정문 한국토지주택공사(LH) 금융사업기획처장께서 발표하였다. 세 번째 주제발표로 이지해 믹스유즈디벨롭먼트그룹 대표께서 “일본의 도시개발사례로 본 다양성”을 발표하였다.

김관영
한국리츠협회 회장

허정문
한국토지주택공사 금융사업기획처장

김승배
피데스개발 대표이사

이지해
믹스유즈디벨롭먼트그룹 대표

마지막으로 조주현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께서 좌장을 맡고 주제발표자 3명과 더불어 강민석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부동산팀장, 김상석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장, 최민성 델코리얼티그룹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회에서는 각 전문가들의 의견과 더불어 객석에서의 다양한 질의응답으로 이어졌다.

2016.06.29.(수)

152nd 조찬토론회
평창동계올림픽 추진현황

여형구
2018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사무총장

우리 포럼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여형구 사무총장을 모시고 “평창동계올림픽 추진현황”이라는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이어지는 152번째 토론회를 가졌다. 여형구 사무총장은 한양대 건축공학과를 졸업한 후, 동(同) 대학에서 교통공학을 전공하고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1981년 교통부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한 후 건설교통부, 국토해양부, 국토교통부에서 주요 요직을 두루 거치고 국토교통부 제2차관을 역임하였으며 2015년 11월부터 평창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사무총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여형구 사무총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평창동계올림픽의 비전과 목표, 추진현황, 교통망과 각종 시설의 건설현황 등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번 동계올림픽은 경제, 문화, 환경, 평화, ICT 등 5개 비전을 축으로 운영되며, 특히 IT강국으로서의 면모를 과시할 수 있도록 다양한 ICT기술을 활용하여 동계올림픽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평창동계올림픽의 직간접적인 경제적 효과가 약 65조 규모라는 현대경제연구원의 분석 결과를 인용하면서 수지(收支)에 균형을 이룬 동계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평창동계올림픽은 우리나라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강조하면서 개인과 단체들의 자원봉사를 통한 참여를 부탁하였고 건설 관련 기업들도 동계올림픽의 스폰서로 참여하는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어서 진행된 질의응답 시간에는 국가지원금 현안과 행사 개최 후 시설활용 방안에 대한 회원들의 질의가 있었다. 국가지원금에 대해서는 아직 지원금액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지원규모에 맞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운영할 계획이며, 행사 개최 후 시설활용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여형구 사무총장의 답변이 있었다.

2016.08.24.(수)

153rd 조찬토론회
국제인권보호체계와 기업의 인권경영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제153차 조찬토론회에서는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모시고 “국제인권보호체계와 기업의 인권경영”을 주제로 강연을 들었다. 이성호 위원장은 1980년 제22회 사업시험 합격 후,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장을 역임했다. 2015년 8월 국가인권위원장에 취임한 후 조직을 안정시키고 정부와 민간의 인권에 대한 인식수준을 높이는데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금년 3월부터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의 고령화 실무그룹 의장을 맡고 있다.

이성호 위원장은 인권의 역사와 중요성, 국제연합(UN)을 중심으로 한 인권의 국제적 체계에 관해 설명하고, 21세기 들어 인권 이슈가 국제화되고 글로벌한 이슈가 되고 있으며 그 추세가 점차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인권과 관련된 국제시스템 속에서 한국인권위원회가 가지는 의미, 성격, 기능 및 조직에 관해 설명하고, 한국사회의 인권에 관한 전반적 인식수준을 높이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소개가 있었다. 한국정부와 사회가 인권을 이해하는 수준을 높이고 정책에 반영해야 할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또한 인권경영의 개념을 설명하고, 국제연합(UN)의 초국적기업 및 기타 사업체의 인권책임에 관한 규범, 국제개발협력기구(OECD)의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국제노동기구(ILO)의 다국적기업과 사회정책 원칙에 관한 삼자선언 등 기업의 인권경영과 관련된 국제적 트렌트와 인권경영 실패사례를 소개하면서 국제적 인권 이슈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지난 7월 25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우리 정부에 대하여 기업과 인권에 관한 NAP(National Action Plan)을 수립을 권고했다는 사실을 소개하고, 우리나라 기업과 경영자도 인권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경영에 활용할 것을 권고하였다.

2016.09.28.(수)

154th

주제토론회

『건설, 새 판을 짜자』의 출간 기념 주제토론회

주제발표 김정호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주제토론 **패널** | 이복남 서울대학교 건설환경종합연구소 교수, 이상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원장, 조대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스마트시티국제협력단장, 천길주 대한중재인협회 부회장, 김한수 세종대학교 수교

김정호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9월 정기모임은 포럼이 기획한 『건설, 새 판을 짜자』의 출간 기념 주제토론회로 진행되었다. 총괄기획자인 김정호 교수(KDI 국제정책대학원)가 이번 기획 도서의 의도와 내용에 대해 발제하였다. 발제에 이어서 주요 집필진을 지명토론자로 모시고, 발제자인 김정호 교수의 사회로 열띤 지명토론과 청중토론이 이루어졌다.

김정호 교수는 '건설업계에 바란다'와 '정부에 바란다'로 크게 나누어 발제하였다. '건설업계에 바란다'에 대해서는, "한국 건설기업은 국내 건설시장의 양적, 질적 한계를 극복하는 하기 위해 건설시장의 지평을 넓혀야 한다. 영국, 미국 등 선진국 건설혁신 운동 사례를 통해 우리가 나갈 길을 정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생태계를 구축하고, 글로벌 시장 수요에 부응하는 새로운 기술과 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건설기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세계적인 건축가와 엔지니어를 육성해야 한다. 해외건설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건설금융의 획기적인 개선이 필수적이고, 기업의 내부역량 강화도 늦출 수 없다."고 하였다.

'정부에 바란다'라는 주제에 대해서는 건설정책의 일관성 확보, 법령 및 발주제도의 정비와 개선, 획기적인 건설금융 개선을 위한 새로운 거버너스체계 구축을 개략적으로 제시하였다.

이날 지명토론자로 이복남 교수(서울대 건설환경종합연구소), 이상호 원장(한국건설산업연구원), 조대연 단장(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스마트시티국제협력단), 천길주 부회장(대한중재인협회), 김한수 교수(세종대 건설환경공학부)가 참여하여 핵심적인 집필 내용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집필에 참여한 조훈희 교수(고려대학교 건축사회환경공학부), 김예상 교수(성균관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등이 집필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였다.

2016.10.27.(목)

155th

국제세미나

Climate, Carbon Economy & New Construction Market - 기후변화에 따른 건설산업의 도전과 기회

기조연설 **Climate Chang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 Challenges and Strategies** | 김명자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회장, 前 환경부 장관

주제발표 **U.S. Federal Government Leadership and Policies on Climate Change and GSA's Response** | Kevin Kampschroer / GSA Chief Sustainability Officer

주제토론 **좌장** | 고배원 이노베이티브 디자인 대표
패널 | Jaap Hogeling / Manager, International Projects and Standards at ISSO
Annie Pearce / Associate Professor, Virginia Polytechnic Institute and State University
Kazuyuki Shimamura / Executive Fellow, Environment Division of TAISEI Corporation

김명자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회장,
前 환경부 장관

Kevin Kampschroer
GSA Chief Sustainability Officer

건설산업비전포럼은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공동으로 10월 27일(목)에 2016 국제세미나 "Climate, Carbon Economy & New Construction Market - 기후변화에 따른 건설산업의 도전과 기회"를 개최하였다.

건설포럼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라 선진국에서의 대처방안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생성되는 새로운 건설시장의 형태와 건설기업의 대응 전략을 참고하여 국내 친환경 건설시장의 창출을 예측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이번 국제세미나를 기획하였다.

이현수 공동대표(서울대학교 교수)의 개회사에 이어 공동주최기관인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제해성 위원장의 환영사로 세미나를 시작하였다. 첫 발표인 기조연설은 김명자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회장(前 환경부 장관)께서 Climate Chang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 Challenges and Strategies을 주제로 발표해 주셨다.

본격적인 주제발표와 토론은 이번 세미나의 Moderator인 Brian Baewon Koh, 미국 Innovative Design 대표의 소개로 시작하였다. Brian Baewon Koh 대표는 이번 세미나의 취지와 토론방식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며, 이어서 Kevin Kampschroer, 미국연방조달국 최고지속가능책임자의 발제가 있었다. Kevin Kampschroer는 "U.S. Federal Government Leadership and Policies on Climate Change and GSA's Response"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본격적인 토론은 Brian Baewon Koh 미국 친환경기업 Innovative Design 대표(Moderator), Kevin Kampschroer 미국연방조달국 최고지속가능책임자(GSA Chief Sustainability Officer), Jaap Hogeling 네덜란드 건축서비스정보센터 국제프로젝트 및 기준 담당 매니저(Manager, International Projects and Standards at ISSO), Annie Pearce 미국 버지니아 공대 교수(Associate Professor, Myers-Lawson School of Construction, Virginia Tech), Kazuyuki Shimamura 일본 다이세이 건설 환경본부장(Executive Fellow, TAISEI Corporation)께서 참여하였다.

토론은 다음과 같은 4가지 주제로 진행하였고, 열띤 토론으로 마무리 되었다.

[Theme 1] 기후변화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변화를 예상할 수 있는지?
How the Climate Change Impacts the Built Environment or Construction Industry

[Theme 2] 각 국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라 어떤 대응을 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정책적으로 준비는 무엇이 있는지?
Exemplary Policies on Climate Change in Advanced Countries

[Theme 3] 건설기업은 새로운 시장 창출 개념에서 친환경 건설시장에 대한 예측과 역량향상을 위한 노력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Reactions and Plans of Advanced Construction Companies to the Ever-changing Market Driven by the Climate Change Policies

[Theme 4]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흐름에 따라 창출되는 신규 시장을 위해 건설기업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What Government and Construction Companies have to do to Respond to the New Market Demand from the Global Perspective

2016.11.24.(목)

156th 조찬토론회
Smart City / Infrastructure

김종갑
한국지멘스 회장

제156차 조찬토론회에서는 김종갑 한국지멘스 대표이사/회장을 모시고 “Smart City/Infrastructure”를 주제로 강연을 들었다. 김종갑 회장은 1975년 제17회 행정고등고시 합격 후 공직생활에서 특허청장과 산업자원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등을 역임했다. 2007년부터는 산업계에서 경영인으로 활동하면서 2011년부터 한국지멘스 회장직을 맡고 있다.

김종갑 회장은 강연 화두에서 제4차 산업혁명을 언급하면서 미래는 가상과 현실 세계가 융합되는 방향(Cyber-Physical Fusion)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특히 미래에는 도시와 사회기반시설이 스마트기술과 자동화기술이 통합 적용되는 형태로 발전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강연을 통해 건물, 도시, 교통, 에너지 부문 등에서 일어나고 있는 스마트화 및 자동화 사례를 제시하며 세계 주요 국가에서는 이러한 노력과 투자가 현재진행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였다. 우리나라의 현황을 진단하며 우리가 지니고 있는 강점도 많지만 소프트웨어와 가상세계 핵심 솔루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스마트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최고급 인적자원의 양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산학의 공동 노력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2016.12.28.(수)

157th 조찬토론회
상상하지 말라. 그리고 관찰하라

송길영
다음소프트 부사장

빅데이터 전문가인 다음소프트 송길영 부사장을 모시고 “상상하지 말라. 그리고 관찰하라”라는 주제로 157번째 정기모임을 가졌다. 송길영 부사장은 고려대학교 컴퓨터학과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다음소프트를 비롯하여 여러 대학교에서 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송길영 부사장은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여행과 관광, 라이프 스타일, 공간 등과 관련된 다양한 사회현상을 설명하였다. 이들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 주요 트렌드를 제시하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고 있는 것과 현실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기술(Technology)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동시에 우리의 삶을 반영하고 담을 수 있는 기술로 발전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역설하였다.

건설포럼 회원을 위해 건설관련 2가지 변화 트렌드를 제시했다. 하나는 조명의 중요성이고 다른 하나는 가족 구성원의 변화에 따른 실내 공간의 활용형태의 변경을 데이터를 통해서 제시했다. 향후 인테리어, 건축, 건설 분야도 변화하는 수요와 트렌드에 주목하며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경영 및 상품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제안도 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고정 관념이나 인식을 벗어나 현실과 트렌드를 예의주시하며 “관찰하라, 관찰하라, 관찰하라 그리고 상상하라”하는 태도를 강조하였다.

2017.01.25.(수)

158th 조찬토론회·정기총회
국토교통부 건설 및 주택분야 주요정책 추진방향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을 초청하여, “국토교통부 건설 및 주택분야 주요정책 추진방향”이라는 주제로 강연이 진행되었다.

강연에서는 건설산업의 현황과 국내외 건설시장을 진단하였다. 미국 금리인상, 중국 금융 및 실물경제의 불안 등으로 글로벌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SOC 투자 감소와 주택 공급과잉 우려 등으로 국내 건설시장의 침체가능성이 높고, 해외공사의 수익성 악화, 저유가로 인한 물량감소와 경쟁국과의 기술격차 등으로 해외공사 수주환경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환경 분석을 바탕으로 2017년 국토교통부의 건설 및 주택분야 정책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는데, 건설 분야에서는 건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발주제도 선진화 시범사업 추진, 전략적 해외진출 지원, 안전하고 스마트한 건설인프라 관리체계 구축, 주택 분야에서는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형성 유도, 행복주택 공급 유형 및 방식 다양화, 뉴스테이 공급 확대, 맞춤형 주거지원 실시, 주거복지 체계 구축 등을 주요 정책 추진과제로 제시하였다.

특별강연 후 질의응답 시간에는 4차 산업혁명, SOC 투자에 대한 인식변화, 건설안전 등 건설정책의 방향에 대한 회원들의 건의·질의와 강호인 장관의 답변이 이어졌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과 같은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와 포럼이 함께 대응방안을 모색하자고 제안하였다.

2017.02.22.(수)

159th

주제토론회

새정부에 제안하는 건설정책 방향과 과제

주제발표 **새정부에 제안하는 건설정책 방향과 과제** | 김한수 세종대학교 건축공학부 교수

주제토론 **좌장** | 남궁은 명지대학교 환경에너지공학과 교수
패널 | 김정호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이복남 서울대학교 건설환경종합연구소 교수, 이현수 서울대학교 교수, 천길주 대한중재인협회 부회장

김한수
세종대학교 건축공학부 교수

건설산업비전포럼과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공동으로 2월 22일(수)에 대선과제 건설정책 토론회인 “새정부에 제안하는 건설정책 방향과 과제”를 개최하였다.

건설산업비전포럼은 작년 8월에 건설포럼 대선과제 발굴 TF를 발족하였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지난 6개월간 노력의 결과로 건설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한 대선제안과제를 발표하는 자리였다.

김종훈 공동대표(한미글로벌 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대선과제 발굴 TF의 책임집필자이신 세종대학교 김한수 교수께서 건설정책 제안과제에 대해 40분간 발표해주셨고 TF위원장이신 남궁은교수께서 발제자와 네 분의 패널을 모시고 약 70분간 토론회를 진행하였다.

남궁은
명지대학교 환경에너지공학과 교수

발제자이신 김한수 교수는 5가지 제안배경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와 건설산업을 부활시키기 위한 건설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비전으로 “월드 클래스 인프라, 초인류 대한민국”을 제시하였다. 또한 3대 핵심가치인 ‘지속가능한 성장’, ‘경쟁력 있는 도시와 한반도’,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중심으로 15개의 과제를 제안했다.

토론은 남궁은 명지대학교 교수님을 좌장으로 하여 김정호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이복남 서울대 건설환경종합연구소 교수, 이현수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천길주 대한중재인협회 부회장이 참여하였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전기세를 통해 재원을 확보하고 인프라에 투자하자는 의견, 스마트 인프라의 적용범위 그리고 보다 구체적인 제안 내용을 통해 건설인프라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의견도 제시했다. 특히 김종훈 공동대표는 해외건설의 중요성, 인프라의 개념확대, 평생교육, 스마트건설, 거버넌스에 관한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기를 요청했다.

2017.03.29.(수)

160th

조찬토론회

최근의 국내외 정세

이석준
국무조정실 실장

포럼은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을 초청해 “최근의 국내외 정세”이라는 주제발표와 질의응답으로 이어진 160번째 토론회를 가졌다. 이석준 장관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미 매사추세츠공과대 경영대학원에서 경영학석사를 취득하였다. 행정고시 26회 출신으로 대통령비서실(정책기획)과 주제네바 국제연합사무처 등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하였다.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등 예산 관련 주요 보직을 두루 걸쳐, 2013년 기획재정부 제2차관, 2014년에는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을 역임하였다. 이러한 경력을 바탕으로 이석준 장관은 2016년 1월부터 국무조정실장을 맡고 있다.

이석준 장관은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무역 보복을 중심으로 한 최근 국내외 정세에 대하여 강연하였다. 이 장관은 사드 배치에 대해 반발하고 전방위적으로 보복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중국의 행동은 현안에 대한 즉흥적인 대응이 아니라 중국의 대외정책 흐름속에서 이를 이해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시진핑 주석은 2012년 등장과 함께, 중국 해군의 아버지로 일컫는 유화청(劉華淸)의 이른바 ‘중국 열도선(列島線) 전략’에 의거한 대외전략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 열도선 전략은 오키나와 제도를 기점으로 대만, 필리핀, 보르네오에 이르는 선을 제1열도선으로 정하고, 2010년까지 이 해역에서 미군의 영향력을 배제한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는 2030년까지 와가사와라 제도에서 괌, 사이판, 파푸아뉴기니에 이르는 제2열도의 해역에서 제해권(制海權)을 확립한다는 것이다. 최종적으로 2040년까지 서태평양과 인도양에서 미국의 지배권을 꺾고 세계 제1의 제해권을 획득하는 것이다.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이 장관은 이러한 중국의 장기계획에 대한 억제책으로 미국이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하는 것으로 단순한 외교 분쟁을 넘어서 우리나라의 ‘생존권’이 걸려있는 사안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012년 9월부터 시작된 ‘센카쿠열도 분쟁’과정에서 중국이 일본에 가한 경제적 조치 수준까지 우리는 견뎌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런 의견도 제시되었다. 이 장관은 ‘세계 공장’ 중국에 소비재·중간재 공급 등 대중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수출전략은 대외경제 여건 변화에 따라 수출 다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사태를 통해 이를 가속화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2017.04.26.(수)

161st

조찬토론회

Recent Development in North Korean Infrastructure and Consequences for Korean Unification

베른하르트 젤리거
(Bernhard Seliger)
한스바이델재단 서울사무소 대표

한스바이델재단 서울사무소 대표를 맡고 있는 베른하르트 젤리거 박사를 모시고 "Recent development in North Korean infrastructure and consequences for Korean unification"을 주제로 강연을 들었다. 젤리거 박사는 독일 도르트문트 출생으로 프랑스 파리 제1대학에서 경제학 석사, 독일 킬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2002년부터 현재까지 한스바이델재단 서울사무소 대표를 맡고 있으며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겸임교수, 독일 비덴-헤르데케 대학 객원교수로도 활동하고 있다. 한스바이델재단 서울사무소의 주된 사업은 북한의 농업·산림·환경 분야의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과 함께 북한 관계자들을 유럽에 초청하여 연수를 실시하는 등 남북한 평화통일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젤리거 박사는 북한을 방문한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 인프라의 실상을 소개하였다. 평양시내에는 대형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으나, 평양을 조금만 벗어나면 도로 10㎞를 자동차로 1시간 이상 운행해야 할 정도로 도로 사정이 좋지 않고 노반이 불량하여 교통사고도 자주 발생한다고 하였다. 교통수단도 소달구지를 흔히 볼 수 있을 만큼 낙후되어 있고 노후 자동차가 많아 환경문제도 염려된다고 하였다. 연료부족으로 화력발전소는 가동률이 낮으며 대체로 수력발전에 의존하고 있으나 장비 노후화로 효율이 낮다고 하였다. 북한의 인프라는 전반적으로 매우 열악한 상황이며, 북한정부의 개발계획이 있고 의지도 없지 않으나 북한의 자체적인 투자재원 조달은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따라서 외부의 자본과 기술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나, 투자유치 전략이 부족하고 수익성이 낮아 외부 투자 유치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하였다.

독일의 통일 경험에 비추어 보면 동독지역의 낙후된 인프라를 재건하는데 25년 동안 약 3000억 유로를 투자했다고 한다. 동독 지역 인프라 투자를 통해 유럽 전체로 보면 서유럽과 동유럽의 교통망을 연결하는 효과가 있었고, 독일 내부적으로는 통일 이후 동독 지역에 대한 인프라 투자를 통한 경제활성화 및 생활여건 개선으로 동독지역 주민들이 대규모로 서독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욕구를 억제하여 사회경제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이러한 점은 남북한 통일 이후 북한 지역에 대한 인프라 투자가 남한 지역과 대륙의 교통망 연결, 북한지역 경제의 활성화, 북한 주민의 급격한 이탈 방지 등에 기여한다는 중요한 정치경제적 시사점으로 볼 수 있다.

2017.05.18.(목)

162nd

국내세미나

글로벌 M&A를 통한 해외건설 경쟁력 강화전략

기조연설	**글로벌 M&A와 국내 기업의 도전** | 김종훈 한미글로벌 회장(건설산업비전포럼 공동대표)
주제발표	**Global M&A 시장 및 Cross-Border M&A 성공전략** | 백인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전무
주제토론	**좌장** | 권도엽 前국토해양부 장관(건설산업비전포럼 공동대표) **패널** | 권용복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 김세호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박형근 충북대학교 교수, 이상기 GS건설 인프라부문대표

김종훈
한미글로벌 회장

백인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전무

권도엽
前국토해양부 장관

건설산업비전포럼은 5월 18일(목)에 2017 국내세미나 "글로벌 M&A를 통한 해외건설 경쟁력 강화전략" 개최하였다.

건설포럼에서는 국내 건설기업의 M&A를 통한 해외시장진출 전략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해외건설시장에 진출하고자하는 기업에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번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현수 공동대표(서울대학교 교수)의 개회사에 이어 대한건설협회 유주현 회장의 축사로 세미나를 시작하였다.

김종훈 한미글로벌 회장은 기조연설에서 "글로벌 M&A와 국내 기업의 도전"을 주제로 해외시장 진출을 고민할 때부터 선도적으로 글로벌 M&A와 현지화 전략으로 해외건설 경쟁력 강화에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확보해왔던 한미글로벌의 성공노하우 등을 발표했다. 주제발표에서는 백인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전무께서 "Global M&A 시장 및 Cross-Border M&A 성공전략"을 주제로 M&A 전후의 바람직한 전략방향을 발표하였다.

주제토론은 권도엽 건설산업비전포럼 공동대표(전, 국토해양부 장관)께서 좌장을 맡았으며, 김세호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전, 건설교통부 차관), 권용복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 박형근 충북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해외건설포럼 회장), 이상기 GS건설 인프라부문 대표께서 참석하여 산학연관의 입장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일반참석자들이 의견을 제시하는 등 다양한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2017.06.29.(목)

163rd

조찬토론회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데이터로 이루는 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고순동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대표이사

제163차 조찬토론회에서는 고순동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대표이사를 모시고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데이터로 이루는 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주제로 강연을 들었다.

고순동 대표이사는 연세대 경영학과, 미국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워싱턴대학교 경영대학원을 졸업하고 IBM에 입사한 이후, 30년 이상 IT업계에 종사하면서 IBM 본사의 마케팅 글로벌서비스 사업개발담당임원, 삼성 SDS 대표이사를 역임하고, 2016년 2월부터 한국마이크로소프트 CEO 겸 대표이사를 맡아 기업전략 및 운영을 총괄하고 있다. 고순동 대표이사는 우리나라 IT산업을 대표하는 스타경영자이며, 2010년 세계최고지식경영기업상(Global Most Admired Knowledge Enterprises: MAKE)을 수상했다. MAKE는 북미와 유럽의 존경받는 경영자에게 주는 상으로 포춘지가 선정한 글로벌 500대 기업의 임원과 지식경영전문가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 지식경영의 노벨상으로 불리고 있다.

고순동 대표이사는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4차 산업혁명'으로 불리고 있는 현상의 동력은 '데이터'이고, 데이터는 성장엔진이며 핵심자산이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정의하면서 2017년 기준으로 기업가치 상위 5개사에 해당하는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페이스북은 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업의 가치를 높여왔다는 점을 설명하고, 롤스로이스 등 데이터를 활용한 기업사례를 소개하였다. 고순동 대표이사는 앞으로 데이터를 통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 기업의 흥망이 순식간에 나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4차 산업혁명을 촉발하고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드론, 3D 프린터, 산업로봇, 태양광, 센서, 가상현실 등과 관련된 장비의 가격이 2007년도 대비 0.1%에서 3% 수준까지 하락했기 때문에 비용측면의 부담이 많이 감소했기 때문에 빠른 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건설업은 변화가 느린 대표적인 산업에 해당하는데 빨리 변화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발표에 이어 고순동 대표이사와 회원들 간에 건설업, 미래기술과 사회에 대한 전망에 관한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다.

2017.08.30.(수)

164th

조찬토론회

LH의 변화와 새로운 도전

박상우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제164차 조찬토론회에서는 박상우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을 모시고 「LH의 변화와 새로운 도전」을 주제로 강연을 들었다. 박상우 사장은 고려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조지와싱턴대와 가천대에서 각각 도시계획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1983년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생활을 시작하신 후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과장, 국토정책국 국장, 토지주택실 실장, 기획조정실 실장을 역임하는 동안 우리나라의 토지, 주택정책을 총괄하면서 주거복지 향상과 국토 가치 향상에 큰 기여를 하였다. 이후 2016년 3월 LH 공사 사장으로 취임하기 직전까지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원장으로 재임하면서 우리나라 건설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상생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날 강연에서 박상우 사장은 국내 단일기업으로 자산규모 2위의 LH공사가 사업방식의 다양화 등을 통하여 최근 3년간 23조 원의 금융부채를 감축한 사례를 소개하였다. 이를 통하여 정부정책사업에 필요한 재정부담을 최소화함으로써 새정부 들어 더욱 커진 공적역할, 즉 서민,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적 임대주택 공급 및 주거지원 강화, 세종시, 혁신도시 등을 핵으로 한 혁신클러스터 활성화, 공공이 지원하는 도시재생 추진 등의 사업을 LH가 주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공공임대주택 65만호 공급목표의 82%인 53.2만호를 LH가 공급하며, 10개 혁신도시 중 9개를 시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혁신도시발전센터"에서 혁신도시 중심 클러스터 육성을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강연의 마무리는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미래동력으로 인식되고 있는 "스마트시티"와 "도시재생"에 대한 LH의 역할과 미래비전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특히 쿠웨이트, 베트남, 미얀마 등지에서 추진 중인 신도시 건설과 산업단지 조성은 LH를 중심으로 한 공공, 민간, IT, 금융, 법률 기업군의 선단식 진출과 중소기업 해외생산기지 건설이라는 측면에서 건설산업 뿐 아니라 연관산업 파급효과 및 한류문화 수출의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발표에 이어 박상우 사장님과 회원들 간에 건설산업과 토지주택 분야의 미래전망 및 역할 등에 질의응답이 이루어졌으며, 도심재생과 도시개발은 "성장, 가치창출, 지속성, 건강한 삶"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는 이현수 건설포럼 공동대표의 마무리 말씀으로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

2017.09.27.(수)

165th

조찬토론회

국토교통 주요정책 추진방향

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

제165차 조찬토론회에서는 손병석 국토교통부 1차관을 모시고 「국토교통 주요정책 추진방향」을 주제로 강연을 들었다. 손병석 차관은 서울대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1986년 제22회 기술고등고시에 합격하였다. 1987년 건설부에서 공직을 시작하여 국토정책국장, 수자원국장, 철도국장,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 기획조정실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하였고 2017년 6월 국토교통부 제1차관에 임명되었다. 건설산업의 다양한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건설산업 발전에 큰 기여를 하였다.

이날 강연에서 건설 및 주택 분야를 중심으로 정부의 국토교통 정책방향과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먼저 '살기 좋은 국토, 편리한 교통'이라는 국토교통부의 비전과 국토공간구조 설계, 국민생활 편의 향상, 경제 활성화 등 정책목표에 따라 설정된 정책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손병석 차관은 국토교통부의 동향분석 자료를 활용하여 2013년부터 건설투자가 상승세로 전환되어 지난 2016년까지 매년 증가하였고 2017년에도 주택부문을 중심으로 건설투자는 전년대비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다만 해외건설은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수주 호황기를 지나 2015년 및 2016년 급격한 하락세를 나타낸 추세가 2017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았고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였다. 2018년 SOC 예산과 관련해서는 업계가 기대한 것보다 다소 많이 감소하였으나, 도시재생 관련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시작되고, 안전이나 임대주택과 같은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였고 3조원으로 예상되는 이월예산과 주택기금을 활용하면 낙폭이 축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리고 국토교통부가 추진할 건설정책 방향으로 산업경쟁력 강화, 안전하고 스마트한 건설·인프라, 건설산업 불공정관행 개선, 전략적 해외진출 지원 등 4가지를 제시하고 그에 따른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하였다.

발표에 이어 손병석 차관님과 회원들 간에 건설정책에 관한 질의와 답변, 정책건의가 이루어졌으며, 손병석 차관님 이석 후에도 이현수 공동대표님의 진행으로 건설산업 발전방안, 건설산업 비전포럼 활성화 방안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다.

2017.10.17.(화)

166th

국제세미나

Smart City and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 스마트시티와 제4차 산업혁명

1세션: 스마트시티 성장과변화방향	주제발표 | Jean-Vincent Placé / Government Reform and Simplification of France, Former Minister 진행 | 나경원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2세션 : 적용 가능한 신기술과 혜택	주제발표 및 진행 | 이정훈 연세대학교 교수 주제발표 | 이용덕 엔비디아 코리아 지사장 패널 | 이희성 나이트프랭크 코리아 사장, Michael Stirling / Stirling Infrastructure Partners CEO & Chairman of Editorial Board, Olivia Onderdonk / NewCities Foundation Deputy Executive Director

건설산업비전포럼이 10월 17일(화)에 2017 국제세미나 "스마트시티와 제4차 산업혁명"을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매일경제와 공동으로 세계지식포럼 세션으로 개최하였다.

세계지식포럼은 각국 정상, 글로벌리더, 기업인, 석학 등이 참여하는 세계적인 포럼이며, 이번 18회 세계지식포럼에 200여 명의 세계적인 연사가 참여하였다.

건설포럼은 '스마트시티와 제4차 산업혁명'을 주제로 스마트시티를 통해 시민이 혜택을 얻기 위해서 기존 도시가 아닌 스마트시티로 왜 성장해야 하는지, 제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어떤 기술이나 서비스를 개발해야 하는지, 어떤 장치를 통해 제공해야 하는지, 어느 정도 스마트해져야 하는지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장 뱅상 플라세
전) 프랑스 국가개혁담당 장관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

이정훈
연세대학교 교수

이용덕
엔비디아 코리아 지사장

권도엽 건설포럼 공동대표의 환영사로 시작하여 1세션 '스마트시티 성장과 변화 방향'에서는 장 뱅상 플라세 전 프랑스 국가개혁담당 장관과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담을 통해 한국과 프랑스의 상황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다.

2세션 '적용가능한 신기술과 혜택'에서는 이정훈 연세대학교 교수의 발표와 진행으로 이용덕 엔비디아 한국지사장의 주제발표와 이희성 나이트프랭크 코리아 사장, 마이클 스털링 스털링인프라스트럭처 최고경영자, 올리비아 온더던크 뉴시티파운데이션 부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스마트시티의 미래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건설포럼을 통하여 등록한 참석자 외에도 세계지식포럼 참여자 등 총 2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미나가 성황리에 진행되었습니다.

2017.11.29.(수)

167th

조찬토론회

4차 산업혁명과 KEPCO(한국전력공사)의 디지털화

김시호
한국전력공사 부사장

제167차 조찬토론회에서는 김시호 한국전력공사 부사장을 초청하여 「4차 산업혁명과 KEPCO(한국전력공사)의 디지털화」를 주제로 강연을 들었다. 김시호 부사장은 영남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4년 한전에 입사하여 30여 년 동안 경영지원처장, 비서실장, 영업본부장 등의 중요한 직책을 역임하고 현재 국내 부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국내 최고의 에너지 전문가이며, 한국프로젝트경영협회 회장을 맡고 있다.

김시호 부사장은 강연에서 먼저, 에너지는 인류문명 발전의 원동력으로 에너지의 진화를 통해 문명의 진화가 가능했으며, 에너지의 개발로 인간이 육체노동에서 해방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에너지를 통해 휴머니즘의 구현, 인간존중 사회 건설이 이루어졌다고 했다. 또한 경제발전의 측면에서, 목탄, 석탄, 석유, 가스, 수력, 원자력, 신재생 등 다양한 에너지원의 개발이 경제성장에 기여했으며 특히 석유와 가스 시대에 해당하는 19세기 이후부터 전 세계의 인구증가와 경제성장이 급격히 이루어졌고, 인류의 삶의 질 향상에 에너지가 기여했다고 했다.

그러나 에너지 공급 국가들이 에너지를 국제정치에서 무기로 활용하여 에너지시장이 불안정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화석연료로 인해 환경이 오염되고 온난화와 같은 기후변화를 유발하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어 에너지 산업은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며, 신재생 에너지와 같이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방법이 제시되고, 다양한 플레이어가 전력산업에 진입하며, 공유경제와 같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변화 중에서 4차 산업혁명은 특히 중요한 현상으로, 에너지 분야는 송배전 인프라, 빅데이터, IoT, 에너지 신사업을 통해 융합과 연결 기반의 4차 산업혁명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으며, 한전은 플랫폼 기반의 연결형 에너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유틸리티'로 진화하려는 비전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였다.

김시호 부사장은 마지막으로 건설산업과 에너지산업이 상호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동북아 슈퍼그리드, 스마트시티, 에너지밸리와 같은 사업을 통해 건설과 에너지 분야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2017.12.27.(수)

168th

조찬토론회

건설산업비전포럼 회원이 바라는 건설산업의 모습

권도엽
건설산업비전포럼 공동대표

제168차 조찬토론회에서는 종전과 달리 외부 강연자를 초대하지 않고, 권도엽 공동대표께서 '건설산업비전포럼 회원이 바라는 건설산업의 모습'을 주제로 모두발언을 한 후에, 공동대표 4분과 포럼 회원들 간 자유롭게 토론을 통해 건설산업과 포럼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권도엽 공동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정치경제 질서 변화가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후, 한국 건설산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발전방안을 제안하였다. 특히 제천화재로 인한 인명피해와 같은 사건이 반복되는 것에 대하여 안타까움을 표시하고, 이러한 유형의 사고 발생을 초래하고 건설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근본적 원인으로 전근대적이고 낙후된 문화를 지적하였다. 그리고 낙후된 관행과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는 건설산업 참여자들의 행위를 규율하는 제도개혁을 통한 시스템 변화의 필요성을 역할하고, 건설산업비전포럼이 끊임없이 이슈를 제기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상호 공동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슈에 대한 의견제시와 토론이 이루어졌고, 추가적인 검토를 통해 우리 포럼의 사업계획과 운영에 반영하기로 하였다.

- 정부정책이 현안에만 집중하고 있으므로, 혁신의 방향을 명확히 하여 장기비전을 설정하고 미래에 대비해야 한다.
- 건설산업과 타 산업간 경계를 허물어야 하는 바 IT, 전자, 금융, 법률 등 타 산업과 건설산업 간의 융합과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 건설산업의 미래를 낙관할 수 없으므로 건설산업의 먹거리를 준비해야 한다.
- 시설물이나 건설공사와 관련된 인명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안전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문제제기가 필요하다.
- 건설산업 종사자들이 직업의식을 고양하여 전문가로서의 사회적 소명을 실천해야 한다.
- 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해 발주자 혁신이 필요하다.

2018.01.24.(수)

169th

조찬토론회·정기총회

4차 산업혁명과 건설산업의 대응방안

이상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원장

이번 강연은 우리 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계신 이상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장께서 '4차 산업혁명과 건설산업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강연하였다. 이상호 원장은 4차 산업혁명의 본질과 특징을 명쾌하게 정리하고 최신 자료를 활용하여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건설산업 분야의 4차 산업혁명 진행과정을 소개하였다.

이상호 원장은 건설산업에서 스마트 디지털 기술이 4차 산업혁명의 시발점 역할을 할 것이며, BIM, 3D프린팅, 로봇, 빅 데이터 등이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건설산업의 4차 산업혁명 플랫폼은 스마트 시티와 스마트 인프라가 될 것이며, 건설생산 전 과정에 디지털 건설기술 활용이 증대할 것으로 내다보고 이 과정에서 BIM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산업의 디지털화와 정부의 혁신을 향후 주요과제로 제시하였다.

이어서 박상혁 한미글로벌 건설전략연구소장은 CES 2018 참관기를 발표하였다. CES 2018의 개요와 슬로건 "The future of Smart City" 주제에 맞춰 개최된 conference track에서 발표되고 토론된 내용을 정리하여 알려주었고 "합종연횡"으로 대변되는 기술과 기업의 변화를 설명하였다. 그 밖에 다양한 전시 사진을 공개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술 중심의 스마트시티 변화에 따른 건설업계의 인식변화와 대응을 촉구하기도 했다.

2018.02.21.(수)

170th

조찬토론회

블록체인과 거래혁명

박수용
서강대학교 교수

제170차 조찬토론회에서는 박수용 서강대 교수를 모시고 '블록체인과 거래혁명'을 주제로 강연을 들었다. 박수용 교수는 서강대학교 전자계산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플로리다주립대학교에서 컴퓨터학 석사, 조지메이슨대학교에서 정보기술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박수용 교수는 한국소프트웨어공학회 회장,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전문위원,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자문위원, 글로벌핀테크연구원 원장,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원장 등 정보기술과 관련한 다양한 직책을 수행한 바 있으며 현재 적응형 블록체인 연구센터 센터장을 맡고 있다.

박수용 교수는 블록체인을 서로 신뢰할 수 없는 환경에서 사람들이 중앙집권화된 인증기관 없이 신뢰를 보장하는 기술 또는 신뢰를 만드는 기계로 정의하였다. 온라인 네트워크 참가자들 간에 발생하는 모든 거래내역을 모두에게 공개 및 기록하고 업데이트하여 무결성을 유지하여 신뢰를 담보하는 것을 블록체인의 기능적 특성으로 보았다. 블록체인의 기술은 암호화와 합의 알고리즘을 거쳐 거래 자체를 블록체인에 포함하는 단계까지 발전하여 거래의 불확실성과 위험을 극복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였다.

가상화폐와 관련해서는 현재도 정도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의 국가들이 가상화폐 유통을 허용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다. 다만 가상화폐가 투기 대상이 되는 것은 사회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고, 가상화폐의 가치가 상승할수록 지불수단으로서의 기능이 약화되는 부작용이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일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가상화폐 활용이 확대되는 큰 흐름을 막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였다.

마지막으로 박수용 교수는 블록체인을 활용한 운송, 교통, 의료 비즈니스 사례를 소개하고 블록체인이 공유경제 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건설산업에서도 블록체인을 이용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과 활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강연에 이어 박수용 교수와 회원들 간에 블록체인과 건설산업의 관계와 활용가능성에 관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2018.03.29.(목)

171st

주제토론회

발주자 책임강화 기반의 건설안전

주제발표	**1. 건설산업 치유의 길** | 안홍섭 한국건설안전학회 회장
	2. 시설물 유지관리 현황과 제도 발전 방안 | 박구병 한국시설안전공단 상임이사
주제토론	**좌장** | 이상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원장
	패널 | 고용석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장, 이광채 대우건설 상무, 최수영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안홍섭
한국건설안전학회 회장

박구병
한국시설안전공단 상임이사

2018년 첫 주제토론회는 "발주자 책임강화 기반의 건설안전"을 주제로 주제발표 및 패널토론으로 진행하였다. 첫 번째 주제발표는 안홍섭 한국건설안전학회 회장께서 "준공이전 단계의 발주자의 건설안전 책임"이라는 내용으로 발표하였다. 안홍섭 회장은 건설분야의 구조적 위기를 지적하면서 사고방지에 실패한 기존 제도, 단기적 처방의 악순환, 해결책을 찾으려는 노력의 부족, 그리고 원칙없는 정상화 노력을 예로 들었다. 이의 해결을 위한 핵심과제로 제도주체 역할과 책임의 합리적 이행, 제도 객체 역할과 책임의 정상화, 그리고 관련 법령에 일관된 책임원칙을 구현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선결과제로 제시한 사항은 국가정책이 안전을 예산절감보다 우선시 해야할 것과 부처내 안전부서의 위상을 높일 것 그리고 안전책무 이행에 필요한 발주자의 권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었다. 안홍섭 회장은 결국 안전으로 발주자를 바로 세워야 산업을 치유할 수 있음을 결언으로 강조하였다.

두 번째 주제발표는 박구병 한국시설안전공단 상임이사가 "준공이후 시설유지관리 단계에서의 발주자의 역할"이라는 내용으로 발표를 하였다. 박구병 상임이사는 국내 1·2종 시설물의 노후화 현황을 근거로 2024년에는 30년 이상의 노후 SOC가 21.6%에 다다를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예상되는 문제로 재투자 비용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SOC예산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임을 지적하였다. 또한 한반도의 빈번한 지진상황에서도 학교시설, 공공건축물 및 놀이기구의 내진성능 확보율은 각각 23%, 36%, 14%로 지진위험도가 여전히 큼을 강조하였다. 박구병 상임이사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시설물 유지관리의 패러다임이 안전위주에서 성능위주로 변화되어야 하고, 성능평가 결과에 따른 예산 배정, 사용성 증진을 위한 유지관리, 자산관리 개념도입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인 제도개선 및 발전방안으로 성능평가 대상시설물의 확대, 예방적 유지관리 체계 강화, 조직 및 인력의 정비, 재

원 조달 및 배분 개선, 관련제도의 개선 등을 제시하였다.

주제발표에 이어 이상호 공동대표께서 좌장을 맡고 고용석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장, 이광채 대우건설 상무(건설안전임원협의회), 최수영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께서 패널로 참석하여 토론시간을 가졌다. 본 주제토론회를 통해 건설 생애주기를 대상으로 준공이전 단계의 발주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문제점을 분석하였고 준공단계 이후 시설물 유지관리 단계에서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주제토론회가 발주자 책임강화 기반의 건설안전 정책수립 및 실행방안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

2018.04.23.(수)

172nd

조찬토론회
건설산업의 미래

이병남
보스턴컨설팅그룹(BCG)
공동대표

제172차 조찬토론회에서는 이병남 보스턴컨설팅그룹(BCG) 공동대표를 모시고 '건설산업의 미래'를 주제로 강연을 들었다. 이병남 대표는 연세대학교 경영학과에서 학부와 석사를 마치고, 미국 미시건대학에서 MBA를 취득하였다. 이병남 대표는 1992년 BCG에 입사하신 후, BCG의 산업재, 소비재 및 기업개발 분과의 핵심 멤버로 활동하고 있으며 국내 유수의 기업들과 장기간 폭넓은 프로젝트 수행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2004년 6월 세계경제포럼에서 아시아 차세대 지도자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이날 강연에서 이병남 대표는 WEF(World Economy Forum)에서 발표한 "Shaping the Future of Construction(2016)"의 집필진으로 참여하면서 체험하게 된 글로벌 건설산업 및 기업의 변화, 그리고 국내 건설산업 환경 및 기업의 준비에 대해 의미있는 시사점을 던져 주었다. 타 산업에 비해 취약한 건설산업의 노동생산성 문제점은 모든 나라가 갖고 있는 문제점인데,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며 이를 타개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산업혁신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병남 대표는 그 원인에 대해 드러나는 피상적인 원인과 아울러 그 이면의 지원시스템(2차원인), 제도의 폐쇄성(3차원인), 근본원인(관리체계)의 계층구조로 분석하였다. 특히 미래 건설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성장을 위해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며 해외에서는 ADITAZZ, MA3D, BSB, UPTAKE 등 혁신적인 스타트업이 출현하는데 비해 국내의 경우는 그러한 변화를 찾을 수 없다는 뼈아픈 이야기도 곁들였다.

마지막으로 이병남 대표는 우리나라 건설산업계가 제한된 시장에서 파이 나누기로 논쟁을 벌이는 동안 우리의 경쟁국가에서는 기존의 건설업계 뿐 아니라 새로운 생태계 진입자들이 미래 우리 건설산업과 경쟁을 하게 될수 있다는 경고를 하였다. 강연에 이어 이병남 대표와 회원들 간에 국내 건설산업의 문제점과 미래 성장을 위한 심도있는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2018.05.29.(화)

173rd

국내세미나

건설 일자리 창출, 어떻게 할 것인가?

기조발표	김홍택 대한토목학회 회장
주제발표	**1. 일자리 정책과 과제**	장신철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부단장 **2.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방**안	김명수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주제토론	**좌장**	이상호 건설산업비전포럼 공동대표 **패널**	김영한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장, 김인기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설안전처장, 손성연 씨앤씨종합건설 대표이사, 이복남 서울대학교 건설환경종합연구소 교수, 이해경 다산컨설턴트 회장, 임상균 매일경제신문 부동산부장, 한영승 동산씨엔씨 대표이사

건설산업비전포럼이 5월 29일(화)에 건설회관 중회의실에서 2018 국내세미나 “건설 일자리 창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정부의 일자리 정책, 건설산업 일자리의 질적 제고 및 양적 확대 방안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통해 건설 일자리 창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한찬건 공동대표(포스코건설 상임고문)의 개회사로 세미나를 시작해 손태홍 기획위원(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의 사회로 진행했다. 기조연설은 김홍택 대한토목학회 회장께서 건설산업이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6대과제를 제시했다.

주제발표로는 장신철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부단장께서 “정부의 일자리 정책 방향”을 김명수 가톨릭대학교 교수께서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주제토론은 이상호 공동대표(한국건설산업연구원 원장)께서 좌장을 맡았으며, 김영한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장, 김인기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설안전처장, 손성연 씨앤씨종합건설 대표이사, 이복남 서울대학교 교수, 이해경 다산컨설턴트 회장, 임상균 매일경제신문 부동산부장, 한영승 동산씨엔씨 대표이사께서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주제토론은 정부와 학계 및 업계 전문가와 더불어 세미나 참석자들의 적극적인 의견 제시가 함께 했던 시간이었으며, 이현수 공동대표(대한건축학회 회장)의 말씀으로 행사를 마무리했다.

김홍택
대한토목학회 회장

장신철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부단장

김명수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2018.06.27.(수)

174th

조찬토론회

4차 산업혁명 정책방향

장석영
4차산업혁명위원회 지원단장

제174차 조찬토론회에서는 장석영 4차산업혁명위원회 지원단장을 초청하여 정부의 ‘4차 산업혁명 정책방향’을 주제로 강연을 들었다. 장석영 단장은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에서 행정학 석사를, 미국 덴버대학교에서 LLM을 취득하였다. 제33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이후 방송통신위원회 정책총괄과장, 미래창조과학부 정책기획관, 청와대 선임행정관 등을 거쳐 현재 4차산업혁명위원회 지원단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장석영 단장은 강연에서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로 촉발되는 초연결 기반의 지능화 혁명이며, 산업과 사회, 국가시스템, 삶의 질에 혁신적 변화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4차 산업혁명의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은 기본적으로 데이터의 증가를 기반으로 디지털화와 재조합혁신으로 인해 가능하게 되었으며 관련 기술은 산업 간에 광범하게 연계되어 있다고 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산업구조와 고용구조에 큰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산업구조 측면에서는 데이터와 지식이 경쟁의 원천이 될 것이며, 데이터를 확보한 기업이 부상하고 제품과 서비스를 결합하는 통합서비스가 단품을 압도할 것이며 플랫폼을 선점하는 기업이 승자 독식하는 구조가 될 것으로 보았다. 일자리 측면에서도 단순반복하는 정형적 업무는 자동화대체 확률이 높고, 상황판단이 복잡한 업무는 자동화가 상대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측했다.

장석영 단장은 4차 산업혁명은 국가적 차원에서 위기이자 기회로서 한국사회 발전의 변곡점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에서는 과학·기술, 산업·경제, 사회·제도를 아우르는 국가적 대응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능화 기반의 산업혁신으로 생산성을 제고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성장동력을 연결하며, 4차 산업혁명 확산을 위한 인프라·생태계를 조성하여 미래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해 정부는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하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성원을 당부하였다.

강연 후 질의응답에서는 정부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규제완화와 민간지원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회원들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2018.08.29.(수)

175th

조찬토론회

4차 산업혁명 시대의 Smart Logistics

김형태
삼성SDS 물류사업부문 부사장

김형태 삼성SDS 물류사업부문 부사장을 초청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Smart Logistics'을 주제로 175차 강연을 들었다. 김형태 부사장은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중앙대학교 경영학 석사, 서울벤처정보대학원대학교에서 정보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한국 IBM 유통/물류 산업전문가를 시작으로 한국 EXE 테크놀로지 사장, 삼성전자 경영혁신팀 글로벌로지스틱스 상무, 삼성SDS Global LPO 전무를 거쳐 현재 삼성SDS 물류사업부문 부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김형태 부사장은 산업혁명과 유사하게 물류 logistics도 1~4차에 이르는 변화의 모습을 겪고 있다면서 수송의 기계화(logistics 1.0)가 그 시작이라고 설명했다. 2차는 1960년대로 물류 산업에 있어 최고의 혁신이라고 할 수 있는 컨테이너 표준화가 완성된 시기로 하역의 기계화(logistics 2.0)로 요약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물류관리 시스템화(logistics 3.0) 단계를 지나 현재는 물류운영 자율화(logistics 4.0) 수준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현재의 물류는 IoT, AI, Big Data 등의 첨단 기술을 먼저 적용하는 얼리어댑터(early adapter)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술이 물류 시스템에 적용되면서 효율성과 고도화를 통한 차별화가 가능해졌다고 강조했다.

김형태 부사장은 글로벌 기업인 아마존은 세계 최고의 물류 시스템 구축과 운영이라는 목표 아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투자를 통해 자동화 기반의 물류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유통업의 글로벌 최강자로 등극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알리바바는 독자적인 핀테크 기술과 물류 인프라 결합을 통해 새로운 유통업을 개척하고 있으며 특히 데이터 기술 활용에 적극적이라고 소개했다. 또한 글로벌 물류 업체의 Logistics 4.0 전략의 중심에는 다양한 신기술을 응용한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창출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형태 부사장은 산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물류는 지속적으로 통합되고 진화하고 있는 추세라고 보았다. 특히 인터넷 플랫폼으로 물류 수요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스타트업 기업들이 물류 산업에 등장하면서 진화의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형태 부사장은 삼성은 Big Data, IoT, AI, Blockchain 등을 기반으로 차별화된 물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삼성 스마트 물류 시스템인 Cello는 공급망 내 실시간 물류 모니터링, 수작업 프로세스 자동화, 물류 리스크 매니지먼트, 지능화된 물류 환경 구축 등이 가능하다고 했다. 김형태 부사장은 물류는 정형화된 산업이 아니며 다양한 신기술 활용을 통해 타 산업에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업종 간 협력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8.09.12.(수)

176th

주제토론회

4차 산업혁명의 시대의 국가 인프라 투자 전략 모색

주제토론 **좌장** | 김한수 세종대학교 교수
패널 | 버나드 뮬러 / 유엔 유럽 경제위원회(UNECE) PPP 분과 공동의장,
앙 리안액 / 싱가포르 건설사업청(BCA) 국장,
마크 라스본 / PwC 파트너,
리차드 마쉘 / FitchSolutions 인프라 부문장

김한수
세종대학교 교수

제176차 조찬토론회는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공동으로 주관한 "4차 산업혁명의 시대의 국가 인프라 투자 전략 모색"을 주제로 개최된 국제세미나의 발제자들을 초청해 주제토론회 형식으로 개최되었다.

주제토론회에 참여해 주신 발제자는 전 UNECE(UN 유럽경제위원회) 혁신·경쟁력·PPP 위원회 공동의장인 버나드 뮬러(Berhnard MUELLER), 싱가포르 건설사업청(Building and Construction Authority)의 앙 리안 액(ANG Lian Aik) 국장, PwC의 마크 라스본(Mark RATHBONE) 부사장, 피치솔루션스(Fitch Solutions)의 리차드 마쉘(Richard MARSHALL) 인프라 부문 지부장이다. 주제토론회는 김한수 세종대학교 교수의 진행으로 세미나에서 발표된 주요 내용에 대한 요약을 중심으로 토론자들과의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버나드 뮬로 전 의장은 인프라 투자는 정책적 지속가능성이 확보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독립적이고 실질적인 프로젝트 평가, 적정수준의 요금, 재정건전성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간 투자재원을 활용한 사회 인프라(Social infrastructure) 확충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재정건전성 개선 및 시장의 유휴자금의 생산적 활용 유도 등 사회적 편익을 창출한 사례를 소개하였다.

두 번째로 앙 리안 액 국장은 싱가포르가 글로벌 경쟁력 세계3위, 인프라 경쟁력 세계2위로 평가받을 수 있었던 것은 최근 5년간 연평균 4.3% 수준의 인프라 투자 증가율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싱가포르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2020년에는 GDP 대비 인프라 투자 비중을 6.0%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또한 앙 국장은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건설생산성 혁신 전략을 수립 및 시행해 2014년부터 생산성이 매년 2~3%씩 향상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2010년 1차 건설생산성 향상 로드맵 시행 이후 2015년에 신기술 도입을 유인하는 2차 로드맵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으며 로드맵에는 설계, 제조 및 설치, 조달, 시공 등의 과정 통합, 정부의 제도개선과 건설생산성 및 역량 지원 펀드 운용, 공공과 민간의 원활한 소통과 피드백 체계 구축 등

이 포함되어 있다고 소개했다.

세 번째로 마크 라스본 부사장은 글로벌 인프라 시장 투자는 향후 10년간 연평균 7~8%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며 세계 GDP의 80%가 도시에서 발생하고, 전체 인구의 55%가 도시에 거주하는 상황에서 인프라 시장의 투자 확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강조했다. 특히 인구의 도시 유입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스마트 시티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더불어 도시 개발의 증가와 4차 산업혁명에 의한 신기술 확산은 이미 글로벌 메가 트렌드인 것을 강조하면서 도시 개발에 따른 인프라 투자 확대는 필수적이라고 분석하였다.

끝으로 리차드 마쉘 지부장은 선진국 건설시장이 향후 10년간 연평균 2.1%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미국, 캐나다, 영국, 싱가포르 등 주요 선진국의 인프라 투자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강연 후 질의응답에서는 인프라 투자에 대한 국가 정책의 기준과 활용, 인프라 시설물 운용의 경쟁 체계 도입, 건설생산성 향상에 필요한 다양한 신기술을 건설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유인하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177th

조찬토론회

인구변화와 미래기획

전영수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

제177차 조찬토론회는 전영수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를 모시고 '인구변화와 미래기획'을 주제로 강연을 들었다. 전영수 교수는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에서 국제(경제)학 박사를 취득하고 현재 한양대 사회혁신융합전공 주임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인구변화와 미래기획'은 인구충격을 통해 업을 재구성하고 이를 통한 장기생존을 주제로 했다. 한국사회에서 인구는 줄어들어 2019년에는 인구 자연증가율이 집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했다. 전영수 교수는 인구의 변화는 미래를 예측하기 어렵게 하고 시대변화를 주도하게됨으로 중요한 이슈라고 했다. 한국사회의 미래 위기는 과거에는 오히려 기회로 적용했던 저성장, 재정난, 인구병 등이 있다고 했다. 우리나라는 3번의 인구구조 변곡점이 예상되며 2018년 사상 초유의 생산가능인구 축소, 2020년 1,700만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그리고 2030년 1,700만 고령인구의 탄생을 예상했다.

일본사례를 들어 인구 구조를 단순히 지역별 인구조사로 판단하면 안되며 인구이동을 반영하면 상이한 결과가 나타난다고 했다. 또한 인구문제의 본질은 심각해진 사회이동에 있고 과도한 도시집중과 과소한 지방소멸이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지방권역의 순환 경제가 인구문제 해결의 시작이라고 했다.

전영수 교수는 인구변화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고객 출현을 참고하여 업의 본질을 재구성해야 하고 과거 상품, 채널, 고객의 방식을 고객, 상품, 채널의 순서로 변경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트렌드 선점을 통해 접근하고 지속가능한 사업 구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연 후에 국가별 인구측정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관점에서 인구 구조나 변화에 대한 개념을 잡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통일 이후에 인구변화에 따른 사회구조 변화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또한 인구소멸에 예상되는 지역의 건설관련 지원 사례나 정책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2018.11.28.(수)

178th

국제세미나

A New Stage of Construction in Japan : i-Construction

기조발표	권도엽 前국토해양부 장관,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주제발표	**A New Stage of Construction in Japan i-Construction** | Hirokuni Morikawa 일본 국토교통성 산하 국토인프라관리연구원 신기술부문 부분장
주제토론	**좌장** | 김한수 세종대학교 교수 **패널** | 이석홍 현대건설 연구개발본부장

Hirokuni Morikawa
일본 국토교통성 산하
국토인프라관리연구원
신기술부문 부분장

김한수
세종대학교 교수

건설산업비전포럼이 11월 28일(수)에 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2018 글로벌 전문가 초청 토론회 “A New Stage of Construction in Japan : i-Construction”을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글로벌 건설 전문가를 초청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선진국가의 대응체계를 이해하고 정부와 기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자리였다.

한찬건 공동대표(포스코건설 상임고문)의 개회사로 세미나를 시작해 안용한 기획위원(한양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했다.

기조연설은 권도엽 전)국토해양부 장관께서 건설산업과 기술의 미래를 주제로 발표했다. 주제발표는 Hirokuni Morikawa 일본 국토교통성 산하 국토인프라관리연구원 신기술부문 부분장께서 “A New Stage of Construction in Japan i-Construction”을 발표했다.

주제토론은 김한수 세종대학교 교수의 진행으로 이석홍 현대건설 연구개발본부장과 발표자께서 참석한 가운데 심층토론으로 진행되었으며 객석에서 질문지를 받아 패널과 참석자들이 다양한 질문과 의견을 주고받았다.

2018.12.26.(수)

179th

조찬토론회

대한민국 건설산업의 모습

제179차 조찬토론회는 2019년을 준비하는 자리로 건설산업비전포럼 회원이 바라는 ‘대한민국 건설산업의 모습’이라는 주제로 포럼 회원들 간의 자유토론으로 개최되었다. 자유토론에서는 대한민국 건설산업의 미래 비전과 혁신 성장 방향 제시라는 포럼의 역할을 바탕으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 이필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상담역은 건설산업의 투명성 제고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 노력과 일본의 i-construction 추진 조직을 벤치마킹한 스마트 건설기술 추진에 필요한 연구 기관 설립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 이해경 다산컨설턴트 회장은 상수도, 하수관, 지하철 및 전력 등 국가 라이프라인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유지보수 차원이 아닌 재건설 관점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이영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본부장은 최근 제정된 시특법이 지상 위에 노출된 시설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하 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예산 확보 등의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고영회 성창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는 현재 정부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과 건설분야 분쟁의 체계적 해결 방안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며 포럼의 역할 확대를 제시하였다.
- 손성연 씨앤씨종합건설 대표는 공공공사에 참여하는 기업의 40%가 적자를 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적정공사비의 확보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최근 큰 틀에서 업역 개편이 이뤄졌지만 서로의 이해관계를 떠나 발전적이고 합리적인 의견을 지속적으로 개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권도엽 전)국토해양부 장관은 건설포럼은 삶의 변화 모습을 상상해 비전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단체임을 강조하며 건설산업에 기여하고 잠재력을 알릴 수 있는 기회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 남궁은 한국환경환림원 회장은 일본 건설산업에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대한민국 건설산업이 참고할 수 있는 점을 밝혀내고 시대흐름에 대응할 수 있는 건설산업의 성장 방향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이태식 한양대학교 교수는 건설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검토가 필요하며 그에 액션 플랜의 수립이 요구된다고 강조하였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태식 교수는 포럼 내에 연구위원회, 투명성위원회 등가 같은 조직 구성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 김종훈 한미글로벌 회장은 건설포럼은 건설산업의 변화 방향에 대한 중장기적 아젠다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네트워크를 통해 협업할 수 있는 플랫폼화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2019.01.30.(수)

180th

조찬토론회·정기총회

청렴한 사회, 어떻게 만들 것인가

김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제180차 조찬강연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을 맡고 계신 김현 변호사께서 '청렴한 사회,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주제로 강연하였다.

김현 변호사는 국민이 요구하는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많은 노력 중에 사법개혁과 법제도 개선 차원에서의 주요 내용들을 소개하였다. 김현 변호사는 정치 및 사법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팽배해져 국가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면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대대적인 사법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검찰과 법원개혁의 필요성도 강조하며 개선이 가능한 사항들을 다양한 사례와 설문조사를 결과 등과 함께 설명하였다. 법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을 포함해, 집단소송, 디스커버리, 전관비리 혁파, 판결문공개, 준법지원인 확대, 법무담당과 도입, 법관평가의 인사반영, 인지대 감액, 변호사비밀 유지권, 송소비용 부담 개선, 포토라인 폐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김현 변호사는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사법개혁을 포함해 범국가적인 개혁과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2019.02.27.(수)

181st

조찬토론회

건설산업의 환경변화와 한국건설기술연구의 새로운 도전

한승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원장

제181차 조찬토론회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승헌 원장을 초청해 "건설산업의 환경변화와 한국건설기술연구의 새로운 도전"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들었다. 한승헌 원장은 서울대학교 토목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콜로라도주립대학교에서 석사와 토목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삼호건설에서의 현장 경험을 시작으로 국토해양부 서기관과 연세대학교 토목공학 사회환경시스템공학 교수를 거쳐 현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혁신은 변화하고자 하는 곳에서 시작한다고 강조한 한승헌 원장은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무슨 일을 해야 하나?' '국가 및 사회적 물음에 제대로 답을 하고 있는가?' '연구결과물이 산업혁신에 어떠한 연결고리를 갖는가?'라는 질문들에 대답하기 위한 고민과 반성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최근 건설산업의 변화와 주요 이슈에 대응할 수 있는 차별화된 연구가 가능한 기관으로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한승헌 원장은 최근 건설산업의 변화와 이슈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재난사고와 안전 이슈, 가속화되고 있는 사회기반시설 노후화, 새로운 기회로서의 남북협력 확대, 기후변화와 도시문제,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 건설 등이 건설산업의 주요 환경 변화로 정의된다고 설명했다.

한승헌 원장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차별성 확립은 국가 사회요구에 따른 R&D를 중장기 계획에 따라 조직적으로 수행하여 대형성과를 창출, 정부를 지원하는 "Back office"로서 정부의 판단과 문제해결 능력을 위한 정보와 지식 제공, 과학기술기반의 국가 이노베이션 체계 구축과 공적임무를 달성하는데 핵심 역할 재설정을 통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한승헌 원장은 건설산업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의 혁신을 위한 4대 도전과제로 안전 및 안심 국토교통 기술로 다양한 국가 및 사회문제 해결, 새로운 건설 패러다임 선도를 통한 건설산업 혁신성장 기여, 국토균형발전으로 한반도 공동번영 추구, 글로벌 인프라 개발협력으로 지구촌 문제 해결을 제시하였다.

강연 후 질의응답에서는 연구성과 성공률에 매몰되지 않고 새로운 그리고 도전 연구를 수행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의 혁신이 요구되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다.

2019.03.27.(수)

182nd

주제토론회

엔지니어링산업의 미래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

주제발표	**해외 경쟁력 강화 방안** | 이재완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회장
주제토론	**좌장** | 남궁은 한국환경한림원 회장 **패널** | 김정호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회장, 박기정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성낙일 유신코퍼레이션 대표이사, 손태홍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미래기술전략실장, 신병관 삼보기술단 대표이사, 안정훈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장

건설포럼 제182차 정기모임은 2019년 대주제인 “건설산업의 미래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바탕으로 “엔지니어링 산업의 미래와 발전방안”에 대한 주제토론회로 진행되었다.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이재완 회장이 “인프라 엔지니어링 해외 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해 발제하였다. 발제에 이어서 한국환경한림원 남궁은 회장의 사회로 열띤 지명토론과 청중토론이 이루어졌다. 이번 주제토론회는 건설포럼 회원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주어진 시간을 초과하면서 진지한 토론이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토론 주제의 중요성을 공감할 수 있었다.

이재완 회장의 발제 내용은 크게 글로벌 인프라 산업 동향, 한국 엔지니어링 산업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추진과제 및 전략방향으로 구성되었다. 엔지니어링 산업은 산업의 고부가가치를 주도하고 지속적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선진국형 산업이다. 기술발전과 발주형태 변화에 따라 민간 엔지니어링 기업의 역할이 증대되고 4차 산업개술의 도입으로 엔지니어링 생산방식의 변화와 고급 엔지니어의 수요 증가가 기대된다. 또한 해외 엔지니어링 시장구조 변화를 지역별, 공종별로 설명하였다. 한국 엔지니어링 산업의 현황과 문제점에서는 해외시장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저 부가가치 구조가 고착되고 있으며 M&A 등으로 성장하는 해외 사례와 달리 제도적 한계로 산업구조 재편 지연과 기술력이 떨어지는 한계기업의 증가로 저가 경쟁이 심회되어 수익성마저 악화되고 있다. 주력 시장인 중동 및 아시아에서 중국에 추월당하고 선진국과의 기술경쟁력도 부족하다고 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한국 엔지니어링 산업의 비전을 제시하고 해외 사업구조 고도화, 제도 개선·지원체계 강화, 글로벌 기술인력 양성, 미래 성장 동력 육성 등의 추진과제 및 전략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날 지명토론자로 김정호 회장(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박기정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성낙일 대표이사(유신코퍼레이션), 손태홍 실장(한국건설산업연구원 미래기술전략실), 신병관 대표이사(삼보기술단), 안정훈 과장(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등이 참여하여 발제 내용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건설포럼 회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주제토론회이기 때문에 지정토론자 외 토론회에 참석한 모든 회원들이 시간에 구애받지 않은 유익한 청중토론이 이어졌다. 비록 토론회는 비공개로 진행되지만 토론 내용 및 결과는 자료집으로 작성하여 건설관련 유관단체 배포될 예정이다.

2019.04.24.(수)

183rd

조찬토론회

축적의 시간, 스케일업(scale-up) 혁명 : 한국 산업의 미래를 열어가는 키워드

이정동
서울대학교 교수

제183차 조찬토론회는 이정동 교수를 모시고 진행되었다. 이정동 교수는 현재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축적의 길”이라는 서적을 출간하였고, 미래의 산업계에 다양한 방향을 제시했다.

강연에서 이정동 교수는 건설산업을 포함한 한국의 산업계는 개념설계 역량 부족이라는 이슈가 부각되면서 글로벌 혁신 기업으로 도약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아이디어를 현실화하기 위한 스케일업(scale-up)을 위한 노력과 제도 지원의 지속성이 부족한 것은 산업계가 극복해야 할 환경이라 주장하였다. 스케일업하면서 발생하는 방대한 시행착오를 축적하는 과정이 혁신이라는 열매의 선행 조건이라 설명하였다. 또한 한국의 산업계는 개념설계를 실행하는데 투자가 집중되어 있어, 개념설계의 파급 효과와 산업계 혁신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진지하게 되돌아봐야 할 시점이라 강조하였다.

한국 산업계의 R&D 투자 규모는 세계 4위 수준으로 도약하였지만, 글로벌 혁신 기업의 출현은 아주 미흡한 실정이라 설명하면서, 시행착오에서 발생되는 경험과 지식의 축적이 가능한 기반 구축과 의식 개선이 중요하다 지적하였다. “스몰베팅에 의한 스케일업 전략”을 설명하면서 개념설계가 스케일업되는 과정을 제시하였다. 혁신은 단계적 발전의 종합적 결과물로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스케일업 과정에서 발생되는 시행착오의 축적이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시금석이 될 것으로 강조하였다.

끝으로 이정동 교수는 산업계의 인식(mind-set) 전환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교육 방식에 있어 적극적인 변화가 있어야 건설산업의 혁신이 가능하다 주장하면서, 정부 지원의 지속성도 강조하였다. 포럼의 참여 회원들은 산·학·연의 공동 노력을 위한 협업 체계 구축과 산업의 스케일업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 수립의 필요성을 공감하였다.

2019.05.29.(수)

184th

국내세미나

글로벌 건설시장, 차별화별 사업모델로 승부하자

주제발표
1. 미래의 업무 공간, 공유 오피스 | 김채완 WeWork Korea 이사
2. 대륙으로 향하는 길, 아시안하이웨이 설계기준 | 조성민 한국도로공사 실장
3. 공동주택의 스마트홈 현재와 미래 | 장성욱 SK텔레콤 미디어사업부 과장
4. OSC 활성을 통한 건설생산시스템 혁신 모색 | 이준성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주제토론 **좌장** | 조훈희 고려대학교 교수

건설산업비전포럼은 5월 29일(수)에 "글로벌 건설시장, 차별화별 사업모델로 승부하자"는 주제로 2019 국내세미나를 개최하였다.

건설산업비전포럼에서는 국내 건설 산업 및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부족의 문제를 인지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타 산업 및 기술의 융복합 선도사례(모듈러 건축, 도로 및 철도, 부동산, 정보통신)을 살펴보았다. 이번 세미나는 발표된 사례를 기반으로 미래 건설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는 시간을 제공하였다.

건설산업비전포럼 이복남 부대표의 개회사에 이어 글로벌 기업 WeWork의 운영 총괄 이사 김채완 이사의 "미래의 워크 플레이스", 한국도로공사 조성민 실장의 "대륙으로 향하는 길, 아시안 하이웨이 설계기준", SK텔레콤 미디어사업부 홈 사업실 장성욱 과장의 "공동주택의 스마트 홈 현재와 미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건축도시시스템공학전공 이준성 교수의 "OSC 활성을 통해 건설생산성시스템 혁신 모색"이 주제발표되었다. 주제토론은 고려대학교 조훈희 교수께서 좌장을 맡았고 공유오피스, 도로 및 철도, 정보통신, 모듈러 건축 분야에서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기술의 융복합 선도 사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일반참석자들이 해당 주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열띤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2019.06.26.(수)

185th

조찬토론회

사회주의 도시 평양, 변화하는 평양

임동우
홍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원 교수

제185차 조찬토론회는 홍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원의 임동우 교수를 초청하여 "사회주의 도시 평양, 변화하는 평양"을 주제로 강연을 들었다.

과거 사회주의 도시의 변화를 추적하여 향후 국내 건설산업의 도시 개발 및 재생에 대한 방안 모색에 아이디어 제공 차원의 이슈를 제기하였다. 임동우 교수는 미래 한반도 국가를 준비하는 계획의 일환으로 도시개발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마스터플랜 수립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한반도 통일은 시간적인 차이가 있을 뿐 미래에 발생 가능한 상황으로 도시 및 국토 개발을 위한 마일스톤 구축의 중요성을 설명하였다. 사회주의 도시 평양의 마스트플랜과 도시 운영에 대한 개념을 상생으로 정의하였다. 최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도시 개발과 공동체 운영을 사회주의 도시 개념과 융합하면서 미래 도시의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였다. 특히 평양의 경우 도시 공간의 균형화, 녹지공간과 도시의 조화, 상징적이고 중앙화된 도시의 특성이 반영되어 있어 미래 한반도 도시의 마스터플랜에 균형과 조화, 스마트와 공원 도시 등 새로운 개념이 도시 계획에 활용될 것으로 강조하였다.

주제 발표 이후 포럼 회원들은 동독과 서독 사례에 대한 면밀한 벤치마킹이 필요하며, 향후 한반도 통일 시점에서 사회주의 도시 평양의 개발 방식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향후 개발과 보존의 개념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국가 및 산업 차원 기본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공감하였다.

끝으로 발표자 외 포럼회원들은 한반도 통일 시점이 미래에 있음을 공유하면서 참여 회원들의 공동 노력과 지속적인 협업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2019.08.28.(수)

186th 조찬토론회
스마트시티의 이해, 배경 및 쟁점

이상훈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부원장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이상훈 부원장을 모시고 제186차 조찬토론회를 진행하였다.

이상훈 부원장은 '스마트시티의 이해, 배경 및 쟁점'이라는 주제를 통해 스마트 시티를 '도시의 문제 해결, 삶의 질 향상, 도시 운영의 효율적 제공을 목적으로 ICT를 사용하는 도시'로 정의하고, 스마트 시티는 단순히 특정 기술을 지칭하는 것이 아닌 데이터 공유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도시임을 강조하였다.

스마트 시티의 정의에 이어 스마트 건설 기술의 중점 분야별 핵심 내용인 건설장비 자동화 및 관제기술, 도로 구조물 스마트 건설 기술, 스마트 안전통합 관제 시스템, 스마트 건설 디지털 플랫폼 및 테스트베드 사업에 대해 소개하였다. 또한 스마트 시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하향식 의사결정이 아닌 시민과 지역 업체가 주도하는 상향식 의사결정이 중요하며, 보다 전체적인 관점에서 진행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바르셀로나 시의 사례 발표를 통해 스마트 시티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시민은 물론 모든 행위 주체를 통합하는 연합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주제 발표 이후 포럼 회원들은 스마트시티에서 '그린'에 대한 이슈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하였다. 끝으로 공동대표이신 서울대학교 이현수 교수는 조찬토론회의 주제인 스마트 시티에 대해 'Smart'라는 단어가 범람하는 이 때 도시의 본질인 인간 중심의 스마트 시티에 대한 배려가 필요함을 지적하였고, 스마트 시티의 구성 요소는 특정 건물에 한정되지 않고 모든 장소에 적용되는 것을 강조하며 조찬토론회를 마쳤다.

2019.09.25.(수)

187th 국제세미나
The Direction of Digital Innovation for Future Construction

주제발표	**1. The Construction industry is often described as broken, what will fix it and what could the future look like** | Mark Richards / Partner & Managing Director, Turner & Townsend **2. How digitization works?** | Ricky Tsui / R&D Director, Arup **3. The future of the construction sector in the digital era** | Don ward / Managing Director, Constructing Excellence International
주제토론	**좌장** | 김한수 세종대학교 교수

건설산업비전포럼은 9월 25일(수)에 포스코센터 아트홀에서 2019 국제세미나를 "The Direction of Digital Innovation for Future Construction(디지털 혁신 시대, 건설의 미래)"를 주제로 개최했다. 이번 국제세미나는 영국 건설 전문가를 초청해 4차 산업혁명 및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에 대해 영국의 건설 산업과 주요기업의 대응현황을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우리 건설산업과 건설 기업이 나아갈 방향을 생각해 보기 위한 자리였다. 약 200명 이상의 청중이 세미나에 참여하고 많은 청중이 세미나가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키는 모습을 보면서 디지털 혁신의 시대에 건설 산업과 기업이 생존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얻기 위한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Mark Richards
Partner & Managing Director, Turner & Townsend

Ricky Tsui
R&D Director, Arup

한찬건 건설포럼 공동대표의 개회사, 이성해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 및 Simon Smith 주한영국대사의 축사로 세미나를 시작하였으면 건설포럼 기획위원인 안용한 한양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발표는 영국 터너 앤 타운센트 Partner인 Mark Richards가 "The construction industry is often described as broken, what will fix it and what could the future look like." 주제로 건설산업의 혁신은 일하는 방식의 변화가 전제되어야 하고 디지털기술의 접목은 건설산업을 더욱 스마트하게 만들 것이라고 했다. 두 번째 발표는 글로벌 엔지니어링회사인 ARUP의 R&D 디렉터인 RIcky Tsui박사가 "How digitalization work?" 주제로 Arup에서 활용하고 있는 디지털 기술과 기업 차원에서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노력에 대해 발표를 했다. 마지막 주제발표는 본 컨퍼런스를 함께 개최한 Constructing

Excellence International의 Managing Director인 Don Ward가 “The future of the construction section in the digital era.” 주제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해서는 발주(Delivery), 조달(Procurement), 사업(Business)방식이 바뀌어야 하고 영국의 경우도 이런 시도를 단순 절감 목표가 아닌 사회적 가치나 고객의 수익을 위한 성과(outcome)를 위주로 했음을 발표했다.

Don ward
Managing Director,
Constructing Excellence
International

주제발표 후에는 세종대학교 김한수 교수의 진행으로 세 분의 발표자와 심층토론을 진행하였다. 강연자들은 발표에서 부족했던 내용을 추가로 제시하였고 질문지를 활용한 청중과의 질의응답 시간은 많은 질문으로 모든 질문에 대해 논의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을 정도였다. 좌장인 김한수 교수는 우리 주변의 변화는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변화의 대응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고 그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숙제라고 마무리 하면서 관산학연의 파트너십이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2019.10.30.(수)

188th

조찬토론회

북한 건설산업의 현실과 한반도의 정세

태영호
前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

제188차 조찬토론회는 前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태영호 공사를 모시고 ‘북한 건설산업의 현실과 한반도의 정세’에 대한 주제로 진행되었다.

태영호 공사는 건설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북한 공산당에서 추진하는 건설 사업에 참여하면서 경험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흥미로운 정보를 제공해주셨다. 위성에서 내려다 본 평양시를 보며 근무지와 거주지가 동일한 주거의 형태와 대결 구도 측면에서 우리나라보다 건축물을 높게 건설함으로써 우월성을 강조했다는 점을 전했다. 그런 이유로 평양시에는 고층건물이 많이 존재한다고 했다. 물론 부족한 전기공급량으로 일정 시간만 운행하는 엘리베이터 때문에 북한 주민이 겪는 불편함도 재미있게 설명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부가가치가 높은 곳에 상업업무시설이 자연스럽게 형성되는데 반해 북한은 평양시를 중심으로 효율성보다는 의미를 전달하려는 문화공간이 많이 조성되었다는 점에서 차이를 설명했다.

또한 북한의 부동산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는 보유하지만 개인은 소유권이 아닌 이용권만을 보유한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소유권에 대한 불법매매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소유에 대한 요구가 존재하는 것인데 계층별 차이가 있는 주택형태는 통일 후 새로운 갈등요소가 될 것으로 예측하시면서 해결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북한 건설산업에 대한 말씀 외에 한반도 정세에 관해 북한 핵전략, 한미일동맹, 유엔의 역할, 향후 미국 관계 전망을 주제로 직접 경험을 바탕으로 논리정연하게 말씀해주셔서 한반도 통일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이해를 넓히는 시간이 되었다.

한정된 시간으로 많은 내용을 듣지 못해 아쉬움이 있었지만, 북한 건설산업뿐만 아니라 남북의 정치적 현황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되었다. 태영호 공사를 이번 강연에 섭외한 한찬건 공동대표의 인사말씀으로 조찬토론회를 마쳤다. 조찬토론회 후에 태영호 공사께서 저술한 도서 “3층 서기실의 암호”의 싸인회가 진행되었다.

2019.11.28.(수)

189th 주제토론회
건설의 미래, 답을 찾다

유정호
광운대학교 교수

제189차 조찬토론회는 건설포럼 연구위원회에서 기획 중인 “건설의 미래, 답을 찾다(가제)” 도서발간을 위한 의견 청취를 목적으로 연구책임자인 광운대학교 유정호 교수가 연구 기획안을 발표하였고 이후 서울대학교 이복남 교수의 사회로 토론이 진행되었다.

발표는 건설산업, 기업, 인력, 기술의 동향 분석을 통해 향후 건설의 미래상을 예상하였고 기존의 건설포럼의 발간 성과를 바탕으로 신규 도서의 집필방향을 제시하였다. 신규 도서의 집필 방향은 4차 산업혁명시대의 매우 강하고 빠른 환경변화로 인해 예상할 수 없는 미래를 준비하고 생존을 위해 또는 경쟁우위를 위해 건설은 미래를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의 답을 찾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내용 구성은 시장, 기술, 기업, 인력분야에 있어 외부환경이나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미래상을 제시하고 국내 건설산업의 객관적인 사실을 기반으로 현재상을 분석하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 상태에서 미래상으로 가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고 전략 달성을 위한 관련 주체들의 역할과 기능을 설정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의견청취는 포럼 회원들의 코멘트로 진행되었다. 대부분 답을 찾기 위해서는 현실에 대한 인식과 반성이 중요하다. 우선 현실의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주었다. 또한 산업에 근간이 되는 인력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을 지적하였다.

토론회는 열띤 의견 제시로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여 진행되었다. 연구위원회는 제안된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기획을 보완하여 건설포럼의 정체성을 반영한 성과물을 발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2019.12.18.(수)

190th 조찬토론회
2020 공간트렌드 변화와 건설산업의 지향점

김승배
피데스개발 대표이사

제190차 조찬토론회에 앞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이상호 원장은 2020년 건설투자 및 수주 전망과 함께 최근 정부의 인프라 투자정책 변화에 대한 국내 건설기업의 대응 및 이슈를 발표하였다. 건설수주가 2017년에 시작하여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주요 원인은 건축 중심으로 한 민간 수주 감소세에 대한 만회대책이 미흡하여 2019년 대비 60%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건설투자 또한 2015년(239.8조 원)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건축부문의 큰 감소는 토목부문의 SOC 예산 증가를 넘어서 2019년 대비 소폭 감소할 것으로 설명하였다. 2020년 인프라 투자는 철도, 도로 부문 중심으로 대부분의 분야에서 예산이 증가할 것으로 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특히, 국가균형발전사업으로 24조원 규모의 예타 면제 사업이 추진되면서 2020년부터 발주하여 2021년 이후 본격화되고, 2022년 이후 투자가 급증할 것이라 강조하였다. 더불어, 생활 SOC 사업과 노후 인프라 개선사업의 조속한 추진이 확인되면서 토목부문 투자는 향후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설명하였다.

(주)피데스개발의 김승배 대표이사가 “2020 공간트렌드 변화와 건설산업의 지향점”이라는 주제로 본 강연을 하였다.

공간자산 개념을 소개하면서 현재 전국적으로 30년 이상의 노후건축물(전국 : 37.1%, 부산 : 53.2%, 전남 : 47.9%)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면서 공간자산 기능과 가치 유지를 위한 노력을 강조하였다. 최근 도시 인프라 및 건축물 노후화로 인한 문제가 빈발하고, 공유경제로 인한 공간자산의 대량멸실을 우려하면서 입지와 수준에 따른 다양한 공간개발 형태와 공간자산의 다양한 재생 유형을 설명하였다. 2020년 예상되는 공간자산의 7대 트렌드(‘Super & Hyper’, ‘We Do’, ‘All in Room’, ‘Urban Platform Center’, ‘Pop-up Dining Kitchen’, ‘Eco-boomer Lead’, ‘Pet/Robot/Foreigner Stay’)를 소개하였다. 향후 공간자산 재생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공간사업자(건설 및 개발) 또는 주체는 공간수요의 특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개발과 건설을 전제로 융합/복합/협력적 전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공간산업을 융·복합형 첨단산업화를 지향하고, 도시 창생 Mega Project 전개의 강조하면서 ‘미래의 공간수요에 상응하는 공간공급체계 구축에 매진’, ‘공공, 시민, 민간기업이 상생 협업할 수 있는 도시공간 생태계 유지’, ‘거시적·장기적 관점에서 기본에 충실한 정책과 제도 수립’을 강조하였다.

주제발표 이후 포럼 회원들은 미래의 공간자산을 건설의 일부로 받아드릴 수 있는 인식의 전환과 예상되는 건설산업 생태계 변화 및 대응 준비의 필요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2020.01.29.(수)

191st 조찬토론회·정기총회
두산의 변신

박태원
두산건설 부회장

제191차 조찬강연은 두산건설 박태원 부회장께서 '소비재(B2C)에서 산업재(B2B)로; 두산의 변신(Transformation of Doosan)'을 주제로 강연하였다. 박태원 부회장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추진하던 사업을 '기업 간 거래'로 전환하는 과정을 투명하고 상세하게 설명했다.

강연 내용은 123년의 역사를 가진 두산의 변신을 시작으로 소비재에서 산업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자체 개발한 ISB(Infrastructure Support Business) 기업으로 전환과정을 3단계로 설명하였다. 1단계는 구조조정 및 기업매각 단계로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원칙을 제시했다. 특히 핵심사업의 매각과 스스로의 반성을 통해 변화는 큰 의미가 있었다. 2단계는 국내기업 인수 단계로 기업 인수의 원칙에 대해 두산중공업과 두산인프라코어의 사례를 통해 현실감 있게 설명하였다. 3단계는 해외기업 인수단계로 해외기업 인수 배경 및 시사점과 기업 인수 후의 PMI(Post-Merger Integration)전략을 소개했다.

변신의 성공요인은 독특한 지배구조, 적재적소의 인사배치 후 믿고 맡기고 끊임없는 지원, Open-door Policy, 집단지성을 활용한 최고의 대안 도출이라고 제시했고 결론으로 미래 산업의 변화를 예측하면서 이에 대응하는 변신만이 기업이 지속적으로 생존하고 성장할 수 있는 방법임을 강조하였다.

2020.05.27.(수)

192nd 조찬토론회
컴팩트 스마트시티 서울

김세용
SH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제192차 조찬토론회는 SH서울주택도시공사 김세용 사장을 초청해 "컴팩트 스마트시티 서울"을 주제로 진행했다. 김세용 사장은 고려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컬럼비아대 대학원을 졸업한 후에 고려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고려대학교 공과대학 건축공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제14대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을 역임하고 있다.

주제인 컴팩트 스마트시티는 SH공사에서 만든 용어로 "저이용되었던 토지를 보다 합리적으로 이용하자"라는 의미다. SH공사는 대형택지 개발이 종료되면 이후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을 통해 새로운 30년으로 나아갈 비전으로 "도시공간의 사회적 가치창출"을 설정했다.

"청신호"는 청년, 신혼, 가구를 나타내는 "호" 또는 "홈(home)"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SH공사의 새로운 브랜드로 1~2인 가구를 대상으로 공간을 창의적으로 확장하고 품질을 개선하는 등 다양한 커뮤니티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가치중심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것이다. 청신호 주택의 3대 특화 컨셉은 '한 면 더, 한 칸 더, 한 걸음 더'라고 했다. 이외에 지능화된 지능형 미래도시, 미래 글로벌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에너지 저감형 도시 수요에 맞춘 다양한 사업을 추진 및 준비하고 있다. 향후 30년은 사회적 가치창출을 위한 사업포트폴리오의 변화를 통해서 시민 주거복지를 위한 혁신을 이어가겠다고 발표했다.

김세용 사장은 SH 공간복지란 모든 세대와 계층에게 필요한 시설, 서비스를 지역에 맞춰, 좋은 공간으로 공급하는 것이라 정의하고 공간복지 실현을 위한 네 가지 전략도 제시했다. SH의 컴팩트시티 서울 만들기의 핵심은 도시의 외곽개발을 통해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 안의 저이용 토지를 활용하는 것으로 도로 위에 인공대지를 건설하여 단절된 지역을 연결하거나 생활형 SOC 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을 주변에 배치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법이 있다. 또한 녹지공간과 연결하여 쾌적함을 제공하고 스카이웨이 설치로 도로를 가로질러 역세권에 빠른 연결이 가능하게 했다. 이렇게 빗물펌프장, 버스차고지 등 기존 저이용 시설을 활용한 공간창출로 그 가치를 높여갈 것임을 설명했다.

강연 후 그 어느 때보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질문이 있었다. 스마트시티 사업과 관련하여 녹색공간, 그린벨트 정책에 대한 질문에는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있는 보일러 교체, 벽면녹화 등 다양한 활동에 대해 답변하였고 일자리 창출방안, 스마트시민 기업으로서의 구체적인 플랜, "청신호" 사업에 대한 규제완화, 시범사업에 대한 필요성 등 의견과 질문에 답변해주셨다.

2020.06.24.(수)

193rd

조찬토론회

프리콘: 시작부터 완벽에 다가서는 일

김종훈
한미글로벌 회장

제193차 조찬토론회는 최근 “프리콘: 시작부터 완벽에 다가서는 일”을 발간한 한미글로벌 김종훈 회장을 초청하여 “완벽한 프로젝트의 Solution PRECON”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들었다.

김종훈 회장은 서울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사회복지법인 “따뜻한 동행” 이사장을 맡고 있고 건설산업비전포럼 전임 공동대표이자 현재 이사를 역임하고 있다.

강연은 공사기간뿐만 아니라 프로젝트관리측면에서 기적 같은 건설프로젝트인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에 대한 사례로 시작되었다. 경이적인 공기단축 기록, 디자인과 시공사의 관리 능력, 발주자의 요구, 린 건설과 공업화 설계 등 지금도 달성하기 어려운 성과를 재미있는 일화와 함께 말씀하셨다. 건설프로젝트가 성공하기 어려운 이유와 왜곡된 시장 구조 및 배경을 극복하고 성공하는 프로젝트를 실현하기 위한 다섯 가지 핵심 성공요인인 발주자, 프리콘, 좋은 설계, 팀워크와 사람, 그리고 프로젝트 관리를 주제로 각각의 특징에 대해 비교적 상세히 설명하였다.

김종훈 회장은 건설프로젝트 성공의 어려움을 지적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프로젝트적 사고와 프리콘 실행을 제안했다. 그리고 프로젝트 성공은 단순히 공사비를 절감하고 공사기간을 단축하며 품질을 높이는 관리적 성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로 인한 지역 활성화에 따른 경제적 가치를 고려한 사업적 성공도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프로젝트의 성패를 결정짓는 리허설과 같은 프리콘의 중요성을 설명하였다. 프로젝트 성공과 프리콘이라는 다소 어려운 주제를 발표하였으나 발표 중간에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 마리나 베이 샌즈와 같은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랜드마크적 건물의 재미있는 일화를 통해서 보다 흥미롭고 호기심을 자극하는 강연이 진행되었다.

강연 후에는 질의응답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지만 건설종사자들의 인식변화에 대한 필요성, 공공분야의 변화 유도, 안전을 포함한 발주자의 역할의 중요성, 그리고 발표자료에서 소개된 핵심요인이나 2Day Cycle에 대한 보다 상세한 방법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국내 건설프로젝트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공공분야의 개선과 혁신이 필요함을 함께 인식하고 이를 위해 건설산업선진화위원장을 역임한 강연자에게 건설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한 역할과 노력을 요청하기도 했다.

2020.08.27.(목)

194th

주제토론회

정부 주택정책의 대안을 제시한다

주제발표	**정부 부동산 정책 검토** |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주제토론	**좌장** | 제해성 아주대학교 명예교수 **패널** | 이상영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안장원 중앙일보 부동산부 부장, 김유철 법무법인 금성 변호사, 이명범 P&D 파트너스 대표이사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제해성
아주대학교 명예교수

제194차 주제토론회는 정부주택정책토론회 - 정부 주택정책의 대안을 제시한다-를 주제로 개최했다. 한국경제 집코노미TV를 통해 생중계하였고 토론회 이후에도 큰 관심을 받았다.

주제발표에 나선 건국대학교 심교언 교수는 정부의 주택문제에 대한 인식과 목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주택문제에 대한 인식과 목표가 잘못된 상황에서 졸속으로 수많은 정책을 내놓아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고 역설하면서 정부 주택정책의 목표를 명확히 하고, 정책이 서민경제에 미칠 영향을 심도 있게 검토한 후에 체계적인 정책을 발표할 것을 주문하였다.

주제토론의 좌장은 제해성 아주대학교 명예교수가 맡았으며, 이상명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안장원 중앙일보 부동산부장, 김유철 법무법인 금성 변호사, 이명범 P&D 파트너스 대표이사가 패널로 참여했다.

제해성 교수는 효율적인 토론을 위해 4가지 주제 ‘첫째, 양도세, 보유세 강화로 집값이 잡힐 것인가? 둘째, 분양가상한제는 올바른 정책인가? 셋째, 임대차3법으로 서민이 보호되는가? 넷째, 정부의 공급은 충분한가?’를 순서대로 질의하며 토론을 진행했다.

건설포럼의 전임 공동대표인 권도엽 前국토해양부 장관은 마지막 의견으로 단기적 시장안정을 위한 노력이 중장기적으로는 시장을 불안하게하고 주거복지 수준의 향상을 지연시킬 수도 있으며, 주택시장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연구를 통해 정책이 보완되고, 발전되어 주거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고, 도시가 발전되고, 국민들의 소득과 재산도 안정적으로 지켜지고 커졌으면 하는 바람을 이야기하였고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2020.11.04.(수)

195th

조찬토론회

한국 철도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김상균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제195차 조찬토론회는 철도분야 최고의 전문가이자 국가철도공단의 김상균 이사장을 모시고 “한국 철도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주제의 강연을 들었다. 김상균 이사장은 제14회 기술고시에 합격한 후 철도청 건설본부장, 건설교통부 철도국장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2020년 9월 20일 개칭한 “국가철도공단”의 이사장을 맡고 있다.

1905년 서울-부산 간 14시간 걸리던 출장길을 2시간 10분에 주파하는 KTX 사업을 통해 전국을 일일생활권으로 좁히고, 일본이 놓은 철도의 지속적인 개선사업을 통해 시간을 단축하고 안전성을 향상시켜 세계 최고의 기술을 확보했다는 사실에서는 대한민국 철도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다. 2021년 철도 건설사업 예산은 7조 7천억 원이지만 1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역사상 처음으로 철도사업비가 도로사업비를 넘어설 것이라고 말씀했다.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으로 더욱 발전할 국가철도의 미래는 건설이 대한민국의 미래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기에 충분했다.

국내는 물론 2021년 기준 278조 규모의 해외사업에도 적극적인 국가철도공단의 시장 확대 노력 또한 놀라웠다. 2005~2020년까지 총 21개국 71건, 4,830억 원의 사업을 수주하여 수행한다고 했다. 사업의 내용도 시공이 아닌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활용한 타당성조사, 설계, PM/CM이 주가 되고 있어 철도분야에서는 선진국과 경쟁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심어 주었다.

북한 철도에 대한 발표도 있었다. 북한의 열악한 철도환경으로 화물운송의 90%를 담당하고 있는 철도가 시설노후화, 선형불량으로 평균속도 30~50km/h로 낮은 속도밖에 낼 수 없고, 철도의 핵심기술인 전기시스템도 70년대 수준으로 낙후되어있다고 한다.

건설인들이 궁금해하는 사업에 대한 발표로 강의장 분위기가 고조되었다. 사업비를 예측할 수 없는 대륙횡단철도, 사업비 131조원의 한중해저터널, 100~200조에 달하는 한일해저터널, 20조 원에 달하는 호남~제주터널은 언젠가는 건설인들이 기획하고, 설계하고, 건설해야할 세계적인 사업이 될 것이다. 철도는 발전하고 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하이퍼루프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한국도 “한국형 하이퍼튜브”를 개발하고 있으며 2026년 시험운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환경보호를 위해 수소철도차량의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했다.

2020.12.04.(금)

196th

조찬토론회

코로나19 동반시대 : 2021년 국내외 경제와 경영환경 전망

김현욱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제196차 조찬토론회는 KDI국제정책대학원의 김현욱 교수를 모시고 “코로나19 동반시대 : 2021년 국내외 경제와 경영환경 전망”을 주제로 강연을 들었다. 김현욱 교수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Columbia University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금융감독원, 공무원연금공단, 기획재정부, 한국거래소, 국가통계위원회에서 자문 및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현재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겸 기획처장을 역임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를 사람간 거리두리에 의한 Digitalization과 국가간 거리두기에 의한 De-globalization로 정의하고 비용절감형 Global Value Chain에서 시장근접형 National Value Chain으로 변화에 따른 각자도생을 모색할 시기로 말했다. 글로벌 경제의 충격에 대해 미국이 겪고 있는 심각한 경기변동과 유로존, 일본, 중국의 경제 상황을 설명하면서 반등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그러나 여타 신흥국의 경우는 경기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결국 세계경제는 코로나19 종식 여부에 의존하며 글로벌 교역은 최악은 피했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회복은 지연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경제는 충격이 이미 가시화되어 있지만 초기 공급 충격 이후 수요 충격의 성격은 내수보다는 수출로 변화하고, 산업도 서비스업 중심으로 급격히 위축되고 있음을 제시했다. 설비투자를 보면 나아지는 것으로 보이나 실상은 반도체와 생활형 SOC 등 특정 분야가 경제를 이끌고 있고 대외 수요 위축의 부정적 위축으로 수출이 줄어들고 이는 다시 생산 부진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그리고 반도체 수출 호전으로 회복세로 보이나 착시 가능성이 있어 본격적인 회복 기대는 시기상조라고 예측했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한국경제는 선방했지만 경기 충격이 단기에 마무리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방역 충격에 대한 경제 활동 회복력은 점차 개선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변화에 대한 적응과 대응에 있어 실물경기는 위기인데 주식시장이 활황인 점은 결국 유동성의 문제이고 확장적 정책에 의한 버블가능성을 경고했다. 장기전망의 어려움은 있지만 반도체는 성장할 것이고 통신 및 방송장비는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저하될 것이라고 했다.

결국 포스트코로나시대의 한국경제는 국내외 경제환경에 놓인 부정적 요인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식과 기술 역량을 통해 이겨낼 긍정적인 요인이 존재하고 있으니 잘 대응하여 생산성과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개선해 나가면 생존을 통한 성공가능성이 열려있다는 점을 강조하면 강연을 마무리 했다.

197th

국내세미나

건설산업의 미래비전과 발전전략

주제발표
1. 건설산업 선진화 비전 2020의 성과와 시사점 | 조훈희 고려대학교 교수
2. 2030 건설산업 선진화 비전과 전략 | 유정호 광운대학교 교수
3. 2040 건설 생산체계 혁신 방향 | 김태황 명지대학교 교수

주제토론
좌장 | 김한수 세종대학교 교수
패널 | 강동렬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설기술본부장, 이상기 GS건설 인프라부문 대표, 최인걸 ㈜유신 부사장, 이양재 건축사사무소엘리펀츠 소장, 김우영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김종욱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사무관

조훈희
고려대학교 교수

유정호
광운대학교 교수

김태황
명지대학교 교수

이번 국내세미나는 2009년 민·관 합동으로 구성한 건설산업선진화위원회를 통해 공포한 “건설산업 선진화 비전 2020”의 후속 활동으로 포럼에서 수행하고 있는 “2030 건설산업 비전 수립 연구”의 중간점검과 의견수렴을 위해 개최했다.

“건설산업 선진화 비전 2020”의 3대 목표, 5대 전략 및 20대 추진과제의 성과를 분석하여 핵심성공요인과 실패요인을 도출하고, 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한 시사점과 향후 10년을 좌우할 건설산업의 비전, 핵심가치, 목표 및 전략을 제시하고, 건설인 의견을 듣는 자리로 진행되었다.

2030 건설산업 비전은 광운대학교 유정호 교수가 발표하였다. 유정호 교수는 건설산업이 향후 10년간 추구해야 할 핵심목표는 투명성, 생산성, 글로벌경쟁력 순으로, 핵심과제는 4차 산업혁명 대응, 설계, 엔지니어링 및 관리능력의 향상, 발주 및 계약제도 개선 순으로 제안되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방안들을 설문조사를 근거를 제시하였다.

비전 2030의 목표로 “건설산업 생산성 50% 향상”을 선정하였다.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G7 평균의 65.3% 수준으로 매우 낮은 실정이다. 전략 목표로는 기술경쟁력 강화, 건설사업 수행환경 혁신, 인력양성체계 혁신을 주장하였다. 또한 전략목표 달성을 위해 총 12개의 실행과제를 제안하였는데 비전 2020에서 제시한 발주기관의 역량 강화와 함께 건설 R&D 추진체계 개선, KPI 거버넌스 및 Best Practice 보급체계 구축, 기술 및 외국인 인력의 양성체계 구축 등이 제시되었다.

포럼은 본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청취하여 “2030 건설산업 비전”을 수립할 예정이며, 특히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하여 시나리오 기반의 단계적 로드맵을 제시하고, Action을 위한 산학연관의 역할과 책임(R&R)도 명확히 규정할 것이라고 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도 3명의 발표자를 비롯한 좌장 및 패널 그리고 현장에 참석해주신 분들의 열띤 토론으로 약 2시간30분간의 세미나를 진행했다.

2021.01.27.(수)

198th

조찬토론회·정기총회

건설산업비전포럼의 발전방안

제198차 정기모임에서는 건설산업비전포럼의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건설포럼의 발전을 위한 토론에는 1)포럼에 산학연관의 젊은 신규 회원들의 영입과 건설산업의 오피니언 리더로서 다양한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건설인 뿐만 아니라 언론, 금융, IT 등 非건설인들의 영입에 나서야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2)매년 건설산업의 혁신을 위한 大主題를 선정하고 해결을 위해 집중된 노력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3)87만에 달하는 건설기술인이 자긍심을 갖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포럼이 힘써야한다는 주문과 4)반도체를 앞세운 전자과에 우수 인재가 집중되는 것과 같이 건설산업에도 우수 인재가 모일 수 있도록 건설관련 학과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강력한 요청과 산업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대학의 교수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주문하였다.

5)포럼이 2023년이면 20주년이 되는 만큼 정관 제2조(목적)를 시대변화에 맞게 개정하자는 의견과 함께 6)건설산업의 인식 개선이 중요한 만큼 건설에 가장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인사와 가장 우호적인 인사를 초청하여 말씀을 듣고 건설산업에 대한 현재의 이미지를 확실히 인식하고 인식개선운동에 임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현수 공동대표는 회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보다 강력하고,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포럼이 되겠다는 답변으로 2021년 첫 번째 정기토론회를 마무리하였다.

2021.02.24.(수)

199th

조찬토론회

부처와 공자의 만남

이영호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교수

제198차 조찬토론회는 인문학 강연으로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이영호 교수를 모시고 “부처와 공자의 만남”이란 도저히 내용을 상상할 수 없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부처와 공자의 만남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사실 연대로 보면 공자는 부처가 열반하기 7년 전에 태어났다. 서로 만날 수는 없었지만 BC 2년 경 불교가 중국으로 전파되면서 인도문명(불교)과 중국문명(유교)이 만날 수 있었다. 부처와 공자의 사상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부처도, 공자도 “나는 없다”라는 것이다. 부처의 사상은 금강경에 나오는 “無我相, 無人相, 無衆生相, 無壽者相”이다. “불행이나 슬픔을 겪는 내가 없고, 너도 없으며, 잘나고 못난 사람도 없고, 오래 사는 사람도 없고 요절하는 사람도 없다”는 것이다. 즉, “아파하는 사람이 없는데 아픔이 어디 있겠느냐?”하는 것이다. 공자의 사상도 논어에서 “無意, 無必, 無固, 無我”로 표현된다. “편견이나 억측하지 않고, 반드시 해야 할 것도 없고, 고집할 것도 집착할 것도 없고, 아파하는 존재가 없는데 아픔이 어디 있겠느냐”라는 의미라고 한다.

이러한 학문을 이어받아 발전시킨 朱子學에는 道心과 人心이 있다고 한다. 들어도 이해하기 어려운 사상이다. 하지만 人心은 감정, 욕구, 지향, 집착, 불안, 즐거움, 생각 등 우리가 쉽게 감지할 수 있는 것들이며, 우리는 언제나 위태하고 불안한 이러한 人心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여기서 인간이 느끼는 불행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道心은 人心이 생성되는 혹은 人心을 자각하는 어떤(?) 그릇 혹은 바탕인데 감지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더욱이 道心에 이르기 위해서는 人心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人心을 통해 道心을 자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너무 어려운 사상이라 쉬운 예를 들었다. 우리가 자장면의 맛을 아무리 설명해도 알아듣기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자장면의 맛을 보는 순간 모든 설명이 의미가 없게 되며 자장면의 맛을 알게 된다는 것이다. 처음 人心에서 道心을 자각하는 것을 불교에서는 “初見性”이라고 하는데 자장면의 맛을 보는 것과 같은 初見性을 경험하고 이것이 익숙해지면 道心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初見性을 경험하고 道心 속에서 살게 되면 과거에 사로잡히지 않고 미래를 걱정하지도 않으며, 지금 여기서의 삶을 불안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강연이 끝난 후 질의응답과 이현수 공동대표의 마무리 말씀으로 끝을 맺었다.

2021.02.26.(금)

200th

주제토론회

제2차 정부 주택정책 토론회 : 정부 주택정책 이렇게 가야한다

주제토론 **좌장** | 제해성 아주대학교 명예교수
패널 | 지규현 한국주택학회 회장, 김선덕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교수, 박천규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진미윤 LH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

강호인
전) 국토교통부 장관

제해성
아주대학교 명예교수

2021년 2월 26일 제200차 주제토론회는 한국주택학회가 주최하고, 건설산업비전포럼이 주관한 “제2차 정부 주택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본 행사는 건설산업비전포럼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 되었다.

포럼 공동대표이신 강호인 前국토교통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정부가 “2·4 대책”을 통해 정책기조를 ‘수요 억제’에서 ‘공급 확대’로 전환하였지만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기도 전에 현실성이 부족한 추가 대책이 쏟아지면서 시장의 혼란과 국민들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보다 발전적이고, 본질적인 해결책을 찾아달라고 요청하였다.

주제발표를 맡은 진미윤 LH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은 집값이 오르는 원인을 상세히 분석하였으며, 그에 대한 발전적인 해결책도 함께 제시하였다. 지규현 한국주택학회 회장은 주택 수요관리에서 공급정책의 전환에 따른 의미와 과제를 발표하면서 정부정책의 실패원인과 해결을 위한 정책방향을 발표하였다. 연세대 미래캠퍼스 김선덕 교수는 문제해결을 위해 규제 완화와 정책의 유효성여부 검증 및 보완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박천규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주택시장의 10대 미래상을 제시하고, 중장기 대책에 중점을 둔 발표를 하였다.

패널토론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2·4 대책”의 유효성에 대한 평가와 용적률, 주택관련 세금문제, 주택공급의 다양성 확보 등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토론을 주도한 아주대 제해성교수는 정부의 노력이 국민들이 주거불만을 해소하는데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면서 물량의 확대도 중요하지만 지역, 시기, 가격 등 맞춤형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주택문제 해결의 최선책이 될 것이라며 토론회를 마무리하였다.

2021.03.30.(화)

201st

주제토론회

The Direction of Digital Innovation for Future Construction

주제발표 **The Current and Future Changes in Construction due to COVID 19 and the Role of Digital Technologies** | Ricky YC Tsui / Arup, R&D Director

주제토론 **좌장** | 이강 연세대학교 교수
패널 | 김우진 DL E&C BIM팀장, 김종훈 삼성물산 상무, 정광회 현대건설 융합기술연구팀장, 정연석 GS건설 스마트건설연구팀 책임, 정일국 대우건설 디지털건설팀 부장, 차홍석 한미글로벌 DT추진실 이사

건설산업비전포럼은 2019년에 “The Direction of Digital Innovation for Future Construction”을 주제로 영국기업 및 Constructing Excellence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를 계기로 건설산업비전포럼과 주한영국대사관은 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해 영국의 건설기업과 한국 기업 간의 교류의 장으로, 영국방문을 목적으로 하는 시찰단을 구성하는 “CVF Scoping Visit Program”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2021년 3월에 런던에서 개최예정인 “Future Build”가 취소됨에 따라 국내 기업인 7~8명을 초청하여 영국기업과 화상으로 토론하는 기업인 초청 라운드테이블을 진행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팬데믹 이후 디지털 기술은 건설기업의 희망인가?”를 주제로 국내 건설기업의 디지털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전문가들을 모셨다. 영국 Arup의 Ricky YC Tsui박사가 “The Current and Future Changes in Construction due to COVID 19 and the Role of Digital Technologies”라는 주제로 발제하였고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이강 교수께서 진행을 맡았다. 이후 토론자들은 1) 여러분은 코로나 영향이 있어나요? 어떤 경험을 하셨는지요? 영향이 있었던 부분과 생각보다 영향이 없었던 부분은? 앞으로는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요? 2) 디지털 기술이 도움이 되셨나요? 어떤 부분에서 도움이 되셨나요? 코로나를 떠나서라도, 향후 디지털 기술이 실질적으로 건설산업에 도움이 되려면 어떤 부분이 개선되어야 할까요?을 질문으로 토론을 진행했다.

본 프로그램을 후원하는 영국 국제통상부(구 영국 무역투자청)는 영국의 정부 기관으로 한영 간의 활발한 무역 투자를 장려하고 한국 시장 내 영국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를 돕는 한편, 영국 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 제공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주한 영국대사관 내의 영국 국제 통상부는 무역팀과 투자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영 간의 활발한 무역투자 파트너십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2021.05.26.(수)

202nd

국내세미나

바이든 정부의 미국 건설정책과 우리의 진출방안

주제발표 **일본사례를 통한 한국건설의 미국진출 방안** | 성범용 중앙대학교 석좌교수

주제토론 **좌장** | 이현수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패널 | 한찬건 한미글로벌 부회장, 김용구 도화엔지니어링 사장, 임한규 KIND 사업개발본부장, 오성익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정책과장

성범용
중앙대학교 석좌교수

제202차 국내세미나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KIND)가 주최하고, 건설산업비전포럼이 주관하는 "바이든 정부의 미국 건설정책과 우리의 진출방안"을 주제로 현장과 온라인중계를 통해 동시 개최하였다.

강호인 공동대표는 개회사에서 해외시장의 편중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세계 2위의 건설대국 미국의 시장 규모가 1조 3천억 달러에 달하고 있으며 3월 초 취임한 바이든 대통령이 사회기반시설 재건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2조 달러 규모의 초대형 인프라 공사를 준비하고 있어 한국 건설산업도 미국시장 진출에 노력할 것을 요청하였다.

중앙대학교 성범용 석좌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일본 대형 건설사의 경우 자국의 투자기업과 동반 진출하여 권역별 거점화를 추진하고, 권역 내에서 과감한 현지화를 통해 시장 확보에 성공한 사례를 소개하면서 국내 건설기업도 유사한 전략을 구사할 것을 요구하였다. 다만 대한민국의 경우 대형 건설기업들이 대부분 그룹사의 일원으로 수주 증대 및 시장 확보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패널토론에 나선 한찬건부회장은 한미글로벌의 경우 현지기업을 인수하는 M&A를 통해 시장 확대에 노력하고 있으며, 이미 Otak, DAY cpm을 인수하여 미국은 물론 세계시장을 공략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화엔지니어링의 김용구사장은 2010년 캘리포니아 법인을 설립하고 태양광, 철도, 상하수도를 목표로 노력하고 있으며, KIND의 임한규본부장은 아직 완료하지는 못했지만 미국에 3개의 프로젝트 선정하고 국내 기업과 동반진출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의 오성익과장은 한국의 미국시장 진출사례가 매우 적다고 전제하면서 바이든 정부가 건설투자를 확대하고 있지만 미국의 시장상황이 국내와 달라 진출에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좌장을 맡은 서울대 이현수교수는 대한민국 건설산업이 중동과 아시아를 탈피하여 미국, 독일, 스페인, 일본 등과 맞서 시장을 넓힐 수 있는 기술력, 관리능력, 재무조달능력을 보유해야 생존이 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미국시장 진출을 통해 제2의 도약을 준비하자는 말씀으로 모임을 마무리 하였다.

2021.06.23.(수)

203rd

조찬토론회

스마트 그린시티, 서울시 강남북 고속도로 입체화 계획

주제발표 이정형 중앙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주제토론 **좌장** | 이복남 서울대학교 건설환경종합연구소 교수
패널 | 이승호 대한토목학회 회장, 임동우 홍익대학교 교수, 조희옥 서초구청 미래비전기획단장

이정형
중앙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2021년 6월 23일 건설산업비전포럼은 중앙대학교 이정형 교수를 모시고 경부고속도로의 지하화를 통해 강남과 강북을 연결하여 교통과 청년주택 문제의 해결은 물론 삶의 질 개선 방안을 제안한 "스마트 그린시티, 서울시 강남북 고속도로 입체화 계획"을 듣고 전문가 토론의 자리를 가졌다.

발표에서 이정형 교수는, "강남북 고속도로"는 자율주행 자동차, 대기오염 순화 기술, 제로 웨이스트 및 스마트 커뮤니티를 실현하는 융복합 스마트 그린시티 사업이며, 가장 중요한 투자비 조달을 위해서는 서울시가 경마장 부지를 매각하여 서울숲을 조성한 사례와 같이 IC부지 매각을 통해 약 3.5조원의 재원을 확보하여 경부간선도로 입체화 사업에 충당하고, 완충녹지의 매각을 통해 추가로 2조원의 재원을 확보하여 강북의 경부선 철도 등 타 사업의 재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사업의 성공은 강남북 고속도로 입체화를 통한 신 성장축을 형성하는 사업이며, 민간재원을 활용하여 도시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만성적인 상습정체구간의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했다. 또한, 미이용 공간을 활용하여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도심 청년 주거를 공급하고 도로 상부의 공원화로 녹지 랜드마크를 형성하고 대기환경까지 개선하는"융복합 스마트 그린시티" 라고 했다. 미국, 일본, 프랑스에는 수많은 성공사례가 있으며 우리도 서울 강남북 고속도로 입체화를 통해 새로운 가치와 경제, 문화, 주거, 라이프 스타일을 선도할 수 있는 대한민국 랜드마크 도시개조가 필요한 시기라고 이야기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이복남 교수가 좌장을 맡아 주제토론을 진행했다. 이복남 교수는 토론을 마무리하며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는 대한민국의 Hot Issue라고 했다. 모두가 공감하는 것은 정답이 없어도 우리가 지혜를 모아 반드시 풀어가야 할 문제이며,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 전체, 전국의 문제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했다. 도시교통 및 공간이용은 예측불가성이 있고 성공사례로 평가되고 있는 Big Dig도 사업기간이 늘어나고 사업예산도 5.8배가 늘었으며 사업적으로서는 성공했지만 관리적으로는 실패하였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그만큼 도시재개발은 변수가 많다는 것이며 그런 면에서 종합 컨트롤 타워가 중요함을 다시 강조했다.

2021.07.21.(수)

204th

주제토론회

영국건설시장, 한국 건설기업에게 매력적인가?

주제토론 **좌장** | 김한수 세종대학교 교수
패널 | 이승훈 해외건설협회 실장, 박기정 법무법인 율촌 영국변호사, 장우진 SK 에코플랜트 그룹장, 윤성욱 Arup 한국대표

김한수
세종대학교 교수

이번 주제토론회는 영국 국제통상부(구 영국 무역투자청)의 후원으로 진행되었다. 영국 국제통상부는 영국의 정부 기관으로 한영 간의 활발한 무역 투자를 장려하고 한국 시장 내 영국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를 돕는 한편, 영국 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 제공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주한 영국대사관 내의 영국 국제통상부는 무역팀과 투자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영 간의 활발한 무역투자 파트너십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영국건설 산업은 Covid-19의 영향을 받기 전인 2019년에 그 규모가 1,790억 파운드를 넘었고 UK GDP(Gross Domestic Product)의 약 7%에 해당한다. 글로벌 시장에서 영국 건설기업의 매출액은 ENR에 의하면 세계 8위 규모다. 특히 설계분야에서는 세계 3위의 위상을 가지고 있는 큰 시장이다. 국내 건설기업은 과거부터 영국 건설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노력했고 최근 최초로 인프라 민관협력사업(PPP)를 수주하는 등 기회를 노리고 있으나 타 지역에 비해 실적이 많은 것은 아니다.

이번 간담회는 “영국건설시장, 한국 건설기업에게 매력적인가?”를 주제로 영국 건설산업과 인연이 있는 전문가를 모시고 영국 건설시장이 국내 건설기업에게 어떤 의미이고 보다 많은 참여와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무슨 노력이 필요한지를 각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견을 나누어 영국 건설시장 진출을 고민하고 있는 국내 기업에게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기회를 마련했다.

영국에서 학위를 받고 PM회사에서 영국건설산업을 경험한 세종대학교 김한수 교수의 진행으로 해외건설협회 미주 및 유럽 담당인 이승훈 실장, 영국변호사인 법무법인 율촌의 박기정 변호사, 최근 실버타운 수주한 SK 에코플랜트의 해외 PPP사업 담당인 장우진 그룹장, 그리고 세계최고의 구조엔지니어링 회사인 영국 Arup의 한국대표인 윤성욱대표가 간담회 패널로 참석했다.

간담회는 각 참석자의 영국건설과의 인연을 소개하고 영국 건설시장 진출에 관련 현황 및 현안에 대해 이야기했다. 또한 각자의 경험을 통해 영국 건설시장 진출 방안, 형태, 전략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국내 기업이 영국건설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영국 대사관의 역할이나 지원사항에 대한 제안이 있었다.

2021.10.06.(수)

205th

조찬토론회

프롭테크 미래와 직방의 비전

안성우
한국프롭테크포럼 의장

제205차 정기토론회는 프롭테크 기업 중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한 직방 안성우 대표를 초청하여 “프롭테크 미래와 직방의 비전”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들었다. 안성우 대표는 서울대학교 통계학과를 졸업하고 2005년에 삼일회계법인에 입사하였다. 2010년에 직방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 한국프롭테크포럼 의장과 코리아스타트업포럼 공동의장을 역임하고 있다.

강연은 디지털이 오프라인의 경험과 환경을 바꾼다는 명제아래 프롭테크 산업의 전망과 직방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진행되었다. 새로운 산업의 성장은 투자 유치 규모로 그 성장을 가늠할 수 있는데 국내 프롭테크 산업은 누적 투자 유치 금액이 2020년 1조 3,997억 원에서 2021년 8월 기준으로 3조 8,221억 원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직방은 프롭테크 스타트업으로 새집을 구할 때 설레임이 현실적으로 유쾌하지 않은 경험으로 시작한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술과 비대면을 통해 집 찾는 경험을 개선한 사업모델로 성장했다. 최근 코로나 19 시대를 맞아 집에서도 사무실처럼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자 업무장소가 특정되어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업무결과를 공유하고 미팅을 진행하고 상호간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공간구축을 고민하면서 메타버스를 활용한 온라인 공간을 개발했다.

안성우 대표는 실제건물과 도시공간을 구현한 “메타폴리스”를 구축하여 스타트업 최초로 원격근무를 시작하였고 강연 현장에서 직접 시연하셨다. 메타버스를 통해 주거 지역 선택의 변화와 도시 구조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셨고 이런 기술을 발전시켜 기술로 공간의 경험을 혁신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강연 후에는 질의응답 시간에는 새로운 사업모델에 대한 질의와 협력방안 그리고 스타트업이 성장하기 위한 투자 포인트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공동대표이신 이현수 교수는 마무리 인사말에서 메타버스를 활용한 프롭테크의 성장은 세계 프롭테크 시장을 선점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보이지 않는 정보수집 등 부작용을 염두에 두면서 프롭테크를 발전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2021.11.10.(수)

206th

조찬토론회

ESG투자 확산과 기업의 대응 전략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

제206차 조찬토론회는 최근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ESG(Environmental, Social and Corporate Governance)에 관해 ㈜서스틴베스트의 류영재 대표를 모시고 "ESG투자 확산과 기업의 대응 전략"을 주제로 강연을 들었다.

류영재 대표는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서 학사와 석사학위를 받으시고 영국 Ashridge Business School에서 MBA를 수료하였다. 2017년 대통령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을 지내고 현재는 한국투자공사 운영위원, (사)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 기획재정부 연기금 투자풀 운영위원을 역임하고 ㈜서스틴베스트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강연은 기존의 기업들이 추진해온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과 같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ESG의 차이점을 통해 ESG가 무엇인지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자료와 사례를 통해 설명했다. 또한 ESG의 투자는 워렌버핏의 투자방식과 비교하며 장기적으로, 비재무적 투자를 포함하여, 그리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해야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ESG는 반드시 해야 하는 사회적 투자이고 실제로 기업들이 시장에서 성장하는 기준이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류영재 대표는 마지막으로 ESG 경영에 대한 제언을 통해 기업이 대응해야 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강연 후에는 정해진 시간을 넘어서까지 많은 질문이 나와 ESG에 회원 분들의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업입장에서 코로나19 사태와 같이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ESG 경영의 타당성과 ESG 경영에 따른 재무적 성과전망, Environmental와 Governance 중 한국적 상황에서 우선적인 이슈, 다양한 평가기준과 기관 및 거버넌스 평가의 문제점에 관한 질의응답이 진행되었다.

토론회는 건설포럼 공동대표이신 이현수 대표께서 환경을 생각하는 ESG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하시는 맺음말로 마무리되었다. 이번 강연을 통해 회원들의 ESG 이해를 높이고 향후 발전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2021.11.25.(목)

207th

국제세미나

발주자 혁신이 건설산업 혁신의 출발점이다

주제발표
1. 영국 발주자 혁신운동과 성과(The Intelligent Client in UK construction) |
Don Ward / Director of Constructing Excellence International
2. 한국 발주자 혁신의 시사점(Client Innovation: Korean Context and Implications) |
김한수 세종대학교 교수

주제토론
좌장 | 김한수 세종대학교 교수
패널 | Mark Beirne / Managing Director of Cara EPC Ltd,
이복남 서울대학교 산학협력중점교수, 진상화 현대건설 상무

"발주자 혁신이 건설산업 혁신의 출발점이다."라는 주제로 2021년 11월 25일, 건설산업비전포럼이 주관한 제207차 정기모임인 국제세미나는 이현수 공동대표의 개회사로 막을 열었다.

이현수 공동대표는 발주자는 프로젝트의 리더이자 건설산업의 리더라고 전제하면서 "발주자가 혁신하지 않으면 건설산업의 혁신은 없다!"고 강조하였다. 포럼이 2009년, "건설산업 선진화 비전 2020", 10년이 지난 지금 "2030 건설산업 비전"을 작성하여 정부에 이행을 촉구하였지만, 혁신 정책들은 거의 집행되지 않고 있어 건설산업은 아직도 부패산업, 위험산업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디지털 산업혁명, OSC, ESG 경영 등 급변하는 세계시장에서 생존과 발전을 위해서는 발주자를 필두로 관/산/학/연이 함께 혁신을 추진해야 건설산업의 생존과 도약이 가능하다고 촉구하였다.

영상으로 축사를 전한 영국의 Mr. Simon Smith 대사는 영국의 혁신사례가 한국 건설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라며, 영국대사관과 건설포럼이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조를 통하여 상호 발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하였다.

주제발표자인 CE의 Mr. Don Ward는 금년 수행한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안전, 공기, 공사비, 이윤 등 영국의 건설산업 혁신의 성과를 발표하고 이러한 성과를 이룬 것은 발주자가 혁신에 앞장섰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다. 특히, 성공적인 프로젝트 사례를 하나하나 예를 들어 설명하고, 발주자가 혁신을 리드하고 프로젝트의 위험을 공유하며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건설산업 혁신이 가능하다고 강조하였다.

두 번째 발표자인 세종대학교 김한수 교수는 "인텔리전트 발주자(Intelligent client)와 인테리전트 서플라이 체인(Intelligent supply chain)의 상생이 우리 건설산업이 꿔야 할 꿈이다."라고 전제하면서 넓은 의미의 발주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감사원 등이 포함되는데, 공적 특성을 지닌 공공 발주자의 혁신이 우선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면서 건설 프로젝트와 건설산업의 수준은 발주자의 수준을 절대로 넘지 못한다며 발주자의 혁신이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김한수
세종대학교 교수

김한수 교수는 인텔리전트 발주자가 되기 위해서는 △'불만족스러운' 발주자의 자각 및 욕심 △발주자의 영향력 인식 △발주자의 열린 마음과 학습 태도 △프로젝트의 니즈 및 가치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적극적인 소통 △발주자의 올바른 역할과 역량의 이해 △팀워크의 가치 이해 및 환경 조성 △높은 '눈높이'로 수준 높은 성과 요구 △건설 프로젝트 초기단계 및 프리콘의 중요성 이해 △지식과 경험의 축적, 공유 및 재활용이 필요하다고 적시하였다.

1시간 30분에 걸친 토론시간에는 두 분의 발표자와 함께 영국 측의 Cara EPC의 Mr. Mark Beirne, 서울대학교 이복남 교수, 현대건설 진상화 상무가 한국과 영국의 발주자의 역할, 입낙찰 제도, 프로젝트 수행 방식 등을 비교하며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본 국제세미나는 건설포럼이 정부기관을 포함한 발주자의 혁신을 요구한 첫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208th 조찬토론회
주역 이야기

김언종
고려대학교 한문학과 명예교수

제208차 조찬토론회는 인문학 강연으로 고려대학교 한문학과 김언종 명예교수를 모시고 "주역 이야기"를 주제로 진행되었다.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방역조건이 강화된 가운데에도 26명의 회원이 자리를 함께 해주셨다. 김언종 교수는 경희대학교 국문과를 졸업하고 국립대만사범대학 대학원에서 중국문학으로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경희대학을 거쳐 고려대학교 한문학과 명예교수로 계시며, 다산 정약용, 퇴계 이황, 공자 등의 유튜브 강의로 유명하다.

김언종 교수는 첫 일성부터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다. 주역은 사이비 과학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진시황의 분서갱유에서도 살아남은 과학에 근거를 둔 학문이라고 말씀하셨고, 주역은 주나라(BC1046~BC256) 때 발행한 학문으로 천도(天道)와 인도(人道)의 동일성에 관한 탐구이며 천인합일(天人合一)에 근거하고 있다고 했다. 64(괘사,卦辭) + 384(효,爻) = 450(조,條)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요한 사상은 물극필반(物極必反)의 원리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며 즉, 양(陽)과 음(陰)처럼 사물에는 끝없는 대립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주역을 누가 만들었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주장이 있지만 김언종 교수는 복서인(卜筮人) 창작설을 힘주어 강조하셨다. 주역이 세상에 널리 퍼지게 된 것은 공자(孔子)가 주역을 인정하지 않다가 나이 들어 본질을 알게 되었으며, 늦게 알게 된 것을 아쉬워하자 제자들이 뜻을 받들어 주역의 풀이집인 "역경"을 집필하여 삼경(시경, 서경, 역경)에 포함되었다고 말씀하셨다.

또한 맹자와 순자를 비교 설명하였으며, 좋은 괘인 건괘(乾卦)와 곤괘(坤卦)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주셨다. 특히, 대장동 사건으로 유명해진 괘(卦)인 천화동인(天火同人)과 화천대유(火天大有)에 대하여 재밌는 설명을 했다.

하지만 가장 좋은 괘는 겸괘(謙卦)라고 하시며 교만하고 인색하면 인간이 아니라고 질타했다. 회사 경영이나 개인사가 잘될 때 교만하지 말고, 힘들 때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최선을 다했는데도 결과가 안 좋을 때는 이제 바닥을 쳤으니 올라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노력하라는 것이 주역의 가르침이라는 결론내렸다.

2022.01.17.(월)

209th

주제토론회

건설프로젝트에서 전문가를 어떻게 활용하는가?

주제토론 **발제 및 좌장** | 신연수 법무법인 피터앤김 파트너변호사
패널 | 김승현 법무법인 Bae,Kim&Lee 파트너변호사, 권재하 법무법인 김앤장 외국변호사, 고안호 HKA Korea 대표, 편영준 FTI Consulting 전무

신연수
법무법인 피터앤김
파트너변호사

영국은 금융, 법률, 조선, 컨설팅 분야에서 오랫동안 강점을 갖고 다른 산업 분야에 진출하여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는데 건설산업 역시 해당 분야 전문가를 활용하여 문제를 처리하고 분쟁을 해결했다. 그러나 국내 건설산업은 국제 건설 분쟁 해결과 기술 전문가의 효율적 활용에 관심이 많지만, 실질적으로 전문가를 활용하기 보다는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 신속한 결론을 얻지 못하거나 예상치 못한 손실이 발생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건설업계와 컨설팅업계를 선도하고 있는 영국과 한국의 전문가를 모시고 국가 간 분쟁 예방 및 관리, 성공 방안을 통해 영국 산업계의 깊이 있는 경험과 분쟁 해결 전문가 활용에 관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건설프로젝트에서 전문가를 어떻게 활용하는가?(How shall we use experts in construction projects?)라는 주제에 맞게 1) 국제 건설 분쟁과 전문가의 역할(International construction disputes and the role of experts), 2) 변호사와 고객의 관점에서 독립적인 전문가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Why do we need independent experts : explanation from lawyers' and clients' perspectives), 3) 건설분쟁에 대한 기술전문가와의 협력 사례 : RCA 조기참여의 중요성, 현장방문, 공동의 검사협약 (Working with technical experts in construction disputes (case study): the importance of early involvement for RCA, site visits, joint test protocol), 4) 우수한 기술전문가 지명을 위한 체크리스트 : 시장조사의 중요성, 이전 간행물, 자격요건, 분쟁현안에 대한 전문성 (Checklist for appointing good technical experts: the importance of the market survey, previous publication, qualifications, and expertise in disputed issues), 5) 국제 분쟁에서 공개될 수 있는 전문가 커뮤니케이션의 위험 최소화 : 변호사-의뢰인 특권, 영국 법률 및 관련 영국 판례법에서의 소송 특권 (Minimizing the risk of expert communications which might be disclosed in international disputes: the attorney-client privilege, litigation privilege under English law and related English case law), 그리고 기타 실용적인 팁을 논의하였다.

2022.01.26.(수)

210th

조찬토론회·정기총회

국토교통 주요정책 추진방향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2022년 첫 강연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께서 '국토교통 주요정책 추진방향'을 주제로 강연하였다. 노형욱 장관께서는 국토부의 역할을 공간과 이동관점으로 소개하였다. 그간 국토교통부의 성과와 개선할 점은 서민주거 안정, 국토 균형발전, 국민안전 강화, 미래 준비 측면으로 비교적 상세히 설명하시어 국토부 활동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 사람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일터와 생활환경 조성, 지역 중심의 경제활성화 및 교통인프라 확충, 그리고 국토교통 산업의 미래준비라고 발표하였다. 특히 최근 관심이 더 많아진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서울시와의 협력을 통해 국토부가 하고 있고 해야 할 일을 제시하셨고, 최근 대형 건설안전사고로 국민들의 걱정이 많은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는 이를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 책임성 강화 그리고 현장 이행력 강화를 말씀하셨다. 가장 근본적인 것은 안전이 비용이라는 낡은 의식을 버리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본원칙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중장기 미래과제로 포스트코로나, 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 인구/가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주택 및 국토도시분야에 있어서 가구구성 및 주거수요의 다양화와 기존주택의 노후화 등에 따른 대비와 수요에 맞는 부동산 정책 그리고 도시 계획 제도의 중장기 발전에 대한 계획을 발표하였다. 국민안전과 관련해서는 SOC의 급속한 노후화로 발생하는 안전 우려를 Rebuilding 전략, Resilience (회복탄력성) 전략 그리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달성하겠다고 했다.

2022.02.23.(수)

211st 조찬토론회
기후변화가 만드는 변화

오대균
서울대학교 에너지신산업
혁신공유대학 객원교수

제211차 조찬토론회는 서울대학교 에너지신산업 혁신공유대학의 객원교수이신 오대균 교수를 모시고 “기후변화가 만드는 변화”를 주제로 강연을 들었다. 오미크론 변이로 코로나19 사태가 엄중했지만 정부의 방역조치를 충실히 수행하면서 행사를 진행하였다.

오대균 교수는 서울대학교 자원공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 대학원에서 석·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정부대표단원, ISO TMB/기후변화조정위원, 유엔기후변화협약 청정개발체제 집행위원, 한국에너지공단 기후대응이사로 활동하면서 현재 서울대학교 에너지신산업 혁신공유대학의 객원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지구 온도변화는 인류의 생산활동으로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산업혁명시대를 지나면서 화석연료인 석탄의 사용량이 늘어났고 이후 성장에 따른 에너지 사용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현재는 제주도와 남부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는 아열대 기후지역이 2070년 이후에는 남한 전체가 아열대 기후지역으로 변한다고 한다. 지구의 평균 온도가 2도만 올라도 인류의 삶에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기후변화에 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오늘날 화석연료 에너지의 사용은 여전하고 개발도상국일수록 그 양이 많다. 이로 인한 환경변화가 세계국가들이 기후변화협약을 체결하는 이유라고 했다.

기후변화협약은 기후체계가 위험한 인위적 간섭을 받지 않는 수준으로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의 안정화를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오대균 교수는 성장 과정에서 많은 에너지를 사용한 선진국 중심의 기후변화협약인 교토의정서와 성장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을 포함하는 파리협정의 의미를 목표, 이행수단, 준수 여부로 구분하여 설명해주셨다. 기후변화협약에 있어 우리나라의 위치와 에너지운영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주셨고 배출감축관련 정책과 행동을 소개해주셨다. 또한 탄소는 자산으로 관리해야 하기때문에 기존보다 효율을 높이는 방안을 비즈니스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강연 후에는 질의응답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지만, 정부의 온도변화 목표와 원자력의 탄소배출량에 관한 질의응답이 진행되었다. 공동대표이신 강호인 대표는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혜안을 제시해주신 강연자에게 감사를 전하고 토론회를 마쳤다.

2022.03.20.(수)

212nd 조찬토론회
해외 수주 지원 확대를 위한 KIND 혁신 전략

이강훈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사장

제212차 조찬토론회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이하 KIND)의 이강훈 사장을 모시고 “해외 수주 지원 확대를 위한 KIND 혁신 전략”을 주제로 강연을 들었다. 이강훈 사장은 한양대학교 토목공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 산업대학원에서 석사, 아주대 일반대학원에서 교통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2006년에 한국도로공사 초대 해외사업팀장을 맡으시고 해외사업처장, 건설본부장, 부사장 겸 혁신성장본부장을 역임하셨다. 현재 KIND 제2대 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KIND는 단순도급형 해외사업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투자개발형 사업으로 전환할 목적으로 2018년에 설립되었다. 투자개발형사업으로 지분투자, 채무증권투자, 수익증권투자가 있고 사업 및 금융 자문도 수행한다. 정책사업은 타당성조사, K-City Network,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EIPP), 그리고 해외인프라 협력센터 운영이 있으며 각각에 대해 설명했다. KIND는 지난 5년간 10개국 대상 15건의 해외 인프라 도시개발 사업에 투자를 확정했는데 특히 브라운필드(Brown Field) 프로젝트인 미국 시카고 호텔 매입 및 운영사업과 국내 기업 수행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고 KIND가 직접 발굴하여 참여한 파라과이 아순시온 경전철(LRT) 사업은 상세히 말씀하셨다. KIND의 혁신전략과 다양한 구성원을 이끌기 위한 조직문화에 대한 경영자로서의 역할과 KIND에 미래를 제시하시면서 강연을 마무리하였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서울대학교 이복남 교수께서 KIND를 이끌며 아쉬운 점을 질의하였고 KIND의 존재 의미, 투자에 대한 단기적 시각, 민간기업과의 협력부족, 인재양성 등을 답변하셨다. 대한상사중재원의 천길주 회원께서는 한국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활동 등 협력방안을 제안하셨고 이강훈 사장께서는 타당성 분석단계부터 업무를 공유하고 중복을 배제하는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답변하셨다. 한미글로벌 김종훈 회장께서는 5년된 투자기관의 손익을 논하는 것은 어려운 측면이 있으니 EPC(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기업의 수주매출 증가를 확인할 수 있으니 KIND 프로젝트의 O&P(overhead & Profit)를 KPI(Key Performance Indicator)로 선정하여 관리하는 방안과 다양한 국내 금융기관 및 KOICA(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JAICA(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와의 연계하여 KIND가 해외건설의 첨병이 되기를 제언하셨다.

2022.04.20.(수)

213rd

조찬토론회

부동산 정책의 평가와 과제

김경환
서강대학교 교수

제213차 조찬토론회는 서강대학교 김경환 교수를 모시고 “부동산 정책의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강연을 들었다. 김경환 교수는 서강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프린스턴대학교에서 경제학으로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으셨다. 2011년에 한국주택학회 회장을 맡으시고 제14대 국토연구원장, 국토교통부 제1차관을 역임하셨다. 현재 서강대학교 경제학부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부동산 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가격안정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평균적으로 나은 삶,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미래 청년세대의 안정적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런 목적 달성을 위한 가격안정은 정부가 할 일, 시장이 할 일을 적절하게 수행할 때 가능하다. 김경환 교수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진단했다. 초기 주택공급 부족을 인정하지 않고 투기 억제를 정책목표로 삼았고 뒤늦은 공급 확대 정책은 무리한 공공주도로 다시 어려움에 직면했다. 결국 선한 의도가 나쁜 결과를 가져왔고 수혜자가 불분명해지고 정책 판단의 불신만 초래했다는 것이다. 주택가격과 주택구입 가능성을 근거로 국내와 해외 주택공급현황을 설명하였고 주요 정책 쟁점으로 정책 우선순위 결정, 부동산 세제 현황, 임대시장 규제와 임대사업자의 세제 정책, 그리고 주택금융 규제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주셨다. 특히 서울시 신축아파트의 경우 그 선호도로 인해 재건축을 해야하고 이를 위해서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규제를 완화하면 단기적으로 해당 아파트 가격 상승은 불가피하지만 재건축 사업이 완료되어 공급이 늘면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정책과제로 주택정책의 궁극적 목표 정립, 정부 개입 범위의 적정화, 부동산 세제의 정상화, 단순화, 안정적인 주택금융 운영, 그리고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시하시면서 강연을 마무리하였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현대건설 진상화 상무께서 시공자 선정 시기를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안전진단 기준 원상회복, HUG 의 분양보증 독점 문제 해소, 관의 인허가 절차 신속화, 도시재생 구조조정 등에 대한 질의에 대부분의 내용이 정하지 못하고 있을 뿐 논의되고 있고 무엇보다 공공주택이 확대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변하였다. 서울대학교 이복남 교수께서는 정부가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PIR(Price to Income Ratio)기준이 있는지와 서울시의 가구대상 주택 수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김경환 교수는 집값 상승을 목표로 잡는 것은 아니고 소득과 주택은 변수가 상이하기 때문에 PIR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가구대상 주택 수는 양적부족을 검토하기 위한 지표로 일반적으로 인구 1,000명 대비 주택 수로 확인한다고 했다.

2022.05.25.(수)

214th

국내세미나

국내 건설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 방안

주제발표	**1. 미국 현지 건설업체 설립·운영 성공전략** | 김용구 세명대학교 교수 **2. 미국 시장 진출 시 고려사항** | 최종철 WSP Asia Ltd. 대표이사
주제토론	**좌장** | 이복남 서울대학교 건설환경종합연구소 교수 **패널** | 김소응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리스크관리실장, 유재형 DL이앤씨 해외수주 담당임원, 신연수 법무법인 피터앤김 파트너변호사, 오성익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정책과장

건설포럼은 5월 25일, 수요일 건설회관 2층에서 “국내 건설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 방안”이라는 주제로 제214차 국내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본 세미나에서는 미국에서 10여 년간 건설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세명대학교 김용구 교수와 미국에서 20년간 근무한 경험을 보유한 WSP 최종철 대표의 발표가 있었다. 좌장은 서울대 이복남 교수, 패널에는 김소응 KIND 리스크관리실장, 유재형 DL이앤씨 상무, 신연수 피터앤김 파트너변호사, 오성익 국토부 해외건설정책과장이 참여했다.

포럼에서는 강호인 공동대표, 이현수 공동대표, 권도엽 전)국토해양부 장관, 김현 전)대한변호사협회장, 이해경 한국엔지니어링협회장이 참석하였고, GS건설, 현대건설, 포스코건설, 해외건설협회 등에서 50여명 참석하였으며, 플로어의 질의응답이 끝날 때까지 자리를 같이하며 미국 진출에 대한 열띤 논의를 했다.

김용구
세명대학교 교수

최종철
WSP Asia Ltd. 대표이사

강호인 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현재 건설기업들이 미국 진출에 성공하고 있으며, 1년 전에 비하여 환경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이제 바라만 보고, 꿈꾸는 단계를 넘어 행동에 옮길 때라고 강조하였다. 이강훈 KIND 사장은 KIND도 미국 진출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만큼 Team Korea를 구성하고, 民·官·公이 협력하여 미국시장 진출 성공사례를 만들 것을 요청하였다.

주제발표에서 김용구 교수는 미국시장에 대한 상세한 통계를 설명한 후 세계 2위의 미국시장 진출 시 필요한 사항들을 경험과 함께 발표하였다. 현지법인 설립방법 및 절차, 사업조직별 장단점, 주소득세, 주 지점세, 사회보장세, 연방실업세, 판매세 등 미국의 세제, 책임보험, 근로자상해보험, 핵심직원 및 임원보험, 임원 및 이사보험, 건설업자 라이센스 보증보험, 자동차보험 등 우리에게 생소한 개념들을 설명하였다. 또한 자신이 건설업체를 설립한 캘리포니아를 예로 들어 보다 상세한 설명을 부가하였다.

마지막으로 광대한 미국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어느 주(state)로 갈 것인가? 건설업 중 무슨 사업을 할 것인가? 대상고객은 누구인가? 사업의 착수를 위해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를 상세히 조사하고 준비할 것을 당부하였다. 하지만 아무리 준비해도 미국의 법과 제도를 100% 이해하고, 리스크를 회피하기 어려우므로 변호사나 대행기관을 이용할 것을 당부하였다.

최종철 대표는 20여 년의 미국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시장 진출 시 고려사항”을 발표하였다. 철강재는 100% 미국산만 사용해야 하고, 다른 건설자재도 현재 60%인 의무사용비율을 2029년까지 75%까지 높이는 “Buy American Act(BAA)”를 시작으로 계약서 작성 및 현장 실정 반영의 중요성, 주(州)별로 상이한 법적 요구사항, 수없이 많이 발생하고, 발생 시 과다한 비용 및 기간이 소요되는 법적 분쟁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특히, 미국 변호사들은 “좋은 대학에 가려면 국영수에 집중해야 한다”는 정도의 기본적인 서비스만 제공하고 있어 소송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자체적 법무 역량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1964년에 미국 지사를 설립한 Kajima USA의 예를 들면서 미국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친 노력이 필요하며 법인 설립도 중요하지만, 미국 로컬기업의 인수합병도 정착을 앞당기는 방법이라고 강조하였다.

노동여건이 한국과 달라 고임금 구조이며 반드시 노조원을 고용해야 하는 어려움과 하도급사 관리의 어려움에 대하여 경험에 기반을 둔 설명을 하였으며, 문화적, 언어적, 법적 차이 극복과 복잡한 대관업무의 처리를 위해서는 현지의 관리전문기업을 활용하라고 조언하였다. 특히, 건설공기는 여유가 있는 것 같지만 현장에서의 강도 높은 각종 Inspection으로 공기를 맞추기 어려웠다는 경험을 소개하기도 하였다.

이복남
서울대학교
건설환경종합연구소 교수

이복남 교수가 좌장을 맡은 패널토론에서는 유재형 상무가 미국 텍사스에서 수행 중인 USGC2프로젝트의 리스크 관리 사례를 발표하였으며, 김소응 실장은 KIND의 미국진출 준비사항, 신연수 변호사가 진출 시 법적인 유의사항을 발표하였다. 오성익 해외건설정책과장은 지피지기(知彼知己) 중 지기를 강조하며 우리 건설업계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하였다. 플로어토론에서는 지금이 미국 진출의 적기인 만큼 노력을 집중해서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말씀과 건설업체 CEO 임기문제로 장시간을 요하는 미국 진출을 꺼리고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토론이 끝날 때가지 자리를 같이하며 국내 건설기업의 미국 진출 방안을 논의한 좋은 모임이었다.

215th

조찬토론회

건설사고 방지와 품질보증에 대한 소고

김종오
전)남광토건 대표

제215차 조찬토론회는 남광토건 대표이셨던 김종오 대표를 모시고 “건설사고 방지와 품질보증에 대한 소고”를 주제로 강연을 들었다. 김종오 대표는 서울대학교 토목공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수리학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대림산업에서 31년간 토목사업본부 국내외 현장과 본사에서 근무하며 사업 담당임원과 기술개발원장을 지내고 고려개발 대표, 남광토건과 극동건설의 총괄부회장을 역임하였다.

건설사업에서 부실시공이나 부실설계의 발생은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초 기술이 결여되어 있고 기술기준이나 적용원칙에 대한 무관심과 방기, 그리고 현장관리의 부주의와 방심이 원인이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건설기술에 대한 경시, 무리한 비용절감, 불충분한 공기, 형식적인 규정, 절차, 검사과정, 그리고 협동 및 책임의식의 부족 때문이다. 김종오 대표께서는 이런 원인으로 발생하는 실제 사례를 채움 콘크리트의 부재로 발생한 교대의 전도 사례, 수압에 의한 우물통 붕괴사고, 수위 증가를 고려하지 못한 지하 하수처리장 구조물 파괴사례를 예로 설명했다. 그 밖에 교량 파괴, 고속철도 선로 부실공사, 지하철 침수 등을 사진자료를 통해 말씀해주셨다.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 “제대로 만들고, 제대로 알고, 제대로 지키고, 제대로 확인하자”라고 역설하셨으며 국가건설기준센터의 내용을 기반으로 ① 설계기준에는 설계관련 사항, 표준시방서에는 시공관련 사항 위주로 수록 바람직, ② 표준시방서에는 어려운 이론이나 수식보단 구체적 수치로 표현 필요, ③ 애매모호하거나 잘못되지 않은 분명하고 올바른 기준 필요, ④ 제출물 등 요구사항은 실질적이고 현실적으로 변경 필요, ⑤ 기준간 중복, 상충부분 추가정비 및 상충시 우선순위 설정 필요, ⑥ 기준 제정 및 개정 시 지속성과 연속성 확보 필요에 대한 각각의 사례를 상세히 발표했다. 실제 잘못된 시공사례와 잘된 시공사례를 사진으로 보여주셨고 “서자서아자아”라는 공자님의 논어 말씀을 마무리로 형식보다는 실질적으로 제대로 해야 함을 강조하셨다.

질의 응답 시간에는 설계와 시공간의 정보교환 및 인력운영의 유연성에 대한 설계 및 시공 품질을 높이거나 결정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논의했다. 이런 노력이 건설사고를 방지하고 품질을 높이는 기준을 마련하고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점도 제시했다.

2022.08.24.(수)

216th

조찬토론회

건설관련 분쟁에 있어서 중재제도의 활용과 대한상사중재원의 역할

맹수석
대한상사중재원 원장

제216차 조찬토론회에서는 대한상사중재원 맹수석원장님의 “건설관련 분쟁에 있어서 중재제도의 활용과 대한상사중재원의 역할”이라는 주제발표와 질의응답이 있었다. 맹원장은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비교사법학회 회장을 역임하고 있다.

맹수석 원장은 우리나라의 법원에 제기되는 소송 건수가 600만 건이 넘는다고 밝히며 이 모든 것을 소송으로 처리하는 것은 사회적 비용의 증가를 가지고 온다고 전제하면서 강의를 시작하였다. 중재제도와 소송을 비교, 설명하면서 중재제도의 장점은 공권력이 뒷받침되어 강제력과 경직성이 동원되는 소송에 비하여 당사자가 자신의 의사를 직접 반영하고, 단심으로서 신속하게 결론 도출 가능하며 당사자들이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분쟁해결 도모가 가능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관련분야 전문가를 중재인으로 선임이 가능하고 비밀이 보장되어 엔터테인먼트나 연예인 사건도 중재에 맡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평균처리기간이 170일 정도로 짧고, 비용도 소송에 비해 저렴하여 소액사건은 5만 5천원, 1000억 원 이상은 1.5억 원에 그쳐 부족한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장점을 가진 중재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분쟁을 쌍방의 합의로 해결하지 못할 경우 대한상사중재원에서 국내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로 해결한다.”는 문구를 삽입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대한상사중재원은 국내 분쟁뿐만 아니라 국제분쟁도 담당하고 있으며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2021년 기준 중재건수는 500건, 금액기준 8,460억 원 수준이며 그 중 26%가 건설에서 발생하고 있어 가장 높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2021년에 발생한 349건을 조사한 중재처리결과에 의하면 판정 232건(66%), 화해판정 44건(13%), 철회 59건(17%), 절차불이행 11건(3%)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1년에 500건은 아직 낮은 수준이며 이를 더 높일 수 있도록 “중재법상 국내 유일의 상설중재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을 지원해 줄 것을 포럼 회원들에게 당부하면서 강의를 마쳤다.

2022.09.28.(수)

217th

조찬토론회

국토교통 주요 정책 추진 방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제217차 조찬토론회는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을 모시고 “국토교통 주요 정책 추진 방향”을 주제로 강연을 들었다. 원희룡 장관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한양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에서 언론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제16대, 17대, 18대 국회의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역임 후 올해 5월부터 국토교통부 장관에 재직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공간과 이동을 책임지는 기관이고, 이를 위해 국민 주거 안정실현과 교통 불편 해소를 목표로 하는데 기존에 주력해오던 주거안정과 함께 교통분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빌리티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하였다. 물론 지방발전에 대한 고민도 함께한다고 했다. 다만 전체적이고 일률적인 개발 노력보다는 보다 맞춤형으로 효율적인 접근을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다.

혁신 사업으로는 ① 모빌리티를 혁신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실증기회를 제공하여 자율차, UAM, 스마트 물류가 완성되어 모빌리티에 특화된 주거와 교통환경을 구축하고, ② 도시융합을 위한 스마트건설 활성화, 해외 영토 확장, 그리고 디지털 공간 확보를, ③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압축(compact)과 연결(Network)을 통해 국가 균형발전을 달성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원희룡 장관의 특별강연 이후 많은 질문이 있었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윤영구 회장은 스마트 정부 방침에 따라 건설기술자를 위한 효율적인 서비스를 위해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국토부의 건설관련 정보관리 시스템과 연계하면 좋겠다는 요청하였다. 서울대학교 이복남 교수는 새 정부의 기조가 민간 주도 사업에 정부가 정책 지원하는 것이니 민간단체가 생각하는 건설의 미래 모습을 통해 지원방침을 수립하기를 요청하였다. 대한전문건설협회의 김승기 부회장은 종합건설과 전문건설로 구성된 건설생산체계의 변화가 필요하고 건설인력의 고령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대한토목학회 김철영 회장은 이전 정부에서 국가건축위원회가 건설분야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듯이 건설산업 전반으로 확대하여 국토인프라에 대한 민간요구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 조직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이해경 회장은 건설 생애주기 전반에 계약으로 발생하는 갑을 관계를 해소하고 공정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다.

2022.10.26.(수)

218th

주제토론회

건설산업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어디까지 왔나?

주제발표
1. 건설현장을 위한 디지털 트윈 플랫폼 | 박원녕 엔젤스윙대표
2. BIM 도입을 통한 건설 산업 디지털화 | 이지효 아키탑케이엘 대표
3. 건설부동산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 안호준 올림플래닛 부사장
4. 산업의 역군, 건설 빅데이터 솔루션 | 김태환 산군 대표

주제토론
좌장 | 박상혁 한미글로벌 DT추진실장

제218차 주제토론회는 평소와 달리 “건설산업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어디까지 왔나?”를 드론, BIM, 메타버스, 데이터 사이언스 분야의 콘텍(ConTech)기업 대표들을 모시고 강연과 토론으로 진행하였다.

정부는 2018년부터 시작되는 제6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에서 4차 산업혁명 대응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을 제시했다. 4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디지털 기술을 통한 건설현장의 변화는 생각보다 크지 않은 것 같다. 포럼은 그동안 디지털 관련 주제를 통해 국내외 전문가를 모시고 세미나 또는 간담회를 실시했다. 행사마다 좋은 의견과 방향이 제시되었지만, 실제 기술의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입장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들었던 것 같다. 그래서 이번 주제토론회는 건설현장에 실질적인 디지털 기술 공급자인 디지털 전문기업 즉 콘텍기업의 대표님을 모시고 좀 더 실질적인 이야기를 나누었다. 건설 현장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는데 발생했던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요구사항이 어떤 것인지 들었다.

주제발표는 엔젤스윙의 박원녕 대표를 시작으로 아키탑케이엘의 이지효 대표, 올림플래닛의 안호준 부대표, 그리고 산군의 김태환 대표 순서로 진행되었다. 주요 내용은 각 기업의 소개와 현재 건설현장에서 적용하고 있는 기술을 설명이었다.

박원녕
엔젤스윙 대표

토론은 디지털 기술의 적용 한계점에 대해 논의했다. 각 콘텍 기업 대표님들은 발주자의 적용 의지, 업무 프로세스의 개선, 비용에 대한 인식 등 현업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사례를 통해 설명하였다.

토론 중간에 자연스럽게 질의응답이 진행되었다. 서울대학교 이복남 교수는 발주자의 중요성, 디지털 기술적용의 장애요인, BIM 데이터 공유시 생성자의 오너십, 데이터와 프로세스의 우선순위에 대해 질문하였다. 서울대학교 남궁은 교수는 디지털 전환

이지효
아키탑케이엘 대표

안호준
올림플래닛 부사장

김태환
산군 대표

박상혁
한미글로벌 DT추진실장

에 따른 전후 변화에 대한 추가 설명을 요청하였다. KAIA의 조대연 박사는 시스템의 국산화 비율과 통합된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포럼에서 이를 전담할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한미글로벌 김종훈 회장은 디지털 기술적용 범위를 넓혀 정부 및 발주자 대상 서비스영역과 글로벌시장 진출에 대한 조언을 했다. 또한 콘텍기업이 참여하는 R&D발굴도 제안하였다.

공동대표이신 이현수 대표는 디지털 전환에 대한 건설포럼의 더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제안하면서 주제토론회를 마무리했다.

2022.11.23.(수)

219th

국제세미나

영국의 원자력 발전 현황과 한·영 협력방안

주제발표
1. The UK Nuclear Power Landscape | Tom Greatrex / CEO, UK Nuclear Industry Association
2. UK Nuclear Experience | Mark Savage / Global Infrastructure Operations Lead, Turner & Townsend

주제토론
좌장 | 서균렬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명예교수
패널 | 김경민 한국전력공사 원전사업개발실장, 강홍규 두산에너빌리티 원자력담당 상무, 최영 현대건설 원자력사업단장, 김동환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수출진흥과 팀장

제219차 정기모임은 국제세미나로 개최되었다. 포럼에서는 처음 다루지만 신정부 들어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원자력발전 분야를 주제로 선정하고, 현재 초기 사업비 28조 5천 억의 Hinkley Point C 원전 건설과 수명이 다한 Sellafield 원전의 해체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영국의 전문가를 초청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주제는 “영국의 원자력 발전 현황과 한·영 협력방안”으로 정하고 보다 장기적인 양국의 협력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세미나는 주한영국대사관이 주최하고, 건설산업비전포럼과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공동 주관하였으며, 원전사업에 최고의 경쟁력을 보유한 한국전력과 두산에너빌리티가 후원에 참여했다. 사전행사는 포럼의 이현수 공동대표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Mr. Colin Crooks 주한영국대사와 산업통상자원부 박일준 제2차관의 축사로 진행되었다. 특히 Mr. Colin Crooks 대사는 축사를 영어가 아닌 한국어로 진행하여 큰 박수를 받았다.

영국 원자력산업협회장 Mr. Tom Greatrex는 주제발표 “The UK Nuclear Power Landscape”를 통해 영국의 원자력산업에 대한 현황, 국민들의 원자력발전 필요성에 대한 10여 년간의 설문조사 결과,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원자력 발전의 중요성과 시급성 및 그에 따른 영

Tom Greatrex
CEO, UK Nuclear Industry Association

Mark Savage
Global Infrastructure Operations Lead, Turner & Townsend

서균렬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명예교수

국정부의 정책에 대해 발표했다. 영국의 하원의원과 노동당의 Shadow Energy Minister를 역임한 발표자는 원자력 발전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역설하여 방청객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

두 번째 발표는 영국 Turner & Townsend(T&T)의 임원인 Mr. Mark Savage가 프로젝트 레벨의 기획, 설계, 엔지니어링, PM, 시공, 운영 및 관련 기술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발표자는 20여 년 이상 T&T에 근무하면서 Hinkley Point C 원전 건설과 Sellafield 원전의 해체공사를 담당한 경험을 바탕으로 공기가 10년 이상 소요되는 초대형 공사 관리의 중요성에 대하여 역설하였다.

토론에서는 발표자와 우리나라의 원전전문가가 참여하여 질의응답식으로 진행되었다. 좌장은 서울대 원자력핵공학과 서균렬 명예교수가 맡았으며, 한국전력의 김경민 원전사업개발실장, 강홍규 두산에너빌리티 상무, 현대건설 최영 원자력사업단장, 산업통상자원부 김동환 팀장이 참여했다.

Mr. Tom Greatrex는 첫 번째로 “한국은 어떻게 국내 원전사업은 물론 사막에 건설된 아부다비 바라카 원전에서도 공기와 공사비를 준수할 수 있었는가?”를 질의하였다. 답변에 나선 김경민 실장은 K-Team을 강조하였다. 한국의 경우 설계, 엔지니어링, 시공은 물론 원전사업에서 매우 중요한 기기, 부품사까지 하나의 팀으로 구성되어 높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자신 있는 답변을 주었다. 이후 질의는 주로 한국 패널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영국 정부의 원전정책, 원전사업의 정부참여 지분, 한국기업의 참여 가능성, 한국과 영국정부의 협력방안 등에 대한 질문과 매우 구체적이고 성의 있는 답변이 이루어졌다. 특히, Sellafield 원전의 해체공사에 대하여 수행상의 어려운 점, 오염물질의 처리, 원전을 기반으로 살아온 주민들에 대한 대책까지 기대 이상의 답변을 얻을 수 있었다.

전날 한국에 도착해서 시차도 극복하지 못한 가운데 열정적인 발표와 정성을 다한 답변으로 한국과 영국의 원전사업 협력의 필요성을 실감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행사가 한 번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큰 결실을 맺을 때까지 지속했으면 하는 양국 전문가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2022.11.29.(화)

220th

주제토론회

중대 재해 처벌법 제대로 추진되고 있나?

주제토론 **발제 및 좌장** | 박기정 법무법인 율촌 영국변호사
패널 | 김수현 법무법인 율촌 중대재해센터 변호사,
최수영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기술경영연구실장, 원정훈 충북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

박기정
법무법인 율촌 영국변호사

국내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22년 1월 27일 시행되면서 기업들은 많은 사업장에서 법정의무교육 수료를 포함한 다양한 법적 대응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예방 차원에서의 선제 대응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에 의하면 지난 9월까지 총 443건의 중대 재해가 발생하였다. 건설안전의 선진국인 영국은 1994년에 제정된 CDM(the Construction Design and Management regulations)을 통해 발주자를 안전보건 관리의 주체로 적극 참여시키고, 재해 예방정책을 시공 이전단계로 확장하는 예방적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했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유사한 기업 과실치사법을 적용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영국의 건설안전 제도와 기업 과실치사법을 바탕으로 국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현시점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무엇인지를 영국과 한국의 관련 업계 전문가를 모시고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최하였다.

주제에 대한 논의는 영국의 CDM제도와 기업 과실치사법에 대한 설명을 통해 국내에 도입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근본 취지와 법률적 적합성을 검토해보았고 이를 통해 국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현황과 수사 동향을 다룬다. 결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어떤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하는지 토론을 통해 논의했다.

2022.12.21.(수)

221st

조찬토론회

건설산업은 왜 시민의식을 가져야 하는가?

강명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제221차 조찬토론회는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강명구 교수를 모시고 "건설산업은 왜 시민의식을 가져야 하는가?"를 주제로 강연을 들었다. 강명구 교수는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도시공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에서 공학석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미국 MIT에서 도시계획 석사와 도시 및 지역계획 박사를 취득하였다. 현재 도시과학 빅데이터 인공지능연구원 원장,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Science(IJUS) 편집위원장, 서울시립대학교 스마트도시연구센터 센터장 등 활발한 활동 중이다.

건설산업은 특별하다. 한번 건설되면 오랫동안 존속한다. 그리고 건설 덕분에 사람들은 자유로운 시간을 얻고 새로운 삶을 영위한다. 또한 건설은 공적공간을 창조한다. 건물 자체가 주는 외부효과도 있지만 도시에 항구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런 도시는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건설산업은 우리사회에 특별한 의미를 갖기에 시민의식을 가져야 한다. 시민의식이 있는 사람이란 좋은 성품과 함께 책임감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시민의 구성원으로 도시가 형성하는 과정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강명구 교수는 멕시코시티 사례를 통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거시도시계획 관점에 대해 말씀하셨다. 서울이 멕시코시티와 다른 점은 도시공간을 확장하면서도 토지소비량을 감축시켜 자연의 보전과 복원을 이루었기 때문이다. 미시도시계획은 인간적 척도를 중심으로 한다. 뉴욕 배터리파크 사례를 통해 공공공간을 대변하는 열린 공간과 사유지를 대변하는 닫힌 공간에 대해 설명하며 도시계획은 공공공간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했다. 미시도시계획은 보기좋은 그림이 아니라 그 속에 살아가는 사람의 삶을 담아야 하고 이런 개념에서 거대건축콤플렉스를 극복해야 한다. 건설산업에서의 시민의식을 우리 사회에 대한 책임감과 연대감을 명심하여 다음 세대에 발전된 국토, 토지, 주거를 물려줄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하자고 강조하면서 강연을 마무리했다.

권도엽 전 대표는 건설산업은 타 산업에 비해 공공재 성격이 강해서 국민에 직접적인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대한민국을 하나의 도시로 규정하고 재건축 등의 사업에서 고립된 공간이 되지 않도록 그동안 도시가 발전하면서 해왔던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였다. 이현수 공동대표는 강연자이신 강명구 교수의 저술 활동을 소개하고 도시가 스마트도시, 컴팩트도시로 불리면서 건설 중심 도시 개발의 소명의식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2023.02.08.(수)

222nd

조찬토론회·정기총회

최근 경제 상황 및 정책 방향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3년도 첫 번째 강연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모시고 “최근 경제 상황 및 정책 방향”을 주제로 강연을 들었다.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도 나라와 국민을 위해 원칙에 입각한 경제 정책을 묵묵히 추진할 것임을 말씀 해주셨다. 추경호 부총리는 고려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미국 오레곤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2선 국회의원이면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맡고 있다.

주요 발표내용은 현 경제상황 및 2023년 경제전망과 정책 방향이었다. 대외 여건은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실물영향이 본격화되고 있지만 세계경제는 물론 국내경제도 하반기부터는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대내 여건은 원/달러 환율과 회사채 및 기업어음 금리가 안정세를 찾고 있으며, 특히 외한보유고의 증가로 97년 외한위기, 2008년 금융위기와 비교하면 변동양상이 다르며, 과거와 같은 위기가 반복되지는 않으리라고 전망했다. 특히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이 한국은행과 함께 매일 시장점검 회의를 통해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셨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주택가격의 내림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전국 미분양 재고물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연착륙을 유도하고 있다고 하셨다. 물가는 지난해 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했고 올해도 어느 정도 안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 외에 수출, 투자, 고용, 성장에 대한 정부의 생각을 전달하였다.

2023년 경제 정책 방향은 자유, 혁신, 공정, 연대의 경제운용 4대 기조를 바탕으로 민간, 기업, 시장이 하나가 되어 위기 극복과 경제 재도약을 목표로 한다. 세부 과제로는 거시경제 안정관리, 민생경제 회복지원, 민간중심 활력 제고, 미래 대비 체질 개선을 제시하면서 짧은 강연 시간에도 불구하고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셨다. 또한, 에너지가격 급등의 원인을 상세히 설명하고 취약가구 지원대책을 제시하였으며, 건설산업의 관심사인 택지조성, 재건축사업 등도 규제개혁을 통해 속도를 낼 계획이며, 다주택자 중과 폐지, 실수요자 주거부담 완화, 임대차 시장 안정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할 계획을 밝혔다.

한미글로벌 김종훈 회장은 건설산업을 건설업이 아닌 산업으로 인식해 줄 것과 인력에 대한 정부 지원을 요청하였다. 서울대학교 이복남 교수는 조달제도 글로벌화, 건설 관련 대표적인 비전 수립을 통한 우수 역량확보 방안 및 건설산업비전포럼과 지속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이해경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회장은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를 부동산개발협회 김승배 회장은 금리안정을 위한 원금상환의 거치기간 유예와 같은 제도를 추진을 제안했다.

2023.03.29.(수)

223rd

조찬토론회

대한민국, 선진국의 조건

김세형
매일경제신문 감사

제223차 조찬토론회는 매일경제신문 김세형 감사를 모시고 “대한민국, 선진국의 조건”을 주제로 강연을 들었다. 김세형 감사는 고려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동국대학교에서 언론정보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1983년에 매일경제신문에 입사하여 편집국장, 논설실장, 주필 등을 역임했다. 또한, 국민경제자문위원, 규제개혁위원 등 다양한 활동을 하셨고 현재는 매일경제신문사 감사로 재직 중이다.

김세형 감사는 발표에서, 세계 속에 한국은 선진국이기보다는 선진도상국이라고 말씀하였다. 국민행복지수, MSCI(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 index) 지수, 노동시간, 자살률 등 정량적 수치와 해외에서 활동하는 전문가의 의견도 선진도상국이라는 것이다. A급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1인당 GDP가 5만 달러는 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5만 달러의 벽은 높고 미국 외에 일본,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이 3만 달러를 넘어 5만 달러의 진입에 실패했다고 했다. 한국이 A급 선진국으로 진입하려면, 1)미·중 패권전쟁과 신냉전, 2)저성장-성장잠재력 1%로 추락, 3)인구감소, 4) ESG경영 의무화, 5)환율 리스크를 극복해야 한다고 했다.

‘기업은 국가가 발전하는 힘이다. 국가의 부를 책임진다. 과거에는 기업과 정부 간 합작으로 산업이 성장한 사례도 있다. 기업의 성장은 기술이 기반되고 기술은 좋은 인재에서 시작하고 발전한다. 대표적인 기술 전쟁은 반도체이다. 중국은 중앙과학기술위원회에서 반도체 무한 지원을 천명했고 미국의 자국 기업과 국내 반도체 공장 유치를 통해 패권을 차지하려고 한다. 일본과 EU도 반도체 부활을 위해 노력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도 경제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기술, 기업, 인재가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또한, 서비스산업의 성장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강연 후 권도엽 전 공동대표는 내용에 공감하면서 우리나라가 벤치마킹해야 할 나라는 단순히 경제 측면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작지만 유사성을 가진 스위스, 싱가포르의 국민 지성을 참조할 필요가 있고 언어, 인구문제를 포함한 본질적 사회변화를 유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동대표이신 이현수 대표는 선진국의 조건과 기업활동을 보면서 건축 분야의 더딘 발전에 대해 말씀하셨고 건설산업비전포럼이 건설산업분야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을 정책적으로 제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4.26.(수)

224th

조찬토론회

변화의 물결, 도시와 주택의 미래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제224차 조찬토론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이한준 사장을 모시고 “변화의 물결, 도시와 주택의 미래”를 주제로 강연을 들었다. 이한준 사장은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를 졸업하고 홍익대학교 교통정책학 박사를 받았다. 경기도청 정책특별보좌관,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을 거쳐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으로 재임하고 있다.

강연 시작에서 이한준 사장은 미래학자인 패트릭딕슨의 말을 인용하며, 지금 건설에 필요한 것은 미래가 그려진 지도라고 말했다. 강연 내용은 “LH 소개”, “개발역사의 명과 암”, “거대한 변화의 물결”, “시대의 변화, 도시와 주택의 미래”, 그리고 “진심이 혁신이다”라는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LH가 추진한 사업은 주택 및 신도시 개발뿐만 아니라 주거복지, 산업단지, 도시재생, 지역균형발전, 그리고 해외 개발 등 다양하다. 서울시 면적의 1.6배를 개발하고 부산광역시 주택 수의 2배를 건설했지만, 도시의 자족기능 및 생활 인프라가 부족하게 되었고 총량 중심의 주택 공급 확대에 치중하여 국민 눈높이에 미흡한 품질을 유지했다는 점이 아쉬운 점이라고 개발역사의 明과 暗을 소개했다.

인구, 경제, 사회, 기술변화에 따른 LH 사업 포트폴리오의 변화 필요성을 인식하고 뉴홈(New Home)과 같은 새로운 공공분양주택 솔루션을 개발하고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을 통한 도시재정비 사업추진을 설명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아이돌봄시설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보육문제를 해결하고 미국 어바인(Irvine)시를 모델로한 주민이 만족하는 도시를 개발하겠다고 했다. 향후 공급자 중심의 운영이 아닌 고객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무엇보다 고객을 고려하는 생각의 전환하겠다는 LH의 각오를 말씀해 주셨다.

서울대학교 이복남 연구위원께서는 해외사업에서 원팀코리아가 운영될 수 있도록 LH의 역할과 준비를 주문하였다. 인테그라디앤씨의 고배원 대표는 LH의 변화를 기대하며 건물에너지 총량제를 설계하면서 LH의 130만호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요청했다. 이한준 사장은 에너지 정책이 ESG에 한정되어 있어 실질적인 대응의 부족을 인식하고 변화를 약속했다. 한미글로벌 김종훈 회장은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다양한 주거형태와 주거문화의 변화,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노인주택의 부족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 리모델링의 위험성을 강조하였다. 이 외에도 열띤 질의와 응답이 있었다.

2023.05.24.(수)

225th

조찬토론회

건설산업 지속가능 생산성 향상과 세계 1위, 대한민국 조선산업 생산기술

김영록
삼인이엔에스 대표

제225차 조찬토론회는 삼인이엔에스 김영록 대표를 “건설산업 지속가능 생산성 향상과 세계 1위, 대한민국 조선산업 생산기술”을 주제로 강연을 들었다. 우리나라의 세계 1위 산업인 조선산업의 생산기술을 통해 건설산업의 변화 방향을 생각해보는 좋은 시간이었다.

김영록 대표는 약 7년동안 라인테크시스템에서 다양한 솔루션 파트너들의 한국 진출 컨설팅과 현지화 프로젝트를 담당하였다. 오토데스크 유니버시티(Autodesk University), BIM Forum, Building Smart, LH Cost-BIM, 플랜트 조선 컨퍼런스, 호주의 BIMMEP 등 여러 국내외 컨퍼런스에서 BIM, PDF, 리얼리티 캡쳐(Reality Capture), 신기술 트렌드 등의 주제로 발표하였다. 2020년에 삼인이엔에스에 입사하여 2023년 현재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김영록 대표는 AEC, Civil, EPC, Shipbuilding을 “공간산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상위 분류를 통해 각 산업이 제조산업 보다는 서로 유사성이 높음에도 소통과 정보의 교류, 그리고 서로에 대한 관심도가 낮은 점을 설명하고 산업 간 교류에 도움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다. 제조업의 생산혁신 기법인 린(Lean), 적시생산(JIT), 그리고 칸반(Kanban)과 같은 개념들이 90년대 제조업 생산성 혁신 성공사례를 조명하고, 다양한 산업에 적용하기 위해 수많은 컨설팅 시장을 만들어 준 1차 웨이브였다면, 2000년 이후 이런 개념들은 세분화, 융합, 그리고 고도화를 거쳐 Last Planner, Pull Planning, Workface Planning, Advanced Work Packaging (AWP)등으로 발전했다. 하지만 영국의 "Rethinking Construction" 산업리포트에서는 건설업의 Continuous Productivity Improvement 가능성을 연간 10% 로 보았다. 플랜트 산업에서 지난 10년간 빠르게 도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 AWP는 Total Installation Cost의 10%를 기준으로 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건설업의 연간 10% 생산성 혁신이 가능하다는 주장에 의심할 수밖에 없다.

전 세계 GDP의 10%를 차지하는 건설업의 Continuous Improvement가 어렵지만 조선업은 70년도에 시작하여 1990년도 ~ 2000년도 일본을 넘어 세계 1위가 되었고 인건비가 높아진 지금에도 중국과 대등하게 세계 1위 산업의 위치를 지키고 있으며 지속적인 생산혁신을 수행하고 있다. 유사한 Mass/Volume 기준 (335미터 고층타워 vs 벌크 캐리어선) 건설업은 3~4년이 걸리는 데 비해 대한민국 조선산업은 약 6개월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생산방식 외에 건설업의 구조/환경과 사업수행방식, 특히 Egan Report에서도 지적한 바 있는 Long-Term Partnership 과는 거리가 먼 입찰 방식의 계약 구조도 문제로 꼽았다.

2023.06.28.(수)

226th

조찬토론회

혁신이 현실이 되는 곳, NAVER 1784

이주병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공간솔루션팀장

제226차 조찬토론회는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전략사업실 공간솔루션팀 이주병 팀장을 모시고 “혁신이 현실이 되는 곳, NAVER 1784”를 주제로 강연을 들었다. 이주병 팀장은 홍익대학교 건축학과를 나와 런던대학교(UCL) 바틀렛 건축대학원을 졸업했다. 2011년에 ㈜삼우종합건축사무소에 입사하여 2023년 현재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전략사업실 공간솔루션팀에 팀장으로 재직 중이다. 다양한 글로벌 프로젝트를 수행하였으며 네이버 1784의 총괄건축가를 담당했고 네이버 그린팩토리 리뉴얼 설계/설계의도구현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주병 팀장은 네이버 1784 사옥을 논의하면서 그것이 혁신 및 건축과 ICT 기술의 통합을 위한 공간으로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 건물은 LEED Platinum 인증과 스마트 시티 연맹의 로봇 친화적 건물 상을 포함한 다양한 상을 받았다. 네이버 1784의 디자인은 미래의 변화와 혁신을 수용할 수 있는 유연하고 적응가능한 공간 플랫폼을 만드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건물에는 세 개의 아트리움과 두 개의 썬큰이 디자인되어 있어 자연광을 제공하고 협업을 위한 공간을 제공한다. 네이버 1784는 건물 자체가 친환경 시스템으로 디자인되었다. 스마트 그린 인프라 구조를 구성하는 핵심 3대 요소는 첫째, 다중 외피가 있고, 둘째, 복사 냉방과 바닥 공조를 혼용하는 하이브리드 공조 시스템이 있고, 세 번째, 디지털 디바이스 제어 컨트롤 시스템이 있다. 디자인에서 지속 가능성과 에너지 효율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네이버 1784가 기준과 비교하여 에너지 사용량을 34% 줄였다고 언급하였다. 건물은 또한 COVID-19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 고급 위생 및 안전 기능을 통합하고 있다.

이주병 팀장은 다양한 작업을 위한 인공지능 로봇의 사용과 로봇 통신 및 네비게이션을 위한 ARC(AI, Robotics, Cloud)시스템의 개발에 대해 설명하였다. 로봇들은 전용 수직 경로를 가지고 있으며 네이버의 클라우드 플랫폼에 연결되어 있어, 건물 내에서 효율적이고 지능적인 이동을 가능하게 한다. 언급된 다른 기술들로는 효율적이고 안전한 접근 제어를 위한 얼굴 인식 게이트, 조명 및 작업 공간 관리를 위한 스마트 컨트롤 시스템, 로봇 전용 엘리베이터 시스템이 있다. 네이버 1784가 미래의 가능성을 위한 공간이며 네이버의 혁신과 협업에 대한 헌신을 반영한다는 것을 강조하며 결론을 내렸다.

I The 20th Anniversary I
CONSTRUCTION VISION FORUM

건설산업비전포럼
선진화 활동

건설산업비전포럼 총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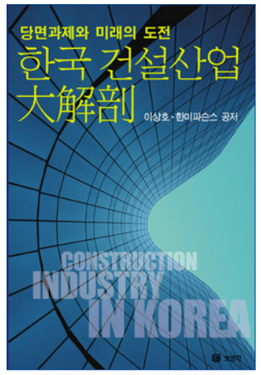
건설산업비전포럼 총서 ❶
『미국 건설산업 왜 강한가?』(2003)

이 책은 대한민국 건설산업의 위상을 되찾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세계 제1위 경쟁력을 보유한 미국 건설산업을 벤치마킹한 최초의 책이다. 책은 미국 건설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역사적 의미를 갖는 프로젝트를 선정한 "The Seven Modern Wonders"에 대한 설명에서 시작된다. 이후 미국 건설산업의 현황, 인력구조, 법과 제도에 대하여 상세히 분석 제시하고 있다. 산업의 발전에 가장 중요한 건설 프로젝트의 발주체계, R&D 활동과 혁신운동인 NCG(National Construction Goal)에 대하여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미국 건설산업이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게 된 요인과 국내 건설산업의 발전방향을 제시한다.

건설산업비전포럼 총서 ❷
『영국 건설산업의 혁신전략과 성공사례』(2003)

이 책은 다양한 혁신운동의 추진을 통해 긍정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영국 건설산업이 주는 교훈과 시사점을 다룬다. 영국의 주요 혁신운동인 공공 건설사업 조달시스템 개혁프로그램, Rethinking Construction 운동, 건설전략포럼(Strategic Forum for Construction), Foresight 프로그램 등을 분석 제시하고 있다. 영국 건설혁신운동의 벤치마킹을 통해 향후 우리 건설산업이 추진해야 할 미래지향적 혁신운동의 전략적 방향성과 실천사항을 제안하였다. 특히, "건설산업의 혁신은 몽상이 아니다"라는 주제 하에 제시한 "건설산업 혁신의 8대 조건"은 혁신의 성공을 위한 전제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건설산업비전포럼 총서 ❸
『한국 건설산업 대해부』(2003)



이 책은 대한민국 건설산업의 당면한 위기의 실상을 파악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도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건설투자 비중의 감소, 기업과 정부의 총체적인 경쟁력 상실, 후진적인 법과 제도, 부실과 부패의 문제점을 심도 있게 분석, 제시하였다. 특히 해외시장에서의 국제경쟁력, 제조업과의 생산성 비교, 공사와 기술의 국제경쟁력을 수치로 제시하여 문제의 원인과 해결방안을 도출하였다. 포럼 초대 공동대표인 김건호, 이건영은 추천의 글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국가기간산업인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국가 건설산업 혁신전략" 수립을 주장하였다.

건설산업비전포럼 총서 ❹
『미국의 설계 경쟁력 어디에서 오나』(2005)

이 책은 세계 제1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자랑하고 있는 미국의 설계 산업과 시장, 그리고 설계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일들에 대해 분석, 제시하고 있다. 미국의 건축 설계 산업의 현황, 설계업무 관련 제도에 대하여 논하고, 설계계약, 설계업무의 내용과 절차, 시방서, 설계회사의 조직과 운영, 교육과 면허, 건축사의 윤리 및 행동강령 등에 대하여 상세히 분석하고 있다. 마지막 장은 우리나라의 설계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제언으로 법과 제도 및 설계실무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방안, 교육 및 면허제도, 설계회사의 조직과 운영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건설산업비전포럼 총서 ❺

『코리안 스탠다드에서 글로벌 스탠다드로』 (2006)

이 책은 대한민국 건설산업의 후진성을 초래하고 있는 법과 제도를 미국, 영국의 제도와 비교하여 혁신방안을 제시한 책이다. 건설제도의 궁극적인 목표인 투자효율성(value for money), 최고 가치(vest value)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분석, 제시하고 있다. 또한 국제경쟁력을 갖기 위해 글로벌 스탠다드를 도입한다고 해놓고, 정작 내용은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것으로 변질시키는 정부 및 산업계의 풍토를 지적하고 있다. 마지막 장에는 우리 건설관행의 뿌리라고 생각하는 일본의 건설제도를 살펴보고, 일본이 글로벌 스탠다드 수용을 위해 얼마나 세밀하고 정교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우리 건설산업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건설산업비전포럼 총서 ❻

『삼풍사고 10년 교훈과 과제』 (2006)

200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후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과연 우리 사회의 병폐가 얼마나 해소되었으며, 과연 우리는 안전한가를 묻는 책이다. 우선, 붕괴사고의 사회적 교훈과 과제를 논한다. 사고 이후 10년의 변화와 교훈, 사고의 구조적, 제도적, 문화적 과제를 분석, 제시한다. 2장에서는 사고 원인을 재분석하고, 우리 사회의 안전 수준을 평가하고, 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방안에 대하여 논한다. 마지막 장에서는 붕괴사고로 인한 제도적 장치의 개선성과와 향후 추가 개선방안을 제시하며 안전이 정책 논리에 밀리지 않고, 안전전문가의 결정이 우선시 되고, 안전이 삶의 일부가 되는 사회를 바라며 끝을 맺는다.

건설산업비전포럼 총서 ❼

『발주자가 변하지 않고는 건설산업의 미래는 없다』 (2006)

이 책은 제목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발주자의 혁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건설산업계의 부정적인 행태는 발주자의 부정적인 행태의 거울이다”라는 경구를 제시하면서 자금 집행자, 의사 결정자, 사업 전반전 운영자, 생산과정 참여자, 게임의 법칙 제정 및 운영자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발주자가 변해야 건설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조달시스템의 혁신, 베스트 프랙티스 표준 절차화, 파트너링, 일류 발주자 전략 등 건설산업 혁신을 주도하는 영국 공공발주자의 체계적인 노력을 상세히 제시하였다. 마지막 장의 “일류 발주자와 일류 조달시스템을 위한 십계명”은 대한민국 건설산업의 총체적인 혁신방안을 제시하기에 충분하다.

건설산업비전포럼 총서 ❽

『일류 발주자가 일등 건설산업을 만든다』 (2007)

저자는 건설산업이 1등 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조선, 반도체, 철강산업처럼 정부 규제 대신 글로벌 시장경쟁의 룰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정부가 가장 큰 고객이자, 발주자요, 수요자인 우리 건설산업은 후진적이고 비효율적인 정부조달시스템에 의거 작동되며 총체적 경쟁력 상실이라는 위기를 맞고 있다. 이 책에서는 한국 정부조달시스템이 가진 구조적인 문제점을 심도 있게 분석 제시하고, 세계 각국의 정부조달 혁신운동과 비교하여 우리의 나아갈 방향을 제안하고 있다. 저자는 1등 산업이 되기 위한 키워드로 시장, 개방, 조달시스템 혁신을 제시하고 있다.

건설산업비전포럼 총서 ⑨

『일본 건설산업의 생존전략』 (2007)

일본 京都대학의 교수와 연구, 산업계의 전문가가 일본의 건설산업에 대하여 분석한 책이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법, 제도, 관행을 가진 일본의 건설산업을 심층 연구하여 한국 건설산업 발전의 밑거름을 삼고자 수행한 연구였다. 일본 건설산업의 구조와 현황, 노동시장, 법과 제도, 발주방식, 연구개발 활동에 대하여 상세히 분석, 제시하고 있다. 버블 경제 붕괴 후 일본 건설산업의 혁신을 위한 노력을 정부, 산업계, 학계 등으로 분류하여 소개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부록으로 제시된 생존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는 위기를 극복하는 일본 기업들의 다양한 방안을 실감할 수 있는 소중한 자료이다.

건설산업비전포럼 총서 ⑩

『중국 건설산업의 현황과 진출전략』 (2007)

Pax Americana에 도전하며 두 자리 수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거대한 중국 건설시장을 연구, 분석한 책자이다. 연구는 浙江대학의 한국인과 중국인 교수가 담당하였다. 이 책에서는 중국 건설산업에 대한 개괄적인 현황과 전망, 노동 시장 구조, 법과 제도 및 수주체계를 분석, 제시하였으며, 중국 건설기업과 산업의 발전전략도 기술하고 있다. 또한 거대시장 중국의 진출 위험 최소화를 위한 외국기업의 진출 환경과 한국기업의 진출 전략도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 장에서는 중국 건설산업의 국제적 특성과 위상을 논하면서 중국기업들의 해외시장 개척 동향, 국외 경영 규모, 국제경쟁력 요인도 분석, 제시하고 있다.

건설산업비전포럼 총서 ⑪

『35명의 전문가에게 건설의 길을 묻다』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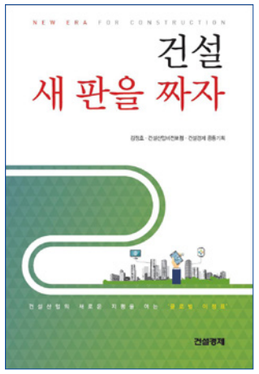
대한민국 건설산업은 경제의 쾌속성장을 이끌었고, 수많은 인프라와 주택시설을 짧은 시간 내에 대량 공급하여 산업의 발전과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다. 더욱이 외화가 부족했던 시절에 해외건설은 외화 획득의 일등공신이었다. 하지만 현재는 일감 부족, 구조조정의 실패에 따른 후유증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이에 35명의 전문가가 모여 건설산업에 대한 인식의 문제와 당면과제를 제시하고, 산업이 가진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들을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분석 제시하였으며, 한국 건설산업이 나아 갈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최대 발주자인 정부를 향해 건설산업의 중요성을 재조명하고, 국민소득 4만 불 시대를 위한 재창조 방안 모색을 주문하였다.

건설산업비전포럼 총서 ⑫

『발주자가 반드시 알아야할 턴키제도의 진실』 (2014)

미국은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 통용되는 발주제도(delivery system)인 턴키제도와 입찰 담합과 비리의 온상으로 지적되는 한국의 턴키제도를 비교, 분석한 책이다. 연구는 미국 워싱턴대학교 존 슈펠버거 외에 한국의 교수 및 전문가가 참여하였다. 책에서는 디자인빌드 발주방식의 도입배경, 제도적 특성 및 형태를 분석하고, 미국의 방식에 대해서는 2장에서 보다 상세하게 분석 제시한다. 디자인빌드가 가격경쟁입찰과 충돌문제, 설계품질 저하, 중소기업의 입찰참여 제한, 전문건설업체의 협력부족이라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3장에서는 우리나라의 디자인빌드에 대한 도입배경, 수행방식,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분석, 제시한다. 별첨으로 디자인빌드 프로젝트에 대한 성공 및 실패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제도의 장단점을 확실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건설산업비전포럼 총서 ⑬
『건설, 새판을 짜자』 (2016)



2013년 발간한 “건설의 길을 묻다”는 정부의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내용이었지만 이 책은 업계 스스로 해결해야할 문제점들을 많이 담았다. 건설산업이 일류 글로벌 산업으로 재탄생해야 할 당위성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계획과 행동강령을 제시하고 있다. 즉 건설기업의 가격, 품질, 기술의 경쟁력 확보 방안과 미래지향적이고, 창의성을 중시하며 공정 경쟁이 보장되는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논하였다. 또한 건설을 수출산업으로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정부와 업계의 노력을 조명하고, 글로벌화에 대비한 새로운 건설상품 개발 및 건설금융의 선진화 방안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이 책은 건설산업이 당면하고 있는 업역, 업종간의 협력을 도모하고, 시장의 침체를 기회로 전환시키고, 정부와 민간의 소통과 공생발전을 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역할을 바라는 저자들의 마음을 담고 있다.

건설산업비전포럼 총서 ⑭
『인텔리전트 발주자, 건설산업을 바꾼다』 (2022)

이 책은 영국 건설산업의 다양한 인텔리전트 발주자가 추진한 혁신운동이 효율성, 생산성, 성과 측면에서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으며, 그 증거와 사례에 대하여 기술한 책이다. 대표적인 혁신 추진 기관인 인프라스트럭처사업청(IPA), 영국건설기술자협회(ICE), 건설연구혁신국제위원회(CIB)를 소개하고, 발주자의 모범사례로 올림픽파크, 히드로 공항, 런던 지하철 등의 구체적인 프로젝트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 마지막 장에서는 영국이 혁신을 추진하며 발생한 장애요인과 극복사례를 기술하고, 한국 건설산업의 혁신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건설산업비전포럼 FOCUS ❶
건설산업선진화 2020

국토해양부 장관의 발의로 2008년 4월에 출범한 「건설산업선진화위원회」는 마스터플랜분과를 포함한 7개 분과와 총괄지원팀 및 국토해양부 TFT로 구성되었다. 민간전문가 60여 명과 지원팀 등 100여 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9개월간(2008.05.~2009.01.)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글로벌 스탠다드의 도입과 정착”이라는 철학으로 출발한 위원회는 9개월간의 노력의 결과를 「건설산업 선진화 비전 2020」으로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에 제출하였다. 보고서는 ①건설시스템 혁신으로 사업비 30% 절감, ②글로벌 경쟁력 제고로 해외건설수주 2000억 불 달성, ③깨끗하고 투명한 건설문화 정착이라는 혁신적인 3대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5대 전략과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건설산업선진화 비전 2020은 민간이 작성을 주도한 최초의 시도였으며, 혁신적인 방안으로 평가 되었다.

건설산업비전포럼 FOCUS ❷
국민권익위원회 업무협약

2009년 12월 15일 건설산업비전포럼 주관으로 국민권익위원회, 대한토목학회, 대한건축학회 4자간에 건설산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서가 체결되었다.
본 협약을 계기로 건설산업의 부정과 부패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공동 노력을 약속하였으며, 그 첫 번째 행사로 국민권익위원회와 포럼이 공동주최하는 “한국 건설산업의 건전성 확보와 글로벌 시장 확대 전략” 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투명성지수 개발을 위한 연구 및 부패방지에 기여한 인사에 대한 포상도 추진되었다.
이번 협약서의 체결로 포럼이 창립 이래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설산업의 투명성 제고 운동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계기가 되었다. 더욱이 부정·부패의 방지를 위한 정부기구인 국민권익위원회와 건설포럼은 물론 대한토목학회, 대한건축학회가 참여하는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이 수립, 추진될 것이라는 기대를 높였다.

건설산업비전포럼 FOCUS ❸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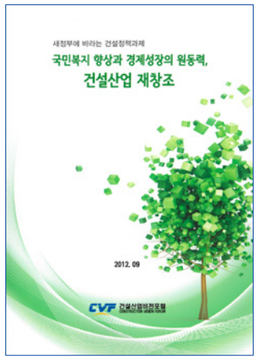
2011년 10월 18일 국토해양부 장관과 건설포럼의 이성우 공동대표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가 출범했다. 위원회는 국토부, 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엔지니어링업체, 건설노조, 문화·홍보 등 민간전문가, 건설단체 등 산관학 및 협·단체 위원 등 총 21명이 참여하였다.

위원회는 발주자의 우월적 지위 개선,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근절, 건설근로자 고용여건 개선 등에 대해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①건설문화 개선 및 이미지 제고, ②건설산업 참여주체 간 공생발전 정착, ③건설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주요 아젠다로 정례회의와 실무 위원회를 통해 안건을 논의하고,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대안을 마련하여 개선하는 것으로 하였다.

위원회는 3개 분과를 중심으로 27개의 대과제 72개의 소과제를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였다. 대표적인 방안으로는 산업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자정노력과 사회공헌 활동의 확대를 계획, 추진하였으며, 공생발전을 위해 표준 품셈 및 실적공사비의 현실화, 하도급 적정성 심사의 내실화, 부당특약 방지 및 안전사고 은폐 강요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건설산업비전포럼 FOCUS ❹

새정부에 바라는 건설정책과제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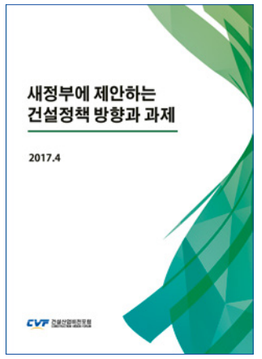


건설포럼은 2012년 대선에서 "국민복지 향상과 경제성장의 원동력, 건설산업 재창조"라는 제목의 정부정책과제를 제안하였으며, 이명박정부 출범에 발을 맞추어 "국민소득 4만 불 시대를 여는 새 정부의 건설정책"이라는 주제 하에 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한 747 전략을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747 전략"의 핵심으로 7% 경제성장과 국민소득 4만 불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건설산업 선진화를 국가전략과제로 채택해야하는 당위성을 강조하였으며, 전 세계적인 에너지·환경문제 해결에 대처하기 위한 미래 건설산업 육성, 해외건설 5대 강국 진입을 통해 세계 7대 강국 조기 진입 및 법·제도와 시스템 혁신을 통해 국민소득 4만 불 시대에 걸맞은 효율적인 인프라 구축과 주거문화 및 삶의 질 향상을 달성하기 위한 7대 정책과제와 4대 정책수단 및 7대 정책효과 제시하였다.

건설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를 정확히 분석, 제시하고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4개 부문의 20대 건설정책과제를 제시한 새 정부의 건설정책과제는 많은 부분이 박근혜정부의 정책에 반영되는 성과를 올렸다.

건설산업비전포럼 FOCUS ❺

새정부에 제안하는 건설정책과제 (2017)



건설포럼은 2017년 대선제안 발굴과제를 도출하여 "새 정부에 제안하는 건설정책 방향과 과제" 보고서를 발간하여 정부에 제안하였다.

포럼은 건설산업의 성장동력이 약화되고, 취업자 감소 및 건설기업의 성장성, 수익성 악화로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SOC의 노화가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진단하였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하락하고 있으며, 재난·재해의 증가로 안심사회 구축이 필요하다고 진단하였다.

다양한 건설관련 전문가가 참여한 본보고서에서는 지속가능한 성장, 경쟁력 있는 도시와 한반도, 안심할 수 있는 사회, 지속가능한 건설혁신 거버넌스 구축의 4개 핵심가치를 중심으로 15개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본보고서는 월드 클래스 인프라를 갖춘 초일류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건설산업이 앞장서며 국가기간산업으로 사명에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건설산업비전포럼 FOCUS ❻

2030 건설산업 비전 수립 연구

건설포럼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위탁을 받아 "2030 건설산업비전 수립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2009년 수행한 "건설산업선진화 비전 2020"의 현황과 성과를 분석하고 산업의 미래 변화에 따른 2030년 건설산업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보고서는 "글로벌 경쟁력 확보로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고부가가치 창출 산업"으로 비전을 정하고, 안전성, 공정성, 혁신성을 핵심가치로 설정하였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1)기술경쟁력 강화, 2)건설사업 수행환경 혁신, 3)인력양성체계 혁신이라는 3대 전략목표를 제시하고 9개의 전략과제와 27개의 실행과제를 제시하였다. 특히,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현황과 주요내용, 후속조치 사항, 담당주체, 실행시기, 파급효과를 상세히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본서는 도서발간, 정책제안, 산업의 미래방향을 제시하며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산업의 혁신을 추진하고 있는 건설포럼의 또 하나의 성과이다.

창립 20주년 건설산업비전포럼 2003-2023

I The 20th Anniversary I

CONSTRUCTION VISION FORUM

건설산업**비전포럼**

연혁 및 현재·역대 임원 명단

The 20th Anniversary Construction Vision Forum 2003-2023

건설산업비전포럼 연혁

2003.03.31. 건설산업비전포럼 창단식
2003.06.10. 건설산업비전포럼 창립총회
(공동대표 김건호·이건영 선출)
2003.11.19. 국내세미나 : 해외건설 활성화를 위한 대토론회

2004.01.29. 건설산업비전포럼 정기총회
(공동대표 김건호·이건영 재선임)
2004.06.25. 국제세미나 : 한국건설산업 혁신의 조건
2004.07.12. 사단법인 건설산업비전포럼 설립허가
(건설교통부 제108호)
2004.07.21. 건설산업비전포럼 설립 등기

2005.01.25. 건설산업비전포럼 정기총회
(공동대표 김건호·이건영 재선임)
2005.03.05. 영국 Constructing Excellence 와 MOU체결
2005.06.24.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10주기 추념세미나
(삼풍사고의 교훈과 건설안전의 과제)
2005.07.04.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기획재정부: 2005.07.04~2010.12.31)
2005.09.27. 국내세미나 : 8.31 부동산 대책이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2006.01.24. 건설산업비전포럼 정기총회
(공동대표 김종훈·이규방·장승필 추가 선임)
2006.06.22. 국내세미나 : 건설산업 혁신을 위한 정부의 역할과 과제

2007.01.24. 건설산업비전포럼 정기총회
(공동대표 김건호·이건영·김종훈·이규방·장승필 재선임)
2007.06.08. 국제세미나 : 일본의 버블 극복사례를 통해 본 한국건설산업의 위기탈출 전략
2007.11.08. 국내세미나 : 차기 정부가 지향해야 할 국가 건설 정책

2008.01.30. 건설산업비전포럼 정기총회
(공동대표 김건호·이건영·김종훈·이규방·장승필 재선임)
2008.02.20. 건설산업비전포럼 사업자등록
(등록번호:120-82-07055)
2008.03.25. 국내세미나 : 한국경제 과거 10년 한국건설 미래 5년 구상
2008.05.14. 건설산업선진화위원회 발족 (김종훈 위원장)
2008.09.26. 국제세미나 : 영국건설혁신 10년 성과와 한국건설산업 선진화 추진 전략

2009.01.21. 건설산업비전포럼 정기총회
(공동대표 김종훈·이규방·장승필 재선임, 이성우 선임, 김건호.이건영 고문 추대)
2009.04.22. 국내세미나 : 경제위기 극복과 신성장 동력 창출
2009.12.15. 국민권익위원회와 업무협약 체결
(건설산업분야 부패방지 및 투명성 제고에 노력)
2009.12.16. 글로벌 건설전략 세미나 : 한국 건설산업의 건전성 확보와 글로벌 시장확대 전략
(국민권익위원회 공동주최)

2010.01.27. 건설산업비전포럼 정기총회
(공동대표 김종훈·이규방·이성우 재선임, 장승필 고문 추대)
2010.03.15. 단체회원 및 참여회원제 신설
(정관 변경 국토해양부장관 승인, 건설경제과 1221호, 2010.03.15.)
2010.04.28. 건설산업의 발전적 변화와 도약을 위한 세미나 : 환경변화에 따른 건설산업의 전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공동주최
2010.11.04. 건설산업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제세미나
(대한토목학회, 대한건축학회 공동주최)

2011.01.19. 건설산업비전포럼 정기총회
(공동대표 김종훈·이성우 재선임, 정희용·김현 선임, 이규방 고문 추대)
2011.03.31. 지정기부금단체 재지정
(기획재정부: 2011.01.01~2016.12.31)
2011.04.27 국내세미나 : 건설시장의 미래 전망과 신성장 기회 모색
2011.10.20 국제세미나 : 글로벌 건설시장 전망과 진출확대 전략
2011.10.17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 출범 (이성우 위원장)

2012.01.27. 건설산업비전포럼 정기총회
(공동대표 김종훈·이성우·김현 재선임, 정수현 선임)
2012.05.23. 국내세미나 : 한건설산업의 도약과 혁신을 위한 과제
(한국건설관리학회 공동주최)
2012.10.31. 국내세미나 : 새정부에 바라는 건설정책과제

2013.01.11.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건설정책과제 건의 : 일자리 창출과 성장을 위한 건설정책 방향 및 과제
2013.01.23. 건설산업비전포럼 정기총회
(공동대표 김종훈·이성우·김현·정수현 재선임)
2013.05.22. 창립 10주년 기념식 및 특별강연
2013.06.13. 창립 10주년 기념 국제세미나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건설산업의 역할
2013.10.29. 국내세미나 : 건설산업의 생존 전략

2014.01.22. 건설산업비전포럼 정기총회
(공동대표 김종훈·김현 재선임, 권도엽·김정호 선임)
2014.06.12. 국제세미나 : 통일 한반도 국토개발 비전과 전략
(딜로이트컨설팅 공동주최)
2014.10.29. 성수대교 붕괴 20년 추념세미나 : 한국호는 안전한가? 공공안전을 위한 건설산업의 역할과 과제

2015.01.21. 건설산업비전포럼 정기총회
(공동대표 김종훈·김현·권도엽·김정호 재선임)
2015.04.21. 부대표 신설, 임원 구성변경
(정관 변경 국토교통부장관 승인, 건설경제과 2456호, 2015.04.21)
2015.05.27. 안전한 선진사회 구현을 위한 국민 대토론회 : 삼풍 붕괴사고 20년, 우리사회의 안전 재조명
2015.10.29. 국제세미나 : Smart City& Infrastructure – 미래의 국부창출, 스마트시티로 연다
(제주특별자치도, 포스코ICT 공동주최)

2016.01.27. 건설산업비전포럼 정기총회
(공동대표 김종훈·김현·권도엽 재선임, 이현수 선임)
2016.05.25. 국내세미나 : 국내 개발사업의 패러다임을 바꾸자
2016.09.28. '건설, 새 판을 짜자' 출간 기념 토론회
2016.10.27. 국제세미나 : 기후변화에 따른 건설산업의 도전과 기회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공동주최)

2017.01.25. 건설산업비전포럼 정기총회
(공동대표 김종훈·권도엽·이현수 재선임, 이상호 선임)
2017.03.31. 지정기부금단체 재지정
(기획재정부:2017.1.1.~2022.12.31.)
2017.05.18. 대한건설협회와 공동협력 협약체결
2017.05.18. 국내세미나 : 글로벌 M&A를 통한 해외건설 경쟁력 강화전략
2017.10.17. 국제세미나 : 스마트시티와 제4차 산업혁명 – 인류가 누릴 수 있는 스마트시티의 혜택
(매일경제 공동주최)

2018.01.24. 건설산업비전포럼 정기총회
(공동대표 이현수·이상호 재선임, 한찬건 선임)
2018.05.29. 국내세미나 : 건설 일자리 창출, 어떻게 할 것인가?
2018.11.28. 글로벌 전문가 초청 토론회 : A New Stage of Construction in Japan : i-Construction

2019.01.30. 건설산업비전포럼 정기총회
(공동대표 이현수·이상호·한찬건 재선임)
2019.04.26. Constructing Excellence와 한미글로벌-건설산업비전포럼(HG-CVF) MOU 체결
2019.05.29. 국내세미나 : 글로벌 건설시장, 차별화된 사업모델로 승부하자
2019.09.25. 국제세미나 : The Direction of Digital Innovation for Future Construction
(Constructing Excellence 공동주최)

2020.01.30. 건설산업비전포럼 정기총회
(공동대표 이현수·이상호 재선임, 박태원 선임)
2020.08.27. 제1차 정부주택정책토론회 : 정부 주택정책의 대안을 제시한다
2020.12.11. 건설산업 미래 비전 수립 심포지엄 : 건설산업의 미래비전과 발전전략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공동주최)

2021.01.27. 건설산업비전포럼 정기총회
(공동대표 이현수 재선임, 강호인·김선규 선임)
2021.02.26. 제2차 정부주택정책토론회 : 정부 주택정책 이렇게 가야한다
2021.05.26. 국내세미나 : 바이든 정부의 미국 건설정책과 우리의 진출방안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공동주최)
2021.11.25. 국제세미나 : 발주자 혁신이 건설산업 혁신의 출발점이다
(주한영국대사관 공동주최)

2022.01.26. 건설산업비전포럼 정기총회
(공동대표 강호인·김선규·이현수 재선임)
2022.05.25. 국내 건설기업의 미국시장 진출 방안세미나 : 미국의 건설 프로젝트 입찰절차와 건설기업의 대응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공동주최)
2022.11.23. 국제세미나 : 영국의 원자력 발전현황과 한·영 협력방안
(주한영국대사관 공동주최)

2023.02.08. 건설산업비전포럼 정기총회
(공동대표 강호인·김선규·이현수 재선임)
2023.06.30. 지정기부금단체 재지정
(기획재정부:2023.1.1.~2028.12.31.)

현재·역대 임원 명단

2023년 이사진

직 위	성 명	소 속
공동대표	강호인	제3대 국토교통부 장관
	김선규	호반그룹 회장
	이현수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부대표	이복남	서울대 건설환경종합연구소 특임연구위원
이 사	권도엽	제2대 국토해양부 장관
	김경주	한국건설관리학회 회장
	김병석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원장
	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김승기	대한전문건설협회 상임부회장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회장
	김종훈	한미글로벌 회장
	김한수	세종대학교 교수
	김형렬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이사장
	박승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원장
	박주봉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손성연	씨앤씨종합건설 사장
	송명기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회장
	안홍섭	한국건설안전학회 회장
	유정호	광운대학교 교수
	유 현	남양건설 전무
	윤영구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회장
	이강훈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사장
	이충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원장
	이해경	다산컨설턴트 회장
	조동근	명지대학교 명예교수
	조훈희	고려대학교 교수
	천길주	대한중재인협회 부회장
	최창식	대한건축학회 회장
	한성희	포스코건설 사장
	허준행	대한토목학회 회장
	황주환	동일기술공사 사장
감 사	고영회	성창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2년 이사진

직 위	성 명	소 속
공동대표	강호인	제3대 국토교통부 장관
	김선규	호반그룹 회장
	이현수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부대표	이복남	서울대 건설환경종합연구소 교수
이 사	강부성	대한건축학회 회장
	권도엽	제2대 국토해양부 장관
	권혁진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
	김경주	한국건설관리학회 회장
	김병석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원장
	김세용	한국도시설계학회 회장
	김승기	대한전문건설협회 상임부회장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회장
	김연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회장
	김정호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회장
	김종훈	한미글로벌 회장
	김철영	대한토목학회 회장
	김한수	세종대학교 교수
	박상우	신남방 경제 연구회 대표
	박승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원장
	박주봉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손성연	씨앤씨종합건설 사장
	안홍섭	한국건설안전학회 회장
	유병권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원장
	유정호	광운대학교 교수
	이강훈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사장
	이해경	다산컨설턴트 회장
	정병윤	한국리츠협회 회장
	조동근	명지대학교 명예교수
	천길주	대한중재인협회 부회장
	한성희	포스코건설 사장
감 사	고영회	성창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1년 이사진

직 위	성 명	소 속
공동대표	강호인	제3대 국토교통부 장관
	김선규	호반그룹 회장
	이현수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부대표	이복남	서울대학교 건설환경종합연구소 교수
이 사	강부성	대한건축학회 회장
	권도엽	제2대 국토해양부 장관
	권혁진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
	김세용	SH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회장
	김연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회장
	김용식	현대건설 건축사업본부장
	김정호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회장
	김종훈	한미글로벌 회장
	김한수	세종대학교 교수
	박상우	고려대학교 교수
	박주봉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손성연	씨앤씨종합건설 사장
	유병권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원장
	윤왕로	대한전문건설협회 상임부회장
	이명노	건설공제조합 전무이사
	이승호	대한토목학회 회장
	이재영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원장
	이해경	다산컨설턴트 회장
	정병윤	대한건설협회 상근부회장
	정영수	한국건설관리학회 회장
	조동근	명지대학교 명예교수
	천길주	대한중재인협회 부회장
	한성희	포스코건설 사장
	한승헌	연세대학교 교수
	허경구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사장
감 사	고영회	성창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0년 이사진

직 위	성 명	소 속
공동대표	이현수	서울대학교 교수, 대한건축학회 회장
	이상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원장
	박태원	두산건설 부회장
부대표	이복남	서울대학교 건설환경종합연구소 교수
이 사	권도엽	제2대 국토해양부 장관
	김세용	SH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김연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회장
	김용식	현대건설 건축사업본부장
	김정호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회장
	김종훈	한미글로벌 회장
	김한수	세종대학교 교수
	박상우	고려대학교 교수
	박주봉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변창흠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손성연	씨앤씨종합건설 사장
	유병권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원장
	윤왕로	대한전문건설협회 상임부회장
	이명노	건설공제조합 전무이사
	이상기	GS건설 인프라부문 대표
	이상훈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부원장
	이성해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
	이재영	KTB투자증권 고문
	이해경	다산컨설턴트 회장
	정병윤	대한건설협회 상근부회장
	정영수	한국건설관리학회 회장
	조동근	명지대학교 교수
	천길주	대한중재인협회 부회장
	한만엽	대한토목학회 회장
	한성희	포스코건설 사장
	한승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원장
감 사	고영회	성창 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19년 이사진

직 위	성 명	소 속
공동대표	이현수	서울대학교 교수, 대한건축학회 회장
	이상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원장
	한찬건	포스코건설 상임고문
부대표	이복남	서울대학교 건설환경종합연구소 교수
이 사	권도엽	제2대 국토해양부 장관
	김명호	한일개발 사장
	김용수	한국건설관리학회 회장
	김정중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회장
	김종훈	한미글로벌 회장
	김한수	세종대학교 교수
	도상익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회장
	박상우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주봉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박철휘	한국건설경영협회 상근부회장
	박태원	두산건설 부회장
	서명교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원장
	손성연	씨앤씨종합건설 사장
	윤왕로	대한전문건설협회 상임부회장
	이명노	건설공제조합 전무이사
	이상기	GS건설 인프라부문 대표

	이은경	법무법인 산지 대표변호사
	이재영	KTB투자증권 고문
	이종세	대한토목학회 회장
	이해경	다산컨설턴트 회장
	정경훈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
	정병윤	대한건설협회 상근부회장
	조동근	명지대학교 교수
	천길주	대한중재인협회 부회장
	한승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원장
감 사	고영회	성창 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18년 이사진

직 위	성 명	소 속
공동대표	이현수	서울대학교 교수
	이상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원장
	한찬건	포스코건설 사장
부대표	이복남	서울대학교 건설환경종합연구소 교수
이 사	권도엽	제2대 국토해양부 장관
	김명호	한일개발 사장
	김용수	한국건설관리학회 회장
	김일평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
	김정중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회장
	김종훈	한미글로벌 회장
	김한수	세종대학교 교수
	김홍택	대한토목학회 회장
	도상익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회장
	박상우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주봉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박태원	두산건설 부회장
	서명교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원장
	손성연	씨앤씨종합건설 사장
	이명노	건설공제조합 전무이사
	이은경	법무법인 산지 대표변호사
	이재영	KTB투자증권 고문
	이해경	다산컨설턴트 회장
	정병윤	대한건설협회 상근부회장
	정수현	전)현대건설 사장
	조동근	명지대학교 교수
	천길주	대한중재인협회 부회장
	추문석	주식회사 삼호 사장
	하기주	대한건축학회 회장
	허명수	GS건설 부회장
감 사	고영회	성창 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17년 이사진

직 위	성 명	소 속
공동대표	김종훈	한미글로벌 회장
	권도엽	제2대 국토해양부 장관
	이현수	서울대학교 교수
	이상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원장
부대표	이복남	서울대학교 건설환경종합연구소 교수
이 사	김동수	두산건설 사장
	김정중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회장
	김정호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김 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변호사
	김형렬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
	남궁은	명지대학교 교수
	도상익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회장
	박영석	대한토목학회 회장
	박상우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서명교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원장
	손성연	씨앤씨종합건설 사장
	윤영구	(주)바우컨설탄트 회장
	이성우	국민대학교 교수
	이은경	법무법인 산지 대표변호사
	전재열	한국건설관리학회 회장
	정내삼	대한건설협회 상근부회장
	정수현	현대건설 사장
	조동근	명지대학교 교수
	천길주	대한중재인협회 부회장
	하기주	대한건축학회 회장
	한만희	서울시립대학교 국제도시과학대학원 원장
	한찬건	포스코건설 사장
	허명수	GS건설 부회장
감 사	고영회	성창 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16년 이사진

직 위	성 명	소 속
공동대표	김종훈	한미글로벌 회장
	김 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변호사
	권도엽	제2대 국토해양부 장관
	이현수	서울대학교 교수
부대표	이복남	서울대학교 건설환경종합연구소 교수
이 사	구자명	대한전문건설협회 상임부회장
	김광우	대한건축학회 회장
	김동수	대림산업 사장
	김정중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회장
	김정호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남궁은	명지대학교 교수
	노진명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회장
	박상우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원장
	손성연	씨앤씨종합건설 사장
	윤영구	(주)바우컨설탄트 회장
	이상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원장
	이성우	대한토목학회 회장
	이은경	법무법인 산지 대표변호사
	전재열	한국건설관리학회 회장
	정내삼	대한건설협회 상근부회장
	정수현	현대건설 사장
	조동근	명지대학교 교수
	천길주	(주)삼표 사장
	허명수	GS건설 부회장
감 사	고영회	성창 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15년 이사진

직 위	성 명	소 속
공동대표	김종훈	한미글로벌 회장
	김 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변호사
	권도엽	제2대 국토해양부 장관
	김정호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부대표	이복남	서울대학교 건설환경종합연구소 교수
이 사	강인석	한국건설관리학회 회장
	강현정	울트라건설 사장
	김광우	대한건축학회 회장
	김교식	아시아신탁 회장
	김동수	대림산업 사장
	김문겸	대한토목학회 회장
	김선덕	대한주택보증 사장
	남궁은	명지대학교 교수
	노진명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회장
	손성연	씨앤씨종합건설 사장
	윤영구	(주)한양 부회장
	이성우	국민대학교 교수
	이은경	법무법인 산지 대표변호사
	이현수	서울대학교 교수
	정내삼	대한건설협회 상근부회장
	정수현	현대건설 사장
	조동근	명지대학교 교수
	천길주	(주)삼표 사장
	최재덕	해외건설협회 회장
	허명수	GS건설 부회장
감 사	고영회	성창 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14년 이사진

직 위	성 명	소 속
공동대표	김종훈	한미글로벌 회장
	김 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변호사
	권도엽	제2대 국토해양부 장관
	김정호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이 사	강인석	한국건설관리학회 회장
	강현정	울트라건설 사장
	김선규	대한주택보증 사장
	김연태	한국건설감리협회 회장
	김 윤	대림산업 부회장
	남궁은	명지대학교 교수
	박상규	대한건설협회 상근부회장
	서치호	대한건축학회 회장
	성낙준	인천재능대학교 교수
	손성연	씨앤씨종합건설 사장
	심명필	대한토목학회 회장
	윤영구	(주)한양 사장
	이복남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이성우	국민대학교 교수
	이순병	동부건설 부회장
	이현수	서울대학교 교수
	정수현	현대건설 사장
	조동근	명지대학교 교수
	천길주	(주)삼표 사장
	최재덕	해외건설협회 회장
	허명수	GS건설 부회장
감 사	고영회	성창 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13년 이사진

직 위	성 명	소 속
공동대표	이성우	국민대학교 교수
	김종훈	한미글로벌 회장
	정수현	현대건설 사장
	김 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변호사
이 사	강현정	울트라건설 사장
	권도엽	제2대 국토해양부 장관
	김선규	대한주택보증 사장
	김연태	한국건설감리협회 회장
	김예상	한국건설관리학회 회장
	김정호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김 윤	대림산업 부회장
	박민규	건설감리공제조합 이사장
	박상규	대한건설협회 상근부회장
	서치호	대한건축학회 회장

	손성연	씨앤씨종합건설 사장
	심종성	대한토목학회 회장
	윤영구	(주)한양 사장
	이복남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이순병	동부건설 부회장
	이현수	서울대학교 교수
	전경수	서울대학교 교수
	정동화	포스코건설 부회장
	조동근	명지대학교 교수
	천길주	(주)삼표 사장
	최재덕	해외건설협회 회장
	허명수	한국건설경영협회 회장
감 사	고영회	성창 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12년 이사진

직 위	성 명	소 속
공동대표	이성우	국민대학교 교수
	김종훈	한미글로벌 회장
	정수현	현대건설 사장
	김 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변호사
이 사	강현정	울트라건설 사장
	고현무	대한토목학회 회장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김선규	대한주택보증 사장
	김예상	한국건설관리학회 회장
	김종인	대림산업 부회장
	박민규	건설감리공제조합 이사장
	박상규	대한건설협회 상근부회장
	서치호	대한건축학회 회장
	손성연	씨앤씨종합건설 사장
	이복남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이순병	동부건설 부회장
	이종상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사장
	이현수	서울대학교 교수
	전경수	서울대학교 교수
	정동화	포스코건설 부회장
	조동근	명지대학교 교수
	최재덕	해외건설협회 회장
	허명수	GS건설 사장
감 사	고영회	성창 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11년 이사진

직 위	성 명	소 속
공동대표	이성우	국민대학교 총장
	김종훈	한미글로벌 회장
	정희용	청석엔지니어링 회장
	김 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변호사
이 사	강현정	울트라건설 사장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김종인	대림산업 부회장
	박민규	한국건설감리협회 회장
	손성연	씨엔씨종합건설 사장
	신웅식	신신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신혜경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 원장
	심명필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장
	심종성	한국콘크리트학회 회장
	안길원	무영종합건축 회장
	이규재	삼성건설 부사장
	이순병	동부건설 사장
	이언구	대한건축학회 회장
	이현수	서울대학교 교수
	임정순	경기대학교 건설산업대학원 교수
	전경수	대한토목학회 회장
	정동화	포스코건설 사장
	정진우	삼부토건 사장
	조동근	명지대학교 교수
	편종근	명지대학교 교수
감 사	고영회	성창 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10년 이사진

직 위	성 명	소 속
공동대표	이규방	전)피닉스 AMC 대표이사
	김종훈	한미글로벌 회장
	이성우	국민대학교 총장
이사	김진균	서울대학교 교수
	신웅식	신신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심명필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장
	안길원	무영종합건축 회장
	오선교	선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사장
	이규재	삼성건설 부사장
	이순병	동부건설 사장
	이언구	대한건축학회 회장
	이재춘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원장
	이현수	서울대학교 교수
	임정순	경기대학교 부총장
	전경수	대한토목학회 회장
	정영수	한국콘크리트학회 회장, 중앙대학교 교수
	정진우	삼부토건 고문
	정희용	(주)청석엔지니어링 회장
	조동근	명지대학교 교수
	편종근	명지대학교 교수
감 사	김 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2009년 이사진

직 위	성 명	소 속
공동대표	장승필	인천대학교 석좌교수
	이성우	국민대학교 총장
	이규방	피닉스 AMC 대표이사
	김종훈	한미파슨스 회장
이 사	김진균	대한건축학회 회장, 서울대학교 교수
	김창세	전)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원장
	신웅식	신신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심명필	한국수자원학회 회장
	안길원	무영종합건축 회장
	오선교	한국건설감리협회 회장
	유웅석	SK건설 부회장
	이규재	삼성물산 부사장
	이종수	현대건설 사장
	이춘희	새만금 군산 경제자유구역청 청장
	이현수	서울대학교 교수
	임정순	경기대학교 부총장
	정낙형	부산시 정무부시장
	정영수	한국콘크리트학회 회장
	정진우	삼부토건 사장
	정희용	(주)청석엔지니어링 회장
	조동근	명지대학교 교수
	조행래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회장
	최병선	경원대학교 교수
	편종근	대한토목학회 회장
감 사	김 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2007년 이사진

직 위	성 명	소 속
공동대표	장승필	서울대학교 교수
	김건호	제2대 건설교통부 차관
	이건영	건설부 차관
	이규방	한국토지공사 고문
	김종훈	한미파슨스 사장

이 사	김진균	대한건축학회 회장, 서울대학교 교수
	김창세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원장
	신웅식	신신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심명필	한국수자원학회 회장
	안길원	무영종합건축 회장
	오선교	한국건설감리협회 회장
	유웅석	SK건설 사장
	이규재	삼성건설 부사장
	이성우	국민대학교 총장
	이종수	현대건설 사장
	이춘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원장
	이현수	서울대학교 교수
	임정순	경기대학교 부총장
	정낙형	부산시 정무부시장
	정영수	한국콘크리트학회 회장
	정진우	삼부토건 사장
	정희용	(주)청석엔지니어링 회장
	조동근	명지대학교 교수
	조행래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회장
	최병선	경원대학교 교수
감 사	김 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변호사

2006년 이사진

직 위	성 명	소 속
공동대표	김건호	제2대 건설교통부 차관
	이건영	건설부 차관
	장승필	서울대학교 교수
	이규방	한국토지공사 고문
	김종훈	한미파슨스 사장
이 사	김진균	서울대학교 교수
	김창세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
	신웅식	신신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안길원	무영종합건축 회장
	이종수	현대건설 사장
	정낙형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원장
	정희용	(주)청석엔지니어링 회장
	최병선	국토연구원 원장
	최태희	(주)위더스 사장
감 사	김 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변호사

2003년 이사진

직 위	성 명	소 속
공동대표	김건호	제2대 건설교통부 차관
	이건영	건설부 차관
이 사	김종훈	한미파슨스 사장
	김진균	서울대학교 교수
	신웅식	신신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규방	국토연구원 원장
	이규재	삼성건설 부사장
	장승필	서울대학교 교수
	최병선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원장
	최태희	한국도로공사 부사장
감 사	김 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변호사

발행일 2023년 8월 17일
발행인 강호인·김선규·이현수
편집인·저자 건설산업비전포럼

건설산업비전포럼
CONSTRUCTION VISION FORUM

홈페이지 www.cvf.or.kr
전 화 02-3429-6497
메 일 cvf2003@hanmali.net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87길 36 (삼성동, 9층)

창립 20주년

건설산업비전포럼